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永安尉 洪柱元の 漢詩 研究



HANSUNG  
UNIVERSITY

2022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국 문 학 전 공

이 상 우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정후수

# 永安尉 洪柱元의 漢詩 研究

A study on Chinese poetry of Yeonganwi, Hong  
Juwon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국 문 학 전 공

이 상 우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정후수

## 永安尉 洪柱元の 漢詩 研究

A study on Chinese poetry of Yeonganwi, Hong  
Juwon

위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국 문 학 전 공

이 상 우

이상우의 문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임 준철 (인)

심 사 위 원 김 창룡 (인)

심 사 위 원 정 보미 (인)

심 사 위 원 신 범식 (인)

심 사 위 원 정 후수 (인)

# 국 문 초 록

## 永安尉 洪柱元の 漢詩 研究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국 문 학 전 공  
이 상 우

본 논문은 선조(宣祖)의 부마(駙馬) 중 한 사람이었던 영안위(永安尉) 홍주원(洪柱元, 1606~1672)의 생애와 한시의 특질을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 초기에 부마를 선발할 때에는 인재가 신분에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 지위가 한산하고 품계가 낮은 사람을 간택했다. 또한 부마로의 선발은 높은 지위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 정사(政事)에 참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는 유자(儒者)의 이상과 영원히 격절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부마는 안일한 삶을 살았던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자연스럽게 문화적·문학적 족적을 남긴 인물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임병양란 이후 종래의 선발 기준이 바뀌어 반드시 빼어나고 문장까지 잘 하는 인물로 선발했다. 홍주원 역시 당대를 비롯한 후대에까지 문학적 역량을 충분히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의 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마이면서도 한시에 특장(特長)을 보였으며, 평생 창작의지를 견지해 온 홍주원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적으로 작품 분석에 앞서 홍주원 한시의 문학적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그의 생애와 사승관계 및 교유관계를 살펴보았다. 생애는 부분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에 산재해 있던 기록들을 보충하여 보다 상세하게 재구했다. 사승관계는 단순히 당대인들의 기록에 의거해 단정짓지 않고, 홍주원의 스승으로 알려진 이정귀(李廷龜)와 김류(金鑾)의 작품을 비교·분석하며 그 영향 관계의 정도 및 친연성을 밝혀내고자 했다. 이어서 사승관계 외에 홍주원에게 문학적 영향을 미친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대표적인 교유인물들을 밝혔다.

다음으로 홍주원 한시의 입체적인 조망을 위해 부마로서의 공적인 측면과 시인이자 개인으로의 측면으로 나누어 작품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부마라는 신분으로 인해 의례적으로 짓게 된 양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송별시(送別詩)와 만시(挽詩)를 들었다. 먼저 송별시는 객체와의 개인적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부임(赴任)에 대한 사적인 가치평가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객관적인 정보와 의례적인 제언들로 구성했다. 그러면서도 상투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들을 적절히 취사(取捨)하여 참신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만시는 애도 대상별로 분류해 살펴보았는데, 일반적으로 흔히 보이지 않는 현달(顯達)하지 못한 인물과 여성의 만시가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홍주원을 개인의 측면에서 다룬 작품들은 자의식이나 자아에 초점을 맞춰 그의 내면이 시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의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고독이었다. 그는 고독을 내적으로 침잠시키기도 하고,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고독을 수용하는 차원의 행위라면 꽃이나 술을 매개체로 타인과 교유하며 고독에 대처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부정적 자의식의 다른 측면은 자조(自嘲)와 운명론적 관점이었다. 유자로서 발전 가능성 없이 신분에 얽매인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서 기인한 의식이다. 이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이 아닌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표출되었다. 그 양상으로 은거나 강호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술을 통해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지향에는 자신을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범부(凡夫)로 치부한 자기 비하적인 의식도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자조적

자의식의 일환으로 운명론적 관점에 기반한 작품들을 창작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현실에서의 고난을 비롯한 근심 등 불만족이 작시(作詩)의 동인이 되었다. 특히 출처나 신세, 병, 생사 등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와 같은 의식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모두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으로,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운명론적 관점이 개입된 것이다. 이는 갈등에서 잠시 벗어나 자기 위안을 얻거나, 일시적으로 정신적인 회피를 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었다. 또한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은 현실들이었다는 측면에서 무력감을 유발해 답답한 어조가 많았다. 또한 적극적인 극복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소극적이고 관조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부마이면서도 문학적 재능을 발휘해 2,000수가 넘는 한시를 남긴 홍주원의 생애와 한시의 특질을 분석하였다. 홍주원은 부마의 선발 기준이 엄격하게 바뀌게 된 시기의 인물이라는 점과 개인의 문학적 능력을 고려했을 때, 부마 중 뛰어난 인물이 없다는 선입견과 편견을 불식시키기에 부족하지 않은 인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홍주원, 부마(駙馬), 부마도위(駙馬都尉), 영안위(永安尉), 무하당(無何堂), 17세기, 의례성(儀禮性), 자의식(自意識)



# 목 차

|                                    |     |
|------------------------------------|-----|
| 제 1 장 서 론 .....                    | 1   |
| 제 1 절 연구 목적 및 연구사 검토 .....         | 1   |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서술 방향 .....          | 6   |
| 제 2 장 홍주원 한시의 문학적 배경 .....         | 10  |
| 제 1 절 생애 .....                     | 11  |
| 제 2 절 창작 양태 고찰을 통한 사승관계 규명 .....   | 26  |
| 1) 구점(口占)의 다작(多作) .....            | 28  |
| 2) 만시(挽詩)의 다작(多作) .....            | 35  |
| 3) 시어 사용의 유연성 .....                | 50  |
| 제 3 절 교유관계 .....                   | 69  |
| 제 3 장 의례적 작시의 유형과 특징 .....         | 76  |
| 제 1 절 송별시(送別詩) .....               | 79  |
| 1) 객관적 서술을 통한 사적 교유의 대체 .....      | 80  |
| 2) 부임자의 상황에 따른 수사를 통한 정형성 극복 ..... | 107 |
| 제 2 절 만시(挽詩) .....                 | 123 |
| 1) 관료 대상 .....                     | 126 |
| 2) 현달하지 못한 인물 .....                | 148 |
| 3) 여성 대상 .....                     | 166 |
| 제 4 장 자의식의 형상화와 특징 .....           | 182 |
| 제 1 절 고독의 형상화와 대처 .....            | 183 |
| 1) 고독의 내적 침잠 .....                 | 183 |
| 2) 고독의 외적 표출 .....                 | 195 |
| 3) 고독 극복의 방식 .....                 | 213 |
| 제 2 절 자조적 의식과 운명론적 관점 .....        | 230 |
| 1) 자조적 의식의 토로 .....                | 232 |

|                            |     |
|----------------------------|-----|
| 2) 운명론적 의식을 통한 현실 자각 ..... | 247 |
| 제 5 장 결 론 .....            | 258 |
| 참 고 문 헌 .....              | 264 |
| 부        록 .....           | 273 |
| ABSTRACT .....             | 276 |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 목적 및 연구사 검토

본고는 17세기 초·중반 선조(宣祖)의 부마(駙馬)<sup>1)</sup> 중 한 사람이었던 영안위(永安尉) 홍주원(洪柱元, 1606~1672)의 생애와 한시의 특질을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부마는 작위는 있으나 관직은 주지 않았으며, 지위는 높았으나 정치에 대한 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에 재주와 뜻이 있어도 쓰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부마로의 간택을 폐인이 되는 것으로 여기기까지 했다.<sup>2)</sup> 또한 왕실의 일원으로서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자수(自修)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다.

신경준이 부마에 대해 언급한 “부마 중에서 자수(自修)하여 후세에 전해진 사람은 사서(史書)에서 살펴보아도 많지 않다.”<sup>3)</sup>는 진술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부마 중에서 사회·문화·문학적 측면에서 명성을 남긴 자가 드문 것은 사실이다.<sup>4)</sup> 조선으로 범위를 한정한다면, 국초에는 인재를 신분에 얽매이지 않게

- 1) 부마(駙馬)라는 용어는 원래 임금의 수레를 모는 말을 관리하는 벼슬인데, 위진(魏晉) 시대 이후 공주에게 장가간 자에게 이 벼슬을 준 것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조선 초까지 왕의 사위를 일컫는 말로 ‘부마’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 명칭은 집현전을 통해 왕도정치와 제도 정비를 추진해가던 세종 때 ‘의빈’으로 바뀌었다. 1431년(세종 13) 우의정 맹사성(孟思誠, 1360~1438)이 “부마는 황제의 사위를 뜻하기 때문에 마땅히 조선에서는 그 칭호를 쓸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434년(세종 16) 명나라 제도에 의거해 제후국이던 조선에서 국왕의 사위를 뜻하는 ‘의빈’이라는 명칭이 정해졌고, 이는 『經國大典』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까지도 ‘부마’와 ‘부마도위(駙馬都尉)’, ‘의빈’은 혼용되었으며, 『朝鮮王朝實錄』에도 ‘의빈’보다 ‘부마’라는 명칭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신재용, 『조선왕실의 백년손님』, 역사비평사, 2017, 12면 참조.
- 2)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일례로 부마 간택에 대한 불복을 보인 사례도 존재한다. 李瀼의 『星湖僿說』, 「人事門」, 「國婚揀擇」 조에 “세상에 전하기로는, 태종이 춘천부사로 있는 이숙의(李續)의 아들로 사위를 삼고자 하여 맹인 중매쟁이 지화(池和)를 보냈는데, 이숙은 그때 손님과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러면서 짚신을 짜는 데는 지푸라기가 제격이라고만 간단히 말하였으니, 신분이 서로 맞아야 좋다는 뜻이었다. 태종은 크게 노하여 이숙의 집안을 서민으로 만들고 그 아들로 하여금은 평생 장가들지 못하게 했다.” 김창룡, 『우리 이야기 문학의 재발견』, 태학사, 2012, 253면, 재인용.
- 3) 申景濬, 『旅庵遺稿』 卷4, 〈日修齋記〉, “故駙馬之能自修而可傳於後者 考諸史乘 未之多得.”, 김은정, 「東陽尉 申翊聖의 駙馬로서의 삶과 문화활동」, 『열상고전연구』 26권, 열상고전연구회, 2007, 221면, 재인용.
- 4) 부마에게 학문이 필요없다는 연산군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부마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교하기를, ‘여러 군(君)과 부마(駙馬)는 의식이 풍족하여 학문이 필요치 아

하기 위해 지위가 한산하고 품계가 낮은 사람을 간택했다. 그러나 선조조부터는 반드시 뛰어나고 빼어나며 문장까지 잘 하는 인물로 선발했다.<sup>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마의 신분으로 문학적·문화적 족적을 남긴 자가 많지 않아 그간 연구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부마에 대한 연구는 크게 지위, 관직 등 제도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고찰한 부류와<sup>6)</sup> 문학적 성과에 대한 연구로<sup>7)</sup> 구분할 수 있다. 조선에만 국한하더라도 90명의 부마가 있었다는 사실에<sup>8)</sup> 비해 역사적·문학적 연구 성과는 소략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학사의 측면에서는 전술했던 이유로 연구대상으로 삼을 만한 인물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부마 중에서 문학적 연구성과가 있는 인물인 신익성(申翊聖, 1588~1644), 윤신지(尹新之, 1582~1657), 박미(朴瀾, 1592~1645), 정재륜(鄭載崙, 1648~1723)을 제외한다면, 문집을 남긴 인물 중 중종의 부마였던 여성위(礪城尉) 송인(宋寅, 1517~1584)이 있다. 그는 인조에게 문단(文端)이

니한데, 지금 고원위(高原尉) 신항(申沆)은 굳이 옛 글을 기억하고 문사(文士)를 접하므로 상으로 준 가자를 삭제하고 제조(提調)를 해임시켜, 여러 군들과 부마로 하여금 징계하는 바가 되도록 한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10년(1504) 12월 28일.

- 5) 宋時烈, 『宋子大全』 권163, 〈永安尉洪公神道碑銘〉, “自宣廟以後則不然 必擇其傑然而秀竒然而文者 故彬彬乎皆可向也.”
- 6) 이우경, 「朝鮮初期의 駙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한충희, 「朝鮮初期 儀賓 研究」, 『조선사연구』5, 조선사연구회, 1996; 김은영, 「高麗 中期의 駙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신채용, 「영조대 탕평정국과 부마(駙馬) 간택」, 『朝鮮時代史學報』 51권, 조선시대사학회, 2009; 이미선, 「1749년(영조 25) 和緩翁主와 부마 鄭致達의 가례」, 『한국사학보』 58호, 고려사학회, 2015; 신채용, 「효종대 정국과 駙馬 간택」, 『朝鮮時代史學報』 90권, 조선시대사학회, 2019; 장현국, 「고려와 조선시대 부마 비교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7) 김은정, 「樂全堂 申翊聖의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이성민, 「汾西 朴瀾의 〈西京感述〉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25권, 열상고전연구회, 2007; 김은정, 「東陽尉 申翊聖의 駙馬로서의 삶과 문화활동」, 『열상고전연구』 26권, 열상고전연구회, 2007; 이강옥, 「일상의 경험을 통한 일화의 형성과 그 활용: 정재륜(鄭載崙)의 공사견문록(公私見聞錄)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5권, 국문학회, 2007; 김은정, 「宣祖와 駙馬의 시문수창 연구」, 『열상고전연구』 28권, 열상고전연구회, 2008; 이성민, 「汾西 朴瀾 文學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은정, 「玄洲 尹新之의 생애와 시문학 연구」, 『韓國漢詩研究』 17권, 한국한시학회, 2009; 김기림, 「『공사견문록』의 여성유형과 여성생활사 측면에서 본 의의」, 『東洋古典研究』 48권, 동양고전학회, 2012; 신상필, 「정재륜(鄭載崙)의 『감이록(感異錄)』을 통해 본 조선후기 필기의 전개 양상과 새로운 지표(들)」, 『코기토(Cogito)』 80권,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박현경, 「孝宗의 駙馬 鄭載崙(1648~1723)의 『公私見聞錄』 편찬과 그 의미」,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8) 신채용, 『조선왕실의 백년손님』, 역사비평사, 2017, 304-311면, 〈조선왕조 공주옹주와 부마 명단〉을 참조하였다.

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시도 잘 지었으나 서예에 가려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sup>9)</sup>는 언급으로 보아 문학적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부인 송질(宋軾, 1454~1520)과 외조부인 남곤(南袞, 1471~1527)이 모두 영의정을 역임했으며, 이를 통해 어릴 적부터 선비들과 교유하며 학문을 논했다. 18세 때인 1534년에는 종친회가 주관하여 중종도 참석한 연회에서 지은 시가 2등으로 뽑혀 품계가 가자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의 유고인 『이암유고(頤菴遺稿)』는 조선의 부마들 중 최초로 간행된 문집이기도 하다.<sup>10)</sup>

현재 조선시대 부마로 문집을 남긴 인물들은 위에서 언급한 송인, 신익성, 윤신지, 박미와 홍주원까지 총 5명이다.<sup>11)</sup> 90명 중 5명이라는 낮은 비율은 부마들이 물질적·경제적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예에 힘쓰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문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낸 부마가 드물어 그간 문학사에서도 언급이 소략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것이 이들이 남긴 문학적 성과를 등한시 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부마들에 대한 공적인 기록이나 여타 문인들에 의해 산재된 기록들을 제외하고, 부마가 직접 지은 사적(私的)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문학사의 입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개별 작가들에 대한 작가론들의 집적이라는 토대 위에 거시적 전망의 획득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sup>12)</sup> 일정 부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마들은 왕실의 일원으로서 사대부들의 문화적·문학적 향유의 공간의 중심이었던 궁궐에서 지속적이며 폭넓은 교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국가의 문화와 문학을 선도하는 인물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문인으로서의 이점이 아닐 수 없다. 부마들은 시풍이나 사조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있었던 것이다. 특히 선조 연간의 문예의 융성함은 주지하듯 목릉성세라고 칭해질 정도였으며, 홍주원은 이 목릉성세의 끝자락과 양적·질적으로도 풍부한 자산을 남긴 18세기 문학으로

9) 『인조실록』 13년(1635) 8월 1일, <정탁에게 문간을, 송인에게 문단이란 시호를 내리다> 참조.

10) 이상 송인에 대한 내용은 신채용, 위의 책, 119~130면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11) 이는 『한국문집총간』 기준임을 밝힌다.

12) 정민, 「167세기 學唐風의 性格과 그 風情」, 『韓國漢文學研究』 19권, 韓國漢文學會, 1996, 222면 참조.

이행되는 과정인 17세기 초중반을 살아갔다.

홍주원의 한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아간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전 시기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변화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송열의 연구는 조선 초기부터 16세기 후반 소위 삼당파(三唐派)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시풍의 변화 양상을 면밀하게 살펴봤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sup>13)</sup> 특정 시기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 학당(學唐)과 학송(學宋)으로 양분한 것은 통시적 차원에서의 접근에서는 유의미한 방식이지만, 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석적이며 복합적인 평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먼저 조선초부터 성종 때까지는 고려조로부터 지속되어 온 송시풍의 영향으로 인해 학당(學唐)에 관심을 기울인 몇몇 시인을 제외하곤 전조(前朝)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나갔다. 세종 이전까지 국가의 기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 속에서 미처 문학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져 오던 시풍을 변혁하려는 노력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시선집 및 두시 주석서의 간행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졌고, 학두(學杜)의 전통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조선이 안정기에 접어든 15세기 무렵에는 소식(蘇軾) 일색에서 벗어나 다양한 송시를 접하게 된다. 15세기 후반 무렵에는 황정견(黃庭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며, 17세기 초반까지 그 열기는 지속되었다. 이러한 강서시파의 영향력은 16세기를 대표하는 시인인 박은(朴闇), 이행(李荇), 박상(朴祥), 정사룡(鄭士龍), 노수신(盧守愼), 황정욱(黃廷彧), 최립(崔立) 등 대부분 그 영향권에 있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sup>15)</sup>

홍주원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16·7세기 학당풍의 전개에 대해 정민은 네 단계로 설정하여 이해한 바 있다. 1단계는 강서시풍의 무게 중심에서 벗어나, 서서히 당시풍의 매력에 눈을 떠 가던 시기이다. 2단계는 삼당파 시인이 등장한 때로, 절구시의 비중이 전대에 비해 괄목할 만큼 커졌으며 남조

13) 전송열, 『朝鮮 前期 漢詩史 研究』, 이회문화사, 2001.

14) 전송열, 위의 책, 참조.

15) 이종묵, 「16-7세기 漢詩史 연구: 詩風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3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 참조.

풍(南朝風)의 악부민가(樂府民歌)나 제화시(題畫詩)에 힘을 쏟았고, 염정풍의 섬세하고 염려한 시풍을 추구했다. 3단계는 성당풍(盛唐風)의 추구를 주요 노선으로 제기하여 형식적으로는 칠언절구가 각광을 받았으며, 고시장편(古詩長篇)에의 선호를 낳았다. 제재면에서도 의고풍의 모방에서 벗어나 당대의 절고를 찌핀한 사실의 언어로 담아내고, 현실에 뿌리를 둔 서정을 추구하되 절제되고 여과된 시적 언어로 표출하는데 성공했다. 4단계는 정두경(鄭斗卿, 1597~1673)으로 대표되는 의고풍에 강한 집착을 보인 시기이다. 이 다음 시기에 이르러 사실적 묘사와 진솔한 생활 감정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던 것은 지나친 의고주의에 치우쳐 버린 4단계 당시풍에 대한 반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16)</sup>

17세기를 학당풍의 경향으로 보는 연구의 대상들은 대체로 사대부들이다. 그러나 17세기는 한시의 향유 계층 확대라는 측면에서 18세기 한시의 폭발적인 양적·질적 증가의 전조가 있던 시기로서도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김성기는 17세기는 왜란과 호란을 체험한 후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와 더불어 시의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시작에 있어 표현의 방법보다 내용의 진실성을 중시하고 재도적(載道的) 성격보다 일상 속에 감지되는 천기(天機), 자연(自然)을 중시하자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종래의 성리학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시 세계가 확대되고 다양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한시의 향유계층이 사대부로부터 위향인에게까지 확대됨과 동시에 여류의 경우에도 활발하지는 않지만 점차 확장의 움직임을 보이던 시기로 보았다.<sup>17)</sup>

그간 17세기는 전대인 목릉성세에 비해 문학사적 암흑기 내지는 18세기로의 과도기 정도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어 한시사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이 시기 출현한 작가와 작품의 수량으로만 보더라도 재평가할 필요성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sup>18)</sup> 18세기 한시의 혁신적 변화가 17세기 한시에 대한 극복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sup>19)</sup> 17세기는 과도기로서의 성격이 아닌 변

16) 정민, 앞의 논문, 참조.

17) 김성기, 「17세기 韓國漢詩史의 構圖」, 『韓國漢詩研究』 14권, 한국한시학회, 2006, 참조. 이외 학당풍에 대해서는 안병학, 「三唐派 詩世界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참조.

18) 안대희, 「漢詩史 서술의 제문제」, 『韓國漢文學研究』 64권, 韓國漢文學會, 2016, 40면 참조.

19) 안대희, 「18세기 漢詩史 序說」, 『韓國漢詩研究』 6권, 태학사, 1998, 222면.



화의 시작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sup>20)</sup> 이러한 자장 안에서 홍주원이 문인으로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으며, 시적으로 어떤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 시기 개별 작가 연구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근래 들어 홍주원의 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일부 제출되고 있다.<sup>21)</sup> 그러나 지속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홍주원의 시를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의 한시에 대한 전모를 고찰하고,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그가 문학사에서 외면받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가 한 명의 문인으로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어느 정도 밝혀진 바,<sup>22)</sup> 당대 및 후대에서 문학적 역량을 인정받고 있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홍주원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지만, 그의 작품을 살펴보는 작업은 문인으로서 부마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작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특히 종래의 선발 기준이 바뀐 선조대의 부마였다는 점에서 부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들의 문학적 역량을 평가하는 시발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서술 방향

홍주원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그가 남긴 한시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부마이자 문인으로서의 면

20) 이 시기 한시사의 흐름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내용별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강명관, 「16세기 말 17세기 초 擬古文派의 수용과 秦漢古文派의 성립」, 『韓國漢文學研究』 18권, 한국한문학회, 1995; 안병학, 「朝鮮中期 唐詩風과 詩論의 展開 樣相」, 『한국문학연구』 창간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0; 신승훈, 「前後七子の 受用과 朝鮮中期 文苑의 反響」, 『동양한문학연구』 17집, 동양한문학회, 2002; 안나미, 「17세기 전후 韓中 문학교류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1) 拙稿, 「무하당 홍주원의 『燕行錄』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구지현, 「無何堂 洪柱元의 중국 사행시 전개 양상」, 『열상고전연구』 60권, 열상고전연구회, 2017; 윤호진, 「無何堂 洪柱元의 시세계」, 『남명학연구』 제57집, 남명학연구소, 2017; 拙稿, 「연행록 속 교유시의 양상과 의미-李時萬과 洪柱元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제40집, 한성어문학회, 2019, 拙稿, 「無何堂 洪柱元의 漢詩 일고찰-晩年の 詩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76집, 동양고전학회, 2019가 있으며, 문집 번역본으로 윤호진 역, 『무하당시문집』, 민속원, 2017이 있다.

22) 拙稿, 「無何堂 洪柱元의 漢詩 일고찰-晩年の 詩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76집, 동양고전학회, 2019, 12-13면 참조.



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의 한시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부마에 대한 인식의 재평가와 문학적 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절에서 언급한 문제의식들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홍주원 한시의 본령(本領)을 밝혀내는 작업의 일환으로 생애와 함께 사승관계 및 교유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홍주원의 생애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통해 일정 부분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었거나, 일부 자료에 국한해 서술되었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기존의 논의들에 더해 산재해 있는 생애 자료들을 보충하고자 한다. 작품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작가의 삶을 상세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췌언이 필요치 않다. 그의 삶의 궤적이 곧 작품으로 표현된 것이고, 작품에 그의 삶의 흔적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홍주원의 생애를 상세히 정리한 후에는 사승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홍주원은 한문사대가 중 한 명이면서 외조부였던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 1564~1635)와 북저(北渚) 김류(金鑾, 1571~1648)에게 유년시절 수학했다는 단편적인 기록들이 산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는 수학 시기나 기간, 내용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내기 어렵다. 더욱이 홍주원의 문집인 『무하당유고(無何堂遺稿)』에서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은 1623년 작으로, 부마가 된 이후의 것이다. 즉, 학시기(學詩期)라고 할 수 있는 18세 이전의 작품을 통해 정도되었던 문학론이나, 추구하고자 했던 시풍, 스승들로부터의 영향 등을 직접적으로 도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정귀와 김류 작품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영향 관계 및 친연성을 간접적으로 밝혀 홍주원 한시의 문학적 배경을 규명하는 근거로 삼을 것이다.

이어서 교유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사승관계는 부마가 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무하당유고』에는 홀로 읊은 시보다 증시(贈詩)나 차운시 등 타인과의 관계가 전제된 형태의 시들이 대다수로, 문인들 간의 지속적인 시문 교류는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교유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학시기 이후 홍주원에게 문학적 영향을 끼친 요인 중 하나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3장에서는 홍주원의 부마라는 신분에 초점을 맞춰 부마로서 지은 시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1623년 부마로 간택된 이후, 평생을 왕실의 일원으로서 살아간 홍주원에게 부마는 그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집 내에 실린 모든 시는 그가 부마가 된 이후에 지은 것이라는 점을 비롯해, 한미했던 가문의 일반 유생(儒生)에서 신분이 수직상승한 변동폭은 일생을 변화시킨 전환점으로 보기에도 충분하다. 또한 홍주원이라는 인물의 입체적인 조망을 위한 한 단면으로서 부마라는 신분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3장과 대비되는 또 다른 단면으로서 홍주원이라는 ‘개인’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홍주원을 한 사람의 ‘시인’이자 ‘개인’의 측면에서 자의식이나 자아가 표출된 작품에 주목해 그의 내면이 시를 통해 어떻게 형상화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은 결론으로, 이상의 논의들을 요약 및 정리하고 향후 후속 연구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끝맺고자 한다.

한편 『무하당유고』는 현재 규장각 소장본(7책)과 연세대학교 소장본(6책),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소장본(1·2책만 있는 결질(缺帙))의 세 종이 존재한다. 이 세 본은 현재로서는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연세대본과 국민대본이 후대의 전사본임은 분명하지만, 이들 필사의 저본이 된 원고가 현전하는 규장각본보다 후대의 것이라고 볼 근거 역시 없기 때문이다. 연세대본과 국민대본은 작품 제목이나 필사의 형태로 보아 같은 계열의 이본임은 밝혀졌다. 기존 고전번역원의 해제에서는 연세대본을 규장각본보다 더 선본(善本)이라고 하였으나, 작품 내용과 필사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규장각본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연세대본의 교열자가 지적한 오탈자가 규장각본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작품의 제목이나 공격의 처리 등의 부분에서 규장각본이 좀 더 완전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sup>23)</sup>

위와 같은 장진엽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여 본고에서는 『무하당유고』 규장각본을 연구의 기본 텍스트로 정하되 규장각본에 누락된 〈挽睦江陵〉, 〈曹參判夫人挽〉, 〈贈兒行〉, 〈祭先墓文〉 등은 연세대본을 참고했다. 장진엽이 소장

23) 『무하당유고』 판본에 대한 내용은 장진엽, 『『무하당유고(無何堂遺稿)』 이본의 비교 검토』, 『열상고전연구』 60권, 열상고전연구회, 2017, 참조.

처에서 제공한 각 본의 서지사항을 정리한 표를 인용한다.

|      | 규장각본                                 | 연세대본                                   | 국민대본                                   |
|------|--------------------------------------|--|--|
| 권수제  | 無何堂遺稿                                | 無何堂遺稿                                  | 先稿                                     |
| 표제   | 無何堂集                                 | 無何堂集                                   | 先稿                                     |
| 판심제  | 없음                                   | 없음                                     | 없음                                     |
| 판사항  | 稿本                                   | 筆寫本                                    | 筆寫本                                    |
| 필사연도 | 미상                                   | 미상                                     | 미상                                     |
| 권책   | 7冊(완질)                               | 6冊(완질)                                 | 2책(결질)                                 |
| 형태사항 | 四周雙邊<br>半郭: 20x13.5cm<br>有界, 10行 20字 | 四周單邊<br>半郭: 18.8x13.1cm<br>有界, 10行 20字 | 四周雙邊<br>半郭: 22.3x14.3cm<br>有界, 10行 20字 |
| 판심   | 內向二葉花紋魚尾                             | 無魚尾                                    | 內向二葉花紋魚                                |
| 서발   | 崇禎闕逢困敦(1684)<br>仲冬日 恩津宋時烈序           | 崇禎闕逢困敦(1684)<br>仲冬日 恩津宋時烈序             | 崇禎闕逢困敦(1684)<br>仲冬日 恩津宋時烈序             |
| 청구기호 | 古3428-450                            | 고서(귀) 275 0                            | 810.819 흥05                            |

〈표1〉 각 본의 서지사항

## 제 2 장 홍주원 한시의 문학적 배경

### 제 1 절 생애

본 절에서는 홍주원의 사적(私的)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생애 및 한시의 연원이 되었던 사승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홍주원 한시의 본령(本領)을 밝혀내고자 하는 작업에서 그의 삶을 고구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홍주원의 생애는 기존 연구 성과에서 어느 정도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4차례의 연행에 대해 고찰한 연구들에서는 그 시기에 한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sup>24)</sup> 윤호진의 논의는 생애를 전반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근거 자료로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위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sup>25)</sup>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논의들에<sup>26)</sup> 더하여 산재해 있는 홍주원의 생애 자료들을 보충하여 보다 상세히 정리하고자 한다.

홍주원(1606~1672)의 본관은 풍산(豊山), 자(字)는 건중(建中), 호는 무하당(無何堂)으로 자호(自號)한 것이다. 1606년(선조 39) 8월, 홍영(洪靈)과 이정귀(李廷龜)의 딸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태어난 지 3일째에도 우는 소리가 없자, 조부인 홍이상(洪履祥)은 이것이 귀하게 될 징조라고 하였다. 어릴 적 기도(器度)가 있었으며, 글재주가 보통 사람과 달라 외조부인 이정귀가 데려다 가르쳤으며, 또 북저(北渚) 김류(金鑾)에게서 수학하였다. 당시에 글을 지으면 선배들에게 반드시 칭상을 받았다고 한다. 일찍이 이정귀는 대체

24) 홍주원의 연행시에 대한 연구는 拙稿, 「무하당 홍주원의 『燕行錄』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구지현, 「無何堂 洪柱元の 중국 사행시 전개 양상」, 『열상고전연구』 제60집, 열상고전연구회, 2017이 있다.

25) 윤호진 역주, 『무하당시문집』, 민속원, 2017. 한편, 이 책의 〈해제〉에서는 홍주원의 생애를 4단계로 나누었는데, 수학기(修學期, 1606~1622), 부마기(駙馬期, 1623~1646), 연행기(燕行期, 1647~1661), 은퇴기(隱退期, 1662~1672)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그의 사후(死後)의 평가를 정리하였다. 그의 생애와 사후의 평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도 4단계로 나눈 시기의 기간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바이나, 시기를 규정한 용어의 측면에 있어서는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명명한 용어로 보았을 때 시기를 나눈 기준을 파악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26) 위의 연구들 외에 홍주원 생애의 편린을 확인할 수 있는 논의들로는 윤호진, 「無何堂 洪柱元の 시 세계」, 『남명학연구』 제57집, 남명학연구소, 2017; 拙稿, 「無何堂 洪柱元の 漢詩 일고찰—晩年の 시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76집, 동양고전학회, 2019가 있다.

학에게 전수하는 벼루를 가리키며 “다른 날에 마땅히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그의 문재(文才)를 짐작할 수 있는 단적인 일화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8세가 되기 전 장옥(場屋)에 응시하여 발해(發解)에 합격하기도 하였다. 1623년 9월에 선조의 부마로 간택되어 숭덕대부(崇德大夫) 영안위(永安尉)가 되었다.<sup>27)</sup>

이후 의빈(儀賓)의 신분으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었다. 두 사건은 국가 차원의 환란이었으나, 왕족의 일원으로 그 참상을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며 느낀 바는 일반의 그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또한 양란 이후 오랑캐에 대해 직접적인 반감의식을 드러내는 시들이 다수 창작된 점 등은 이 사건들이 그의 의식세계에 미친 영향을 가늠케 한다.<sup>28)</sup> 양란을 겪는 동안 홍주원은 그때의 상황과 감정을 시로써 토크있게 묘사하기도 하였다. 먼저 정묘호란 때에 홍주원은 강화도로 어가를 호종하였는데,<sup>29)</sup> 다음의 시가 당시 그의 심정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강화의 우거하던 집에서 구점하다[江華寓舍口占]〉

和議終何益 화의가 끝내 무슨 이익이 되리  
差胡去又來 오랑캐 사신만 왔다 갔다 하네  
天心亦可悔 하늘의 마음도 또 후회할만 하거늘  
國事已堪哀 나랏일은 이미 슬픔을 감내하고 있다네  
關塞羶車滿 변방 요새에는 오랑캐 수레 가득하고  
江城帳殿開 강가의 성엔 장전(帳殿)이 펼쳐졌구나  
誰令漢飛將 누가 한 나라 비장(飛將)으로 하여금  
不遣隻輪廻 한 대의 수레도 돌려보내지 않게 했는가<sup>30)</sup>

27) 이상의 내용은 宋時烈, 『宋子大全』 권163, 〈永安尉洪公神道碑銘〉; 金壽恒, 『文谷集』 권19, 〈永安尉洪公墓誌銘〉; 李敏敍, 『西河集』 권16, 〈永安尉洪公諡狀〉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28) 오랑캐에 대한 홍주원의 반감의식에 대해서는 拙稿, 「무하당 홍주원의 『燕行錄』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에서 다룬 바 있다.

29) 李敏敍, 『西河集』 권16, 〈永安尉洪公諡狀〉, “정묘년에 오랑캐 경보(警報)가 있어 강도(江都)로 뒤따라 들어갔고[丁卯有虜警扈入江都].”

30) 洪柱元, 『無何堂遺稿』 冊1. 이후 『무하당유고』를 인용할 시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서울대 규장각본에서 인용한 것이다. 인용 형식은 『서명』 책수의 형식을 따른다. 또한 본고에서 인용하는 『무하당유고』 내 작품의 번역은 윤호진, 앞의 책을 참고하였으되 필자가 수정을 가했음을 밝힌다.

이 시는 정묘호란이 발발한 첫 달인 1627년 1월 29일 이후에 지은 것으로<sup>31)</sup> 1구에 의거하면 후금(後金)의 화의 제의가 있는 후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수련(首聯)은 후금에 대한 홍주원의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명분과 의리를 저버린 후금과의 화의는 결과적으로 조선에 이익이 될 수 없을 것이라 믿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시인의 눈앞에 오랑캐에서 파견한 사신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후금과의 화의는 너른 하늘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정인 것을 알지만, 나랏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4구의 ‘이미[已]’를 통해 감내하고 있는 슬픔은 화의를 결정한 후에 다가온 후회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부터 머금고 있었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련(頸聯)에서는 인정할 수 없으나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읊고 있다. 변방인 강화도에마저 오랑캐 수레들이 가득하고, 그 사이에 임금의 임시 자리[帳殿]가 놓여 있다. 인정할 수 없는 마음은 미련에서 아쉬움의 감정으로 전이되어 표출된다. 당장 조정의 능력만으로 현실을 타개할 수 없음을 알기에 외부의 도움을 바랐으나, 현실에서는 수레 한 대조차 있지 않았다.<sup>32)</sup> 7구의 한 나라 비장군(飛將軍)은 주지하듯 그 이름만으로도 흉노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한무제(漢武帝) 때의 명장 이광(李廣)을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오랑캐의 천적인 이광이 나타나 눈앞의 적들을 쓸어버렸으면 하는 바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누가[誰]’라는 글자에 천착하면 이광의 수레들이 후금군들을 와서 쓸어버리는 것이 이치상 당연한 것인데,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올바른 이치로 이러한 상황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최명길(崔鳴吉, 1586~1647) 같은 주화론자에 대한 원망과 한스러움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정묘호란으로부터 기인한 오랑캐에 대한 홍주원의 반감은 병자호란을 겪으며 절정에 이르게 된다. 특히 이 때 홍주원은 임금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갔고,<sup>33)</sup> 부인인 정명공주(貞明公主, 1603~1685)와 장남 홍태망(洪台

31) 당시 인조는 26일에 도성을 떠나 29일에 강화도의 외성인 진해루(鎭海樓)에 이르렀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9, 탐구당문화사, 1995, 240면.

32) 이에 대해서는 『인조실록』 5년(1627) 4월 1일, <명나라에 청과 화친하기까지의 사정을 아뢰다>에 자세하다.



望, 1625~1641)은 여러 섬들을 떠돌며 헤어지게 되었다.<sup>34)</sup> 또한 외사촌인 이단상(李端相, 1628~1669)이 청군 진영에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홍주원이 극적으로 구하게 된 경험도 있었다. 당시의 일을 이단상의 제문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는데, 이 내용이 제문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때 느낀 굴욕감과 비분 등의 감정은 30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도 전혀 희석되지 않았으며, 그 농도가 짙게 유지되고 있었다. 다음의 인용문은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술한 부분이다.

오호 통재라. 정축년(1637) 강도(江都)의 화를 어찌 차마 말하랴. 나는 그 해 1월 그믐에 남한산성으로부터 대가(大駕)를 따라 성을 나왔는데, 강도의 소식은 마음을 놀라게 하고 눈을 참혹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외가가 화를 입은 것이 더욱 참혹했으며, 그대와 중씨(仲氏)가 함께 포로들 중에 있고 지금 막 진영 안에 도착했다고 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능히 안정시킬 수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사람들이 강도가 함몰하던 날에 명령을 내렸다고 들었으니, 정묘년(1627)에 강화(講和)할 때에 동참했던 재신의 자손들은 비록 포로가 되었더라도 그 고지(告知)했던 것에 따라서 풀어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 때 외가의 친척들은 한 사람도 행조(行朝)에 있던 사람이 없었는데, 만약 저 사람들에게 진소(陳訴)하여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한다면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백 번 생각해봐도 머뭇거릴 수는 없었다. 곧 2월 초8일 춘궁(春宮)이 북쪽으로 가는 때에 호가(扈駕)하여 서교(西郊)로 갔다. 여석현(礪石峴) 아래를 지날 제 스스로 반형(班荊)의 전좌(殿座)에 올라 부득이하게 그대 형제의 일을 장차 청나라 장수에게 진소하려는 뜻을 죽음을 무릅쓰고 어전에서 품고(稟告)하였는데, 임금께서 가엾이 여겨 허락한다는 뜻이 있었다. 마침내 임금께서 청나라 장수와 접견하셨다가 파하는 때에 임하여 나는 곧 땅에 엎드렸다. 청나라 장수가 저 땅에 엎드린 재상이 반드시 말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여겼는지 정역(鄭譯)을 시켜 와서 묻도록 하였다. 나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자세히 진소하였다. 청나라 장수는 “이것은 과연 애초에 명령을 내렸던 일로, 포로가 된 사람이 비록

33) 『無何堂遺稿』 冊6, 〈祭掌令叔父文〉, “병자년 하늘까지 번진 화를 또한 차마 말하겠습니까. 그 때 저는 여러 백숙부들을 따라 호가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丙子滔天之禍 尙忍爲說 于時姪隨諸父 扈駕入南漢].”

34) 『無何堂遺稿』 冊6, 〈祭亡子台望文〉, “병자년 난리 때에 나는 호가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갔고, 너는 너의 어미를 따라 바다의 섬을 떠돌게 되었다[及至丙子之亂 吾則扈駕入山城 汝隨汝母氏 飄轉海島].”

모처에 이르렀어도 만약 내가 알게 했다면 마땅히 풀어서 돌려보내야 한다. 모름지기 강원(講院)의 여러 관리들로 하여금 탐문케 하여 나에게 알리라.”고 하였다. 그 때의 놀리고 막히고 비분한 마음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 그러나 눈물을 참고 말을 돌려 전석현(磚石峴)에 이르렀더니, 우리나라 포로인 남녀 및 천병만마(千兵萬馬)가 산에 넘치고 들을 덮으면서 가고 있었다. 문득 허연 칼날이 빼곡하게 늘어선 가운데 형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있었으니, 내가 비록 다급하여 살피지 못했으나 오히려 그대의 목소리임을 알았다. 내가 곧 말을 멈추고서 찬찬히 보니, 형을 부른 사람은 과연 바로 그대였다. 나는 곧장 가서 손을 잡고 가슴을 두드렸는데, 노비 무리의 집 속에 때마침 물을 마시기 위한 은그릇 하나가 있었다. 시험 삼아 속(贖)바치고자 하는 뜻을 주호(主胡)에게 보였더니, 답하지 않고 말을 재촉하면서 갔다. 단지 마장(馬將)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뜻을 급히 말하고 돌아왔을 뿐이었다. 그 때 마음과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았음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거듭 그 때를 생각해 보면 그대의 나이는 겨우 열 살이었다. 만약 정신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았다면, 어찌 능히 벗어나고 자빠지며 떠돌아다니는 무리 속에서 나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행동거지를 잃지 않았겠는가. …중략… 나는 그 때에 능히 승냥이와 호랑이의 무리 속에서 그대를 빼내었는데 …하략…<sup>35)</sup>

첫 구절에서 말하는 강도(江都)의 화는 청군에 의해 대군(大君) 이하의 제신(諸臣)들이 강화도로 잡혀간 것을 말한다. 홍주원이 언급한 1월 그믐은 곧 1637년 1월 30일로, 삼전도(三田渡)에서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가 행해졌던 날이다. 이 때 홍주원은 어가를 따라 성을 나와 삼전도에 이르렀고 강화도에서 잡혀 온 인질들을 목격했으며, 그곳에서 이단상의 소식을 처음 들었다. 그 소식과 펼쳐진 광경에 참혹함을 이기지 못했으나, 정묘화약(丁卯和約)

35) 『無何堂遺稿』冊6, 〈祭李副提學幼能文〉, “嗚呼痛哉 丁丑江都之禍 尙忍言哉 我於其年孟春之晦 自南漢 隨大駕出城 則江都之報 無非驚心慘目之處 而人皆言外家被禍尤慘 君與仲氏並在俘擄中 今方來到陣中云 我聞此言 心不能自定 俄聞彼人出令於江都陷沒之日 丁卯講和時 同參宰臣之子孫 雖或被擄 隨其告知而放送云 其時外家之親 無一人在行朝者 若欲陳訴於彼人 不失其機 則匪我而誰也 百爾思之 有不可遲回者 乃於二月初八日 春宮北行時 扈駕往西郊 行礪石峴下 自上班荊殿座 不得已以君兄弟事 將欲陳訴於清將之意 冒死稟達於御前 則自上有所慰許之意 遂於自上與清將接見臨罷時 我乃伏地 清將以爲彼伏地宰相 必有欲言之事 使鄭譯來問 我所欲言者 備細陳之 清將以爲此則果是當初出令之事 被擄之人 雖到某處 若使我知之 卽當放還 須使講院諸官探問而告我云 其時抑塞悲憤之懷 何可勝言 而忍淚回馬 還到礪石峴 則我國被擄男婦 及千兵萬馬 漫山蔽野而去 忽於白刃森列之中 有呼兄主之聲 我雖恟不省 猶知爲君之聲音 我乃駐馬而諦視之 呼兄主者 果是君也 我卽往握手 隨 奴輩行帑中 適有一銀器爲飲水者 試以欲贖之意 出示主胡 則不答促馬而去 只以受諾於馬將之意 忽忽說道而故 其時心腸之如割 有誰知之 仍念其時 君年纔十歲 若非精神過人 則何能於顛沛流離之中 呼我爲兄而不失其舉措也. …중략… 我於其時 能得脫君於豺虎之叢 …하략…”



때 강화에 호의적이었던 재신들의 자손은 풀어주겠다는 정보를 들었다.<sup>36)</sup> 그러나 당시 강화도의 행조(行朝)에는 외가 쪽 인물이 없었으므로, 이단상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장 그들에게 진소(陳訴)하지 않았다면, 이단상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 자명했다.

한편 2월 8일, 홍주원은 왕세자 및 빈궁, 봉림대군(鳳林大君)과 부인을 데려가는 행차에 호가(扈駕)했다.<sup>37)</sup> 여석현(礪石峴)을 지날 즈음 인조에게 사정을 품달(稟達)하여 청나라 장수에게 진소하고자 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홍주원이 통역을 통해 청나라 장수에게 상황을 자세히 전달하자 애초에 냈었던 명령이니 풀어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 그러나 그 순간 홍주원은 안도의 마음보다 청나라 장수 앞에 엎드린 채 사정하고 있는 굴욕적인 현실을 먼저 깨닫게 된다. 그 때의 심정은 문자 그대로 ‘억눌리고 막히고 슬프고 화가 나는[抑塞悲憤]’ 것이었다. 이내 이러한 마음을 붙들고 전석현(磚石峴)에 이르러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끌려가는 포로 수 천 명을 목격한다. 그 사이에서 ‘형’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포로들 사이에서 10살의 이단상을 발견하였으며, 은그릇 하나와 패옥으로 된 갓끈으로써<sup>38)</sup> 속량(贖良)하게 된다.<sup>39)</sup> 제문을 지은 시기인 1669년은 청이 중원의 패권자로 자리를 잡은 후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했던 때였으며, 조선 내에서도 숭명배청(崇明排淸) 의식이 당시보다 약화된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주원은 당시를 회상하며 청군을 ‘승냥이와 범[豺虎]’이라 표현하는 것만 보아도 청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의식 한 칸에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시들은 병자호란 당시 단기간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의 심경을 엿

36) 이상의 내용은 『인조실록』 15년(1637) 1월 30일,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레를 행하다. 서울 창경궁으로 나아가다>에 자세히 다.

37) 『인조실록』 15년(1637) 2월 8일, <구왕이 철군하면서 왕세자와 빈궁, 봉림대군과 부인을 데려가자 전송하다>.

38) 인용문에는 은그릇만 나와 있으나, 李敏敍, 『西河集』 권16, <永安尉洪公諡狀>에 의하면 은으로 된 사발과 패옥으로 된 갓끈으로 속환하였다고 한다[時公內弟李公端相年甫九歲陷虜中 公請于上往虜陣出入搜訪 果尋得之 以銀碗具纓贖之以歸 聞者莫不感歎公義]. 밑줄은 필자. 이하 마찬가지이다.

39) 金壽恒, 『文谷集』 권19, <永安尉洪公墓誌銘>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정축년의 재앙 때 공의 집안 아우 이단상 공이 붙잡혀 포로 진영에 있었다. 때마침 공이 인조(仁祖)를 따라 서교에 나가 세자의 인질 행렬을 전송했는데, 임금에게 아우를 찾아올 수 있도록 청했고 곧 재산을 내놓아 속환(贖還)하자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다[丁丑之難 公之內弟李公端相被掠在虜陣 會公從仁祖出西郊 送世子質行 請于上尋得之 卽捐貲以贖還 人皆感嘆].”라고 언급하였다.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남한산성 포위 중에 망궐례(望闕禮)를 행하며 느낌이 있어[南漢圍中 行望闕禮有感]〉

一片城如斗 한 말[斗] 같은 한 조각 성에서  
千官作楚囚 많은 관리들 초나라 죄수가 되었구나  
天心應祚宋 하늘의 뜻은 응당 송(宋)나라를 축복함ियो  
侯度尙尊周 제후의 법도는 아직도 주나라 높이는 것이다  
撫劍危衷激 칼 어루만지니 충정이 격동하려 하고  
趨班暗涕流 반열에 나아가니 남몰래 눈물이 흐르는구나  
今宵不寐意 오늘밤 잠잘 생각은 없으나  
落月滿誰樓 떨어지는 달은 누구 집에 가득찰꼬<sup>40)</sup>

이 시는 인조를 비롯한 대신들이 남한산성에 있으면서 청군에 의해 포위당한 채로 망궐례를 행하고 나서 지은 것이다.<sup>41)</sup> 1구는 전체 나라에 비하면 작디 작은 남한산성을 한 말[斗]에 비유했다. 이는 좁은 장소에 갇혀 있는 시인을 비롯한 관리들의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청에 둘러싸여 있는 조선의 형세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남한산성에는 국가의 상징인 국부(國父)를 비롯한 고관대작들이 모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2구의 초수(楚囚)는 진(晉)나라로 잡혀간 초나라의 종의(鍾儀)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타향에 잡혀 있거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형용하는 말로 쓰인다. 당시 상황에 천착하여 보자면 시인을 비롯한 관료들은 조선 영토 내인 남한산성 안에 있었다. 그러나 청군에 의해 포위되어 산성 내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마치 타국에 잡혀 있는 포로와도 같은 신세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고를 들어 묘사한 것이다.

40) 『無何堂遺稿』 冊1.

41) 당시 남한산성이 포위된 것은 1636년 12월 14일(『인조실록』, 14년(1636) 12월 19일, <납서로 강도 유수·검찰사 등에게 유시하여 빨리 구원하게 하다>, “적병이 남한산성을 포위한 지 벌써 몇새째 되었다.”)이었다. 남한산성이 포위된 이후 망궐례는 1636년 12월 24일(『인조실록』, 14년(1636), <상이 남한 산성에 있다. 망궐례를 행하다>))과 1637년 1월 1일(『인조실록』, 15년(1637) 1월 1일, <망궐례를 행하다>))에 행해졌는데, 이 시는 이 두 날 중 한 날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함련의 송(宋)과 주(周)는 모두 명(明)나라를 지칭한 것인데, 명나라가 송과 주를 이은 적통인 것을 역설한 것이다. 따라서 하늘에서 명나라에게 복을 내리는 것이 마땅[應]한 것이며, 제후의 나라인 조선은 예나 지금이나[尙] 명나라를 숭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환언하자면 청나라는 중원의 패권자가 될 자격이 없으며, 하늘의 이치상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경련에서는 망궤례에 참석하는 시인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복장을 갖추고 참석한 반열에서 칼을 어루만지니, 청군(淸軍)을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격동되었으나 현실은 달랐다. 남몰래 흘린 눈물은 5구에서 격동된 마음을 실현시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울분을 함의하고 있다.

8구의 떨어지는 달은 새벽 시간을 의미하며, 그 때까지 잠 못 이루고 있는 시인의 상황을 말한다. 이날 밤 시인은 잠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달이 비취 밝든 어둡든 관계가 없었다. 아울러 달빛이 누구의 집에 가득찰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기실 달은 어느 곳에서나 바라볼 수 있는 사물로, 다른 공간에 있는 인물과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자주 쓰인다.<sup>42)</sup> 또한 달은 변새시 등에서 유래한 근심을 표현한 의경(意境) 중 하나이다.<sup>43)</sup> 나라에 대한 근심으로 잠 잘 수 없는 시인에게 근심으로 형상화된 달빛은 어딜 가든 자신을 비추는 존재이다. 근심을 떨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이와 같이 묘사하면서도 의문형으로 끝맺은 것은 청군에게 남한산성이 포위된 인정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시인의 자존심이자 저항의식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난리가 끝난 후에 서울로 돌아와 지은 것이다.

#### 〈난리 후에 서울로 돌아와[亂後還洛]〉

往事堪銷骨 지난 일에 뼈를 녹이는 고통 견뎌건만  
追思夢亦驚 돌이켜 생각하니 꿈에서조차 놀라는구나  
山河猶故國 산하는 아직도 옛 나라와 같거늘

42) 홍주원의 경우에도 『無何堂遺稿』 冊6, 〈次李春長在北營寄示韻〉, “휘두르면 가벼운 바람 불어움을 생각하면서 나뉜 곳에도 조각달 떴을까 도리어 궁금하다네[揮來想有輕風動 披處還疑片月明]”와 같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공유할 수 있는 매개물로 사용한 사례들이 있다.

43) 변새시의 의경에 대해서는 임준철, 「漢詩 意象論과 朝鮮中期 漢詩 意象 研究 : 林悌·車天輅·權輿·鄭斗卿」,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64-71면 참조.

涕淚卽新亭 눈물 흘리며 신정(新亭)에 오른다  
 竹送當階影 대나무는 섬돌 향해 그림자를 보내고  
 鶯傳隔葉聲 꾀꼬리는 이파리 사이로 지저귀를 전하네  
 成都細傾酒 성도에서는 조금 술잔을 기울였다지만  
 今日欲無醒 오늘은 술 깨지 않고자 하노라<sup>44)</sup>

호란 중에 겪은 수치스러운 일들로 뼈가 녹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견뎌냈지만, 꿈에서마저 놀랄 정도로 충격은 가시지 않았다. 3-6구는 자연은 변하지 않으나, 세사(世事)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속성을 통해 변하게 된 현실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수사법이다. 4구의 신정(新亭)은 나라를 잃은 것을 슬퍼하는 대표적인 전고 중 하나이다. 함락된 국토를 보고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대신들에게 당시 승상인 왕도(王導)는 힘을 합쳐 회복할 생각을 해야 할 때에 초나라 죄수처럼 어찌 울고만 있냐고 꾸짖은 것이다.<sup>45)</sup> 변함없는 산하는 이전과 다름없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은 마치 신정에서 통곡하고 있던 진(晉)나라 대신들의 그것과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전고와 달리 왕도처럼 꾸짖으며 나서는 승상의 존재는 없기 때문에 슬픈 분위기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인간사에 무심한 자연은 의연하다. 섬돌에 비치는 대나무 그림자와 나무 사이 꾀꼬리들의 울음소리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미련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否定)과 함께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친다. 7구의 성도세경(成都細傾)은 두보(杜甫)의 “成都豈無酒 憂國只細傾”이라는 구절에서 차용한 것으로, 술은 있으나 우국의 심정으로 인해 조금만 술을 먹는다는 것이다. 차용한 시와 국난을 맞은 상황은 동일하기 때문에 두보처럼 술을 자중하겠다는 것으로 전개되는 것이 일견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시인은 ‘欲’을 통해 술 깨지 않고자 하는 것이 온전히 자신의 의지임을 표출한다. 이는 곧 시인이 주연(酒宴)의 성격이 아니라, 취한 채 ‘술에서 깨지 않는 상태’를 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의연한 자연과 달리 급변한 자신들의 상황을 심적으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술을 통해 현실을 인정하고 싶

44) 『無何堂遺稿』 冊1.

45) 『晉書』 卷65, 〈王導列傳〉, “當共戮力王室 克復神州 何至作楚囚相對.”

지 않으며, 그런 현실과 단절되고 싶은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난리가 정리된 상황이 아니라, 다만 서울로 돌아왔을 뿐인 상황에서 현실 타개의 의지보다 상실감이 시인의 의식에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두 편의 시에서는 짧은 기간 끝까지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마음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현실로 인해 그의 심경이 극도의 상실감으로 변화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단기간에 겪은 이런 충격적인 상황은 평생 그의 의식 속에 청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자리 잡은 계기가 되었다.<sup>46)</sup>

한편 1639년에는 10월을 기점으로 향후 5년간 두문불출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그의 궁녀 중 한 사람인 애옥(愛玉)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것이 원인이었다. 복개당(福介堂)의 무녀(巫女)가 궁에 출입하여 더러운 물건[穢物]을 10곳에 묻어 저주를 하려고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다. 무녀와 영안위의 궁녀가 서로 출입한 자취가 남자했고, 칙사(勅使)가 수색하자 영안위의 궁으로 와서 피하여 6~7일을 머물렀던 사실도 있었다. 또한 홍주원의 자녀가 병이 있어 신사(神祀)를 지내려 하였던 사실도 증거로 역할을 하였다. 애옥을 비롯한 연루자들은 6차 혹은 8차에 걸쳐 형신(刑訊)을 받았으며, 압슬(壓膝)과 낙형(烙刑)에도 모두 자백하지 않은 채 그들이 죽은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sup>47)</sup>

이 사건에 대해 당시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이 “내가 있는 동안은 영안위를 죽이지 못할 것이니, 네가 아무개와 공모해서 나를 먼저 죽여야 할 것이다.”<sup>48)</sup>라고 한 것으로 보아 홍주원의 신상에 상당히 위협이 되었

46) 앞서 인용한 이단상의 제문 외에도 『無何堂遺稿』 冊5, 〈祭麟坪大君文(1658)〉, “병자년에 나라의 운명이 절박했네 창황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괴로움을 실컷 겪었네[粵在丙子 國步斯頻 蒼黃泥露 備嘗艱辛].”; 『無何堂遺稿』 冊5, 〈祭市南俞參判武仲文(1664)〉, “병자년에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웠네 창황히 남한산성으로 공은 곧 말고삐 잡았었지 행궁에서 눈물을 흘리고 밤에는 성가퀴를 지켰다오[粵在丙子 國步陟危 蒼黃南漢 公乃執羈 雪涕行宮 夜守城陴].”; 『無何堂遺稿』 冊5, 〈祭靑湖李尙書文(1666)〉, “병자년에 이르러 집안과 나라의 화가 참혹했다네 바다가 뿔발로 변하였고 천지는 뒤집혔다네[逮至丙子 禍慘家國 滄桑變遷 天地翻覆].”; 『無何堂遺稿』 冊5, 〈祭祭金同知文〉, “병자년과 정축년에 천지는 먼지를 뒤집어 썼다네[歲在丙丁 天地塵蒙].”와 같이 호란을 함께 경험한 인물들의 제문에서는 그 때의 참상을 회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47)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인조실록』 17년(1639) 10월 15일자 기사와 『승정원일기』 인조17년(1639)년 10월 13일, 14일, 17일, 18일, 21일자에 남아 있다.

48)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27권,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정명공주(貞明公主)〉에 “당시 영안위(永安尉)의 궁인이 고문으로 많이 죽었고, 화가 장차 어디까지 미칠지 헤아릴 수 없었

던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정치적으로도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홍주원은 석고대죄 하였으며, 인조가 이 사건이 무고(誣告)임을 알게 되어 끝내는 일이 잘 풀렸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홍주원은 5년간 두문불출하며 빈객마저 사절하였으며,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에는 뒷문으로 출입할 정도였다고 한다.<sup>49)</sup>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있기는 하나, 홍주원의 개인사에 있어 이 사건은 그가 장기간 실의에 빠지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건 1년 후에 이에 대한 홍주원의 언급을 통해 당시 그의 긴박한 심정을 알 수 있다.

“근래 가문의 화를 어찌 차마 말할 수 있으라마는 정신없이 거처를 옮기던 때에 바로 네가 처음 병을 앓았었다. 화가 일어난 망극한 날은 또 너의 병이 극심한 때였다. 비복(婢僕)들이 심리(審理)를 받은 것은 이미 말할 겨를도 없었다. 나 또한 자리를 깔고 나날이 죄를 기다렸으니, 온 집안이 황급하여 아침저녁을 보낼 수 없었다. 네가 병을 앓던 가운데 놀라고 근심스러운 일이 수만 가지였으니 거의 낮이 나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나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옛 친척들도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sup>50)</sup>

당시 사건은 홍주원 개인의 일에 그치지 않고 그의 가문까지도 연루되었으며, 아들 홍태망의 위중한 상태까지 겹친 상태에서 자신은 무기력하게 석고

다. 이식은 힘껏 구하는 주장을 하였다. 훈척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영안위의 궁인이 흥하고 더러운 물건을 대통 속에 비밀히 감추어 대궐로 들어갔다.”하니, 이식이 노하여 꾸짖기를, “내가 있는 동안은 영안위를 죽이지 못할 것이니, 네가 아무개와 공모해서 먼저 나를 죽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時永安尉宮人 多被拷死 禍將不測 李植力持救解之議 有人自勳戚家來言 永安尉宮人 密藏凶穢物於竹筒 入闕內云 植怒叱曰 我在時 永安不可殺 汝與某謀 先共殺我可也].

49) 李敏鉉, 『西河集』 권16, 〈永安尉洪公諡狀〉, “기묘년에 내옥(內獄)이 있었는데, 공의 집의 여자 노비가 연루되어 공이 꺾 아래 엎드려 죄를 청하였다. 오랜 뒤에야 임금께서 그것이 무고(誣告)라는 것을 아시고, 일이 마침내 풀리게 되었다. 만약 공이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평소에 위아래의 믿음을 받지 않았다면, 화기(禍機)를 짐짓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은 이로부터 문을 닫고 빈객을 사양하였으며, 매양 부모님을 뵈 때에는 또한 뒷문으로 출입하였다[己卯有內獄 公家婢使亦連逮 公伏闕下請罪久之上知其誣 事遂釋 若非公小心畏懼 素見信於上下 禍機殆不可測矣 公自是杜門謝賓客 每省父母亦從後局出入].”

50) 『無何堂遺稿』 冊6, 〈祭亡子台望文〉, “頃年家禍 豈忍爲說 蒼黃移寓之時 是汝始病之初 禍起罔極之日 又是汝痛劇之際 婢僕就理 已不暇言 余亦席藁 逐日俟罪 闔門遑遑 朝夕莫保 汝於病中 驚憂萬端 幾至喪魂 當此之時 吾以杜門 故舊親戚 亦皆掉頭.”



대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황급하여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음이 문면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결국 사건은 잘 처리되었으나, 두문불출하게 된 홍주원을 친척들마저 외면(掉頭)하였으니 그 실의와 상실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이후 가문 내의 상사(喪事)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여<sup>51)</sup> 1639년 10월부터 1647년 상복을 벗고 연행사의 정사로 선발되면서 조정에 복귀하기까지 약 8년 여의 시간은 대체로 괴로움으로 점철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적 악재의 연속으로 인해 이 기간 지은 작품의 수는 다른 시기에 비해 적은 편이다. 문인들이 일반적으로 고통과 애환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시작(詩作)을 선택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홍주원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심적 상태로 추측되는데 이 시기 창작한 시들을 통해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의 시는 옥사사건이 국청(鞠廳)에서 진행되던 시기에 지은 것이다.

〈기묘년(1639) 10월 16일[己卯十月十六日]〉

席藁庭中夢亦驚 석고대죄 자리에선 꿈에서조차 놀랐거니  
上天應照此微誠 하늘은 응당 이 작은 정성을 비추어 주겠지  
薄雲高義惟雙鳳 얇은 구름에 닿은 높은 의기는 오직 쌍봉 뿐인데  
偏向窮途問死生 유독 궁도(窮途)에서 생사를 묻는구나<sup>52)</sup>

이 시는 제목에 명시했듯 기묘년[1639] 10월 16일에 지은 것이다. 2일 전인 10월 14일에는 홍주원의 궁인인 박씨와 무녀가 빈번하게 왕래하였으며, 관련자들을 우선 수금(囚禁)하자는 국청의 계가 있었다. 1구를 통해 알 수 있듯 홍주원은 이미 석고대죄를 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꿈에서도 놀랄 정도로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석고대죄하며 정

51) 1641년에는 장남 홍태망(洪台望, 1625~1641)이 17세의 나이에 병으로 요절하였고, 1645년에는 부친 홍영(洪靈)과 어릴 적 외가에서 생활하며 아버지와 스승처럼 여기던 외삼촌 이명한(李明漢)과 이소한(李昭漢)이 모두 죽었다. 1646년에는 셋째 누이가 32세의 나이로 죽었다. 홍주원은 이듬해인 1647년에 복제를 벗고 10월 연행사의 정사로 선발되며 다시 조정에 복귀하였다.

52) 『無何堂遺稿』 冊4.

성을 보이고 있으며, 자신은 무고하기 때문에 하늘은 비추어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인은 이러한 믿음이 정당한 것임을 2구의 ‘응당[應]’이라는 글자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전·결구(轉結句)에서는 조정을 생각하는 자신의 순수한 마음과는 다른 현실의 상황을 비통해하고 있다. 하늘까지 닿는 자신의 높은 뜻에는 오직 궁궐[雙鳳] 밖에 없으나, 현재는 그러한 자신이 어려운 상황[窮途]에 처해 생사마저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다음의 시는 위의 시 바로 뒤에 수록되어 있으며, 시의 내용과 시상의 유사함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 〈느낌이 있어[有感]〉

寸心惟有九原通 속마음은 오직 구원(九原)과 통함이 있으니  
三夜分明入夢中 깊은 밤에 분명히 꿈속으로 들어온다네  
推枕悄然驚起坐 베개 밀치고 처량히 놀라서 일어나 앉았는데  
滿天寒月入窓櫺 하늘 가득 차가운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네<sup>53)</sup>

전반적으로 앞선 시의 비통한 감정의 연장선상에서 체념과 쓸쓸함의 정서가 가미된 분위기가 관통하고 있다. 기·승구(起承句)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그가 죽음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저승과 통하고 있을 정도로 죽음과 가까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의 의식에 내재된 죽음에 대한 생각은 한밤중 꿈속에서 분명하게 보일 정도로 각인되어 있다. 3구의 베개를 밀친 행위는 다시 잠들어봐야 저승에 대한 꿈을 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잠드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잠에서 깨며 베개를 밀친 후에는 현실을 자각하며 놀란 채 앉았으나, 보이는 것은 온 세상에 가득한 차가운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오고 있는 광경이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차갑게 인식한 것은 시인의 감정과 다름 아니다.

이후 1645년 6월, 사건 후 6년 여가 지난 시점에서의 언급에서는 “불초한

53) 『無何堂遺稿』冊4.



조카는 5, 6년 이래로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춘 채 인사(人事)를 끊고 지냅니다.”<sup>54)</sup>라고 하였으나, 사건이 있고 3~4개월 후에는 집으로 방문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비롯하여 술자리를 갖기도 하였다. 위의 두 편의 시를 지은 이후 만시(挽詩)를 제외하고 보이는 첫 번째 시는 3개월 후인 1640년 1월 23일 즈음 지은 것인데, “눈 속에서 오래도록 닫혀있던 문을 비로소 열었다오[雪裏初開久閉扃]”<sup>55)</sup>라고 하였다.

한편 두문불출하던 시기에 자신의 소탈한 일상을 읊은 것이 있는데, 이는 여타의 시기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생활상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채소밭에서 일과를 하다 우연히 읊다[課菜圃偶吟]〉

前宵一雨足    전날 밤 넉넉히 내린 비로  
綠蔓已盈畦    푸른 덩굴이 이미 밭두둑에 가득하네  
小豎爭鋤草    더벅머리 아이는 다투어 잡초를 매고  
閒人獨杖藜    한가로운 사람은 홀로 지팡이 짚었네  
青瓜從此嚼    푸른 오이를 여기에서 씹어먹으니  
白酒可同携    흰 술도 함께 어울릴 만하구나  
愛惜如芝圃    애석하다 지포(芝圃)와 같은 곳에  
寧教野菟迷    어찌 들판의 비름이 어지럽게 했는가<sup>56)</sup>

전날 밤에 내린 비는 밭두둑에 있는 푸른 덩굴들이 무성해지기에 충분했고, 하룻밤 사이 무성해진 잡초들을 더벅머리 아이들이 다투어 매고 있는 광경을 시인은 한가로이 지팡이를 짚고 바라보고 있다. 그러다 갓 딴 잘 익은 오이를 베어 무니 막걸리 생각이 절로 나는 한가롭고 평화로운 정경과 시인의 감정을 묘사하고 있다. 시의 제목에서는 채소밭에서의 일과[課] 중 읊은 것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한가로운 행위들을 하루의 업무라고 할 정도로 두문

54) 『無何堂遺稿』冊6, 〈祭伯舅白州文〉, “不肖甥自五六年來 杜門屏跡 癡絕人事”.

55) 『無何堂遺稿』冊4, 〈謝子和夜訪〉.

56) 『無何堂遺稿』冊1.

불출하고 지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이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미련(尾聯)에 있다. 지초(芝草)가 나야 할 발두둑에 들판에서 자랄 비름들이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시작(詩作) 상황 및 시어를 통해 천착해 보면 의미가 달라진다. 8구의 비름[莧]은 음기(陰氣)에 많이 감염되는 풀로 주로 소인을 비유할 때 사용된다.<sup>57)</sup> 그렇다면 7구의 지초는 소인에 대비되는 현인으로 볼 수 있으며, 발[圃]은 조정을 의미한다. 즉 7-8구에서는 현인만 있어야 할 조정에 있지 말아야 할 소인이 존재하며, 그 소인들이 조정을 어지럽게 만듦을 비판하고자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애석해하고 있는 시인의 심정을 읽어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기묘년에 일어난 옥사는 홍주원 개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마라는 신분으로 인해 정치적인 견해를 드러내기 어려웠던 그가 조정 내 특정 대상을 비판하는 내용을 지은 시들은 문집 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도 이 당시 지은 시들은 의미가 있다.

한편 1647년 복제를 벗고 복귀한 이후 1651년부터는 점차 건강에 문제가 생겨 여러 임무들에서 사직을 청하여<sup>58)</sup> 체직(遞職)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57) 『周易』, 〈夬卦 九五〉에 “莧陸 今所謂馬齒莧 是也 曝之難乾 感陰氣之多者也”라고 하였으며, 〈序卦傳〉에서는 이 괘를 “여러 陽이 나아가서 한 陰을 결단하여 제거하니, 군자의 도는 자라나고 소인은 사라지고 쇠하여 장차 다하게 되는 때이다[衆陽進而決去一陰 君子道長 小人消衰將盡之時也]”라고 하였다.

58) 『無何堂遺稿』 冊5, 〈辭附廟都監提調疏〉 辛卯(1651), “다만 신의 다리병은 아직도 차도가 없어 몇 달을 괴로워하고 있으며, 침과 뜸도 효험이 없습니다. …중략… 걷는 것조차 불편하고 방에서 기거함에도 또한 사람이 필요할 정도입니다[第臣之脚病 尚未差減 數月辛苦 針灸無效 …중략… 行步不良 私室起居 亦且要人.]”; 『無何堂遺稿』 冊5, 〈因脚患 乞免永思殿獻官疏〉 辛卯(1651), “다만 신이 일찍이 십수년 전 한 쪽이 허한 증세를 무겁게 얻어 왼쪽 다리와 무릎은 늘 마비를 근심했습니다. 몇 년 사이 두 번의 연행은 마치 매우 춥거나 매우 더운 때를 맞아 등에서 지내고 노숙을 했습니다. 한 기와 습기가 번갈아 다치게 하여 병의 뿌리는 이미 고질이 되었고, 수시로 통증이 되는데 …중략… 정월 스무날 뒤로부터는 왼쪽 다리가 마비되어 나날이 점점 편고(偏枯)가 되어 손으로 누르고 만져도 마치 다른 사람의 살갓 같고, 몸을 뒤척일 때에도 능히 운용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병세를 보건대 중풍의 증세는 아침저녁으로 가히 근심스러워 의관에게 물으니 위태롭다 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침을 맞고 뜸을 때 몇 달을 치료하였으나, 더하기만 할 뿐 줄어들지 않아 한 명의 고질병 환자가 되었습니다[第臣曾在十數年前 重得偏虛之症 左邊脚膝 常患麻痺 頃年再度燕行 適當極沍極炎之節 野處露宿 寒濕交傷 病根既痼 作痛無常 …중략… 自正月念後 左脚不仁 日漸偏枯 以手按摩 有若他人之肌肉 轉側之際 不能運用 觀此病勢 中風之症 朝夕可憂 問諸醫官 無不危之 遍身鍼灸 屢朔治療 而有加無減 作一痼疾之人.]”

시작했다. 특히 어려서부터 다리에 고질적인 병이 있어 평생을 고생했으며, 그 외에도 각종 질병에 시달렸다.<sup>59)</sup> 1654년에는 지인이었던 조석윤(趙錫胤, 1606~1655)과 박장원(朴長遠, 1612~1671)이 국사(國事)를 말하다 귀양을 가게 되자 상소를 올려<sup>60)</sup> 변호를 하였는데, 당시 효종은 부마로서 국법을 범하였다고 노하면서 홍주원을 파직시켰다. 가족과 관계된 일을 제외하고 타인을 위해 진언을 한 경우는 이 때가 유일하다는 측면에서 이들 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때 올린 상소문은 당시 문인들이 비록 쓰이지는 않았지만 논의가 좋았다고 호평을 했다.<sup>61)</sup> 이에 대해서는 교유관계에 대해 다룰 3절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1655년부터는 3년 간 직계 가족들이 연이어 유명을 달리 했다. 1655년 7월 모친상을 비롯하여 1656년에는 둘째 누이의 사망, 1657년에는 아우인 홍주후(洪柱後)가 사망했다.<sup>62)</sup> 또한 1670년에는 그의 둘째 아들인 홍만형(洪萬衡)이 병으로 인해 갑작스레 죽었다.<sup>63)</sup>

59) 1662년에는 다리병이 심해져 학슬풍(鶴膝風)에 이르렀으며(『無何堂遺稿』 冊5, 〈設慶筵被論後上疏〉 壬寅, “重患脚病 症成鶴膝風”), 1663년에는 천식으로 고생했다(『無何堂遺稿』 冊5, 〈遭南重維等醜詆後陳疏〉 癸卯, “俾延殘喘 不勝幸甚”, 〈南重維疎後陳疏〉 癸卯, “俾臣得以保全餘喘”). 1665년 이후로는 현기증과 발작이 더해졌고(『無何堂遺稿』 冊5, 〈啓覆時 不得入參後陳疏〉, “又自近日 素患眩症 發作頻數”), 1667년에는 치질과 치핵 및 종기가 끓어 터지는 데에 이르렀으며 갑자기 혼절하고 인사불성이 되어 집안 사람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無何堂遺稿』 冊5, 〈因眩症 未參舉動問安 陳疏辭職〉 丁未, “加以積年痔疾 已成漏痔 暫時跨馬 輒至肆毒 終必成腫濃潰而後已 …중략… 自闕下還家後 猝然昏倒 不省人事 至於不辨一家人面目者”). 이러한 증상들은 한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리병 이후로 점차 중첩되었는데, 이로 인해 홍주원은 나이가 들수록 심신이 피폐해졌으며, 이로 인한 괴로움을 토로하였다.

60) 『無何堂遺稿』 冊5, 〈趙樂靜朴承旨事陳疏〉.

61) 宋時烈, 『宋子大全』 卷163, 〈永安尉洪公神道碑銘〉, “두 사람이 당시 모두 말로써 폄족되었으니 …중략… 공은 사신의 일을 마치고 돌아와 소를 올려 말하기를 …중략… 말이 비록 쓰이지는 않았으나 선비들의 논의가 그것을 매우 좋게 여겼다[二公時俱以言貶逐 …중략… 公畢使還 上疏曰 …중략… 言雖不用 士論甚多之].”; 金壽恒, 『文谷集』 卷19, 〈永安尉洪公墓誌銘〉, “공이 비록 말로써 죄를 얻게 되었지만, 선비들의 논의는 그것을 더욱 어질게 여겼다[公雖以言獲罪 士論愈益賢之].”; 李殷相, 『東里集』 卷13, 〈祭內兄永安尉文〉, “두 신하가 꾸밈음을 당하매 공의(公議)가 오래도록 쓰러졌네 월조(越俎)를 어찌 싫어하랴 납약(納約)이 바로 급하도다 처음 약한 벌을 주셨으나 끝내 다른 생각 없음을 살펴 아셨네 임금님의 노여움도 도로 풀렸으니 선비들의 논의가 더욱 좋게 여겼네[兩臣被譴 公議久越 越俎何嫌 納約是急 初加薄罰 終察無他 天威旋霽 士論益多].”

62) 『無何堂遺稿』 冊6, 〈祭舍弟子裕文〉, “선군께서 세상을 버린 뒤로 두 막내 누이가 연달아 요절하였다. 지난해에 둘째 누이의 상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1년에서 다만 한 달 차이였다. 이제 그대가 문득 또 이러한 때를 당했으니, 이 무슨 집안의 화이며, 이 무슨 하늘의 도란 말인가[先君棄世之後 兩季妹相繼天逝 上年仲妹之喪 距先妣初薨只隔一朔 而今君奄忽 又當此際 此何家禍 此何天道耶].”

1661년 2월~6월까지 개인적으로 4번째이자 마지막 연행의 정사(正使)로 참여한 이후로는 거듭 악화되는 건강 상태로 인하여 차차 맡은 직임을 면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sup>64)</sup> 졸하기 1년 전인 1671년에는 녹봉마저 사양하기도 하였다.<sup>65)</sup> 홍주원의 만년(晩年)으로 볼 수 있는 이 기간에는 그의 자제들 및 집안 노비가 연루된 몇몇 사건들을 제외하면 특기할 만한 사건들은 없다.

이상에서 홍주원의 사적인 삶의 궤적들을 살펴보았다. 가족의 상사(喪事)나 자신의 병환 등의 문제는 일반적인 경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기묘년의 옥사 사건은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의 삶에 가장 큰 파장을 남겼던 사건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대체로 홍주원 개인의 언사나 행동으로 말미암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는 그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사고방식과 행동을 견지하고 살았다는 것이다.

## 제 2 절 창작 양태 고찰을 통한 사승관계 규명

전술하였듯 홍주원은 한문사대가 중 한 명이면서 그의 외조부였던 월사

63) 당시 홍주원은 병으로 인하여 초상에서 발인까지 시신 곁에서 곡도 한 번 하지 못 하였다. 『無何堂遺稿』 冊6, 〈祭亡子校理文〉. “余與汝母氏 將欲痛哭于柩前 以爲永訣之計 臨當奠日 氣息奄奄 欲起還仆 無計致身於喪次 自初喪至今日 終不得撫汝屍而一哭 此豈人情天理之所可堪也”

64) 1665~67년 사이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無何堂遺稿』 冊5, 〈啓覆時 不得入參後陳疏〉에서는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명(聖明)께서는 빨리 명하시어 신(臣)의 직명(職名)을 전삭(鑄削)하시어[伏乞聖明亟命鑄削臣職名].”라고 하였으며, 1667년 『無何堂遺稿』 冊5, 〈因眩症 未參舉動問安 陳疏辭職〉 丁未,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진실로 작은 정성을 살피시어 신(臣)의 직명(職名) 및 겸하고 있는 조지서(造紙署) 제조(提調)의 임무를 아울러 전면(鑄免)하여 주시어[伏乞聖明 諒察微悃 臣職名及兼管造紙署提調之任 并賜鑄免].”, 1668년 9월 『無何堂遺稿』 冊5, 〈溫泉隨駕還來後 因病陳疏〉 戊申九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장차 신(臣)의 직명(職名) 및 겸대(兼帶)하고 있는 제조의 임무를 전면(鑄免)하여 주시어[伏乞聖明 將臣職名及兼帶提調之任 并賜鑄免].”라고 하였다. 이상의 소들은 모두 건강 상태로 인해 조정의 반열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맡은 바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혹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작성된 것이었다. 신하로서의 분의(分義)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의 발로인 것으로 보인다.

65) 『無何堂遺稿』 冊5, 〈因病重辭祿俸疏〉 辛亥, “일찍부터 외반(巍班)을 욕되게 하며 터럭만큼도 보탬이 없이 한갓 두터운 녹봉만 흡치고 있습니다. …중략… 신(臣)이 예로 받는 녹봉을 특별히 정지하거나 감하도록 명하시어 진흙에 만의 하나라도 보태십시오[早忝巍班 絲毫無補 徒窃厚廩 …중략… 臣例受祿俸 特令停減 以補賑恤之萬一].”

(月沙) 이정귀(李廷龜)와 북저(北渚) 김류(金瑬)에게서 수학하였다.

먼저 이정귀는 천부적인 문학적 재능으로 당대를 비롯해 후대에까지 문단을 선도했던 작가로서의 명성과 위상이 높았다.<sup>66)</sup> 이러한 이정귀의 안목에 어린 홍주원의 비범한 재능이 들어와 직접 데려다가 기르며 가르치게 된다.<sup>67)</sup> 그가 처음 외가로 간 시기는 7~8세의 나이로 추정되며,<sup>68)</sup> 이때 외삼촌인 이명한(李明漢, 1595~1645)과 이소한(李昭漢, 1598~1645)에게도 영향을 받게 된다.<sup>69)</sup> 전통적으로 가학(家學)의 전승 및 영향이 강한 조선사회의 특성상 이정귀를 비롯한 두 외삼촌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정귀의 가계는 가학 전승이 더욱 뚜렷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sup>70)</sup> 또한 홍주원이 외가에 있던 시기는 이정귀가 인목대비의 폐위 절차가 진행되던 1617년 이후 몇 년간 폐축되어 있던 때가 포함된다.<sup>71)</sup>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료로서의 업무로 점철되어 있던 이정귀의 삶에 있어 상대적으로 한가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운문뿐만 아니라 산문에서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정귀의 문학적 역량으로 연구 성과도 상당수 축적되었다. 다만 본고에서는 홍주원에게 끼친 문학적 영향을 밝히는 대조 자료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운문과 관련된 논의에 치중

66) 이에 대해서는 손여임, 「月沙 李廷龜의 漢詩文學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44-54면에 자세히 다룬다.

67) 이에 대해 홍주원의 외삼촌인 이은상(李殷相, 1617~1678)이 쓴 홍주원의 제문에 “외가에서 길러졌다[外家於養]”고 언급하기도 하였으며(『東里集』 卷13, 〈祭內兄永安尉文〉), 홍주원도 『無何堂遺稿』 冊6, 〈祭伯舅白洲文〉에서 “불초한 조카는 왕부고의 슬하에서 성장하였는데[不肖甥 生長王父考膝下]”라고 회상한 바 있다.

68) 宋時烈, 『宋子大全』 권163, 〈永安尉洪公神道碑銘〉에 “髫髻有器度 文才異品流 月沙公取而教育之.”라고 하였는데, 초흔(髫髻)은 다락머리에 이빨을 가는 유아기로 주로 7~8세의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69) 『無何堂遺稿』 冊6, 〈祭姜參議公獻文〉에 “내가 두 외삼촌을 따랐을 적에 나이는 겨우 성동(成童)이 있네[我隨兩舅 齒纔成童].”라고 하였다. 또 『無何堂遺稿』 冊6, 〈祭伯舅白洲文〉에 “불초한 조카는 진실로 아버지와 스승처럼 섬겼습니다. …중략… 글과 술로 모시고 놀던 즐거움은 십년이 하루 같았습니다[不肖甥實父事之師事之 …중략… 文酒陪遊之樂 十年猶一日]”라고도 하였다.

70) 월사의 가계문학 전승 양상에 대해서는 이명희에 의해 집중적으로 연구된 바 있다. 이명희, 「백주 이명한 한시 연구」, 『한문학논집』 제40집, 근역한문학회, 2015; 이명희, 「月沙 李廷龜家系의 文學 傳承 研究」, 『어문연구』 제90집, 어문연구학회, 2016; 이명희, 「현주 이소한의 한시 연구」, 『어문연구』 제98집, 어문연구학회, 2018. 이 연구의 논의에 동의하며, 이를 근거로 월사와 홍주원의 영향 관계를 밝히는 작업은 두 외삼촌들과의 관계를 포함해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1) 손여임, 위의 논문, 128면.



하고자 한다. 특히 운문과 관련하여 이정귀 한시의 풍격(風格)과 관련된 논의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풍격은 시인의 전반적인 시풍과 정서를 파악하기에는 용이하지만, 평가자에 따라 그 판단 기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용어별로 명확하게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교 근거로서 명료한 기준으로 삼기에는 다소 모호한 개념이다. 이러한 변수로 보았을 때 비교 근거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의 형식이나 작법 상의 특징 등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용이한 요소들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1) 구점(口占)의 다작(多作)과 작법의 유사성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창작 기법과 시의 형식 및 구성 등에서 몇 가지 연결 고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는 구점(口占)으로 지은 작품의 수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석우는 구점의 다작은 이정귀의 시적 영감(靈感)이 뛰어나고 문장력이 탁월하다는 증거이며, 조용히 생활을 완상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것이 천부적인 문학적 재능과 결부되어 발현된 진술방식이라고 하였다.<sup>72)</sup> 손여임은 장유(張維)와 김상헌(金尙憲)의 평가를 인용해 ‘입으로 부르고 선 채로 완성’하는 이정귀의 창작 능력은 때에 따라 자연스러운 미감을 창출해낼 수 있는 유창함을 갖추고 있었으며, 고심해서 수식하거나 단련하기보다는 의미 전달에 치중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시적 성취는 수학기부터 박학을 지향하며 공부한 것과 그 응용력에서 기인했음을 김상헌의 글을 통해 예증했다. 또한 남용익, 장유, 이식 등의 평가를 예로 들어 수식에 힘쓰지 않고 뜻을 전달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음을 그의 시작 경향으로 보았다.<sup>73)</sup> 이명희는 순간적인 재치와 순발력이 요구되는 구점이 많다는 것은 자기감정 표현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이며, 바쁜 공무에 얽매어 여유로운 문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늘 창작에 손을 놓지 않은 그의 문학태도와 연결된다고 하였다.<sup>74)</sup> 또한

72) 이석우, 「月沙詩 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77-78면, 참조.

73) 손여임, 앞의 논문, 44-47면, 참조.

74) 이에 대해 손여임은 구점과 구호가 제목에 명기된 것과 그렇지 않은 작품을 구분한 선행연구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인 바 있다. 구점과 구호가 바쁜 공무에 얽매어 여유로운 문학생활을 할 수 없

특별히 용사를 사용하거나 복잡한 수사기법을 쓰지 않고 일상적인 시어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꼽았다.<sup>75)</sup> 이는 앞서 손여임이 언급한 ‘의미 전달에 치중’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전하는 이정귀의 시 중 구점과 구호(口號)으로 표기된 시는 112편이다.<sup>76)</sup> 홍주원의 경우 구점, 구호, 주필(走筆)로 표기된 것이<sup>77)</sup> 100수이다. 시체별로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 詩體  | 전체 편수     | 구점 편수             | 비율    |
|-----|-----------|-------------------|-------|
| 五言律 | 402       | 12                | 2.9%  |
| 七言律 | 756       | 8                 | 1%    |
| 五言絶 | 36        | 4                 | 11.1% |
| 七言絶 | 416       | 34                | 8.1%  |
| 五言排 | 20(모두 만사) | 0                 | 0%    |
| 七言排 | 11(모두 만사) | 0                 | 0%    |
| 五言古 | 10        | 2                 | 20%   |
| 七言古 | 1         | 0                 | 0%    |
| 燕行錄 | 364       | 40 <sup>78)</sup> | 10.9% |
| 계   | 2,016     | 100               | 4.9%  |

표2 <『무하당유고』 내 시체별 구점(口占) 현황>

는 상황에서도 늘 창작에 손을 놓지 않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공무에 바쁜 관료 문인의 위치에 걸맞게 내재화된 작법이라는 것이다. 이정귀라는 작가가 놓인 작시 현장 자체가 어린 시절 습득한 자신만의 작법과 강점을 부각시키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형성된 경향이 모든 작시 상황에 공히 적용된 것으로 이해했다. 손여임, 앞의 논문, 34-36면. 홍주원 역시 어린 시절 이정귀의 학습 방법을 통해 수학했으며, 후에는 왕실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대소사에 참석하며 이정귀와 유사한 작시 현장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

75) 이명희, 「月沙 李廷龜의 漢詩 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60-162면. 또한 이명희는 「月沙 李廷龜家系의 文學 傳乘 研究」, 『어문연구』 제90집, 어문연구학회, 2016, 177면에서도 ‘월사가계의 특징 중 하나로 세밀한 단련을 통한 시구의 선택보다 감성을 기반으로 한 자연스러운 표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에 구점과 구호가 많은 것은 그러한 일례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76) 이명희, 「月沙 李廷龜의 漢詩 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60면.

77) 구점은 초고를 엮지 않은 채 입으로 곧장 지어내는 것을 말하며, 구호와 같다(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漢韓大辭典』 第2卷, 1999, 1104면). 구호는 시제(詩題)의 하나로 문자로 쓰지 않고 시상(詩想)이 떠오르는 대로 즉석에서 음영(吟詠)하는 것이다. 남조(南朝) 양(梁)나라의 간문제(簡文帝)가 지은 ‘仰和衛尉新渝侯巡城口號’에서 비롯하여 당(唐)나라 때에 특히 많이 썼다(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앞의 책, 1106면). 또한 주필도 이와 같은 성격임을 이석우, 앞의 논문에서 지적한 바 있다.

78) 연행록 내에서도 시체별로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는데, 오언율시 8수, 칠언율시 7수, 오언절구 4수, 칠언절구가 21수이다.

연행길에서 지은 시가 40수로 가장 많은데, 이는 장거리 여정이라는 연행의 특성상 말 위에서라든가 즉석에서 시를 읊어야 하는 상황을 자주 대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별로는 절구가 73수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읍시에 비해 분량이 짧고 조어에 대한 부담이 덜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집 전체에서의 비중으로 보자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창작에 있어 형식과 표현상의 제약이 수반되는 만시(挽詩)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지은 작품들로 제한한다면 그 비율은 7.5%까지 높아진다.<sup>79)</sup>

또한 당대에는 이러한 형태의 작법이 크게 유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십수 편 가량 지은 시인들은 어느 정도 있으나, 100여 편 이상 다작을 한 인물은 이은상(李殷相, 1617~1678) 정도 밖에 보이지 않는다.<sup>80)</sup> 공교롭게도 이은상은 이정귀의 손자로 홍주원과는 사촌지간인데, 전술하였듯 이정귀 가계의 특징 중 하나인 구점과 같은 형태의 자연스럽고 즉흥적인 작시 경향을 추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작품들을 통해 살펴보겠다. 다음의 시는 이정귀가 무술년[1598] 연행에서 지은 것이다.

〈길에서 구점하다[途中口占]〉

古店依西岸 옛 객점은 서쪽 언덕에 기댔고  
 河橋柳映灣 강 다리 버들은 물굽이에 어린다  
 春生天外樹 봄은 먼 타향의 나무에서 일고  
 日落馬前山 해는 말 앞의 산에 떨어지누나  
 物色驚佳節 벌써 가절이 왔음에 놀라노니  
 年華入病顔 계절의 변화가 병든 얼굴에 보인다  
 羈愁無處寫 나그네 시름 풀 곳 없어  
 詩就不須刪 시를 지움에 다듬을 나위 있으랴<sup>81)</sup>

79) 『무하당유고』에서는 만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타 다른 문집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총 692수로 34%에 달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80) 이는 한국고전종합DB 내에서 ‘口占’, ‘口號’, ‘走筆’로 검색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이은상의 경우 구점이 179수, 구호 2수, 주필 9수로 총 190수가 해당된다.



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길 위에서 읊은 것이다. 1-4구는 눈앞의 정경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으로, 특별한 전고를 사용한 것이 없다. 길을 가던 중에 즉경(卽景)을 덩 덩하게 읊고 있으나 ‘객점이 언덕에 기대어 있다[依]’, ‘버들이 물굽이에 어려 있다[映]’와 같이 동사의 감각적인 활용을 통해 시에 회화적인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전형적인 선경후정의 구성으로 5-8구는 경치를 본 후 든 순간적인 감회를 읊고 있다. 타향의 나무에서 생겨나는 봄을 보며 빠른 시간의 흐름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타향에서 고생하며 흐른 시간만큼 얼굴에 병색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인다. 시를 지으며 나그네의 시름을 풀 곳이 없기 때문에 시를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도 없다는 말로 시름의 깊이를 짐작케 한다.

다음의 시는 홍주원이 1661년 연행 당시 길에서 읊은 것이다.

〈전둔위(前屯衛)의 길에 이르러 비로소 꽃빛이 막 흐드러진 것을 보고 느낌이 있어 구점하다[到前屯衛路中 始見花色正闌 有感口占]〉

今日前屯衛    오늘 전둔위(前屯衛)에서  
 韶光滿眼新    봄빛이 새로이 눈에 가득 찼다  
 繁華看訝雪    많은 꽃들은 눈이 서린 듯 보이고  
 細草愛如茵    가는 풀들은 방석 깔린 듯 사랑스럽네  
 異域猶爲客    이역에서 아직도 타향살이 하고 있는데  
 明朝卽送春    내일 아침이면 봄을 보내겠지  
 遙知故園會    아아! 알겠다 고향의 모임에서  
 把酒憶行人    떠난 사람 생각하며 술잔 들겠지<sup>82)</sup>

앞서 이정귀가 지은 시와 마찬가지로 1-4구까지는 눈앞에 펼쳐진 정경을, 5-8구는 자신의 소회를 읊고 있다. 전반부에 즉경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서술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정귀가 넓은 시야로 사물을

81) 李廷龜, 『月沙集』 第2卷, 「戊戌朝天錄」上. 이하 월사집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상하 역, 『국역 월사집』, 민족문화추진회, 1999의 번역을 따랐으며 일부 윤문을 가했음을 밝힌다. 또한 서명, 권수의 형식을 따른다.

82) 『無何堂遺稿』 冊7.

바라보며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한 채 동사의 감각적인 활용으로 시적인 묘미를 살렸다면, 홍주원은 보다 개인의 감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서술하고 있다. 2구의 봄빛이 눈에 가득 찼다는 것은 시인을 중심으로 그의 시선에 오로지 길거리에 만개한 꽃들만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시선을 사로잡은 꽃은 눈이 서린 듯 아름답고, 가는 풀들은 방석이 깔린 것처럼 사랑스럽게 느끼고 있다. 객관적인 사물에 개인적인 감정을 투사해 가치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정귀의 그것과는 대조적이다.

5-8구는 이역만리 행역에서의 고난을 고향 생각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차이점이 보이는데, 이정귀의 경우 정경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감지(1-5구)→타향에서 오랜 기간 있음으로 인해 병든 얼굴을 깨달음(6구)→시름이 일어나고 떨쳐낼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7-8구)과 같이 시상이 인과관계를 따라 흘러감을 알 수 있다. 반면 홍주원은 타향에서 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안타까워하면서 고향의 벚들이 자신을 생각하며 술잔을 들고 있을 것이라 가정하는 것으로 시상을 전환시키고 있다. 홍주원이 계절마다 꽃을 감상하며 지인들과 술자리를 자주 마련했던 사실로 보았을 때,<sup>83)</sup> 타향에서 마주한 꽃은 이러한 추억들을 상기시키는 매개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물을 통해 촉발된 감정을 즉흥적으로 즉석에서 읊는 구점의 방식을 사용한 것은 동일하나, 홍주원이 이정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시점에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현실적인 제약과 조건으로 인해 구점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여행길에서의 작품이 아닌 일상에서의 작품을 살펴보겠다.

〈밤에 일송(一松) 상공을 방문하여 술자리에서 입으로 읊다[夜訪一松相公 酒席口號]〉

83) 『無何堂遺稿』冊1, 〈賞梅 偶有所吟 寄龜谷老人崔奇男〉, 『無何堂遺稿』冊4, 〈與白軒湖洲滄洲禮卿諸人 賞梅共吟〉, 〈與伯昌咸卿共賦賞梅〉, 〈賞梅口占〉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송별연에서 각종 화훼들에 대한 감상평을 읊은 시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특히 노년에 집중적으로 지은 경향이 보인다. 감상의 대상이 되는 화훼의 종류도 다양한 편인데, 매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화, 대나무, 잣나무, 왜절죽, 옥잠화 등이 있다. 홍주원의 화훼 감상의 취미는 안국동 경저(京邸) 후원(後園)에 일가정(一架亭)을 짓고 직접 화훼를 수집 및 관리를 했던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송시열은 『宋子大全』卷135, 『雜著』, 〈一架亭說〉에서 “가히 무하공의 풍채를 알 수 있을만한 것이 바로 이 정자일진저![可以知無何公風彩者其惟是亭乎]”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相公僑寓水雷村 상공께서 수뢰촌에 우거하고 계시니  
 逐客來敲月下門 찬죽된 몸 찾아와 달 아래 문 두드렸지  
 一夜西窓同剪燭 하룻밤 서창에서 함께 촛불 심지 잘랐고  
 十年東閣復開尊 십 년 만에 동합에서 다시 술동이 열었어라  
 仙標却喜喬松健 신선 같은 모습은 우뚝한 솔처럼 굳건해 기쁘지만  
 世事那堪雨雪繁 세상사 몰아치는 모진 눈보라를 어이 견디리오  
 相對悄然如夢寐 쓸쓸히 서로 마주하니 마치 꿈결만 같아  
 把杯揮涕各無言 술잔 잡고 눈물 흘리며 각자 말이 없어라<sup>84)</sup>

폐축기에 쓴 작품으로, 「폐축록」에 실린 작품들은 대체로 우국(憂國) 및 계축옥사 이후 겪었던 정치적 시련으로 인한 괴로움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sup>85)</sup> 이정귀가 찾아가 인물은 인목대비가 서궁에 유폐되자 둔지산(屯之山)<sup>86)</sup>으로 물러나 살던 심희수(沈喜壽, 1548~1622)이다.<sup>87)</sup> 전반적으로 자의든 타의든 조정을 떠나있는 신하들로서의 동질감을 형성하며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다.

둔지산에 은거를 결심한 심희수를 쫓겨난 신하[逐客]인 이정귀가 찾아가 술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촛불 심지를 잘라가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으며, 그 내용은 경련과 미련을 통해 알 수 있다. 사시사철 푸른 채 한겨울도 견디는 소나무의 굳건함을 지니고 있으나, 몰아치고 있는 당쟁의 모진 눈보라를 견디지 못한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또한 각각 자의와 타의로 조정에서 물러나 있는 자신들의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말없이 술잔만 잡고 있을 수밖에 없

84) 『月沙集』第14卷, 「廢逐錄」上.

85) 이에 대해서는 손여임, 앞의 논문, 128-147면; 이명희, 「月沙 李廷龜의 漢詩 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79-92면에 자세하다.

86) 둔지산은 용산에 있는 구릉인데, 이정귀는 시에서 수뢰촌이라는 별칭으로 불렀다. 심희수가 둔산에 은거하면서 수뢰누인(水雷累人)이라고 자호했는데, 『주역』의 「수뢰둔괘(水雷屯卦)」에서 유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둔지산 혹은 둔산으로 불린 이 지역을 수뢰촌이라고 부른 용례가 한국고전종합DB에 2건 있는데, 바로 이정귀와 홍주원이다. 홍주원이 수뢰촌에 대해 언급한 시는 다음과 같다. 『無何堂遺稿』 冊4, 〈水雷村 粧送三兒娶婦 偶占一絕〉. “五月田園麥浪翻 綠陰如畫數家村 登臨便覺郊居興 晚計何須待畢婚” 승구와 전구에 의하면 한가롭고 외진 곳임을 알 수 있다.

87) 『燃藜室記述』 제18권, 「선조조 고사본말」, 〈선조조의 상신(相臣)〉, “갑인년(1614)에 정온(鄭蘊)이 상소하여 영창의 원통함을 말하니 광해가 노하여 죽이려 하였다. 이에 희수가 매우 힘써 구하여 일이 풀렸다. 대비를 서궁(西宮)에 폐고(廢錮)시키자 희수가 둔산(屯山)에 물러가 살면서 스스로 ‘수뢰누인(水雷累人)’이라고 호하였다.”

는 도탄에 빠져있음을 진솔한 표현으로 묘사했다.

다음 홍주원의 시도 가까운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지은 것이다.

〈함경(咸卿), 무중(武仲) 유계(兪槩), 중초(仲初) 조복양(趙復陽)과 함께 술 마시며 읊다[與咸卿兪武仲槩趙仲初復陽 同飲口號]〉

經歲沉綿病 해 지나도 병이 낫지 않고 지속되는데  
幽懷底處開 그윽한 회포는 어느 곳에서 풀고  
燈前逢勝友 등불 앞에서 좋은 벗들 만나  
梅下把深盃 매화 아래에서 깊은 술잔 잡았다네  
禁漏從他緩 물시계는 느리게 가도록 맡겨두었으니  
歸鞍且莫催 돌아가는 안장을 우선은 재촉하지 마시길  
今宵不盡興 오늘밤 다하지 못한 흥은  
須待月中來 마땅히 이번 달 중 오기를 기다려야지<sup>88)</sup>

동석한 인물들은 홍주원의 외사촌인 이일상(李一相, 1612~1666)과 유계(兪槩, 1607~1664), 조복양(趙復陽, 1609~1671)<sup>89)</sup>이다. 1660년대 초에 지은 이 시는 6구로 보아 홍주원의 집으로 지인들을 초대하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말년에 건강 문제가 심각했던 시인이지만, 이 날 만큼은 해가 지날수록 낫지 않고 악화되는 병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병든 몸으로 인해 그윽한 회포를 풀 방법이 여의치 않았으나, 좋은 벗들이 시인의 집을 방문하여 매화 아래에서 등불 켜고 술잔을 잡았기 때문이다.

경련과 미련을 통해서는 이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즐거운지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물시계를 느리게 가도록 맡겨두었을 정도로 이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하는 시인의 바람과 동석자들이 돌아갈 것을 재촉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즐거운 감정을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을 충족할 수는 없어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88) 『無何堂遺稿』 冊1.

89) 홍주원은 조복양의 부인과 죽은 아들의 부인인 며느리의 만시도 지어줄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다. 두 편의 만시는 모두 『無何堂遺稿』 冊3에 실려 있으며, 부인의 만시는 〈趙仲初夫人挽〉, 며느리의 만시는 〈趙仲初亡子婦沈氏挽〉이다.

앞서 이정귀의 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감정을 특별한 전고나 복잡한 수사 없이 직서(直敍)의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서술의 주체가 되는 대상과 입장이다. 이정귀의 경우 심희수를 중심으로 서술하며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즉 주체인 심희수에 이정귀가 객체로서 동석하고 있는 것이며, 동류의식을 표출하는 것이 시의 핵심이다. 이에 반해 홍주원의 경우는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수련과 함련은 자신의 속마음을, 경련과 미련은 동석자들에게 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앞서 연행 도중 지은 시에서도 월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의 감정 묘사에 치중하고 있는 점과 유사한 궤를 이루고 있다.

## 2) 만시(挽詩)의 다작(多作)<sup>90)</sup>과 작법의 유사성

이정귀와 홍주원의 친연성을 담보할 두 번째 근거는 만시(挽詩)이다. 두 사람은 동시기 여타 문인들에 비해 많은 수의 만시를 남겼다. 이정귀의 경우 총 271수의 만시를 남겼는데, 이는 이전의 문집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의 양이며 단적으로 한문사대가로 일컬어지는 신흠(30편), 이식(37편), 장유(126편)에 비해 월등한 양이다.<sup>91)</sup> 홍주원 역시 시편의 절대적인 수를 비롯해 문집 내의 비율에서도 독보적으로 많은 양의 만시를 남겼다. 이례적으로 많은 만시를 남겼다고 평가받은 이정귀에 견주어도 2배 이상의 분량이다. 아래의 도표는 『무하당유고』 내 만시 상황을 도식화 한 것이다.

| 詩體  | 전체 편수 | 만시 편수 | 비율    |
|-----|-------|-------|-------|
| 五言律 | 402   | 187   | 46.5% |
| 七言律 | 756   | 422   | 55.8% |
| 五言絶 | 36    | 0     | 0%    |
| 七言絶 | 416   | 51    | 12.2% |

90) 본 항목에서는 이정귀와 홍주원의 사승관계를 밝히기 위한 근거로서 만시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만시에 대한 일반론과 선행 연구의 정리 등은 홍주원의 만시를 본격적으로 분석할 3장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91) 한편, 이정귀의 아들이자 홍주원의 외삼촌인 이명환의 경우도 135편의 만시를 남겼는데, 이 역시 적은 양은 아니다. 이명희, 「月沙 李廷龜의 漢詩 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43-144면. 이러한 점은 전술하였던 이정귀 집안의 가계문학 전승 양상과도 상통한다.

|     |       |     |       |
|-----|-------|-----|-------|
| 五言排 | 20    | 20  | 100%  |
| 七言排 | 11    | 11  | 100%  |
| 五言古 | 10    | 1   | 10%   |
| 七言古 | 1     | 0   | 0%    |
| 燕行錄 | 364   | 0   | 0%    |
| 계   | 2,016 | 692 | 34.3% |

표3 <『무하당유고』 내 만시 현황>

홍주원은 총 692수의 만시를 남겼으며, 이는 전체 한시의 34%에 해당한다. 특히 부고를 듣고 만시를 짓기에 무리가 있는 여행기간 동안 지은 여행시를 제외한다면 만시의 비율은 41%에 달한다. 이는 이전 시기는 물론 당대에서도 독보적인 양이라고 할 수 있으며,<sup>92)</sup> 상장례가 일반으로 확대 및 보편화됨으로써 만시의 창작이 활성화된 조선후기<sup>93)</sup>에 비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양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홍주원의 만시를 대표적인 특색으로 지적한 바 있다. 만시가 시의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 하나의 특색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홍주원이 부마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과 내외의 친족들이 왕성하고 내왕이 빈번하였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sup>94)</sup> 그러나 단적으로 동시기 같은 부마의 신분이면서 폭넓은 교유관계를 보여주었던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의 경우 『낙전당집(樂全堂集)』에 8편의 만시만 실려 있을 뿐이며, 금양위(錦陽尉) 박미(朴彌)의 경우 『분서집(汾西集)』에 34편만이 보인다. 홍주원 만시의 분량은 당시를 비롯한 전후의 어떤 시기에 견주어도 상당한 양이며, 이는 단순히 부마의 지위 및 친족들의 왕성함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sup>95)</sup>

92) 단편적인 언급이긴 하지만 하정승은 홍주원을 한국한시사에서 가장 많은 만시를 창작한 인물로 평가하였다. 하정승, 「藥泉 南九萬의 한시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동양한문학연구』 제 47집, 동양한문학회, 2017, 124면 각주5 참조.

93) 윤재환, 「玉洞 李澈의 輓詩를 통해 본 朝鮮朝 輓詩의 一 樣相」, 『韓民族語文學』 제65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348면.

94) 윤호진, 「無何堂 洪柱元의 시세계」, 『남명학연구』 제57집, 남명학연구소, 2017, 197면.

95) 문집이라는 것은 작자든 타인이든 편집자의 의도가 반영돼 산삭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집에 남은 작품 숫자만으로 단정하는 것은 진상을 왜곡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견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현전하는 자료들에 한정해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한편 시체별로 비율을 살펴보면 절구가 51수(7.3%)인데, 5言은 전무하고 모두 7言이다.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 서술하기에 절구는 형식적인 편폭의 제한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일 것이다. 칠언절구 51수 중 3수<sup>96)</sup>를 제외한 14제 48수가 연작시인 것은 이에 대한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율시의 경우에도 5言보다 7言이 2배 이상 많은 것 역시 이와 같은 연유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시 자체를 11편 밖에 짓지 않았지만, 이 중 만시는 1편에 불과하다. 고시는 형식적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형태로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 유족에 대한 위로, 애도자인 시인의 비탄 등을 근체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폭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sup>9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주원의 경우 율시가 압도적인 비율(96%)을 차지하고 있다.<sup>98)</sup> 이 지점에서 이정귀와 차이가 있는데, 홍주원이 1편을 제외한 모든 만시를 근체시로 지은 반면 이정귀는 근체시만을 고집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시체를 활용해 만시를 지었다. 그러나 이 점은 만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창작 성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홍주원이 11편의 고시를 제외하고 근체시 위주로 창작한 것에<sup>99)</sup> 비해 이정귀는 기본적으로 근체시의 창작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다양한 시체를 활용해 시를 지었다.<sup>100)</sup> 근체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은 이정귀와 홍주원의 기본적인 창작 성향의 유사성으로

96) 『無何堂遺稿』 冊4, 〈挽韓生員〉, 〈仁城君遷葬挽〉, 〈挽益豐君〉.

97) 김진옥은 만시의 특성상 고시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특이한 점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진옥, 「梅泉 輓詩의 文藝美 研究」, 『한국시가문화연구』 제40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101-102면.

98) 하정승은 만시는 포은 정몽주처럼 칠언절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율시 위주로 작시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함련과 경련을 대가로 구성해야 하는 율시의 작법이 망자에 대한 추억과 시인의 감정을 각종 비유 및 고사의 인용 등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그려내기에 좋은 형식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였다. 하정승, 위의 논문, 128면.

99) 특히 근체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오언과 칠언의 절구와 율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98%에 달한다.

100) 이정귀 역시 오언절구, 오언율시, 칠언절구 칠언율시가 전체의 91%(1,583수)를 차지한다는 면에서 홍주원과 마찬가지로 근체시의 기본 형식에 치중한 성향을 보였다. 손여임, 위의 논문, 40면 참조. 그러나 나머지 10% 중 사언시(四言詩)나 육언시(六言詩), 보탑시(寶塔詩), 사(詞), 부(賦), 가행체(歌行體), 악부시(樂府詩), 악장(樂章) 등 다양한 시체로 존재한다는 면에서 홍주원과 차이가 있다. 이정귀의 다양한 시체의 활용에 대해서는 이명희, 「月沙 李廷龜의 漢詩 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66-176면 참조.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시체의 활용 여부는 개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정귀 만시의 특징은 선행 연구에서 크게 세 가지로 지적된 바 있다. 첫째, 상대방과의 인연 서술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의례적인 칭송에 치중하지 않고, 인연과 정에 집중하여 망자와의 인연이 특별했음을 강조한 점이다. 둘째, 죽음 자체가 아닌 행복했던 삶에 서술을 치중하는 등 죽음에 대해 다양하게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명을 이루지 못하거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인물들의 경우 그 삶의 가치에 대해 인정함으로써 위로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정귀가 만시의 상투성에서 벗어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려 한 고민의 흔적이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01)</sup>

만시의 상투성에서 탈피하여 애도자로서 진실성을 담아내기 위한 시인의 바람으로 인해 위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났을 수 있다. 고인이 되었든 유족이 되었든 애도와 위로의 정서가 반드시 내포되어야 하는 만시의 장르적 특성상 시인 개인의 개성을 표출하기에는 다른 시형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요인에 좀 더 천착해보면 이정귀의 폭넓은 교유관계가 그 전제 조건 중 하나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sup>102)</sup> 폭넓은 교유관계는 그만큼 다양한 죽음의 상황과 생전의 삶을 만시 속에 담아내야 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실제로 이정귀가 남긴 만시의 수가 증명하고 있다.<sup>103)</sup>

홍주원의 경우도 남긴 만시의 숫자만큼 대상 인물들 역시 다양하다.<sup>104)</sup>

101) 이명희, 위의 논문, 143-159면, 참조.

102) 이명희, 위의 논문에서도 이정귀의 만시는 그의 교류와 활동의 폭이 매우 넓고, 복합적인 인연을 가진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103) 이는 이정귀의 경우에 국한한 것이다. 만시의 다작에 있어 폭넓은 교유관계가 필요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폭넓은 교유관계가 만시의 다작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정귀의 개인적 성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겠으나, 이정귀가 만시를 다작한 요인 중의 하나로 폭넓은 교유관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104) 기본적으로 관료, 지인, 친인척 등을 비롯해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근거한 것들이 있다. 또한 만시를 제외한 어떤 교류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와 대작(代作) 같이 청탁으로 인한 작품들도 상당수 있다. 대작과 관련하여 윤호진은 그 특수성 때문에 한 사람의 문집에 많이 보이는 경우가 흔치 않아 홍주원의 만시 대작의 숫자가 이례적으로 많은 것(55제 71수)임을 지적한 바 있다. 윤호진, 『無何堂 洪柱元の 시세계』, 『남명학연구』 제57집, 남명학연구소, 2017, 204면. 이와 관련하여 윤재환은 대인작

이정귀와 홍주원은 만시의 대상에 있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지었다는 점과 여성의 경우도 기피하지 않고<sup>105)</sup> 상당수를 남겼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몇 가지 경우에 대해 작품을 통하여 실증하고자 한다. 먼저 일반적으로 만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도봉시(悼朋詩)<sup>106)</sup>를 살펴보겠다.

〈오대년 만사[挽吳大年]〉

放逐吾儕事 방축되는 것은 우리들의 일이요  
摧殘造物情 만물을 시들게 하는 건 조물주 마음  
又聞亡此老 또 듣자니 이 늙은이를 잃었다니  
誰與仗餘生 누구와 더불어 여생을 의지할꼬  
日月方廻炤 일월은 바야흐로 빛을 되돌리었고  
江河不廢名 강하처럼 이름은 사라지지 않으리  
一歸終孰免 한 번 죽음을 그 누가 면하리오  
無媿卽爲榮 부끄러울 것 없으면 곧 영광인 게지<sup>107)</sup>

오억령(吳億齡, 1552~1618)에 대한 만시이다. 오억령은 인목대비 폐모론에 반대했던 인물이었으며, 이정귀에게 있어서 정치적 동지였던 인물 중 한

(代人作)의 경우 조선 후기로 가면서 많이 등장하며 청탁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이는 곧 문명(文名)을 인정받은 증거이기도 하며, 만시의 창작이 관습화·의례화 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윤재환, 앞의 논문, 348면.

105) 만시에 대한 연구 초기에 여성에 대한 만시의 창작은 퇴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으나(이정화, 「退溪 李滉의 挽詩 研究」, 『韓國思想과 文化』 제9집, 修德文化社, 2000, 49면), 동시기 율곡의 경우에도 3명의 여성을 위한 만시를 남긴 바 있다(김진옥, 「栗谷 李珣 挽詩 研究」, 『문화와 융합』 제38권 5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6, 387면).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에 대한 만시 창작을 기피하거나 꺼린 정황은 포착되지 않는다는 논의가 제출되었다(윤인현, 「고려·조선 儒者의 挽詩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제56집, 2014, 130면). 한편 홍주원과 동시기의 인물 중에서도 여성의 만시를 창작한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두경(鄭斗卿, 1597~1673)과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거나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남면, 「鄭斗卿 挽詩 研究」, 『大東漢文學』 제35집, 대동한문학회, 2011; 주영아, 「朴世堂 挽詩의 흐름과 표현 양상」, 『東方學』 제21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1이다.

106) 도봉시라는 용어는 전통적으로 관습화 되어 있던 것은 아니나, 최재남이 哭兄弟詩와 마찬가지로 悼亡詩, 哭子詩에 견주어 친구 및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의 개념으로 사용한 이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정립되었기에 본고에서도 이를 따른다. 이에 대해서는 최재남, 『韓國哀悼詩研究』,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37~41면 참조.

107) 『月沙集』 第14卷, 「廢逐錄」 上.

명이다. 그는 인목대비 폐출 반대사건으로 인해 대죄하며 교외에 숨어 살다 죽었다.<sup>108)</sup> 수련에서는 인사(人事)와 자연의 섭리와의 대비를 통해 오억령의 죽음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치적 시련으로 인해 축출된 공통된 경험을 제시하면서 우리들[吾儕]이라는 표현을 통해 동류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인간사의 한 단면에 불과할 뿐이고, 인간을 포함한 만물들을 시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은 조물주에게 달려 있다. 죽음은 인간으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자연의 섭리라는 것을 언급한 것은 개인의 슬픔을 억제하고 담담함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sup>109)</sup> 이러한 감정 억제의 의지는 함련으로까지 이어진다. 오억령의 부고를 듣고 이정귀가 가장 먼저 한 생각은 여생을 누구에게 의지할까라는 것이었다. 만사에서 벗의 죽음에 있어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월사가 벗으로서 오억령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경련에서는 전고를 사용하여 오억령의 삶을 칭양하고 있다. 5구는 소식(蘇軾)이 찬축된 후에 지은 〈결상주거주표(乞常州居住表)〉를 점화한 것으로 임금이 사면해준 것을 뜻한다. 일차적으로 오억령이 소식과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용사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오억령을 소식에 비견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칭양이기도 하다. 6구에서는 두보(杜甫)의 〈희위육절(戲爲六節)〉의 두 번째 수에서 초당사걸(初唐四傑)의 시문을 비웃는 경박한 문사들을 두고 ‘너희는 몸과 이름이 함께 사라지겠지만, 없어지지 않는 강하는 만고에 흐르리라[爾曹身與名俱滅 不廢江河萬古流]’라고 한 것을 점화하여 오억령의 문학적인 능력을 칭양한 것이다. 7구에서는 앞서 표출한 정서의 연장선상에서의 담담함과 만물의 일부로서 시들어 사라짐을 면할 수 없는 존재의 이치에 대해 자문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는 망자와 애도자 모두를 위로하는 동시에 남겨진 자들의 감정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8구에서는 망자의 삶을 부끄러움 없었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고난으로 인해 방축을 겪었으며, 숨어 살다 초라하게 죽음을 맞은 오억령이지만 이는 1구

108) 『광해군일기』 10년(1618) 11월 11일, 〈전 판서 오억령의 졸기〉.

109) 최재남은 이러한 특성을 진혼(鎮魂)의 한 측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진혼이 죽음 자체에 대한 사유와 연결된 발화에서 드러난다고 본 것인데, 죽음이 주는 공포나 삶의 단절감을 상쇄하려는 입장에서 죽음이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사유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최재남, 앞의 책, 104-111면 참조.

에서 언급했듯 인간사의 일부에 불과할 뿐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환로에서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며, 오억령은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을지언정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다갔기에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 이정귀는 오억령의 삶을 ‘정치적으로 험로를 걸었으나 부끄러움은 전혀 없었다는 점’과 ‘걸출한 문학적 능력’으로 압축해 보여주고 있다. 애도자로서의 입장에서는 죽음이 만물에 적용되는 자연의 섭리임을 들어 불가피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감정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비쳤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감정 억제의 의지가 오억령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더욱 여실히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홍주원의 도봉시를 살펴보겠다.

〈판서(判書) 중초(仲初) 조복양(趙復陽) 만사[挽趙判書仲初復陽 其三]〉

纔聞承召詣楓宸 비로소 임금님 부름 받고 궁궐에 이르렀더니  
忽報凶音僅隔晨 갑자기 부음 알려진 것이 겨우 어제였다네  
浮世寓形眞一夢 덧없는 세상에 형체 붙어산 것 진실로 한바탕 꿈이니  
暮途知己更何人 늘그막에 날 알아줄 이는 다시 어떤 사람일런지  
過從可忍成陳跡 서로 어울렸던 일이 묵은 자취로 변함을 차마 견디랴  
痛惜還如割半身 애통함은 몸의 절반을 잘라낸 것 같도다  
元伯靈車應有待 원백(元伯)의 상여는 응당 기다리고 있을 것이나  
巨卿淹病哭無因 거경(巨卿)은 병이 들어 곡할 방법이 없네<sup>110)</sup>

인용시는 조복양(趙復陽)의 만사 4수 중 세 번째 수이다. 전술하였듯 조복양과 홍주원은 절친한 관계였다. 총 4편의 시는 서술 방식에 있어 갈수록 개인의 감정이 짙게 표출된다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시에서는 감정적인 표현이 결여된 채 객관적인 칭양을 위주로 서술하였는데, 조복양의 관료로서의 뛰어난 능력과 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인재를 잃게 된 국가적 손실임을 보여주었다. 경련에서 가난함을 안타까워한 표현이 있으나, 이 역시 그의

110) 『無何堂遺稿』 冊3.

청렴함을 칭양하고자 한 수단으로 기능한 것이다.<sup>111)</sup> 조선후기 만시의 폐단으로 지적되기도 했던 지나친 칭양으로 인한 의례성과 상투성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가 조복양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집약한 것이라면, 이어지는 두 번째 시에서는 보다 개인적 감정이 가미된 평가를 하고 있다. 조복양의 인격적 특징으로 ‘정성스러움’을 꼽으면서도 이것이 개인적 친분으로 인한 평가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전고를 통해 그의 정치적·문학적 역량을 칭송하였는데, 여러 제신(諸臣)들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과 문장의 돈독함에 대한 것으로 같은 칭양이지만 앞선 첫 번째 시에 비해서는 사적인 견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미련에서는 국가는 훌륭한 신하를 잃은 것이지만, 자신은 벼슬 잃은 것이기에 노년에 눈물만 흘리고 있다며 직접적인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sup>112)</sup>

위에 인용한 세 번째 시는 전적으로 애도자의 입장에서 조복양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읊은 것이다. 조복양의 몰년인 1671년은 홍주원이 병의 위중함으로 인해 공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녹봉까지 사양하는 소를 올렸던 때이다. 임금의 부름으로 입궐하여 들은 조복양의 부음은 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조복양의 죽음은 생전의 60여 년 세월이 한바탕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홍주원에게 있어서 부정하고 싶은 사실인 것이다. 또한 말년에 접어든 시인에게 그와 같은 지기(知己)를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고인과 애도자 간의 친분 정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경련에서는 그의 죽음으로 인한 심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종유했던 추억들이 묵은 자취로 변할 것을 차마 견딜 자신이 없으며, 그 상실감은 마치 반신(半身)이 도려내진 것과 같다고 하였다. 미련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원백(元伯)과 거경(巨卿)의 전고를 통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sup>113)</sup> 먼저 세상을 떠난 조복양

111) 『無何堂遺稿』 冊3, 〈挽趙判書仲初復陽〉, “銓柄文衡付倘來 自然名位近三台 傳家行誼忠移孝 經世猷爲德勝才 久識姚崇居乏第 最憐懷慎葬無財 知君感泣泉臺下 震悼絲綸字字哀.”

112) 『無何堂遺稿』 冊3, 〈挽趙判書仲初復陽〉 其二, “評人豈以所親阿 惻惻如君見未多 元祐風聲還可並 西京篤厚亦堪誇 言當論事持堅確 政在寬民滌細苛 國失盡臣私失友 白頭雙淚謾橫斜.”

113) 원백(元伯)과 거경(巨卿)은 후한(後漢) 때의 인물들로 절친한 관계였다. 원백이 병으로 죽고 거경의 꿈에 나타나 죽은 날과 지승으로 가는 날을 알려주었다. 거경은 곧바로 상복을 입고 길을 떠났다. 원백의 상여가 묘소에 이르러 하관(下棺)하려 하자 움직이지 않았는데, 얼마 뒤 거경이 와서 영구(靈柩) 앞에서 조문하며 상여끈을 잡아끄니 상여가 움직였다고 한다. 『後漢書』 권111, 〈獨行列傳 范式〉.

은 원백의 상여처럼 자신이 찾아와 조문할 것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거경으로 비유된 자신은 병으로 인해 찾아가 곡할 수 없는 서글픈 현실을 만시로나마 풀어내었다. 원백과 거경에 비할 정도로 절친한 관계임에도 조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네 번째 시에서는 같은 해에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겪은 것과 조복양의 죽음에 대해 하늘과 귀신을 원망하는<sup>114)</sup> 한편, 남아있는 자신의 삶은 지병으로 인해 지루하게 버티기만 하는 삶임을 조복양에게 하소연 하듯이 읊었다.<sup>115)</sup>

이정귀의 경우 죽음은 자연의 섭리라는 운명론적인 접근을 위주로 하여 개인적인 감정의 억제를 통해 애통함을 문면에 드러내지 않고 내면화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 슬픔을 배가시키고 있다. 반면에 홍주원은 의례성 짙은 청양을 첫 번째 수에 배치하며 형식적인 구색을 갖춘 후, 연작시의 뒤로 갈수록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직서하고 있다. 두 번째 시에서 그의 죽음을 현실적으로 인지하여 ‘벗을 잃고[失友]’라고 하며 ‘부질없이 눈물만 흘렸다[雙淚謾橫斜]’는 표현과 세 번째 시에서 ‘차마 견디랴[可忍]’, ‘몸의 절반을 잘라낸 듯[還如割半身]’과 같은 표현으로 여과 없이 슬픔을 드러내었다. 네 번째 시에서는 슬픔에서 더 나아가 운명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감정이 더욱 고조되었다.

다음으로 여성의 만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이정귀의 시이다.

〈동지(同知) 강인경(姜仁卿)의 부인에 대한 만사[挽姜同知仁卿夫人]〉

苦憶商顏老 상안의 늙은이가 몹시 그리워서  
連宵夢見之 매일 밤 꿈에서 보았다고  
纔聞主饋樂 주계의 즐거움 누린단 말 겨우 듣자  
遽抱叩盆悲 아내 잃은 슬픔을 당하고 말았구려

114) 최재남은 이에 대해 질문의 어법이나 상실에 대한 반작용으로 항의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외치는 비탄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혼 부르기의 방식이나 죽은 님을 향한 외침도 불러보거나 질문의 어법에 해당하며, 하늘을 불러 따지고 드는 경우나 죽은 님이 어디에 있느냐를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방식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것이 비탄(悲嘆)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최재남, 앞의 책, 65-66면.

115) 『無何堂遺稿』冊3, 〈挽趙判書仲初復陽〉其四, “前春我抱喪明悲 君哭賢郎亦一時 天若有知那忍此 鬼偏爲虐乃如斯 相逢各吐酸辛語 永訣俄驚殄瘁詩 泉下定從諸友會 爲言殘喘尙支離.”



恨結原頭草 한은 언덕 위의 풀에 맺히었고  
 香留障上兒 향기는 병풍 곁 아이에 남았어라  
 泉臺長已矣 구천으로 떠나 이제 영영 그만이니  
 衰白更依誰 노쇠하여 이제 다시 누구를 의지할거나<sup>116)</sup>

인용시는 강인(姜綏, 1555~1634)의 부인에 대한 만시이다. 고인인 부인에 대한 애도의 정서는 감지하기 어렵고, 남아있는 자들인 남편과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의 감정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수련에서는 상산(商山)의 노인으로 비견되는 강인이 계속 그리워 꿈에서 보일 정도였으나, 처상(妻喪)의 부음으로 그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 여기에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으나 연락을 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함께 오랜만에 접한 소식이 처상인 것에 대한 안쓰러움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 3구의 주궤(主饋)는 집안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제사 받드는 일을 주관한다는 뜻으로, 곧 부인의 도리를 뜻한다.<sup>117)</sup> 즉 주궤의 즐거움은 강인의 부인이 그 도리를 잘 수행해 집안이 화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 채 아내의 죽음을 맞게 되었다. 4구의 고분(叩盆)은 처상의 전형적인 용사로 장자가 아내를 잃고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sup>118)</sup>

경련은 남겨진 남편과 아이에 대한 애처로움을 전고를 통해 표현했다. 각각 5구는 남편이 먼 곳에 떨어져 있어 부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음을, 6구는 젖먹이 어린아이를 두고 떠난 것을 의미한다.<sup>119)</sup> 미련에서 강인에 대한 근심을 내비치며 마무리 하고 있다. 부부가 이승과 저승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공간으로 떨어지게 된 것도 모자라 강인이 노쇠한 환부(鰥夫)로서 의지할 이

116) 『月沙集』第16卷, 「倦應錄」上.

117) 『주역』, 「家人卦」에 “六二 無攸遂 在中饋 貞吉.”라고 하였으며, 그 傳에 “유순(柔順)함으로 중정(中正)에 처함은 부인의 도이다. 그러므로 규중에서 음식을 장만하면 그 바름을 얻어 길하니, 부인은 규중에 있으면서 음식을 주관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中饋라 이르는 것이다(柔順處中正 婦人之道也 故在中饋 則得其正而吉也 婦人 居中而主饋者也 故云中饋).” 하였다.

118) 『莊子』, 「至樂」, “莊子妻死 惠子弔之 莊子方箕踞叩盆而歌.”

119) 이는 매개 인물의 도입을 통해 비탄의 감정을 간접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린아이를 끌어들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냄으로써 내면적인 고통의 강도를 높이는 애도시의 전통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은 유교 사회의 규범으로 말미암은 정서의 절제가 어른들의 비탄을 제약하고 대신 여자들이나 어린아이의 몫으로 간주하는 것과 일정한 관련이 있기도 하다. 최재남, 앞의 책, 66-71면 참조.



없는 신세가 되었음을 안타깝게 여긴 것이다.

다음은 홍주원이 지은 이태안(李泰安) 부인에 대한 만시이다.

〈이태안(李泰安) 내실(內室) 만사[李泰安內室挽]〉

夷甫鍾情慟 이보(夷甫)는 자식 잃은 슬픔 있었고  
蘇州賦出還 소주(蘇州)는 〈출환(出還)〉을 읊었었지  
人生百載半 인생은 백년의 절반 되었으나  
家患數年間 집안의 근심은 수 년 동안이네  
故鏡塵埋匣 옛 거울은 먼지에 묻힌 갑에 있고  
新阡雪滿山 새로운 무덤은 눈 가득한 산에 있도다  
二郎那忍對 두 아들을 어찌 차마 대할 것인가  
經歲再遭艱 해를 넘기니 다시 어려움을 만났네<sup>120)</sup>

문집 내에서 이태안과 관련된 기록은 이 시가 유일하다.<sup>121)</sup> 이것 역시 앞서 월사의 시와 마찬가지로 고인보다 남겨진 이태안에 대한 안쓰러움의 정서로 점철되어 있다. 수련에서는 연이은 상사를 당한 것을 용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1구의 이보(夷甫)는 진(晉)나라 왕연(王衍) 자(字)로 자식을 잃었던 인물이며, 2구는 소주자사(蘇州刺史)를 지냈던 당나라의 시인 위응물(韋應物)이 처상 후에 자신의 절절한 심정을 읊은 19편의 연작시 중 한 편인 〈출환(出還)〉을 지은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이태안이 자식과 부인을 잃게 된 것을 알 수 있으며, 4구를 통해 상사가 연달아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경련에서는 부인이 죽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을 짐작케 한다. 5구의 거울을 ‘옛 것’으로 규정한 것은 주인을 잃은 물건임을 암시하는 것이며, 또한 ‘먼지에 묻힌 갑’은 보관된 거울을 다시 꺼내본 적도, 앞으로 꺼내볼 일도 없음을 암시한다. 거울은 주인을 잃어 ‘옛’ 것이 되었지만, 무덤은 주인을 찾아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것에서 현세와 저승의 단절에서 오는 괴리감을

120) 『無何堂遺稿』 冊1.

121) 이태안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지 않다. 『澤堂集』 제4권, 〈送李泰安謫臨陂〉를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데, 택당이 군산[臨陂]으로 귀양을 가는 이태안을 전송하는 내용이다. 제목의 세주에는 1635년 이태안이 공무를 수행하다 역을 얻어 결장정배(決杖定配) 되었다고 하였다.

느끼게 한다. 미련 역시 이태안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을 마주해야 하는 아버지로서의 괴로움 및 자식상과 처상을 연달아 당한 상황을 가련히 여기고 있다.

이정귀와 홍주원 모두 망자에 대한 애처로움의 정서보다 남겨진 남편에 대한 위로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정귀의 경우는 ‘주궤락(主饋樂)’을 통해 부인의 덕을 칭송한 표현이 있으나, 홍주원의 경우는 오로지 이태안의 입장에 서만 기술되고 있다. 남녀 간의 교류가 폐쇄적이었던 유교 사회의 규범이 비록 만시라 할지라도 부인에 대한 언급을 자제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달하지 못한 인물에 대한 만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정귀의 시를 먼저 살펴보겠다.

〈백선명(白善明) 만사[挽白善鳴]〉

晉筆唐詩父子專    진필과 당시의 명성 부자가 독차지했으니  
瓊琚一出萬人傳    시편이 한번 나오면 만인에게 전파되었지  
靑雲路隔難通籍    청운의 길은 막혀 벼슬에 나아가기 어려웠고  
白玉樓成促上仙    백옥루가 완공되매 하늘로 오르라 독촉받았지  
毫管謾留王氏塚    붓자루는 속절없이 왕씨의 무덤에 남았지만  
星虹應炤米家船    별 무지개는 응당 미가의 배를 비추리라  
年年橘柚秋霜後    해마다 가을 서리 내려 굴이 익을 때면  
無復清香帶錦牋    서신과 함께 오는 향긋한 굴은 다시 없으리<sup>122)</sup>

시인과 서예가로서는 명성이 높았으나, 관운(官運)이 따르지 않아 포의(布衣)로서 생을 마감한 백진남(白振南, 1564~1618)의 만시이다. 전체적으로 죽음을 이미지화 하는 적막하거나 음울한 분위기의 시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생전의 삶에 대한 칭양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수련은 백진남과 그의 부친인 백광훈(白光勳, 1537~1582)의 서예가와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칭송한 것이다. 그러나 백진남은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후 대과(大科)에 오르지 못한 채

122) 『月沙集』第14卷, 「廢逐錄」上.

죽고 말았다. 이정귀는 현달하지 못한 채 맞이한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그의 재주를 세상 사람들이 이미 알아주었으며, 다만 불우(不遇)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4구는 이러한 의도에서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재 시인으로 칭송되던 당나라의 이하(李賀)는 몰락한 종실의 후예로 정치적인 포부는 펼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상제(上帝)께서 백옥루를 지었는데 그대를 불러 기문(記文)을 짓게 하려 한다.”라고 쓰인 판자를 가지고 찾아온 것을 보고 죽었다는 고사가 있다.<sup>123)</sup> 시인으로서 명성이 자자했다는 점과 관운이 없었다는 공통점에서 백진남에게 적합한 용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백진남도 이하처럼 상제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치부하여 그의 죽음을 현실보다 나아질 희망적인 것으로 보았다. 같은 재주를 가지고 현실에서 쓰이지 못한 것을 하늘에서는 미리 알고 빨리 오를 것을 ‘독촉’까지 했다는 것은 백진남의 재주에 대한 이정귀의 인정이자 현실과 대비해 희망적일 것이라는 위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경련에서는 지상과 하늘의 대비를 통해 1-4구까지의 백진남에 대한 칭양과 위로의 정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5구는 백진남을 왕희지에 비긴 것으로, 그가 세상에 남긴 붓자루는 쓸모가 없어져 ‘속절없이[謾]’ 지상의 무덤에 남게 된 것을 말하였다. 6구에서는 북송(北宋) 때 서화가로 유명했던 미불(米芾)에 고인을 비유했다. 동시기의 인물인 황정견(黃庭堅)이 그에게 준 〈희증미원장(戲贈米元章)〉의 “창강에 밤새도록 무지개가 해를 꿰뚫으니, 이는 필시 미가의 서화 실은 배이리[滄江盡夜虹貫日 定是米家書畫船].”를 용사한 것이다. 땅에 남아있는 붓자루는 주인을 잃은 채 무덤에서 썩겠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하늘의 별 무지개가 ‘마땅히[應]’ 비출 것이라는 것을 통해 세상에 남아 전하게 될 것임을 말한 것이다. 독자로 하여금 지상(무덤)에서 하늘(별 무지개)까지의 낙차를 통해 현실과 저승의 괴리를 효율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앞선 수련과 함련의 정서를 한층 강화한 후에 마무리하고 있다.

1-4구가 생전의 삶과 죽은 직후로 대변되는 과거라면, 5-8구는 현재의 시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련은 시상이 급격히 전환되어 남아있는 이정귀의 입장에서 서술되었다. 그에게 있어 백진남은 가을 서리 내리고 굴 익는 때

123) 李商殷, 『李商殷詩集』, 〈李長吉小傳〉, “上帝成白玉樓 召君作記.”

면 생각나는 인물인데, 해마다 이 때가 되면 편지와 함께 굴을 부쳐주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고인과의 대표적인 추억을 언급하고, 이러한 추억이 재현 될 일이 없음을 안타까워한 것이다. 8구의 ‘다시 없으리[無復]’는 이정귀에게 있어 편지와 굴을 부쳐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행위의 주체가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해준다. 즉 같은 행위더라도 백진남은 세상에 없으니 영원히 묻어야 할 추억이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암시는 앞서 홍주원의 경우처럼 감정을 직서한 것이 아니라, 슬픔을 내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홍주원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다.

#### 〈노생원(盧生員) 만사[挽盧生員]〉

蘇相聲名世共稱 소상(蘇相)의 명성을 세상에서 모두 칭송하는데  
 家庭訓法從孫承 가정의 가르침과 법을 자손이 이으셨도다  
 連姻仲父爲兄弟 잇달은 혼인으로 중부님과 형제가 되었고  
 同甲先君托友朋 동갑인 선군과는 벗으로 의지했다네  
 餘慶可徵三子在 남는 경사는 세 아들에게서 가히 징험할 수 있고  
 八旬仍見一年增 팔순하고도 거듭 일 년을 더하셨음을 보았다  
 緘辭遠寄商山去 애사를 봉하여 멀리 상산으로 부쳐 보내면서  
 感舊傷今涕滿膺 옛일 생각하며 오늘을 슬퍼하니 눈물이 가슴에 가득 차네<sup>124)</sup>

인용한 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생원(生員)으로 삶을 마감한 노도립(盧道立, 1584~1664)의 만사이다. 현달하지 못했으며, 개인적인 관계도 깊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적인 감정의 노출보다는 객관적인 정보의 나열과 그에 따른 칭양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수련에서는 망자의 백조부(伯祖父)인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의 명성을 들어 가정 내에서의 본받음과 가르침이 그에게까지 전해졌음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도립을 칭양하고 있다. 함련에서는 본인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노도립의 둘째 누이가 홍주원의 중부(仲父)인 홍입(洪翌)에게 시집 가 인척 관계가 된 사실과 부친인 홍영(洪靈)과

124) 『無何堂遺稿』冊3.

동갑임을 드러내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노도립이 쌓은 덕으로 인해 자손들에게 남는 경사가 있으며,<sup>125)</sup> 팔순을 넘겨 장수한 것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룬 덕업의 효험을 칭양하고 있다.

미련에서도 칭양이 이어지는데, 7구에서는 애사를 멀리 중국의 상산(商山)으로 부쳐 보냈다는 것은 노도립을 상산사호(商山四皓)에 비긴 것이다. 주지하듯 상산사호는 진(秦)나라 말기 학정(虐政)을 피해 은거한 4명의 덕망 있는 은사(隱士)들을 말한다. 상산사호의 옛일에 그들의 덕에 비견될 만한 노도립의 죽음을 대입시켜 칭양한 것이다. 아울러 상산사호가 세상을 피해 은둔한 사실을 토대로 노도립이 환로에 들지 못한 것을 미화시키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음에 천착해볼 수 있다. 한편 시의 말미에 ‘눈물이 가슴에 가득 차네’라고 언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과장된 의례성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시를 제외하고 노도립을 비롯한 그의 부친인 노대하, 아들 셋과 홍주원이 교유한 흔적이 문집 내에 전무하다는 점과 다른 만시들에서 전반적으로 보이는 개인감정의 적극적인 표출 등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시는 청탁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의 두 편의 시는 현달하지 못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애도자들과의 친분이 두텁지 않은 인물들에 대한 만시였다.<sup>126)</sup> 공통적으로 직계 가족의 명성을 고인의 칭양 수단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애도의 정서보다는 환로 외의 다른 분야에서의 명성과 덕업을 칭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정귀는 고인의 부친인 백광훈을, 홍주원은 고인의 백조부인 노수신을 들어 가계의 명성을 통해 칭양했다. 또한 백진남의 서예가와 시인으로서의 면모, 노도립의 장수와 여경(餘

125) 세 아들에게서 징험할 수 있는 경사는 자손의 번성함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여경(餘慶)은 일반적으로 자제들의 현달함이나 자손의 번성함을 말하고자 할 때 쓰이는 용사인데, 여기서는 후자로 보인다. 노도립의 세 아들은 각각 노익명(盧翼命), 노사만(盧思萬), 노하징(盧夏徵)인데 노익명만 생원시에 합격한 기록이 있을 뿐 나머지 두 아들의 관력과 관련된 기록은 전하는 것이 없다. 또한 허목(許穆)의 『眉叟記言』에 실린 노도립의 부친 노대하(盧大河)의 묘표(墓表)에 의하면, “아들은 도립(道立)과 도일(道一)인데, 도일은 전 함열현감(咸悅縣監)이다. 내외의 자손이 3세(三世)에 걸쳐 50인에 가깝다(男曰道立道一 道一前咸悅縣監 內外孫 至三世 近五十人).”라는 기록도 근거로 들 수 있다.

126) 이정귀의 경우도 문집 내에 백진남과 교유의 흔적이 특별히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백진남과 그의 처에 대한 만시를 지어준 것, 백진남이 그의 부친 백광훈의 문집 서문을 받기 위해 그를 방문했던 사실 정도이다. 문집 서문의 특성상 백광훈의 문학적 자질에 대한 칭양과 백진남이 가업을 잘 잇는 것을 가상하게 여긴다는 의례적인 내용들만 있을 뿐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다. 『月沙集』 第39卷, 「序」上, 〈玉峯集序〉 참조.

慶)을 환로에서의 성공을 대체하는 덕업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이 이정귀와 홍주원의 친연성을 담보할 근거 중 하나인 만시에 대해 비교·분석해 보았다.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특성은 다작, 근체시를 선호하는 창작 취향, 애도 대상의 다양함을 꼽을 수 있었다.

한편 이정귀의 아들이자 홍주원의 외삼촌인 이명한도 135편의 만시를 남겨 동시기 문인들에 비해서는 많은 양을 남겼다. 만시의 다작은 홍주원이 이정귀의 문하에 있을 당시 외삼촌인 이명한의 영향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정귀 집안의 가계문학 전승의 양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시의 창작 취향에 있어서는 근체시를 선호하는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만시 대상의 다양성은 단순한 교유관계의 폭넓음이 아닌 만시의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기 쉬웠던 여성과 현달하지 못한 인물, 교유가 거의 없던 인물들에게까지 의례성을 탈피한 만시를 지어줬다는 점에서 그들의 인간적 면모의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 3) 시어 사용의 유연성

전술하였듯 이정귀는 문인과 정치가로서 그 위상이 상당했다. 당시 대다수의 선비들이 그러하듯 이정귀 역시 문장을 그 자체의 가치만으로도 중시하였으나, 그 이전에 국가 경영의 수단으로써의 의미도 강조했다. 단적으로 다음과 같은 언급들을 참고할 수 있다.

① “문장은 하나의 기예(技藝)인지라 반드시 전공(專攻)한 뒤에야 공교(工巧)해지는 법이니, 사치하고 부귀하며 명리(名利)를 추구하는 자는 전공할 수 없다. …중략… 공이 높은 벼슬에 올라 치도(治道)를 펼 수 있었다면 무엇 하리 굳이 애써 시에 주력하여 하나의 기예를 전공하는 정도로 그쳤겠는가<sup>127)</sup>

② 아아, 여장이 어찌 시에만 뛰어났겠는가, 어찌 시에만 뛰어났겠는가. 이미 세상에 진출할 생각을 아주 버리고 남들을 따라 부양(俯仰)하고 싶어하지 않았거니와 탁월한 재능을 품고 의기(義氣)를 자부하여 혼탁한 세상에 비분강개하였다. 그

127) 『月沙集』第39卷, 「序」上, 〈習齋集序〉, “文章一技也 而必專而後工 蓋非紛華富貴馳逐聲利者所能專也 …중략… 嚮使公有可以致位鐘鼎 笙鏞治道 則豈必勤苦攻詩 專於一技而止哉.”



리하여 가슴속에 쌓인 울분, 무료(無聊), 불평 등의 감정을 반드시 시로 발산, 사물을 보고 느낀 감흥이며 자신의 회포를 달래는 것들이 모두 자득(自得)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세상의 시를 담론하는 사람들이 다투어 여장의 시를 전송(傳誦)하였다. 버들을 읊은 절구 한 수는 본래 시인이 세상을 근심하는 내용인데 궁중(宮中)으로 흘러 들어가 마침내 이 때문에 죽고 말았으니, 하늘의 뜻인가, 하늘의 뜻인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아아, 한 사람 여장의 시만 하더라도 때를 만나서는 임금의 칭찬과 총애를 받게 하였고 때를 만나지 못해서는 죄에 걸려 죽음을 당하게 하였으니, 이는 사문(斯文)의 성쇠와 국운의 흥폐(興廢)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렇고 보면 이 문집이 간행되는 것 역시 세도(世道)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28)</sup>

①은 습재(習齋) 권벽(權棼, 1520~1593)의 문집 서문이다. 이정귀가 어릴 적 권벽의 집 근처에서 우거하며 그의 자제들과 종유했던 것이 인연이다. 권벽의 삶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문장의 특장(特長)을 서술하는 서문의 특성상 다소 칭양이 가미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문장과 국가 경영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정귀의 생각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지속적인 학습과 수련을 통해야만 공교해질 수 있는 하나의 기예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사치와 부귀, 명리를 추구하기 위한 문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권벽의 뛰어난 재능과 공교한 문장에 대해서는 칭송하면서도 국가 경영[治道]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훌륭한 문장도 하나의 기예를 전공한 것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했다.<sup>129)</sup>

②는 권벽의 아들이자 평생을 포의로 살며 시인으로 명성을 날린 석주(石洲) 권필(權輶, 1569~1612)의 문집 서문이다. 권필은 문장에 대한 재능이 뛰어났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출사 권유도 무시했으며, 벼슬아치의 집에는 발길

128) 『月沙集』第40卷, 「序」下, 〈石洲集序〉, “嗚呼 汝章豈獨詩哉 豈獨詩哉 既與時抹撇 不欲隨人俯仰 懷奇負義 忼慨濁世 凡有磊塊壹鬱無聊不平 必以詩發之 觸物遣懷 無非自得 世之談詩者 爭相傳誦 詠柳一絕 自是詞人憂世之語 而流入宮中 竟以是死 天乎天乎 孰使之然 嗚呼 一汝章之詩也 而遇其時則褒嘉而寵之 不遇時則構罪而殺之 此係斯文之盛衰 邦運之興廢 則斯集之行 亦可謂有關於世道也.”

129) 또한 권벽이 을사사화로 인해 화를 당한 후에 속세와 인연을 끊었던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가 이미 갖춘 문장 능력과 덕량으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다면 사업의 성취는 끝이 없었을 것이라는 언급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月沙集』第39卷, 「序」上, 〈習齋集序〉, “嘗聞公少與安公名世 尹公潔相友善 乙巳之禍 二公俱陷不測 自是擺落世事 不復與人交游 … 嗚呼 以公之文章德量 倘能俯仰而諧俗 則其成就事業 豈可量也.”



조차 들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정귀만은 유년 시절부터의 인연 때문인지 지속적인 교유가 있었다. 이정귀는 권필의 탁월한 재능을 극찬하면서도 얼마이기 싫어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시로 발산하는 성정이 중첩되어 시로는 자득의 경지에까지 올랐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정과 시적 재능이 권필의 죽음을 재촉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권필은 광해군과 그 인척들의 횡포를 풍자적으로 비난한 <궁류시(宮柳詩)>로 인해 유배가게 되었고, 귀양길에 오르면서 폭음으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되었다. 이정귀는 이 사건을 예로 들어 같은 문장이더라도 때를 만남과 만나지 못함의 차이에서 오는 극명한 현실적 차이를 언급하였다. 불우(不遇)함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으나, 문장의 성쇠가 국운의 흥폐에 직결된다는 것과 『석주집』이 간행될 수 있던 것도 권필 사후 20년 만에 정권이 바뀐 것[世道]과 관계있다는 언급은 같은 맥락에서 문장과 경영의 긴밀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정귀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sup>130)</sup> 문장으로 인해 일신의 생사가 결정되고, 문장으로 인해 국가의 존망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일신의 입장에서든 시대에 따라 같은 문장이라도 총애 받는 신하와 죄인을 가르는 기준이 되며, 여기서 말하는 시대 역시 권필의 문집이 20년 만에 간행된 것처럼 문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짧은 시간의 폐축 기간이 있었지만, 평생 관료 문인으로 살아간 그는 경세가의 위치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문장의 효용성과 중요성에 대해 난세를 살아가며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체감했던 것이다. 이처럼 이정귀에게 있어 문장은 근본적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단련이 필요하며, 사치와 부귀 및 명리를 위해 이용하는 자는 전공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자격과 관련한 언급은 문장이 국가 경영의 중요한 수단이자 흥망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사욕이 개입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졌듯 이정귀는 뛰어난 문인이자 경세가이며, 철저하

130) 이와 같은 맥락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언급도 있다. 『月沙集』 第40卷, 「序」 上, <象村集序>, “문장이란 천지의 정기(精氣)요 불후(不朽)의 대업(大業)으로, 그 현晦(顯晦)는 사람에 달려 있고 그 흥망은 세도(世道)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군자가 때를 얻으면 천지의 정기가 발현(發現)하여 사업이 되고 때를 얻지 못하면 천지의 정기가 수렴하여 문사(文辭)가 된다(嘗謂文章者 天地之精而不朽之大業也 其顯晦在人 興喪係世道 故君子得其時 則精發而爲事業 不得其時 則精斂而爲文辭).”

게 유학 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삼았던 정치가였다. 또한 이러한 인물이 되기 위한 전제로 문장 능력을 선결 조건으로 여겼다. 문인이자 경세가로서의 목표와 그에 대한 선결 조건을 어려서부터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그가 선택한 것은 편중되지 않은 광범위한 독서와 학습이었다.

연보에 따르면 이정귀는 당시(唐詩) 선집을 활용해 시를 공부했는데, 특히 한유(韓愈)의 시를 주요 자료로 활용했다고 한다. 한유는 고시가 웅장하고 변화무쌍하여 초학들이 작시의 역량을 기르는 자료로 활용할 만했다. 한유는 시재를 얻기 위해 읽지 않은 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축적된 지식을 적재적소에서 활용하여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정귀 역시 특정한 전범을 익히기 위한 반복 학습이 아닌 다양한 작품을 두루 섭렵해 박학을 추구했다. 그는 사서삼경을 비롯한 『史記』, 『漢書』 및 제자백가의 책까지 두루 읽었다. 이는 특정한 이를 닦고자 했다고보다 다양한 지식을 온축하고, 이를 문장에 적절히 인용하는 것을 지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향은 관료로서 다양한 상황에서 문장을 짓기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131)</sup>

또한 이정귀는 유학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정주학을 경세의 이념으로 국가 운영을 하고자 하면서도 시적 흥취를 높이기 위해 신선사상이나 노장(老莊)의 용어들을 거리낌 없이 문장 내에서 활용하기도 하였다.<sup>132)</sup> 이 역시 편견 없이 다양한 서적을 탐독한 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넓은 독서 범위는 그의 문장을 더욱 다채롭게 하였으며, 그가 표출하고자 하는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기술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편독(遍讀)의 결과는 자연스레 용어 사용의 유연함과 포용성으로 이어졌다. 철저하게 주자성리학에 입각한 사상을 지닌 그였지만,<sup>133)</sup> 관료로서 지은 문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불교에도 배타적이지 않아 승려와의 교유 흔적도 상당수 남아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사상적인 경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sup>134)</sup> 다만

131) 손여임, 앞의 논문, 27-30면.

132) 이명희, 「月沙 李廷龜의 漢詩 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2-31면.

133) 단적인 예로 1593년 중국의 송응창(宋應昌) 조선에 왔을 때 그들에게 『大學』을 강론했던 일과 이를 간행한 『大學講語』를 들 수 있겠다. 송응창 앞에서도 자신의 견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 송응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이명희, 위의 논문, 23-24면 참조.

134) 『月沙先生別集』第7卷, 「附錄」, 〈記少時所聞〉, “그 다음은 오성공(鰲城公 이항복(李恒福))과 월사공(月沙公) 두 분이니, 문장을 익히며 노장의 서적을 읽기는 했지만 그 해독(害毒)을 받아들이지는

시구에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재료에 불과한 것이었다.<sup>135)</sup>

반면 홍주원의 독서 취향에 대한 스스로의 기술이나, 타인의 언급은 현재로서 확인되는 바가 없다. 다만 그가 평생 다양한 책과 시, 술과 풍류를 즐겼다는 것만은 여러 기록들을 통해 산견된다.<sup>136)</sup> 따라서 이에 대한 이정귀의 영향력은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홍주원도 시에서의 용어 사용에 있어 이정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활용 양태를 보였다. 먼저 신선사상이 드러나는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sup>137)</sup>

〈감사(監司) 홍자회(洪子晦)를 송별하며 주다[贈別洪監司]〉

鶴老何年按嶺東 학노(鶴老)께서는 어느 해에 영동을 살피셨던가  
從孫持節又瀛蓬 종손이 부절을 지니고 또 영봉(瀛蓬)으로 가는구나  
乃家文彩都相似 그대 집안의 문채는 모두 서로 비슷한데  
在處功名亦與同 있는 곳의 공명도 또한 마찬가지로구나  
領略海山探舊迹 해산(海山)을 돌아보며 옛 자취 탐색할 것이고  
雕搜物色想遺風 물색을 찾으며 남겨진 교화를 생각하겠지

않았다(其次爲麓城月沙二公 雖習文章讀莊老書 而不受其毒者也).”라고 박세채가 언급한 것이나, 『月沙集』 第45卷, 「碑」, 〈有明朝鮮國賜國一都大禪師禪教都摠攝扶宗樹教普濟登階尊者西山清虛堂休靜大師碑銘〉, “나는 불교의 교설(敎說)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 불설(佛說)을 즐겨 말하지 않으니, 짐짓 불교를 배척하는 데 뜻을 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문장으로 허명을 얻어 문병(文柄)을 잡은 지 30여 년이라 승려들이 나의 명성을 좇아 시를 받으러 오는 이들이 날마다 나의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식견이 높거나 시를 잘 짓는 승려를 만나면 혼연히 응접하였으니, 이 역시 짐짓 불교를 좋아하는 데 뜻을 둔 것은 아니었다(余不識釋家津筏 故平生不喜談釋 非故有意於排釋也 顧以文字竊虛聲 主盟騷壇三十餘年矣 釋子之逐名求詩者日踵門 如遇開僧韻釋 輒欣然應之 亦非故有意於耽釋也).”라는 언급을 증거로 들 수 있다.

135) 이는 자제들의 교육 방식에서도 적용되었다. 홍주원이 이정귀에게 수학하던 기간인 폐축기에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침에는 『南華經』을 읽게 하고, 낮에는 당시(唐詩)를 외우게(『月沙集』 第35卷, 「書牘」上, 〈答白沙〉, “使兒輩朝讀南華經 晝誦唐人詩.”) 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136) 李安訥, 『東岳先生集』 卷21, 「湖營錄」, 〈奉簡永安尉〉, “책을 사랑하기는 도리어 포의와 같았네[愛書還與布衣同], 李殷相, 『東里集』 卷13, 「祭文」, 〈祭內兄永安尉文〉, “좌우의 도서들로 성령을 잘 기르셨네[左右圖書 頤養性靈], 李端夏, 『畏齋集』 卷5, 「應製文」, 〈永安尉洪柱元賜祭文〉, “왼쪽엔 그림 오른쪽엔 글을 두고 술 마시고 시 읊으며 세월 보내셨네[左圖右書 觴詠卒歲].”, 『無何堂遺稿』 冊2, 〈別湖南伯權子明 其二〉에서는 “술 있으니 좋은 손님 맞이하는데 거리낄 것 없으나 문 닫고 오직 새로운 책 보기를 즐겨워한다네[有酒不妨迎好客 閉門惟喜看新書].”

137) 신선사상에 대해서는 종교학, 철학, 문학, 민속학 등 광범위한 층위에서 연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본고에서는 유교와 대별되는 도교의 한 갈래로서의 신선사상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정귀와 홍주원의 폭넓은 독서 범위와 시어 활용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유연함 등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尋眞定得丹砂訣 진리를 찾아 바야흐로 단사(丹砂)의 비결을 얻는다면  
倘憶塵間抱病翁 혹 속세에서 병 안고 사는 늙은이를 생각해주려나<sup>138)</sup>

이 시는 1662년 6월 강원감사로 임명되어 떠나게 된 홍처량(洪處亮, 1607~1683)을 송별하며 지은 것으로, 자晦(子晦)는 그의 자이다. 1구의 학노(鶴老)는 홍서봉(洪瑞鳳, 1572~1645)을 말한 것으로 홍처량에게는 숙조부(叔祖父)가 된다. 수련은 홍서봉이 1610년 강원도관찰사로 부임했던 것과 이번 에 홍처량이 같은 지역의 감사로 가게 된 인연을 말한 것이다. 2구의 영봉(瀛蓬)은 주지하다시피 신선이 거주한다고 하는 동해상의 삼신산(三神山) 중 영주(瀛洲)와 봉래(蓬萊)를 의미한다. 홍처량이 강원감사로 가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함련과 경련은 수련에서 언급한 인연에 대한 연장선상의 서술로 남양 홍씨 집안의 칭송과 홍처량이 부임한 뒤 숙조부의 옛 자취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남겨진 교화를 생각하겠다는 것이다.

미련에서는 먹으면 신선이 될 수 있는 단사(丹砂)의 비결을 홍처량이 얻게 된다면, 병들어 지내는 자신을 생각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은근한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부임지를 신선들의 거주지인 영봉으로 비유하고, 그가 단사의 비결을 얻는다는 가정을 했다는 것은 홍처량이 부임한 뒤에 신선놀음 할 것을 짐작한 장난 섞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경련의 ‘해산을 돌아보며[領略海山]’와 ‘물색을 찾으며[雕搜物色]’가 이 서술을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시를 살펴보자.

〈달부(達夫) 목내선(睦來善)이 청풍(淸風)으로 부임가기에 송별하며 주다[贈別睦達夫來善赴淸風]〉

近者諸公乞左符 근래에 여러 공들이 지방 수령을 요청한다던데  
出門多被鬼揶揄 문을 나서면 귀신의 야유를 많이 받는다네  
無人不願楊州鶴 양주(楊州)의 학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有客還乘葉縣鳧 도리어 섭현(葉縣)에서 오리를 타는 나그네가 있다오  
樓閣悅疑他世界 누각은 황홀하여 다른 세계인가 의심되고

138) 『無何堂遺稿』 冊3.

江山如對小蓬壺 강산은 마치 작은 봉호(蓬壺)를 마주한 것 같겠지  
 仙舟政值西風便 신선의 배는 바야흐로 서풍을 만나 편할텐데  
 八月秋光已畫圖 8월의 가을빛은 이미 그림이로구나<sup>139)</sup>

1661년 목내선(睦來善, 1617~1704)이 청도군수로 부임하기에 지은 송별시이다. 수련은 부임하는 사람들의 송별만 하면서 정작 자신은 전송받지 못하는 것을 멧쩍어한 것이다. 지방 수령 자리를 선호하는 세태를 말하면서, 진(晉)나라의 나우(羅友)가 동료의 군수 부임을 송별하는 자리로 가는 길에 귀신을 만나 자신은 군수로 부임해 전송받지 못하고 남을 전송하기만 하는 것을 야유했다는 전고를 들어 자신의 신세를 대변하고 있다.

3구의 양주의 학(楊州鶴)은 실현되기 어려운 소원이거나, 일어나기 어려운 좋은 일을 비유하는 용어로, 여기서는 목내선이 지방 수령으로 가게 되는 것은 1구를 통해 알 수 있듯 당시에 누구나 바라는 바이지만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이어 지방 수령의 대명사로 쓰이는 후한(後漢) 때의 섭현령(葉縣令) 왕교(王喬)를 목내선에 빗대어 축하하고 있다. 함련에는 또 다른 의도도 숨어있는데, 원래 목내선은 양주로 부임하고 싶었으나, 청풍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는 앞서 언급한 전고로서의 의미 외에 국내의 양주라는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섭현은 원하던 양주가 아닌 다른 지역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sup>140)</sup> 홍주원은 이와 같이 재치 있는 방식으로 한 표현 안에 이중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경련부터는 시상을 전환하여 목내선이 부임가게 될 청풍(淸風)을 신선세계로, 목내선을 신선에 비유한다.<sup>141)</sup> 청풍의 대표적인 명승지인 한벽루(寒碧樓)에서의 경치를 다른 세계로 착각할 만한 절경으로 설명하며, 그 곳에서 바라보는 강과 산을 삼신산 중 하나인 작은 봉래산[小蓬壺]이라고 비유했다. 또

139) 『無何堂遺稿』 冊3.

140) 시의 세주에 “듣자하니 승학교(乘鶴橋)로 향하고자 하였는데, 한벽루(寒碧樓)로 갔다고 하기에 3, 4구에 말한 것이다[聞欲向乘鶴橋 而得寒碧樓云 故三四及之].”라고 하였다. 승학교는 양주 유양팔경(維揚八景) 중의 제6경이고, 한벽루는 충북 제천 청풍면에 있는 누각으로 두 지역을 대표하는 명승지이다.

141) 이 시는 두 편의 연작시인데, 두 번째 시에서도 목내선을 전생에 신선이었던 인물이라고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명승지는 응당 속된 관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으니 / 전생에 필시 신선의 반열에 이어졌을 것이라오[勝境未應歸俗吏 前身定是綴仙班].”

한 그곳으로 향하는 묵내선의 행차를 신선의 배에 비유하며, 한여름이나 한겨울처럼 날씨의 곤혹함을 겪지 않는 가을바람을 만나 편할 것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화폭 속 그림과도 같은 그곳의 가을 경치까지 더해져 더할 나위 없음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축하하고 있다.

다음의 시 역시 앞선 시들과 마찬가지로 송별시이다.

〈청송(靑松) 김진표(金震標)를 송별하며[別金靑松震標]〉

魁星曾照曲江遊 괴성(魁星)이 일찍이 곡강(曲江)에서의 유람을 비추었으니  
 貂玉爭看鬚未秋 고관의 자리를 다투는 데도 귀밑머리 아직 세지 않았구나  
 水部行裝仍傲吏 수부(水部)의 행장은 거듭 오만한 관리요  
 島潭風月舊仙舟 도담(島潭)의 풍월은 옛날 신선의 배로다  
 應從物外探眞訣 응당 물외(物外)를 좇아 진결(眞訣)을 찾을텐데  
 豈識人間有別愁 어찌 인간세상에 이별의 시름이 있음을 알라  
 前後嶺湖清賞遍 앞뒤로 영남과 호남의 맑은 감상을 두루 하였으니  
 絕勝何遜再楊州 하순(何遜)이 다시 양주(楊州)로 가는 것보다 낫구나<sup>142)</sup>

오애(梧涯) 김진표(金震標, 1614~1671)가 1658년 청송(靑松)으로 부임<sup>143)</sup>하는 것에 대한 시이다. 유년 시절부터 인연이 있던<sup>144)</sup> 김진표와 일전의 주연을 추억하는 것으로 수련을 구성했다. 곡강에서의 유람[曲江遊]은 두보의 시 〈곡강(曲江)〉의 수련인 “퇴근하면 봄 옷을 전당 잡히고 날마다 강변에서 곤드레만드레 취해 오네[朝回日日典春衣 每日江頭盡醉歸]”를 차용한 것으로 주연을 말한다. 과거에 김진표와 함께 한 술자리를 비추던 것이 괴성(魁星)이었다는 것은 김진표가 1653년 별시문과 전시(殿試)에서 장원한 것을 염두에 두고, 문장을 관장하는 신인 괴성을 쓴 것으로 보인다. 장원한 이후 관료들 사이에서 재주를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밑머리가 아직 세지 않

142) 『無何堂遺稿』冊2, 〈別金靑松〉.

143) 『承政院日記』 효종9년, <1월 19일>, “有政 吏批 以金錫元爲學諭 金縝爲奉常副奉事 李球·金鉉爲典籍 洪命夏爲參贊 趙仲耘爲司評 李日三爲監察 金震標爲靑松府使 睦來善爲正言 … .”

144) 拙稿, 「無何堂 洪柱元의 漢詩 일고찰-晩年の 시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76집, 동양고전학회, 2019, 21-22면 참조.



왔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것으로 그의 내적 강인함을 칭양하고 있다.

함련에서는 김진표를 하손(何遜)에 비꼴다. 하손은 남조(南朝) 양(梁)나라 때 상서수부랑(尙書水部郎)을 지냈는데, 8구에서도 하손을 언급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3구의 오만한 관리는 하손을 가리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구는 김진표가 도담삼봉으로 대표되는 단양의 바로 옆 제천의 군수로 부임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sup>145)</sup> 한 말로, 그의 풍월이 마치 신선이 배를 타고 읍은 것과 같다며 칭송한 것이다.

경련에서는 김진표가 부임한 후 속세의 일을 초월해[從物外] 신선이 되는 진실한 비결[眞訣]을 찾게 되어 인간 세상의 근심 따위는 잊게 될 것이라는 격려를 하고 있다. 이어서 이미 영호남의 관직을 두루 거치며 감상한 경험에 더해 다시 한 번 남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하손이 양주(楊洲)의 매화를 잊지 못해 다시 한 번 자청해 양주로 부임하게 된 고사를 활용해 표현했다.

앞서 살펴 본 3편의 시는 모두 지방으로 부임하는 인물들을 위해 쓴 송별시이다. 신선사상이 드러난 시들은 대체로 송별시인 경우가 많았다.<sup>146)</sup> 또한 부임지를 ‘영봉(瀛蓬)’이나 ‘봉호(蓬壺)’와 같이 신선의 거주지로, 그 곳으로 부임하는 인물을 신선으로 비유했다. 특히 부임지의 대표적인 지리적 특성에 따라 표현의 방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송별시의 상투성을 탈피하고자 했다. 서울에 비해 명승지가 많은 지방으로 가는 인물들에게 지어준 송별시에서 그 지리적 특성 및 부임자의 개성에 따라 신선사상 노출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보인다. 홍주원의 이러한 신선사상 및 도교적 용어의 선택은 이정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상적인 경도나 몰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선사상이 드러난 시들은 단순히 지리적 특성에 걸맞는 용어를 차용함으로써 시적 흥취를 고양시키고, 떠나는 이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차원에서 쓰

145) 두 편의 연작시로 구성된 이 시의 두 번째 시 수련에서 “지방관으로 남쪽으로 가니 또 이름난 고을인데 / 지난날 생각하니 한벽루(寒碧樓)에서 겨우 돌아왔었지[一麾南去又名州 憶昨纔回寒碧樓].”라고 하였다.

146) 이 외에도 송별시에서 신선사상이 드러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無何堂遺稿』 冊1, 〈送朴德雨赴靈光 其三〉, 〈送宋芑翁赴珍山〉, 〈送朴德雨赴靈光 其三〉, 〈送一之堂兄赴白川 其四〉, 〈贈尹泰升令公之任濟州〉, 『無何堂遺稿』 冊2, 〈送李通川〉, 〈送坡平吳公赴海營〉, 〈別李清風〉, 〈別安錦山〉, 〈別橫城具使君〉, 『無何堂遺稿』 冊3, 〈別李靑山 其二〉, 〈贈幼能還淸風〉, 〈別李江陵〉, 〈贈別曹守而令公赴春川〉, 〈送江原鄭亞使〉, 『無何堂遺稿』 冊4, 〈奉送水運判官叔父之行〉, 〈醉別朴尙之赴順天〉, 〈別姜公獻海伯之行 其三十〉, 〈送柳起之赴關東佐幕〉, 〈送金正平萬均赴鐵原走筆〉.



였을 뿐이다. 이러한 송별시의 대상들이 대체로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 위주라는 것이 하나의 증거이다. 같은 송별시라 하더라도 친소(親疎)의 정도에 따라 담기는 내용은 달라지는데, 만사와 마찬가지로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보다 더 드러나는 경향이 있었다. 표현 역시 의례적으로 지어야 했던 송별시에 비해 다양할 수밖에 없다.<sup>147)</sup> 반면 지속적인 교유 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소원한 인물의 경우에는 의례적으로 지은 경우가 많았다.

주지하듯 지방관으로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계절, 수토병(水土病)을 비롯해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부모님의 봉양 여부였다.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경우, 한 수령의 고을을 맡아 그 녹봉으로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다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의 ‘전성(專城)’이나, 전성과 같은 의미인 ‘반여(潘輿)’, 늙어서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색동옷을 입었다는 노래자(老萊子)의 전고를 사용하여 축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48)</sup>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방 서울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나, 부임지에서 선정을 베풀 것이라는 격려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sup>149)</sup>

다음으로는 승려와의 교유에 대해 살펴보겠다. 홍주원 역시 사찰을 방문하거나, 승려들과 교유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았으며, 관련 시문들을 여러 편 남

147) 단적으로, 인용한 세 작품의 대상자들과는 개인적인 친분 및 교유 관계가 확인이 된다. 홍처량과 김진표의 경우 문집 내에서 개인적인 교유의 흔적들이 다수 보이며, 목내선의 경우에는 그의 만사와 부친인 목서흠과 숙부 목대흠의 만사를 통해 확인된다.

148) 홍주원의 경우에도 이런 의례적인 송별시를 지은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친분이 두텁지 않아 송별 연에서 일반적인 예로써 지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우의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無何堂遺稿』 冊1, 〈送洪元老令公赴安東〉, 〈送朴德雨赴靈光〉, 〈贈堂弟鼎卿赴醴泉 其二〉, 〈送吳學士始復咸平之行 其二〉, 〈送趙宗之宗著赴和順〉, 『無何堂遺稿』 冊2, 〈送朴仲漣赴興陽〉, 〈送趙胤之赴晉州 其二〉, 〈送郭欽魯赴平山任所〉, 〈別朴尙州仲久〉, 〈別龍岡李使君〉, 『無何堂遺稿』 冊3, 〈送吳元徵洪州之任〉, 〈送閔景明南原之任〉, 〈送李星州之任〉, 〈送李羅州〉, 〈送吳留守〉, 〈送吳元徵赴光州〉, 〈春坊沈學士仲美收 爲養得鶴城 臨行過余索別語 余卽垂死人也 寧有吟咏之趣 辭以病不能矣 作別後偶閱東岳集咸營錄 見其爲王大監莅鶴城時壽筵稱賀之詩 記事甚詳 令人感歎 遂次其韻 而寄送於門外 豈曰詩哉 以博拄笏時一粲云爾 其二〉, 『無何堂遺稿』 冊4, 〈別姜公獻海伯之行 其二十六〉, 〈柳汝中之赴谷山也 濱行枉訪余於病中 不覺顛倒而迎 各說故情 愴感隨至 醉後仍贈二絕〉, 〈走筆 贈魚翼之分臺掌試之行〉, 〈送金正平赴鐵原走筆〉.

149) 『無何堂遺稿』 冊1, 〈送一之堂兄赴白川 其七〉, 『無何堂遺稿』 冊2, 〈送坡平吳公赴海營〉, 〈別咸鏡趙監司〉, 〈送吳留守 其二〉, 〈送忠清方伯李惠仲令公之行〉, 〈贈別柳蒼老族丈永柔之任〉, 『無何堂遺稿』 冊4, 〈別姜公獻海伯之行 其十六〉, 〈送吳百源赴咸關半刺〉, 〈贈叔美益山之任〉.

졌다. 이정귀의 경우 승려들과의 교유를 통해 탈속의 정취를 공유하고자 했으며, 그들은 고뇌하는 자신의 현실과 대비되는 부러움, 혹은 자성하게 하는 대상이었다.<sup>150)</sup>

다음의 시는 불교에 대한 홍주원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의 시축에서 차운하다[次僧軸韻]〉

空門妙法我何能 불가(佛家)의 묘법에 내 어찌 능하랴마는  
慣向禪窓看佛燈 항상 그렇듯 선창(禪窓) 향하여 불등을 바라본다네  
欲把清詩題卷裏 맑은 시 잡고서 시권 속에 시 지어보려 하지만  
夏虫安得語於氷 여름 벌레가 어찌 얼음에 대해 말할쏘냐<sup>151)</sup>

승려가 보내온 시를 읽고 차운한 것이다. 기구와 결구에서 불교에 대한 자신의 식견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불가의 묘법에 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름 벌레가 여름에 매여 있어 겨울에 생기는 얼음을 말할 자격이 없듯 자신 역시 불가에 대해 말할 자격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산에서 승려를 만나 자신은 사상적으로 불가와 함께할 수 없음을 “비록 산을 찾은 흥은 있으나 어찌 그 대와 함께할 수 있으리오.”<sup>152)</sup>와 같은 표현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정귀의 시에서는 승려가 직접 등장하거나, 승려와 대화하는 형태를 통해 탈속 지향의 정취가 드러난다. 반면에 홍주원의 경우는 대체로 사찰을 방문하거나, 승려를 보고 감화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종교나 사상적으로 자신의 식견을 내세울 정도는 아니지만, 공간과 인물을 통해 감화된 느낌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표현한 것들이다.

〈낮에 연흥재사(延興齋舍)에서 쉬면서 스님의 시축에 차운하다[午憩延興齋舍 次僧軸]〉

150) 이명희, 앞의 논문, 31-35면.

151) 『無何堂遺稿』 冊4.

152) 『無何堂遺稿』 冊4, 〈山僧投以草鞋 口號〉, “縱有尋山興 安能與爾偕”.

避雨尋孤寺 비를 피해 외로운 절 찾았는데  
 開窓對遠峯 창문 열고 먼 산 봉우리 대한다네  
 畫寮垂破襖 그림 같은 창에 해진 승복이 걸려있고  
 塵壁掛枯筇 먼지 낀 벽에는 마른 지팡이 걸려 있구나  
 忽忽催征馬 급박하게 먼 길 가는 말 재촉하는데  
 依依聽暮鍾 아득하게 저녁 종소리 들리네  
 禪房半日話 선방(禪房)에서 반나절을 대화하니  
 却恨未從容 문득 침착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구나<sup>153)</sup>

도중에 비를 피하기 위해 들르게 된 사찰에서의 느낌을 담담하게 담아낸 시이다. 어딘가로 향하던 중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간 사찰의 내부에서 창문을 열고 시야 끝 먼 산봉우리를 바라보던 시인의 시선은 함련에서 방 내부로 옮겨진다. 방 내부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연물인 산봉우리와 달리 방 내부에는 해진 승복, 먼지 낀 벽, 마른 지팡이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인위적인 사물들이 대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시선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자연과 인위, 불변과 변화 등 대척점에 있는 두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극명한 대조의 시상은 경련에서도 이어진다. 5구의 먼 길 가는 말은 시인 자신을 말한다.<sup>154)</sup> 급히 말 달려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를 피해 선방(禪房)에서 반나절을 머물다보니 어느새 저녁 종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온다. 먼 길을 급히 가야하는 사정과 악천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머무는 와중에 아득하게 들려오는 평화로운 저녁 종소리는 시인이 처한 하나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5구의 재촉하는 말발굽 소리의 빠른 느낌과 6구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아득한 종소리의 속도 차이가 자연스레 오버랩되면서 그 대비를 한층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제목에 의하면 홍주원은 낮에 사찰에 도착했는데, 선방에서 승려와 반나절을 대화하다보니 어느덧 저녁 종소리까지 듣게 된다. 대화의 내용은 알 수 없

153) 『無何堂遺稿』 冊1.

154) 이 시의 바로 뒤에 실린 〈途中大雨〉는 제목과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같은 날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의 8구에서 “앞길은 아직도 아득하기만 하네[前路尙悠悠].”라고 하였다.

으나, 8구가 대화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침착하지 못하고, 여유 없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후회가 그것이다. 이는 대화를 통해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선방이라는 공간, 그곳에서 본 산 봉우리와 해진 승복, 마른 지팡이, 그곳에서 들린 종소리와 승려와의 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인 것이다.

불가와 관련된 직접적인 용어는 승복이나, 선방 정도 밖에 없다. 그러나 선방이라는 제한적인 공간 내에서 장시간 머무르며 여유 없는 스스로에 대한 후회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한 매개체들로 인해 전반적인 시의 분위기에서 불가의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다음의 시는 승려의 시를 차운하여 그에 대한 칭송과 자성(自省)을 읊은 2편의 연작시이다.

① <차운하여 인 상인(印上人)의 시축에 쓰다[次題印上人軸]>

那將俗累芥靈臺 어찌 속세의 일로 영대(靈臺)를 더럽히랴  
雲衲飄飄任去來 운납(雲衲)을 나부끼며 제멋대로 가고 온다네  
楓岳又探秋後色 풍악(楓岳)에서는 또 가을 뒤의 빛깔을 찾고  
故山歸趁雪中梅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눈 속의 매화를 찾겠지

② 憐渠妙法學如來 묘법(妙法)으로 여래(如來)를 배우는 그는 멋진데  
媿我塵緣撥不開 속세의 인연 밀치고 열지 않는 내 부끄럽도다  
半日談玄香滿室 반나절 동안 심오한 이치를 나누니 향이 방에 가득 찼고  
恍然身入雨花臺 황홀히 몸은 꽃비 내리는 누대에 들어왔도다<sup>155)</sup>

전체적으로 승려를 묘사하는 부분들로 인해 앞서 인용한 시에 비해 직접적인 불가 용어들을 차용하고 있다. ①에서는 인상인(印上人)<sup>156)</sup>이 구름처럼 나부끼며 유회(遊回)하고 있는 상황을 읊었다. 1구의 속세는 속세에 속한 시

155) 『無何堂遺稿』 冊4.

156) 홍주원의 시 중 어떤 승려와 교유했는지 명기한 유일한 것인데, 인상인에 대한 기록은 홍주원과 동시기를 살았던 정두경의 『東溟集』 第4卷에 실린 <送印上人>이라는 시 한 편만이 확인될 뿐이다. 다만 인용한 ①의 전결구를 통해 유추하자면, 한 곳에 정착한 승려가 아니라 운수승(雲水僧)이나 행각승(行脚僧)으로 추정된다.

인 자신, 혹은 자신이 겪고 있는 속세의 일을 압축적으로 말한 것이다. 속세와 관련된 것으로 인상인의 마음[靈臺]을 더럽힐 수는 없다는 것으로 그가 자신과 대별되는 탈속적인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2구의 운납은 승려의 옷을 말하는 것으로, 승려의 옷이 펄럭일 때 마침 구름과도 같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지만, 승려 자체를 비유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홍주원에게 있어 인상인은 구름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름의 속성과 마찬가지로 나부끼며[飄飄],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오고 가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구름 같은 그는 가을에는 금강산에서 가을 뒤의 경치를 찾으며,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눈 속의 매화를 찾으며 제약 없는 탈속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②에서는 승려로서의 모습을 칭송하며 그와 대비되는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속세를 떠나 불가의 속해 있는 그에 반해 속세의 인연을 떨쳐내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1구에서 인상인을 칭송한 것과 더욱 대조적으로 보인다. 인상인과 오랜 시간 심오한 이치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보니,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한 듯 착각을 일으켰다. 그 향기로 인해 자신이 있던 공간이 마치 꽃비 내리는 누대에 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인상인과 나눈 현담(玄談)이 그에게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를 후각적 표현들로 강조해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꽃비가 내렸다는 것은 인상인의 대한 극찬인데, 불교의 전설에 의하면 큰 법사가 설법을 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꽃이 마구 떨어졌다는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두 편의 시에서는 앞선 시에 비해 운납(雲衲), 묘법(妙法), 여래(如來), 우화대(雨花臺) 등 불가의 용어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인물 및 자신의 심정 표현에 있어 시작(詩作)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외에도 1630년대 개성 유람을<sup>157)</sup> 하며 화장사(華藏寺)와 운거사(雲居寺)에 들러 지은 시에서도 “하룻밤 등잔 곁고 대화하니 삼생동안 세상 피한 뜻이로다 묘하고 뛰어난 곳 깊이 찾다가 바야흐로 이 몸이 가벼운 것을 깨달았다네.”<sup>158)</sup>나, 강화의 전등사(傳燈寺)를 방문하여 지은 시의 “안개와 노을에

157) 이에 대해서는 졸고, 앞의 논문, 19면 참조.

158) 『無何堂遺稿』 冊1, 〈華藏寺 次樂全申公留題韻〉, “一夜懸燈話 三生邈世情 窮探妙絕處 方覺此身輕.”

땅은 단혀서 티끌 하나 없는데 휘황찬란한 금색 벽에 보전(寶殿)이 열려있네  
 … 승려는 깊은 골짜기 따라 층층구름 아래로 내려가고 나그네는 앞 봉우리와  
 함께 맑게 갠 달과 오네”<sup>159)</sup>, “이미 진경(眞境)을 찾았다고 기뻐했으나 도리어 태허(太虛)로 들어갈까 의심했다네 머리 돌려 티끌 세상 향하니 돌아갈  
 뜻 완전히 사라지려 하네.”<sup>160)</sup>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누가 몇 줄  
 의 말을 가지고서 일만의 산중에서부터 부쳐줄는지”<sup>161)</sup>나 “상방(上方)은 가을  
 밤 고요할 것임을 멀리서 생각하는데 맑은 경쇠 소리가 흰 구름 속에서 울리  
 겠지”<sup>162)</sup>처럼 승려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낸 작품들도 있다.

앞서 이정귀와 홍주원의 사승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근거로 세 가지 측면  
 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구점(口占)의 다작이다. 구점이라는 형태의 작법은  
 당대에 크게 유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월사 가계의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로  
 보인다. 이는 자연스럽게 즉흥적인 작시 경향을 추구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구점으로 지은 시들은 대체로 사물을 통해 촉발된 감정을 즉흥적으로 읊고  
 있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특별한 전고나 복잡한 수사 없이 직서의 방식을 택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번째로 만시(挽詩)의 다작이다. 이 역시 이정귀와 홍주원은 동시기 여  
 타 문인들에 비해 많은 수의 만시를 남기고 있다. 이정귀가 남긴 271수라는  
 숫자도 이전의 문집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양이지만, 홍주원이 남긴  
 692수는 한국한시사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평가되고 있다. 만시의 다작은  
 기본적으로 폭넓은 교유관계와 뛰어난 문장 실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시는  
 직접적인 교유 관계에서 기인해 스스로 짓거나, 청탁에 의해 짓는 것이 대부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전제의 충족이 만시의 다작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이 외에도 개인적인 성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귀의 경우 만시의 상투성을 탈피하고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심했던 것으로 보아, 고인과 유족에 대한 애도의 감정이 남달랐을 것으로

159) 『無何堂遺稿』冊2, 〈傳燈寺 次同行入韻〉, “烟霞地闊絕氛埃 金碧輝煌寶殿開 … 僧從絕壑層雲下  
 客與前峯霽月來.”

160) 『無何堂遺稿』冊1, 〈雲居寺 次金自珍韻〉, “已喜尋眞境 還疑入太虛 回頭向塵界 歸意欲全疎.”

161) 『無何堂遺稿』冊4, 〈謝能師〉, “誰將數行語 寄自萬山中.”

162) 『無何堂遺稿』冊4, 〈次僧軸韻〉, “遙想上方秋夜靜 一聲清磬白雲中.”



보인다. 이는 창작 대상이 관료나 지인뿐만이 아니라 여성 및 현달하지 못한 인물 등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만시를 지어줬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홍주원 역시 마찬가지로의 경향성을 보였는데, 이정귀의 아들이자 홍주원의 외삼촌인 이명한의 경우도 적지 않은 양의 135편을 남겼다는 점은 이 역시 이정귀 가계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편독(遍讀)을 통한 시어 사용의 유연함과 포용성이다. 도교나 불교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아 관련 용어들을 시작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시적 흥취를 고양시켰다. 그러나 편독의 결과는 그것들에 대한 종교적·사상적인 경도가 아니라, 시구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재료에 불과한 것이었다.

한편 홍주원이 수학한 인물로 언급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북저(北渚) 김류(金鑾)이다.<sup>163)</sup> 홍주원은 북저의 만시에서 그에게 수학했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 상공(相公) 북저(北渚) 김류(金鑾) 만사[挽昇平府院君北渚金相公 其三]〉

外祖同公屏逐時 외조부께서 공과 함께 쫓겨나셨을 때에  
比隣西郭日相隨 서쪽 성곽에 이웃하며 날마다 따라다녔었지  
趨隅幸作登門客 추우(趨隅)하여 다행히 문하에 오른 사람 되었으나  
飽德非惟問字師 덕택을 입었으니 글자나 묻는 스승이 아니셨네  
高義敢忘生死際 드높은 의리로 감히 생사를 잊은 때에  
寸心常媿起居遲 마음으로는 항상 동작이 느림을 부끄러워 하였고다  
靈筵辜負南豐奠 영연(靈筵)에서 남풍(南豐)의 제수 올림을 저버리고서  
泣檢燕山贈別詩 울면서 연산의 증별시를 찾아본다네<sup>164)</sup>

세 편의 연작시로 구성된 만시 중 마지막 편이다. 첫 번째 시에서는 그의

163) 홍주원이 김류에게 수학했다는 기록은 다음의 글들에서 보인다. 宋時烈, 『宋子大全』 권163, 〈永安尉洪公神道碑銘〉; 金壽恒, 『文谷集』 권19, 〈永安尉洪公墓誌銘〉; 李敏鉉, 『西河集』 권16, 〈永安尉洪公諡狀〉.

164) 『無何堂遺稿』 冊2.



관력을 제시하면서 국가에 대한 절의와 충정을 칭송했고,<sup>165)</sup> 두 번째 시에서는 개인적인 덕과 성품에 대한 언급했다.<sup>166)</sup> 수련에서 말하는 쫓겨난 때는 1617년 복인들로부터 축출됐던 것을 말하며, 이정귀 역시도 폐축기였다. 2-3구를 통해 지근 거리에 위치해 날마다 김류를 찾아가 결국엔 문하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덕을 입어 겨우 글자만 가르쳐주는 스승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7구에서 언급한 ‘남풍전(南豐奠)’을 통해서도 스승으로서 김류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남풍은 당송팔대가 중 한 사람인 증공(曾鞏)의 별호인데, 송나라의 문장가인 진사도(陳師道)의 시에서 “와서 한 줄기 향을, 증남풍을 위해 공경히 사른다[向來一瓣香 敬爲曾南豐].”에서 유래한 것이다. 증남풍은 진사도의 스승이었으며, 이후 이 고사는 타인을 흠양(欽仰)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예를 저버렸다는 것은 장례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한 것이며,<sup>167)</sup> 8구는 홍주원이 1647년 사은사의 정사로 연경에 갈 때 지어준 시를 말한다. 말년에 병으로 고생한 김류는 이 증별시에서 “병으로 죽음을 드리운 채 도리어 이렇게 헤어지니 맑은 눈물이 옷깃 가득 흠어짐을 금할 수 없도다.”<sup>168)</sup>라고 했다. 홍주원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받은 시이기 때문에 만시에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만시와 증별시에서 보이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제자와의 이별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에 비해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무하당유고』 내에 북저와 관련된 시문은 언급한 만시 연작 3편을 제외하고 전무하다.<sup>169)</sup> 『북저선생집(北渚先生集)』에도 홍주원과 관련된 기록은 2편만이 존재한다. 한 편은 위에서 언급한 증별시이고,

165) 『無何堂遺稿』 冊2, 〈挽昇平府院君北渚金相公〉, “河清千載蔚風雲 天挺英豪翊聖君 五入巖廊三上相 重盟帶礪再元勳 文章經世今誰並 節義傳家古罕聞 看取數行臨絕筆 一心憂國見忠勤.”

166) 『無何堂遺稿』 冊2, 〈挽昇平府院君北渚金相公 其二〉, “逝水滔滔自不停 相公冠冕又玄扃 人間盛業功言德 身後高名日月星 已識去來關氣數 可憐朝野失儀形 仍思十載存亡慟 忍見槐陰只滿庭.”

167) 김류는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648년 윤3월 4일에 졸하였다[巳時 昇平府院君金瑬 卒逝]. 홍주원은 1647년 10월 사은사의 정사로서 연경으로 떠난 후 1648년 2월 27일에 환궁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김류의 장례에 참석하지 못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168) 『北渚先生集』 卷之三, 〈次贈副使堉字韻 錄奉謝恩上使永安尉洪公 柱元〉, “垂死病中還此別 滿襟清淚不禁揮.”

169) 만시 3편을 제외하고 유일한 언급은 김진표에게 지어준 송별시에서 그가 북저의 손자라는 점을 서술한 것 뿐이다. 『無何堂遺稿』 冊3, 〈贈別金三陟震標之任 其二〉, “堂堂北渚相公孫”

다른 한 편은 봄에 홍주원의 집을 지나가며 느낌을 읊은 것이다.<sup>170)</sup> 『월사집』에도 홍주원과 관련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이지만, 『무하당유고』 내에서 월사를 언급한 시들은 꽤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171)</sup>

또한 홍주원이 김류에게 수학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3편의 글은 신도비명, 묘지명, 시장(諡狀)으로 홍주원 사후에 기록된 것들이다. 모두 다른 인물들의 저작이지만, 글의 성격상 먼저 작성된 글의 행적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인물이 대상일 경우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다. 이 외에 홍주원이 이정귀를 계승했다는 기록들은 많이 보이나,<sup>172)</sup> 북저의 문장을 계승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만사에서 홍주원이 직접 수학 시기를 김류가 축출되었던 시기로 특정했다는 점, 만시의 특성상 다소 칭양의 수사가 가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문하생으로 들어갔다[登門客]’, ‘덕택을 많이 입다[飽德]’, ‘문자나 묻는 스승만이 아니었다[非惟問字師]’라는 언급은 그에게 수학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살펴본 각종 기록들에 근거한다면 이정귀에 비해 김류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홍주원이 이정귀의 집에 6~7세부터 기거하며 외삼촌들에게까지 영향을 받으며 수학한 점과 김류의 폐축기에만 문하에 드나들었다는 기간의 차이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영향력의 대소 차이는 수학 기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김류의 문학관과 정치적 노선 등이 이정귀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측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류는 이정귀와 마찬가지로 서인계의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경세가로서 실용성을 지향하고 동시에 문장에도 조예가 깊은 통유(通

170) 『北渚先生集』 卷之一, 〈春日 過永安宅有感〉, “主家當日綺筵開 歌舞清宵醉未廻 惆悵朱門人不到 碧桃春色過牆來.”

171) 『無何堂遺稿』 冊1, 〈挽谿谷張公維 其五〉, 『無何堂遺稿』 冊3, 〈奉寄長卿弼卿 兼示成朝昆季〉, 『無何堂遺稿』 冊4, 〈門外酒席 敬次外祖韻〉, 『無何堂遺稿』 冊7, 〈靑石嶺 次外祖記行韻〉, 〈遼東 次外祖記行韻〉, 〈沙嶺 次外祖記行韻〉, 〈望長城 次外祖記行韻〉, 〈永平府路中 次外祖記行韻〉, 〈榛子店 次外祖韻〉, 〈眞武廟 次外祖記行韻〉, 〈北京 次外祖燕都韻〉, 〈又次外祖清節祠韻〉, 〈連山關道中 奉次外祖記行錄中和杜甫赤谷詩韻〉, 〈早發豐潤 次外祖記行韻〉.

172) 尹新之, 『玄洲集』 卷7, 〈贈永安尉赴燕京〉; 李景奭, 『白軒先生集』 卷11, 「散地錄」 中, 〈贈謝使永安尉北京之行〉; 朴長遠, 『久堂先生集』 卷四, 「東州錄」, 〈送永安尉赴燕〉; 姜栢年, 『雪峯遺稿』 卷20, 「城南錄」, 〈永安尉洪公挽〉; 宋時烈, 『宋子大全』 卷3, 〈永安尉挽〉; 李殷相, 『東里集』 卷13, 「祭文」, 〈祭內兄永安尉文〉; 李端夏, 『畏齋集』 卷5, 「應製文」, 〈永安尉洪柱元賜祭文〉.

儒)로 당대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sup>173)</sup> 또한 김류의 문학적 재능이 주로 자신의 공적인 위치와 관련하여 발휘되었다는 점과 『북저선생집』의 서문을 쓴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의 서문을 근거로 김류의 문학적 위치를 관각문학에 위치시킨 견해가 있다.<sup>174)</sup>

김풍기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자못 유의미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김류는 청(淸)과의 전쟁 전에는 강력한 척화파(斥和波)로서의 면모를 보이다가 전쟁 이후에는 주화(主和波)로 입장을 재정리하기도 하고, 인조의 최측근으로 많은 일을 하더니 인조의 부친 정원군(定遠君)을 원종으로 추숭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노서(老西)의 영수로서 소서(小西)와 정치적으로 대립하기도 하였다.<sup>175)</sup>

또한 서인계의 영수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성혼(成渾, 1535~1598)이나 정철(鄭澈, 1536~1593)과의 일화가 미담처럼 전한다는 점, 처부인 유근이 선조·광해군 연간에 여러 차례 서인으로 지목된 정항 등을 미루어 서인으로 분류하기에 근거가 충분하다는 평가가 있다.<sup>176)</sup> 그러나 그가 당대에 명망 있는 문인이자 경세가이며, 정사에 있어서는 철저히 유학사상을 기반으로 삼은 인물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김류의 정치적 행적은 단순히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 단정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보다 복잡한 국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sup>177)</sup>

한편 김류의 문장 역시 이정귀와 마찬가지로 당시풍의 풍격을 보인다는 지적과<sup>178)</sup> 근체시 위주의 작시<sup>179)</sup>를 했다는 점, 만시의 분량이 많다는 점<sup>180)</sup>

173) 한재훈, 「北渚 金鑾의 인물과 경세관」, 『韓國人物史研究』 제18호, 한국인물사연구회, 2012, 77-78면.

174) 김풍기, 「北渚 金鑾의 한시 연구」, 『韓國人物史研究』 제18호, 한국인물사연구회, 2012, 7면.

175) 김풍기, 위의 논문, 4-5면.

176) 한재훈, 위의 논문, 80-82면.

177) 이에 대해 김풍기는 그가 시대의 격랑에 맞서 취하는 다양한 모습들은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정하였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178) 월사는 이명희에 의해 당시풍의 시인이라고 지적된 바 있으며(이명희, 앞의 논문, 208-215), 김류 역시 김풍기에 의해 전반적으로 서경(敍景)의 고요함을 주조로 하여 그림 같은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당시풍을 드러낸다고 평가되었다(김풍기, 위의 논문, 19-20면).

등을 문학적 성향의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러한 특징들은 앞서 살펴 보았듯 홍주원의 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수학기의 홍주원은 이정귀와 김류라는 유사한 문학관과 정치관을 지니고 살아갔던 대유(大儒)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렇게 영향 받은 문장에 대한 가치관은 평생 큰 변화 없이 그 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 제 3 절 교유관계

앞서 사승관계로 볼 수 있는 월사와 북저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과의 사승 관계는 수학기에 집중되었으며, 부마가 되고 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하당유고』에는 만시, 차운시, 송별시 등 타인과의 관계가 전제된 형태의 시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문집 내 등장하는 인물들만 해도 총 396명에 달한다. 이들 중 지방으로의 부임으로 인한 송별시나 만시 등 일회성의 관계를 제외한다면, 지속적으로 교유했던 인물들의 수는 수십명으로 줄어든다. 문인들 간의 지속적인 시문 교류는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교유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학시기 이후 홍주원에게 문학적 영향을 끼친 요인 중 하나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수십명의 교유 인물 중 친소관계에 대한 여타의 기록들과 문집 내 등장빈도수를 근거로 대표적인 몇 명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외사촌이자 어린 시절 월사의 밑에서 함께 수학한 청호(淸湖) 이일상(李一相, 1612~1666)이다. 그와 관련된 시문은 총 46제가 있는데, 이는 『무하당유고』 내 인물들 중 가장 많은 양이다. 이일상은 17세에 과거에 합격했으며, 대제학을 비롯해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조부인 이정귀, 부친인

179) 현재 전하는 『북저선생집』의 시편은 卷1~4까지로 총 338제의 한시가 실려 있다. 시체별로는 오언절구 5제, 칠언절구 59제, 오언율시 124제, 칠언율시 136제, 배율시 11제, 고시 3제이다. 근체시가 324제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0) 김류는 총 52수의 만시를 남겼는데, 전체 문집 분량에 비하면 상당한 분량으로 볼 수 있다. 김풍기, 위의 논문, 10-11면.

이명han과 더불어 3대가 대제학을 지낸 것은 조선 수백 년 동안 찾아볼 수 없던 일이다.<sup>181)</sup> 17세에 과거에 합격하고 대제학까지 지낸 이력만으로도 그의 문학적 역량을 가늠할 수 있다. 홍주원은 그의 제문에서 “여사(餘事)로 문장은 가정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네. 진부한 말은 깎아내고 바른 소리로 나아갔네 청신(淸新)한 구법(句法)에 조탁은 일삼지 않았다네.[餘事文章 出自家庭 刊落陳言 駸駸正聲 淸新句法 不事雕琢]”라고 한 바 있다. 특히 이정귀와 이명han 등 가문의 가계 전승 양상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영향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sup>182)</sup> 홍주원과 이일상의 6년의 나이 차를 감안하더라도 두 사람이 유년 시절 이정귀와 이명han·이소han 등에게 전승받은 문학관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구당(九堂) 박장원(朴長遠)이다. 생애에서 간략히 전술한 바 있지만, 홍주원은 1654년 국사(國事)를 말하다 귀양을 가게 된 조석윤과 박장원을 위해 효종에게 상소를 올렸다.<sup>183)</sup> 이 일로 효종은 부마로서 국법을 범하였다고 노하면서 홍주원을 파직시켰다. 그러나 홍주원은 이를 이미 감수하고 소를 올렸다. 그 일부를 살펴보겠다.

“신은 욕되게 왕실 인척의 반열에 있으면서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았으나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지위를 벗어났다는 혐의를 신이 알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소회를 밝혀 끝내 감히 숨기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에 스스로 격동되어 임금의 위엄을 범하고 어지럽혔으니, 신의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sup>184)</sup>

181) 『현종개수실록』, 7년(1666) 1월 1일, <예조 판서 이일상의 졸기>, 참조.

182) 이명희에 의하면, 이정귀 가계(家系)의 문학은 가계문학의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당풍(唐風)이라는 평가가 많다.([月沙 李廷龜家系의 文學 傳承 研究], 『어문연구』 제90집, 어문연구학회, 2016.) 한편으로 이들을 명(明) 복고파를 수용한 복고파 계열로 분류한 연구도 있다.(이종묵, 「16-7세기 漢詩史 연구: 詩風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3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 93면.)

183) 박장원이 충효의 가풍을 가지고 있다는 당대의 여러 평가들이나, 유자적 관료로서의 수행과 충효를 바탕으로 한 인물이라는 평가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의 이러한 성정은 이 사건을 비롯한 그의 정치적 부침들과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범식, 『柏谷 金得臣의 文學論과 文學世界』, 박문사, 60-61면; 김성기, 「朴長遠의 문학관과 시 세계」, 『韓國漢詩作家研究』 12권, 한국한시학회, 2008, 36면 참조.

184) 『無何堂遺稿』 冊5, <조낙정박승지사진소(趙樂靜朴承旨事陳疏)>, “臣忝在肺腑之列 受國厚恩 無以報效 出位之嫌 臣非不知 而耿耿所懷 終不敢隱 愚衷自激 冒瀾宸嚴 極涉僭越 臣罪萬死”

이를 통해 보면 홍주원은 이 상소가 부마의 신분으로 국정에 간섭하는 지위에 벗어나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소문에 직접 언급한 것은 범법마저도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석윤과 박장원의 무고와 정당한 행위였던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이들에 대한 개인적 친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쉽게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한편 그의 시에 대해 김성기는 감정을 절제하고 달의(達意)를 위주로 담담히 시를 짜 나가는 솜씨나 시에 드러나는 담담한 흥취를 기본적인 성격으로 파악했다. 이에 표현의 측면에서 꾸밈이 적고 사실을 보고하듯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시가 많다. 이는 유자로서 지행(至行)을 지향하는 그의 생활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자연의 흥취를 노래한 시에서는 당시(唐詩)의 회화적 수법이 드러나기도 했다.<sup>185)</sup>

박성호는 ‘두시(杜詩)의 흔적’과 ‘학당·학송의 극복 의지’를 그의 문집 전반에 걸친 특징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두보와 박장원의 삶이 매우 닮아있음을 지적하며, 그런 삶의 동질성이 문학에서의 동질성으로 연장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학당이니 학송이니 하는 관습에서 벗어나 마음의 덕을 쌓는 수양을 할 것과 간절한 마음으로 시 쓸 것을 당부한 박장원의 작시 태도를 검토했다.<sup>186)</sup>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로 보아 박장원은 특정 시풍에 경도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이다. 김수항이 지은 홍주원의 묘지명에 “아, 나는 어린 시절부터 다행히 공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사랑을 입어 매번 공의 법도 있는 위의(威儀)와 빼어난 풍채를 보았거니와 마치 옥(玉)이 푸른 노을이 피어오르는 속에 서 있는 듯하여 근엄한 모습이 신선 속의 인물과 같았다. 조금 자라서 문하에 출입하며 사적으로 공의 기상을 보았더니 독실하고 두터우면서도 빛이 나고 우아했으며, 너그럽고 평안하면서도 장중했다.”<sup>187)</sup>라는 언급으로 보아 유년 시절부터 홍주원과 왕래한 사

185) 김성기, 앞의 논문, 참조.

186) 박성호, 「久堂 朴長遠의 詩世界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참조.

187) 金壽恒, 『文谷集』 권19, 〈영안위홍공묘지명(永安尉洪公墓誌銘)〉, “嗚呼 壽恒自髫髻幸辱公撫頂之愛 每望公儀度 丰采秀朗 如玉立霞舉 儼然神仙中人也 及稍長而出入門牆 竊矚公氣象 則篤厚而華雅



실을 알 수 있다. 묘지명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검사의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김수항은 본격적인 문하의 출입이 아니더라도 문학적으로 일정 부분 홍주원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수항은 조부인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에게 가학을 이어받았으며, 김상헌의 학통은 이이(李珥)와 김장생(金長生)으로 이어온 서인(西人) 계열이다. 김수항은 이를 전수받아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로 이어진 서인 학문의 정맥을 접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sup>188)</sup>

만주(晩洲) 홍석기(洪錫箕, 1606~1680)는 홍주원과 동갑으로 그의 문학은 당시풍의 경향으로 파악된다. 그는 환로가 순탄치 않아 주로 외직으로 돌았으며, 때로 탄핵을 받기도 하여 출사와 향리에 은거함을 빈번히 교대해야 하는 불우를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일상의 다양한 정서를 시로 읊었는데, 감정의 자연스러운 흘러넘침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당시에서와 같은 자연스러운 의흥(意興)에 주력한 것이다.<sup>189)</sup> 또한 출처의 불우함으로 인해 그의 시세계를 대변할 수 있는 주제는 바로 불우와 귀거래의 정회 및 전원생활을 형상화한 것이다.<sup>190)</sup>

백헌(白軒) 이정석(李景奭, 1595~1671)은 홍주원과 술과 시로 교유하던 인물이다. 그와 교유한 시들은 대체로 술자리에서 지은 것들이며,<sup>191)</sup> 병자호란의 참화로 심신이 피폐하던 시기에도 “벗들과 이곳에서 얼굴 대했으니 술잔으로 또 얼굴 활짝 펴졌다네[親朋此會面 樽酒且開顏]”<sup>192)</sup>와 같은 표현을 통해 그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정석 시의 중요한 특징은 현실주의적 정조가 강하다는 것이다. 정묘·병자호란의 체험과 백마산성에서의 유배생활을 반영한 시들은 우국과 애민의 정서가 주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후대의 비평가들은 그를 성당(盛唐)의 두보에 비견한 바 있다. 또한 기행시와

也 寬平而莊重也.”

188) 유영봉,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의 시문(詩文)에 깃든 가족사(家族史)」, 『한문학보』 29권, 우리한문학회, 2013, 113면 참조.

189) 신범식, 위의 책, 62-63면, 참조.

190) 최병철, 「晩洲 洪錫箕의 시세계」, 『장서각』 20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참조.

191) 대표적으로 『無何堂遺稿』 冊1, 〈西華李公行遠第 次白軒韻 奉別季舅玄洲公〉, 『無何堂遺稿』 冊4, 〈走次雙溪覓酒韻〉 등이 있다.

192) 『無何堂遺稿』 冊1, 〈李子和時樸家酒席 次白軒李公景奭韻〉.



물외한정의 시들은 한담, 고졸한 풍격과 평이한 문체로 경물과 심정을 진솔하게 묘사, 서술한 것이 특징이며 이는 도연명의 시풍과도 흡사하다. 이경석은 당시 새롭게 부상하던 의고주의의 경향을 따르지 않고 진경(眞境)과 진정(眞情)에 의거한 시작을 추구했다.<sup>193)</sup>

시남(市南) 유계(兪槩, 1607~1664)는 홍주원과 어려서부터 가깝게 지낸 인물이다.<sup>194)</sup> 그는 도학적인 경세가로서 애민정신에 입각해 부국강병이 아닌 백성들이 인간의 도덕심성에 기반해 선한 삶이 가능한 대동사회를 이루고자 했다.<sup>195)</sup> 반면 그의 문학적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계의 문집인 『시남집(市南集)』에 윤증(尹拯, 1629~1714)이 지은 서문에 의하면,

“선생은 나면서부터 특별한 자질이 있었고 총명이 남달랐던 나머지, 책을 눈으로 한번 훑기만 해도 곧바로 그 글을 외우고는 오래되어도 잊지 않았으며, 약관의 나이에 울곡(栗谷)의 이기(理氣)에 관한 장문의 글을 보고는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하여 자득한 바가 있었다. 먼저 그 근원부터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경서를 읽을 때 아래에 나오는 정자(程子)나 주자(朱子)의 글들까지 모두 막히는 것 하나 없이 분명히 뜻을 파악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사(子史), 백가(百家)의 글들까지 널리 보아서 모두 다 꿰뚫고 있었고, 이를 문장으로 쓸 때에는 마치 근원이 유장(悠長)한 물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샘솟아 끝없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유창하였다. 그러나 모두 의리에 바탕을 두고 경전에 근원을 두었기 때문에 전해지는 글이 교훈이 될 만하였고 그것을 행하면 덕업(德業)이 될 만하였다. 붓을 놀릴 때마다 실용성이 전혀 없는 공허한 말을 내뱉는 문인들과는 같지 않았다.”<sup>196)</sup>

193) 강혜선,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0권, 한국한시학회, 2006, 참조.

194) 尹鳳朝, 『圍巖集』 卷2, 〈直長閔公墓表〉에 ‘시남(市南) 유계(兪槩) 공과 무하당(無何堂) 홍주원 공은 모두 어렸을 적부터 가깝게 교유했다. 유계 공은 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면서 뜻을 따라 서로 방문하였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좋아했다. 홍공은 매번 공이 재주를 지니고도 쓰이지 못함을 안타까워했으며, 부음을 듣고서 지은 시는 매우 슬펐다[市南兪公槩無何堂洪公柱元 皆少日遊好 兪公隔一水而居 隨意相過 至老益懽洽 洪公每惜公舍才未施 聞其喪 爲詩甚悼之].’라는 기록이 있다. 홍주원 역시 그의 제문인 〈祭市南兪參判武仲槩文〉에서 “사림은 취미로 인함이요, 나이도 차이가 없었네 … 공의 집이 이웃에 있었으니 몇 년이나 여기에서 지냈던가 술과 글로 종유하였고 훈지(壩簾)처럼 번갈아 노래했네[交因臭味 齒不差池 … 公寓比隣 幾歲于茲 酒賦從遊 迭唱壩簾]”하여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195) 김문준, 「시남 유계의 도학적 경세사상」, 『유학연구』 56권,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1, 참조.

그는 기본적으로 총기가 있던 인물이었으며, 성리학을 비롯해 다양한 서적을 탐독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용성 없이 공허한 말을 하는 문인들과의 차별성을 언급한 것은 경세가로서의 그의 면모가 문학에서도 여지없이 발현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홍주원도 그의 학문에 대해 “문장은 전아(典雅)하였고 … 식견은 넓고 풍부하여 시귀(著龜)인 것 같네 근본은 염락(濂洛)에까지 올라가서 탐구하지 않은 것이 없네[文章典雅 … 識見博洽 若稽著龜 泝源濂洛 靡不探窺]”<sup>197)</sup>라고 한 바 있다. 문장이 전아하다는 것은 윤증이 언급한 여러 경서와 정자·주자의 글들을 쉽게 이해했다던 말과 상통하며, 식견이 넓고 근본이 성리학[濂洛]에 있다는 표현과도 맥이 닿는다. 이를 통해 보면 유제는 박학을 근원으로 하였으며 과도한 수사나 꾸밈이 없는 실용적인 문장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천(沂川) 홍명하(洪命夏, 1607~1667)는 삼정승을 모두 역임한 인물로, 서예가로도 이름났다. 홍주원과 약 50여 년을 교유했으며, 편지를 주고받을 때에도 반드시 시를 덧붙일 정도로 문학적 교유가 깊었다.<sup>198)</sup> 홍명하의 문장에 대해 이의현(李宜顯, 1669~1745)은 “공은 일찍이 화실(華實)의 분별에 밝아서 지엽적인 사창(辭章)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글을 짓는 데에 전혀 뜻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시(詩)는 몹시 깨끗하고 담박하여 공의 인품과 대체로 같았고”<sup>199)</sup>라고 평했다. 이를 통해 보면 홍명하는 시문보다 상소나 주의(奏議) 등 정사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장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의현이 그의 시가 깨끗하고 담박하다고 평한 것은 이러한 홍명하의 문장관으로 인해 미사여구에 신경 쓰지 않았던 작시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6) 尹拯, 『明齋遺稿』 卷32, 〈市南先生文集跋〉, “先生生有異質 聰明出人 書過目輒成誦 而久不忘 弱冠得栗翁理氣長書 潛玩其義而自得之 既先從源頭理會來 故讀諸經書 下逮程朱文字 皆迎刃無滯礙 於是博覽 子史百家靡不貫穿 以此發於文章者 如源長之水 涌出莫禦 而滔滔不窮也 然皆本於義理 根於經傳 垂之而可爲訓 措之而可爲業 非如文人弄觚墨者之騁空言而無實用也.”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의 이기찬 역(2009)을 인용하였으며 일부 수정을 가하였다.

197) 『無何堂遺稿』 冊5, 〈祭市南俞參判武仲祭文〉.

198) 홍주원은 홍명하의 제문인 〈祭沂川洪相公命夏文〉에서 “내가 공을 안 것이 48년이라네 … 한마디 말로 계를 맺어 돈독하고 서로 권면했다네 만남은 있지만 버림은 없었으니 마치 훈지(壩簾)와 같았다오 … 편지에는 반드시 시를 덧붙였네 사귀는 도는 끝내 바꾸지 않았네[我之識公 四紀于茲 … 一言托契 義篤切偲 有還無捨 若填於篋 … 書必帶詩 庶幾交道 終不磷緇]”라고 하였다.

199) 李宜顯, 『陶谷集』 25권, 〈沂川集序〉, “公蚤明華實之辨 其於辭章之末 殊不着意求工 然詩甚清澹 大類其爲人”.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 성백효·박희정·김창효 공역을 인용했다.

이들 외에도 좌의정을 역임했던 남곡(南谷) 정지화(鄭知和, 1613~1688), 병조판서를 지낸 현계(玄溪) 박서(朴濂, 1602~1653), 김상헌의 양자이자 김수항의 부친인 사희(思晦) 김광찬(金光燦, 1597~1668), 지나친 애주(愛酒) 취향으로 여러 번 탄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문장 능력으로 계속 중용된 호주(湖洲) 채유후(蔡裕後, 1599~1660), 신익성(申翊聖)의 문하에서 신흠(申欽)에게 시적 재능을 인정받았으며, 위항문학의 선구자로서 자리매김한 구곡(龜谷) 최기남(崔奇男, 1586~?)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교유 관계를 보았을 때, 홍주원은 교유에 있어 특별히 선입견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인과 남인 가릴 것 없이 문학적으로 교유했으며, 최기남 같은 신분이 낮은 자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교유를 통해 다양한 사상과 문학적 기법들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특정 시풍이나 문학론에 경도되지 않은 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문학관을 정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 제 3 장 의례적 작시의 유형과 특성

본 장에서는 홍주원이 부마(駙馬)로서 지은 시문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홍주원은 1623년 부마에 선발된 후 평생을 왕실의 일원으로 살아갔다. 문집에는 다양한 형태로 인생 전반의 내·외적인 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을 전제하였을 때, 부마는 홍주원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문집 내에 실려 있는 모든 시가 그가 부마가 된 이후에 지은 것이란 점을 비롯하여<sup>200)</sup> 일반 유생(儒生)의 신분에서 왕실의 일원이 되었다는 점은 일생을 변화시킨 전환점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홍주원의 한시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홍주원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것이 전술한 2장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홍주원 한시의 입체적인 조망을 위한 한 단면으로서 부마라는 신분에 천착하여 작품을 유형별로 분석할 것이다.

주지하듯 부마는 일반적인 문인 및 관료들과는 유자(儒者)의 이상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처지가 다르다. 자신의 능력으로 국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관료들은 유가의 관점에서 입신(立身)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마의 경우 간택된 이후로 정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제사를 비롯해 각종 왕실의 행사에 참여는 하였으나, 작위만 있을 뿐 관직은 주지 않는 것이 통례였다. 부마에 선발된 순간부터 설사 문장과 경영에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sup>201)</sup> 그것을 실제 정사에 표출하고 적용할 수 있는 통로가 원천봉쇄 되는 것이다. 특히 홍주원은 어려서부터 문재(文才)를 인

200) 부마 이전 시기의 시문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홍주원의 아들인 만용(萬容, 1631~1692)과 손자인 중기(重箕, 1650~1706)가 문집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락시킨 것인지, 부마 이전 시기의 시문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현재로서는 상고할 수 없다.

201) 부마는 조선 초기에는 인재를 신분에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 지위가 한산하고 품계가 낮은 사람을 취했으나, 선조 이후에는 반드시 뛰어나고 빼어나며 문장까지 잘 하는 사람을 선택하였다. 宋時烈, 『宋子大全』 권163, 〈永安尉洪公神道碑銘〉, “自宣廟以後則不然 必擇其傑然而秀竒然而文者 故彬彬乎皆可尙也.”

정받았으며, 이정귀와 김류로부터 문장 단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경영에 활용하기 위함임을 교육받은 바 있다.<sup>202)</sup> 그렇기 때문에 부마라는 신분은 수학기에 교육받은 궁극적인 목표와의 격절과 사대부로서의 이상 실천이 영원히 불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 관료들의 경우 공적인 자리의 참석과 그 곳에서의 시문 수창 등은 업무적으로 쓰는 문장과는 다른 자신의 문재를 선보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적이면서도 그 이면에는 개인의 문장 능력 과시를 위한 사적인 욕구가 내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환로(宦路)에서의 평탄함 등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의 한 부면(部面)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마였던 홍주원에게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관례대로 시를 짓거나 수창하는 것은 업무의 연장선상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일반 관료들과 달리 이러한 행위에 상술한 욕구가 포착되지는 않기 때문이다.<sup>203)</sup> 문집 내 이러한 시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형은 공적인 송별연에서의 시문 수창과 청탁에 의한 만시가 대표적이다.<sup>204)</sup>

이처럼 부마는 제도적으로 정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대부로서 문장으로 뜻을 펼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야 할 운명이다. 이러한 부마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의 글이 있다.

202) 부마 이전 시기의 기록이 없어 수학기 당시 문장 단련의 목표와 이상에 대한 홍주원의 직접적인 언급을 상고할 방법이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단편적인 언급들을 한 바 있다. 홍주원과 평생 지기(知己)로 지낸 조석윤의 문인인 홍위(洪葦, 1620~1660)가 경상도 관찰사로 가게 되자 축하와 격려를 하면서 “정사와 문장이면 안 될 것이 없으니[政事文章無不可]”(『無何堂遺稿』 冊2, 〈別嶺伯洪君實〉)라고 하며 문장과 정사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바야흐로 깊은 학문으로 때를 만나 펼치면 어찌 하심(遐心)이 있어 세상과 어긋나겠나[方將邃學逢時展 豈有遐心與世違]”(『無何堂遺稿』 冊2, 〈次長卿別同春堂宋公浚吉韻〉) 등의 언급이 있다.

203) 이러한 행위를 홍주원이 한 명의 문인으로서 자신의 문재를 관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여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작품 분석 결과, 이러한 의식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후술할 각 절에서 다루겠다.

204) 부마의 신분으로 인해 4차례 연행사의 정사로 선발되어 다수의 연행시를 남겼으나, 연행시는 부마로서 공적인 성격의 작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형적인 승명배청형 인물이었던 홍주원에게 청으로의 연행은 개인적 신념과 부마라는 지위 사이의 괴리가 있었다. 이에 그의 연행시는 이러한 괴리감을 개인적인 소회로 읊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 장에서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홍주원의 연행시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拙稿, 「무하당 홍주원의 『燕行錄』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과 구지현, 「無何堂 洪柱元의 중국 사행시 전개 양상」, 『열상고전연구』 60집, 열상고전연구회, 2017이 있다.

국법에 駙馬에게 작위는 주되 관직은 주지 않으니 지위는三公과 같으나 조정의 정치와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비록 兼濟하는 재주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쓰일 수 없었고 세상 역시 그가 재주 있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自修의 道에 있어서는 그 마음이 쉽게 느슨해지기도(解) 하였다. 집과 服食·徒御·什器와 금은보석·진귀한 완구와 같은 물건은 몸을 기르고 이목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곤궁하거나 그 뜻을 어그러뜨리거나 그 몸을 수고로이 하는 일이 없었으니, 그 마음을 쉽게 안일하게(逸) 하였다. 외척과 인연을 맺기 때문에 사대부 가운데 현명한 자와는 사귀는 바가 적고, 날마다 함께 처하는 것은 궁녀와 하인과 잡희와 기교의 부류로 衣食을 구할 뿐이니, 그 마음이 쉽게 휩쓸려(流) 흩어져 버린다. 진실로 본성이 탁월하고 높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느슨하고(解) 안일하고(逸) 휩쓸려(流) 가지 않을 수 있으리오? 그러므로 駙馬 중에서 自修하여 후세에 전해진 사람은 史書에서 살펴 보아도 많이 있지 않다.<sup>205)</sup>

물질적 풍요로움이 보장되는 신분이지만 만민을 구제할 수 있는 재주와 뜻이 있어도 세상에 쓰일 수 없고, 세상에서도 이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표현이 유자로서 부마의 한계와 운명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력하지 않아도 보장되는 물질적인 부귀영화에 비해 사대부로서 능력과 뜻이 있으나 쓸 수도, 알아주지도 않는 정신적 빈곤함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삶인 것이다. 이러한 삶의 질곡(桎梏)은 자연스레 시를 통해 표출되었다.<sup>206)</sup> 부마라는 신분으로 인해 짓게 된 양식은 전술했듯 송별시와 만시가 대표적이다.<sup>207)</sup> 관례대로 혹은 의례적으로 지은 것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205) 申景濬, 『旅庵遺稿』 卷4, 〈日修齋記〉, “國制 駙馬與之爵而不與之職 位與公孤等 而朝廟庶政庶議不得與知 雖有兼濟之才與志 無以需於世 世亦不靳其有才也 故於自修之道 其心自易以解 第宅服食輿馬徒御什器金珠珍玩之物 所以養體而娛耳目者無不足 少而老 未嘗有窮困艱難 拂戾其志意 勤勞其筋骨 則其心自易以逸 以其聯於戚畹也 士大夫之賢者罕與交 而日所共處 宮娃丘史雜戲伎巧之類 求其衣食者而已 其心自易以流 苟非素性卓拔以高者 幾何不解而逸而流乎 故駙馬之能自修而可傳於後者 考諸史乘 未之多得.”, 김은정, 「東陽尉 申翊聖의 駙馬로서의 삶과 문화활동」, 『열상고전연구』 26권, 열상고전연구회, 2007, 220-221면, 재인용.

206) 홍주원은 부마로서 구속된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한 내적인 갈등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심리는 제승(濟勝)에 대한 선망과 자괴감, 현실 탈피에 대한 욕구의 일환으로 은거를 지향하는 형태로 표출되기도 했다. 拙稿, 「無何堂 洪柱元의 漢詩 일고찰-晩年의 시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76집, 동양고전학회, 2019, 16-34면 참조.

207) 의례 문자 중 송별시와 만시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부마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근대 지식인의 일반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홍주원이 부마라는 신분으로 인해 일반적인



홍주원만의 질서와 표현 방식이 포착된다. 이에 송별시와 만시를 각 절로 나누고, 유형별로 표현 방식과 그것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한다.

## 제 1 절 송별시(送別詩)

이별시는 크게 송별시(送別詩)와 유별시(留別詩)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떠나는 사람을 전송하는 것이고 후자는 떠나는 사람이 남긴 것이다.<sup>208)</sup> 홍주원의 경우는 송별시의 분량이 절대적인데,<sup>209)</sup> 4차례의 연행 경험을 제외하면 부마로 선발된 이후 도성을 떠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sup>210)</sup>

대체로 이별이란 자의에 의한 것보다 타의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예기치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이별을 제재로 한 시는 이별에 대한 아쉬움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시어들의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표현도 직설적인 경우가 많다. 이는 이별의 원인, 이별의 순간, 이별의 기간 등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슬픔과 아쉬움 등의 감정으로 전이되어 시로써 표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송별시는 즉석에서 짓는 경우가 많아 시를 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일 것이다. 홍주원의 경우에도 사적인 관계가 바탕이 된 송별시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 홍주원은 부마로서 여러 자리에 참석하여 의례적으로

---

문사들의 경우보다 더 많은 송별시와 만시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음에 초점이 있음을 밝힌다.

208) 이 외에도 이별시는 상대방의 이별시에 화답하는 수별시(酬別詩), 이별의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화별시(話別詩), 환송식 자리를 무대로 하는 연별시(宴別詩 또는 전별시(餞別詩)) 등으로 세분화하기도 한다. 金俊淵, 「唐代 送別七律 常用詩語 研究」, 『中國文學』第41輯, 한국중국어학회, 2004, 25면 참조.

209) 『無何堂遺稿』 내에 유별시로 볼 수 있는 것은 〈將渡鴨江 贈子和〉 2首, 〈到松都依幕 醉中走筆寄呈吳留守斗元挺一〉, 〈初九日 府尹設酌於客舍 醉酒曉起 錄呈府尹案下〉, 〈車輦館 贈尹學海〉 2首, 〈曉發林畔 副使稱以眼病 約以追到 途中口占〉 (이상 『無何堂遺稿』 冊7) 등의 연행시 7편 뿐이다.

210) 연행을 제외하고 홍주원이 도성을 떠난 경우는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호종한 것과 소분(掃墳)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조상의 선영을 방문한 것, 모친을 모시고 수원을 방문한 것(방문 이유는 미상), 제관에 뽑혀 구리에 위치한 목릉(穆陵)을 방문한 것, 강화도의 전등사 방문, 1630년대 어느 가을 개성으로 다녀온 유람(이에 대해서는 拙稿, 위의 논문, 19면 참조.)이 전부이다.

시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송별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데, 홍주원이 부마로서 의례적으로 지은 송별시는 86제 139수가 보인다.<sup>211)</sup> 특히 이러한 송별시들은 전송 대상이 지방관으로 부임하거나 연행사로 떠나는 경우에 지은 것만 남아 있는데, 사적인 관계 하에 지은 송별시에서는 귀근(歸覲)이나 성묘와 같은 개인적인 일에도 송별시를 지었다는 점과 차이가 있다.<sup>212)</sup> 또한 전송하는 객체들과 친소(親疏)의 차이는 자연스레 그 내용과 표현 방식의 차이를 유발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홍주원이 부마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지은 송별시의 표현 및 수사 방식의 특징과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 1) 객관적 서술을 통한 사적 교유의 대체

전술하였듯 송별시는 이별이라는 상황 하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의 토로 등 기본적으로 서정적인 성향을 띄게 마련이다.<sup>213)</sup> 또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이별이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이어지기도 한 것 역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별은 쉽고 재회는 어렵다[別易會難]”는 『顔氏家訓』의 말이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준다.<sup>214)</sup>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관계와 친밀함이 전제 조건이 된다. 이별의 상황에서 표출되는 아쉬움, 서글픔 등의 감정은 전송하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친밀도와 비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마의 입장에서 지은 홍주원의 송별시는 이러한 범주에서는 벗어나 있다. 그는 부마라는 지위로 인해 송

211) 부마로서 지은 의례적인 송별시와 개인적인 친분이 전제된 송별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를 판단하는 가장 큰 잣대가 시인의 감정이며, 전송 객체와의 친밀도인데 이는 수치화하거나 정량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무하당유고』 내의 교유 기록을 최우선 근거로 하고 그 외에 한국고전종합DB 등 여타 문집의 기록들을 검토하여 의례적인 송별시들을 판단하고 구분하였다. 첫 번째로 송별시 외에 개인적인 교유 및 접점이 포착되지 않는 인물들을 선별했다. 두 번째로 송별시 외에 다소의 주고받은 시들이 있다 하더라도 시의 내용상 사적인 교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역시 여기에 포함하였다.

212) <別郭欽魯之欽歸覲木川 酒席走筆>(『무하당유고』 冊1), <醉贈咸卿歸覲原塋>, <別欽魯歸覲木川酒席走筆>(이상 『無何堂遺稿』 冊4) 등이 있다.

213) 崔琴玉, 「陳師道 送別詩의 敘情性과 精練美」, 『中國文學』 第28輯, 한국중국어문학회, 1997, 130면 참조.

214) 金俊淵, 앞의 논문, 25면 참조.

별연에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경우와 부임자들이 부임 전에 방문하여 인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유로 인해 많은 수의 의례적인 송별시를 짓게 되었기 때문이다.

송별시는 이별로 인한 정서적인 결핍과 실제로 전송 객체가 주체의 곁에서 사라지게 되는 현실적인 결핍의 합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 없이 요구에 의해 의례적으로 지은 송별시에서는 두 가지의 결핍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사전에 교유를 통한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있던 것이 사라짐으로써 발생하는 결핍이 정서적인 것이든 현실적인 것이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서정적인 성향을 띠던 송별시는 전술하였듯 당대 이후 창작이 활발해지면서 사교행위의 일환으로써 요구나 요청에 의해 의례적인 작시가 확대되었다. 이는 이전의 시들에 비해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표현들이 축소되는 현상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시의 구성과 내용이 다소 정형화 되는 경향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sup>215)</sup> 홍주원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 내용은 주로 외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위로의 한 방식으로서 명분과 정당성 제시, 금방 서울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제시, 부모 봉양과 관련된 내용, 부임 후의 모습 상상, 부임지에 대한 지리적·지역적 특색 언급 등이다.

그러나 형식과 내용의 상투성이 고착화 된 가운데,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차별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소 정형화 된 틀 내에서도 표현 및 수사 방식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시인의 부재(不在)를 통한 객관성의 확보이다. 시에서 자신을 노출하지 않는 수법을 통해 부임에 대한 사적인 가치평가를 드러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감정 또한 노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송별시를 구성하는 내용은 부임자의 관력(官歷)이나 선조 중 걸출한 인물에 대한 언급, 가문의 위세, 부임자의 관료와 문인으로서의 위상, 부임지의 특색, 교화와 선정에 대한 조언과 격려, 조정 복귀의 희망 제시 등 객관적인 정보 및 의례적인 제언들이 대다수이다.

215) 강창구는 송별시가 성황을 이룬 당대, 그 중 초당(初唐)의 송별시를 삼부식(三部式) 구조로 파악한 바 있다. 수련에서는 송별사건 및 친구의 갈 곳을 소개하고, 함련과 경련에서는 시간 순서에 따라 풍경묘사를 진행하고, 미련에서는 이별의 정을 서술하는 것이 그것이다. 姜昌求, 「李白 送別詩의 意象考」, 『中國人文科學』 第55輯, 중국인문학회, 2013, 278-279면 참조.

이러한 내용은 전송하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사적인 교유가 전제되지 않더라도 서술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들은 주체와 객체의 친밀도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의 나열이자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이다.

즉, 시 속에서 시인은 화자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만 하고 있을 뿐, 시 안에 등장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는 등의 직접적인 개입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sup>216)</sup> 이는 비단 부마로서 지은 송별시에만 있는 특징은 아니다. 사적으로 지은 송별시의 경우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착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주로 연작시의 첫 번째 수에서 보이며, 두 번째 시 이후부터는 직접적인 감정의 노출이나 관로나 삶의 방식 등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위주로 구성한 사례가 많다.<sup>217)</sup>

이와 같은 방식은 일차적으로 부임자와 사적인 교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례적으로 송별시를 지어야 한다는 조건에 의해 선택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결국 부임자와 부임지를 비롯해 부임의 상황 등 산재된 다양한 객관적인 정보들 중 소재를 취사(取捨)하는 과정을 거치며 시를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즉 사적인 가치평가와 감정 노출을 자제하는 것으로써 교유가 없던 부임자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으며, 객관적 정보의 편린들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획득한 참신함으로 차별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다음의 시는 조봉원(趙逢源, 1608~1691)이 고령현감(高靈縣監)으로 부임할 때 지은 것이며, 문집 내 조봉원 관련 유일한 것이다.

〈고령(高靈) 조봉원(趙逢源)이 부임하기에 이별하며[別趙高靈逢源之任]〉

趙璧寧全秘 조(趙)나라의 구슬을 어찌 온전히 숨기랴만

216) 일부 직접적인 개입이 보이는 시들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의 비중이 높다. 개입이 보이는 경우에도 시상의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로 보았을 때, 진정성 있는 감정의 표출이라기보다 시의 전개상 표현된 의례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217) 부마로서 지은 송별시의 경우 연작시는 18제 70수, 사적으로 지은 송별시의 경우 연작시는 36제 118수이다. 이처럼 연작시의 편수가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홍주원이 연작시를 지을 수 있는 시적 역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적으로 지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은 그만큼 시에 담아내고자 했던 내용이 많았던 것이며, 그 내용은 대체로 사적인 교유에서 기인한 다기(多岐)한 감정들이었다.

常嗟識者稀 아는 사람 드문 것 늘 탄식했다네  
 高才成濩落 높은 재주는 쓸모없게 되었으니  
 薄宦任卑微 작은 벼슬에 천한 지위를 맡았구나  
 枕上三刀夢 베갯머리에서 삼도(三刀)의 꿈 꾸었으니  
 天南五馬飛 하늘 남쪽에서 오마(五馬)가 날겠지  
 仍思避兵地 생각건대 병란을 피한 곳에  
 還似錦衣歸 도리어 비단옷 입고 돌아간 것처럼 되었네<sup>218)</sup>

수련과 함련은 부임자인 조봉원의 재주를 칭양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얻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한 것으로, 회재불우(懷才不遇)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수련의 ‘조(趙)나라의 구슬[趙璧]’은 초(楚)나라에서 잃어버린 화씨벽(和氏璧)을 조(趙)나라의 혜문왕(惠文王)이 손에 넣은 것을 말한다. 화씨벽은 초나라 화씨(和氏)가 초산(楚山)에서 옥돌을 얻어 당시 여왕(厲王)에게 바친 것이다. 그러나 감정 결과 돌로 판명되어 왼쪽 발뒤꿈치를 베이게 되고, 이후 무왕(武王)이 즉위한 후 또 옥돌을 올렸으나 역시 돌로 판명되어 오른쪽 다리를 베었다. 그 후 문왕(文王)이 즉위하자 화씨는 옥돌을 안고 초산 아래에서 사흘 밤낮을 통곡하였는데 문왕이 사람을 보내 연유를 묻자, “보옥을 돌이라 하고 정직한 선비를 간사한 자라고 하니, 그것이 슬퍼서 그런다.” 하였다. 문왕이 마침내 옥공을 시켜 옥돌을 쪼개보니 과연 진귀한 보옥이 나왔다는 것에서 유래했다.<sup>219)</sup> 부임자인 조봉원의 재주를 돌 속에 갇혀 있는 보옥에 비유하여 칭양함과 동시에 그의 성(姓)과 동일한 전고를 사용함으로써 재치를 더했다. 보옥이 돌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안타까워했던 화씨의 고사를 조봉원의 회재불우의 상황에 비친 것이다.

전반부인 수련과 함련이 과거부터 고령현감으로 임명되기 전까지의 상황

218) 『無何堂遺稿』 冊1.

219) 韓非, 『韓非子』, 〈和氏〉, “楚人和氏得玉璞楚山中 奉而獻之厲王 厲王使玉人相之 玉人曰石也 王以和爲誑 而刖其左足 及厲王薨 武王卽位 和又奉其璞而獻之武王 武王使玉人相之 又曰石也 王又以和爲誑 而刖其右足 武王薨 文王卽位 和乃抱其璞而哭於楚山之下 三日三夜 泣盡而繼之以血 王聞之 使人問其故 曰天下之刖者多矣 子奚哭之悲也 和曰吾非悲刖也 悲夫寶玉而題之以石 貞士而名之以誑 此吾所以悲也 王乃使玉人理其璞而得寶焉 遂命曰和氏之璧。” 번역은 박건영, 이원규 역해, 『韓非子』, 청아출판사, 1993을 참고하였다.

이었다면, 후반부인 경련과 미련은 임명된 후의 상황을 읊은 것이다. 5구의 삼도몽(三刀夢)은 고을의 수령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전고이며, 6구의 오마(五馬) 역시 태수를 뜻하는 대표적인 용어이다. 5구에서 그가 현감으로 가는 것은 이미 꿈을 통해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며, 이로 인해 남쪽 고을인 고령의 태수로 가게 되었음을 용사(用事)를 통해 시간의 흐름대로 표현하였다. 7구의 병란을 피한 곳[避兵地]은 어떤 전란에 대한 언급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8구에서 비단옷을 입고 ‘돌아간다[歸]’고 한 것은 부임지인 고령 근처에 있는 함안(咸安)이 조봉원의 본관이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2구가 조봉원의 재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의 흐름으로 보아 진정성이 담겨 있다기보다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또한 조봉원의 재주를 칭양한 ‘조나라의 구슬’, 고을 수령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삼도의 꿈’과 ‘오마’ 역시 빈번하게 쓰이는 고사들이다. 일반적인 재능 칭양과 부임하는 직위, 부임지와 관련된 언급만 있는 것이다. 이 시는 두 편의 연작시인데, 두 번째 시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은 이어진다.

#### 〈그 두 번째[其二]〉

僦屋如懸磬    셋집은 마치 텅 빈 것 같으니  
生涯一味酸    생애가 한결같이 가난하구나  
誰知句漏令    누가 알았으랴 구루(句漏)의 현령이  
曾是廣文官    일찍이 바로 광문관(廣文官)이었을 줄을  
地僻伽倻近    궁벽진 곳이라 가야(伽倻)와 가까운데  
天寒道路難    날이 추워 길을 가기 어렵겠지  
臘梅應爛熳    선달 매화는 응당 흐드러졌을텐데  
東閣共誰看    동각(東閣)에서 뉘와 함께 보려나<sup>220)</sup>

전반부는 첫 번째 시와 마찬가지로 화재불우로 인한 조봉원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읊고 있다. 수련에서 언급한 가난함이나 텅 빈 집은 보통 관리들

220) 『無何堂遺稿』 冊1.



의 청빈한 삶을 표현할 때 쓰이지만, 여기서는 능력에 비해 평탄하지 못했던 그간의 관직 생활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봄이 첫 번째 시와의 연결을 생각했을 때 타당하다. 함련에서는 수련의 시상을 구체화 시켰다. ‘구루의 현령[句漏令]’은 진(晉)나라의 갈홍(葛洪)으로, 단약을 만들기 위해 조정에 청하여 구루령(句漏令)으로 나가기를 자원한 일을<sup>221)</sup> 말하는데, 여기서는 조봉원이 외지의 수령으로 가게 된 것을 말한다. 광문관(廣文官)은 당(唐) 현종(玄宗) 때 정건(鄭虔)을 가리키는 용어로, 그는 시서화(詩書畫) 삼절(三絶)이라 불릴 만큼 재능이 있었지만, 관로는 순탄치 않았다. 당시 현종의 배려로 한직(閑職)인 광문관 박사가 되었다. 즉, 함련에서는 조봉원이 구루와 같은 외지인 고령의 현감으로 가지만, 정건처럼 재주가 있다는 것을 전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경련에서는 부임지인 고령이 옛 가야(伽倻)에 속했던 지역임을 활용해 구체적인 위치와 얼마나 외진 곳인지를 말하면서, 설상가상 추운 날씨로 인해 행차가 고될 것임을 예상하였다. 미련에서는 부임지에 절기상 매화가 피었을 것이라 예상하며, 먼 타향의 관청에서 매화를 함께 감상할 이가 없을 처지에 놓인 현실을 의문형을 사용해 강조하고 있다. ‘동각(東閣)에 핀 매화’는 지방 고을 관아에 핀 매화를 뜻하는데, 전고를 활용해 부임 후 먼 타향에서 홀로 생활해야 할 조봉원의 처지를 상상한 것이다. 부임자가 살아온 길과 부임지의 지리적 위치, 계절로 인한 행차의 어려움, 부임 후의 처지 등을 담담히 읊어 내면서 시인 자신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아래의 시는 학사(學士) 오시복(吳始復, 1637~1716)이 함평으로 떠나갈 때 전송한 것으로, 문집 내에 오시복 관련 유일한 시문이다.

〈학사(學士) 오시복(吳始復)이 함평으로 가기에 전송하며[送吳學士始復咸平之行]〉

翠老孫曾少    취로(翠老)께서는 일찍이 손자가 적었으나  
 惟吾鳳穴遺    오직 우리에게 봉황의 둥지를 남기셨다네  
 科名妙歲闡    과명(科名)은 꽃다운 나이에 떨쳤고

221) 『晉書』卷72, 〈葛洪列傳〉, “以年老 欲煉丹以祈遐壽 聞交趾出丹 求爲句漏令.”

筆法乃家追 필법은 곧 집안을 좇았구나  
 新扁黃金榜 새로이 황금방(黃金榜)에 걸렸으니  
 常趨白玉墀 항상 궁궐의 섬돌을 달리겠지  
 茲行取得意 이번 행차 가장 만족스러울 것이니  
 五馬亦恩私 다섯 마리 말 또한 은혜 받은 것이라네<sup>222)</sup>

전반부는 오시복의 가문을 칭양하면서 그가 훌륭한 자질을 이어받은 것을 말하고 있다. 취로(翠老)는 오시복의 증조부인 오억령(吳億齡, 1552~1618)으로, 그 가문을 봉황이 나는 단혈(丹穴)에 비유하면서 훌륭한 인재가 나오는 곳이라 칭양했다. 자손의 수가 많지 않은 가운데 오시복은 어린 나이에 과명(科名)을 떨쳤고, 문장과 글씨에 능했던 증조부의 영향으로 필법 역시 훌륭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후반부는 전반부의 흐름을 이어 의례적인 축하의 말들로 구성되었다. 경련에서는 과거에 급제했으니, 향후 조정 내에서 바쁘게 정사에 참여하게 될 것을 ‘궁궐의 섬돌을 달린다.’며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미련에서는 이 인사(人事)가 가장 만족스러울 것이라는 것과 성은을 받은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부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가문의 뛰어난 자질과 연결하여 부임자를 칭양하였고, 과거에 급제한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조정 내에서 활약할 것을 막연하게 축하하고 있다.

두 번째 시에서는 부모님 봉양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부모님 봉양을 위해 고향의 수령을 주청(奏請)하여 부임하게 된 경위[乞養宸情感 分符輟玉堂]와 봉양을 가능케 한 성은[潘輿偏喜色 祖席倍恩光], 부임 후 봉양하게 될 특산품들을 언급[市錯魚蝦味 盤呈橘柚香]했다.

다음 시는 1627년 명(明)나라 숭정제(崇禎帝)의 즉위를 축하하는 등극사행의 부사(副使)로 연경(燕京)에 다녀온 민성휘(閔聖徽, 1582~1647)에게 지어준 송별시이다.

〈소사구(小司寇) 민공(閔公)이 등극사의 부사(副使)로 바다 건너 경사(京師)로  
 조회가기에 삼가 전송하며[奉送小司寇閔公以登極副使 泛海朝京]〉

222) 『無何堂遺稿』 冊1.

包茅趨走接燕京 띠풀 다발 들고 종종걸음으로 연경에 접할텐데  
 漢殿威儀日月明 한전(漢殿)의 위의(威儀)는 일월(日月)처럼 밝겠지  
 妙簡卽今將命重 잘 가려 뽑아 이제 중요한 명 가지고 가는데  
 剛腸終是許身輕 강직한 성품으로 끝내 가벼이 몸 허여했도다  
 黃頭振柁鯨波穩 뱃사공이 키를 비틀면 큰 파도 평온해지고  
 紫氣浮天蜃霧晴 자기(紫氣)가 하늘에 뜨고 신기루 안개 개이겠지  
 還想帝庭鳴珮處 황제의 뜰에서 패옥 울릴 곳을 돌이켜 생각하니  
 定教多士識高名 많은 선비들에게 높은 명성을 알리게 되리<sup>223)</sup>

민성휘는 홍주원이 정사로 처음 참여한 1647년 사은겸冬至使(謝恩兼冬至使)의 부사로 동행했으며, 당시 서장관이었던 이시만(李時萬)과 함께 세 사람은 많은 수창시를 지었다.<sup>224)</sup> 그러나 이 송별시를 지은 1627년까지 민성휘와의 개인적인 접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전반부인 수련과 함련은 국가의 명을 받고 사신으로 가는 것에 대한 영광과 민성휘에 대한 칭양으로 구성되었다. 공물(貢物)을 의미하는 용어인 ‘띠풀 다발[包茅]’과 임금의 명령으로 분주하게 움직임을 뜻하는 용어인 ‘종종걸음[趨走]’을 통해 이 행차의 이유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2구에서는 사행의 대상인 명나라를 높임으로써 1구에 이어 사행의 무게감을 강조하고 있다. 함련은 민성휘가 사행단의 부사로서 개인적인 능력과 성품까지 책임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요한[重]’과 ‘가벼이[輕]’의 대비를 통해 수식하는 명(命)과 허신(許身)을 보다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sup>225)</sup>

경련은 당시 사행이 험난한 여정이었던 해로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무사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내용이다.<sup>226)</sup> 항해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인 파도와

223) 『無何堂遺稿』 冊2.

224) 拙稿, 「무하당 홍주원의 『燕行錄』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2-13면; 拙稿, 「연행록 속 교유시의 양상과 의미-이시만(李時萬)과 홍주원(洪柱元)의 차운시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40권, 한성어문학회, 2019 참조.

225) 이 당시 해로사행이 위험해 사람들이 모두 사신가기를 회피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민성휘는 명을 받자 태연하게 조금도 어려워하는 빛 없이 말하기를, “남의 신하로서 몸을 나라에 허락하였는데 평안하고 험한 것을 어찌 가릴 것인가.”라고 했다고 한다. 李肯翊, 『燃藜室記述』 제29권, 「仁祖朝勳臣」, 〈閔聖徵〉, “水路朝天 時水路危險 人皆規免 公膺命怡然 略無難色曰 人臣許國 夷險何擇”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를 참조하였다.

226) 후금(後金) 세력이 만주 지역을 장악한 이후, 조선과 명의 사신 왕래는 1621년부터 1636년 12월

안개에 대해 확신에 찬 가정으로써 보다 강하게 무탈함을 염원하며 부임자의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했다.<sup>227)</sup> 미련에서는 민성휘가 중국 조정에서 스스로를 잘 단속하여[鳴珮] 임무를 완수하고 명성까지 얻게 될 것이라며 격려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민성휘의 능력 칭양과 해로 사행에서의 무사 기원, 격려 등 국가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 원정(遠程)을 떠나는 관료를 전송하는 전형적인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출행한 후의 상황을 상정(想定)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해로 사행을 떠나는 누구에게 지어주더라도 어색하지 않을 내용이다.

다음의 시는 박수홍(朴守弘, 1588~1644)이 경주로 부임할 때 지은 것이다.

〈경주(慶州) 박모(朴某)께서 부임하시기에 삼가 전송하며[奉送朴慶州赴任]〉

鮑石亭前半月城 포석정(鮑石亭) 앞은 반월성(半月城)인데  
羅朝文物燭風驚 신라 왕조의 문물은 바람 앞 촛불 같도다  
遺氓尙記花郎調 남은 백성들은 아직도 화랑(花郎)의 가락 기억하고  
舊墓猶傳庾信名 옛 무덤에 아직도 유신(庾信)의 이름이 전한다네  
眼底山川悲故國 눈 아래 산천에 아스라한 나라의 존재 슬프기만 한데  
日邊魂夢繞承明 하늘 멀리 꿈속 혼이 승명(承明)을 둘러싸겠지  
千年玉笛今餘恨 천 년의 옥피리는 지금도 한이 남았거늘  
試向清宵聽一聲 시험 삼아 맑은 밤에 한 소리 들으시려나<sup>228)</sup>

전반적으로 부임지인 경주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수련에서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 해로사행은 총 33회인데, 그 중 8차례의 사행에서 선박이 침몰되거나 사행원이 익사하는 일이 일어났다. 또한 선박의 침몰과 표류도 적지 않았으며, 노적(奴賊)이나 진달(眞獫)로 불린 후금 세력 및 가달(假獫)로 지칭된 명나라 해적들의 약탈과 노략질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당시 명으로의 해로사행은 조선의 관리들이 기피하는 임무 중 하나였다. 윤재환, 「17세기 초 대명 해로사행의 해상 사행시」, 『한국문학과 예술』 제22집, 숭실대학교 한국문화과예술연구소, 2017, 33-37면 참조.

227) 실제로 이 당시 황산도(黃山島)에 이르러 풍랑을 만나 배가 거의 뒤집힐 듯하니 배 안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울부짖었는데, 민성휘만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렸는데, 내가 임금의 명을 받고 왔으니 죽어도 흠족하다.”하고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李肯翊, 앞의 책, “舟行至黃山島 遇風舟幾覆 舟中人顛仆呼哭 公覆衾偃臥曰 人之死生在天 吾受君命而來 死亦甘心 不爲動.”

228) 『無何堂遺稿』 冊2.

신라의 귀족들이 연회를 벌이던 장소로 유명한 포석정(鮑石亭)과 궁성(宮城)이었던 반월성(半月城)을 언급했다. 당시에 화려했던 문물이 천 년의 시간이 흘러 현재는 바람 앞의 촛불과 같다고 비유했다. 일국의 수도로서 변화함을 누렸던 과거와는 달리 외지로 전락하게 된 현재를 풍전등화(風前燈火)에 비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의 백성들은 화랑(花郎)의 곡조를 기억하고, 신라의 대표적 장군인 김유신(金庾信)의 무덤 역시 남아서 맥맥히 전하고 있음을 말했다. 전반부는 박수홍이 부임한 후에 보게 될 신라의 대표적인 유산들을 말한 것이다.

5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한 시상을 전개했다. 화려했던 신라의 수도가 옛 나라[故國]가 되어 버린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산천은 그 때와 변함없기 때문에 그 변화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이 슬픔을 유발하는 것이다. 자연의 항구성(恒久性)과 인간 세계의 빠른 변화를 대비 시켜 세월의 경과를 보여주는 일반적인 수사법이다. 6구에서는 앞서 5구까지 언급한 경주로 부임한 후 박수홍의 마음을 짐작했다. 국토의 남동쪽 끝에 위치한 먼 외지이기 때문에 그는 무의식인 꿈속에서조차 서울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흔히 외직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금방 서울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sup>229)</sup>

7구의 ‘천 년의 옥피리[千年玉笛]’는 사후에 해룡(海龍)이 된 문무왕과 천신(天神)이 된 김유신이 보낸 대나무로 만든 만파식적(萬波息笛)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sup>230)</sup> 천 년이라는 시간과 앞서 4구에서 언급한 김유신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함께 언급한 여한(餘恨)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 상 신라를 대표할 수 있는 신기(神器) 중 하나인 만파식적의 여한이기 때문에 국가의 멸망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는 망했으나 당시까지도 전해지던 포석정과 반월성, 화랑의 가락, 김유신의 무덤처럼 만파식적과 같은 옥피리 소리를 박수홍이 시험 삼아 들으며 신라를 떠올리지 않을까 추측한 것이다.

부임지의 문물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면서 ‘바람 앞 촛불(燭風驚)’, ‘지금도

229) 홍주원이 지은 송별시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이와 같은 경우처럼 부임지에서 공무를 보다 보면 어느새 서울로 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위로나, 부임자의 몸은 서울을 멀리 떠나지만 마음으론 항상 귀경을 생각하고 있음을 언급한 것 등이다.

230) 해당 내용은 『三國遺事』 卷2, 「紀異」2, 〈萬波息笛〉 참조.

남아 있는 한[餘恨]’처럼 개인적인 평가가 삽입되기는 했으나,<sup>231)</sup> 이를 경주로 부임한 박수홍의 신상과 관련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박수홍이 경주로 부임하게 되어 경주라는 지역 자체에서 촉발된 감정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부임지인 경주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박수홍과 연관된 내용도 6구와 8구 정도로 볼 수 있다.

한편 민성휘와 박수홍에게 지어준 송별시는 모두 평성(平聲) 경운(庚韻)의 운자를 사용했는데, 이처럼 글자가 많고 보편적인 관운(寬韻) 위주의 작시를 했다는 점 역시 의례적인 작시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1659년 5월 금산(錦山)으로 부임하게 된 안헌징(安獻徵, 1600~1674)을<sup>232)</sup> 송별하는 것으로, 문집 내 안헌징 관련 유일한 시이다.

〈금산(錦山) 안성관(安聖觀)을 송별하며[別安錦山聖觀]〉

|         |  |
|---------|--|
| 岳老何年幸錦山 | 악로(岳老)께서 어느 해에 금산(錦山)을 다스렸던가                 |
| 詩人從古此爲官 | 시인들은 예로부터 이곳에서 벼슬 했었지                        |
| 炎天爽氣樓居迥 | 무더위에 상쾌한 기운을 누대 위에서 만끽하고                     |
| 傲吏高情簿領閑 | 어엿한 관리의 고상한 정취로 관청 일에도 한가롭겠지                 |
| 秋晚石田催釀秫 | 늦가을 돌밭에서 차조술 빚는 것을 재촉하고                      |
| 火殘金鼎報成丹 | 불 사그라든 금술에서 단약 완성되었다 알릴 것이다                  |
| 唯應客舍三更夢 | 웅당 객사에서 한밤중 꿈을 꾸게 되면                         |
| 每趁銀臺聽漏班 | 매양 은대에서 물시계 소리 들리는 반열로 나아가겠지 <sup>233)</sup> |

수련에서는 금산이 예로부터 시인들이 벼슬했던 곳으로, 그 중 대표적인

231) 참고로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1556~1618)도 〈次金接伴韻[再次]〉의 두 번째 시에서 이와 유사한 제재와 시상의 흐름을 보여준 바 있다. 포석정, 반월성, 김유신의 무덤, 옥적 등의 시제(詩材)가 동일하고, 2구인 ‘천년의 문물이 바람 앞의 촛불 같구나(千年文物燭風驚)’는 홍주원의 2구와 의미상 동일하다. 그러나 홍주원이 이 시를 참고하여 지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조선시대는 공·사교육에 있어 본국사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었으며, 국사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노력과 의식의 소산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두 사람의 신라에 대한 의식만큼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신라에 대한 인식은 鄭求福,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신라사 인식」, 『신라사학보』, 신라사학회, 2007, 참조.

232) 금산군지편찬위원회, 『錦山郡誌』4, 「비단고을 이야기」, 금산군지편찬위원회, 2011, 713면.

233) 『無何堂遺稿』冊2.



인물로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 1571~1637)을<sup>234)</sup>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헌징을 이안눌을 비롯해 과거 금산에서 벼슬했던 시인들에 비겨 그의 시적 재능을 간접적으로 칭양하고 있다.

이어 함련과 경련에서는 부임한 후 안헌징의 모습을 예상하고 있다. 무더위에는 누대 위에서 상쾌하게 보낼 수 있을 여유가 있고, 이에 더해 공무도 한가로울 것이라 예상했다. 시간이 흘러 늦가을에는 돌밭에서 차조술 빛는 것 재촉하고, 금술에 아홉 번 구워서 만든다는 도가(道家)의 선약(仙藥)인 단약 또한 완성되었다 알려오는 것을 상상했다. 부임하는 시기가 음력 5월(炎天)이었으므로 부임 후 바로 찾아올 계절인 가을을 제재로 삼은 것인데, 한가로움의 정취를 도가적 용어의 차용을 통해 한층 강화시키고 있다. 미련에서는 꿈속에서도 은대(銀臺)의 물시계 소리 들리는 서울을 그리워한다는 것으로 끝맺었다. 앞서 두 연에서 보여줬던 신선과도 같이 한가하고 여유로운 생활이지만, 결국은 서울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안헌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과거 같은 곳으로 부임했던 이안눌을 통해 부임지의 위상을 높였으며, 계절 별로 보내게 될 한가로운 생활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외직으로 가는 것을 위로했고, 귀경을 희망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그의 심정에 공감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에 비해 표현된 내용들은 주관적인 감정이나 의사 등이 배제된 채 건조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시는 충청관찰사로 부임하는 오응서(吳應瑞)<sup>235)</sup>를 송별한 것이다.

〈충청관찰사 오응서(吳應瑞)를 송별하며[別湖西伯吳應瑞]〉

清朝方岳簡名流 맑은 조정의 지방관으로 명류(名流)로 꼽히는데  
命按湖西五十州 호서(湖西)의 오십 고을을 살피라는 명 받았다네

234) 이안눌은 1611년 10월부터 1613년 10월까지 2년 간 금산을 다스렸다. 금산군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711면.

235) 오응서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를 비롯해 여타 문집에서조차 단 한 건의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無何堂遺稿』 내 이 시가 유일한 기록인데, 관찰사까지 지낸 인물의 정보가 이렇게 전무한 것은 불가능하기에 오기(誤記)로 판단된다. 부임자의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으나, 송별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인용한다.

任重不遑將母願 임무가 중요해 어머니 봉양하고 싶은 바람도 지킬 겨를 없고  
 年飢政急賑民憂 흉년이라 바야흐로 백성을 진휼하려는 근심이 선무(先務)라오  
 行春棠舍新謠遍 봄철 순시하며 머문 감당나무에서 새로운 노래 퍼질 것이고  
 駐節桐鄉舊迹留 부절 있던 동향(桐鄉)에는 옛 자취가 남았다네  
 前後福星臨一路 앞뒤로 복성(福星)이 한 길에 임하였는데  
 二難爲政較誰優 두 번의 힘들었던 정사에 누가 낫다고 할 수 있겠는가<sup>236)</sup>

수련에서는 오응서를 맡은 조정 내에서도 명류(名流)로 꼽히는 인물임을 내세우며, 이러한 인물이 충청관찰사로 부임하게 된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단순히 호서라는 지명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오십 고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함으로써 이 임무의 규모를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함련에서는 2구의 내용을 이어 오응서가 관찰사로 부임하는 동안 모친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겠지만, 흉년으로 인한 백성들의 진휼이 급선무임을 들어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봉양하지 못하는 자식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3구에서는 『詩經』, 〈四牡〉의 “나랏일을 견고하게 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지라, 어머니 봉양할 겨를도 없네[王事靡盬 不遑將母].”를 차용해 부모님의 봉양보다 국사의 긴급함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후반부는 오응서가 관찰사로서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칭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봉양을 저버리고 부임해야 하는 상황을 위무(慰撫)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행춘(行春)’은 지방 장관이 봄에 고을을 순행하며 농사를 권유하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로, 오응서 부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를 통해 남국(南國)을 순행하면서 문왕(文王)의 정사를 펴던 소공(召公)의 덕을 추모하며 부른 노래인 〈감당(甘棠)〉을 차용하여 오응서가 선정을 펼쳐 새로운 노래가 퍼질 것이라 칭양하였다. 부임지인 충청도가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전고의 내용과 합치한다. 6구의 동향(桐鄉)은 고을 수령으로서 선정을 베풀어 은혜를 끼친 고을을 말하는 것으로, 오응서가 충청도 어느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했던 이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36) 『無何堂遺稿』 冊3.

미련에서는 오응서 형제가 같은 지역에 전후(前後)로 부임해 정사를 펼쳤으며, 형제가 모두 뛰어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임무를 잘 수행했음을 언급했다. 7구의 복성(福星)은 목성(木星)을 말하는데, 이 별이 비치는 곳은 모두 복을 받는다는 이유로 행복과 희망을 주는 사람을 ‘복성’에 비유한다. 특히 훌륭한 지방관이라는 뜻으로 전용(轉用)되어 지역으로 부임하는 지방관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쓰였다. 이 시 역시 백성 진흥의 긴급함을 들어 부임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과 부임자를 칭양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의례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강원도의 아사(亞使)로 부임하는 정재송(鄭載嵩, 1632~1692)을 송별한 것으로, 문집 내 정재송 관련 유일한 시이다.

〈강원(江原) 아사(亞使) 정재송(鄭載嵩)을 송별하며[送江原鄭亞使載嵩]〉

關東幕佐號仙官 관동의 막좌(幕佐)를 선관(仙官)이라 부르나니  
 淸坐元無一事干 맑은 자리는 본디 한 가지 일도 없다네  
 散帙投壺渾漫興 책 펼쳐 놓고 투호하면 온통 절로 흥에 겹고  
 尋山瞰海捻奇觀 산 찾고 바다를 바라보면 모두 뛰어난 경치리라  
 雲端玉立千峯白 구름 끝 옥처럼 곳곳한 천 봉우리는 희고  
 霜後楓酣萬樹丹 서리 뒤에 단풍으로 온 나무가 붉겠지  
 遊賞了時應有召 유람을 마칠 즈음엔 응당 부름이 있을 것이니  
 會看鳴珮入金鑾 마침내 패옥 올리면서 금난(金鑾)으로 들어오는 것 보겠지<sup>237)</sup>

관찰사의 보좌역으로 상대적으로 한미한 아사(亞使)라는 직위와 강원도라는 부임지의 특색에 집중하여 서술했다. 앞선 시들과 달리 위로와 격려 등을 위해 자주 사용되었던 부임자에 대한 칭양도 문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예로부터 관동은 신선의 지역으로 많이 비견되었는데, 전설상의 존재인 삼신산(三神山)을 위시해 다양한 설화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도로 부임한 인물들은 이 지역을 신선 세계에 비겨 많은 시문을 남겼다.<sup>238)</sup> 이와

237) 『無何堂遺稿』 冊3.

238) 이에 대해서는 이상균, 「조선후기 강원감영의 후원조영(造營)과 신선세계」, 『문화재』 49집 3권,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23-29면 참조.

같은 맥락에서 홍주원도 관동의 막좌로 부임하는 정재승을 신선 세계의 관료로 비유했다. 또한 맑은 자리[淸坐]는 일반적으로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 마음을 맑게 하고 앉아 명상하는 것, 세상과 떨어져 홀로 있는 것 등을 뜻한다는 점과 2구의 ‘본디 한 가지 일도 없다[元無一事干]’는 말로<sup>239)</sup> 도가적 이미지를 연출함과 동시에 이 부임의 성격을 요약했다.<sup>240)</sup>

함련에서는 2구의 내용을 확장해 한미한 선관으로서의 홍취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독서와 투호 놀이로 홍취가 절로 생겨나고, 산에 올라 조망하는 경치는 모두 훌륭하다고 칭송했다. 3구는 관내에서의 여흥이며, 4구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말한 것으로 안팎으로 마치 신선놀음과도 같은 환경임을 강조했다.

경련에서도 4구의 내용을 확장 및 구체화해 자연 경관의 모습을 회화적으로 묘사했다. 산이 높고 위세가 웅장한 것을 구름 끝을 뚫고 나온 꽃꽂한 옥에 비유했으며, 흰색을 통해 구름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있는 모습을 상상케 한다. 6구에서는 앞서 흰 봉우리의 색감이 자연스럽게 서리의 흰색으로 연결된 후에 무르익을 단풍나무의 붉은색과의 대비를 이룬다. 또한 ‘구름 끝[雲端]’과 ‘서리 내린[霜後]’은 하늘과 땅이라는 높이의 극단적인 변화를 통해 역동성을 부여했으며, ‘천 봉우리[千峯]’와 ‘온 나무[萬樹]’를 통해 너비를 확장시켜 호방한 기운을 더했다.

미련에서는 이 부임을 ‘유람[遊賞]’이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압축·정리했으며, 임기를 마친 후에는 마땅히 서울로 돌아와 다시 벼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림원(翰林院)을 지칭하는 ‘금난(金鑾)’을 통해 제시했다. 이는 유람과도 같은 부임이지만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서울에서 벼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직위와 부임지의 특색에 집중했으며, 외직 이후 끝내 서울로 복귀할 것이라는 상투적인 위로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다음의 시도 앞의 정재승과 마찬가지로 강원도로 부임한 경우로, 영월로

239) 『無何堂遺稿』 冊4, 〈醉中 贈崔亨叔赴關西幕〉의 전구에서도 “亞使本來無一事”라고 언급한 바 있다.

240) 같은 직책으로 관서의 막사로 부임하는 최형숙(崔亨叔)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시를 지은 바 있다. 『無何堂遺稿』 冊4, 〈醉中 贈崔亨叔赴關西幕〉, “樓臺多少涓江湄 方伯雖尊簿牒遲 亞使本來無一事 好輸風月入新詩”

부임하는 김현문(金炫文, 1618~?)을 송별한 것이다.

〈사제의 시를 차운하여 김晦之(金晦之)가 영월군(寧越郡)으로 부임하기에 주다[次舍弟韻 贈金晦之赴寧越郡]〉

騎省潘郎鬢髮疎 기성(騎省)의 반랑(潘郎)은 귀밑머리 희끗희끗한데  
一麾行色野僧如 깃발 하나의 행색은 시골의 승려 같도다  
訟庭晝靜馴麋鹿 송사(訟事)하는 뜰은 낮에 고요하여 사슴을 길들이고  
印匣苔生斷簿書 인갑(印匣)에는 이끼가 생길 정도로 서류 일이 끊겼다네  
地產參苓供藥物 땅에서는 인삼과 복령(茯苓)이 나서 약재에 이바지하고  
山多松桂繞官居 산에는 소나무와 계수나무가 많아 관사를 둘렀도다  
長安歲暮寒威繁 장안(長安)은 설달이라 추위의 위세 엄하니  
白首那堪又摻裾 흰머리 노인이 어찌 소맷자락 잡는 것을 견디랴<sup>241)</sup>

수련은 김현문의 외양과 함께 그와 대비되는 부임하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 1구는 김현문을 진(晉)나라의 반악(潘岳)에 비긴 것이다. 주지하듯 반악은 어려서부터 그 용모가 매우 빼어났으며 총명했다. 또한 그가 지은 〈추흥부병서(秋興賦 并序)〉에 의하면 그는 32살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으며, 이를 지을 당시에 산기성(散騎省)에서 호분중랑장(虎賁中郎將)으로서 숙직을 하고 있었다.<sup>242)</sup> 여기에서 유래해 기성(騎省)은 병조의 낭청을 이르는 말로 전용되었다. 김현문은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668년 10월 17일 영월군수로 제수되기 전까지 병조정랑을 지내고 있었다.<sup>243)</sup> 수려한 외모에 흰 머리, 병조에서 근무한 이력 등의 공통분모로 인해 반악의 고사를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관[一麾]으로 가는 그의 행색은 1구의 반랑의 이미지와 대비되어 마치 시골의 승려처럼 투박하기 그지없다.

앞서 관동으로 부임하는 관료를 한미한 선관(仙官)에 비긴 것처럼 이 시

241) 『無何堂遺稿』 冊3.

242) 潘岳, 〈秋興賦 并序〉, “晉十有四年 余春秋三十有二 始見二毛 以太尉掾兼虎賁中郎將 寓直于散騎之省”, 蕭統 編著, 『文選』上, 다운샘, 1983, 314면.

243) 『승정원일기』 현종 9년 9월 19일, 〈尹文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과 10월 17일, 〈閔周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참조.

의 함련에서도 공무의 한가함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구에서는 송사(訟事)의 진행으로 떠들썩할 관청의 뜰은 초야에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사슴마저 길들일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없음을 말했다. 4구에서는 결재할 일이 없어 도장을 넣어두는 갑에 이끼가 생길 정도로 서류가 없다고 했다. 두 구절 모두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해 재치와 해학성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한산한 업무에 더해 관동의 산세 덕분에 인삼과 진귀한 약재로 여겨지는 복령(茯苓)까지 나서 약재 확보에 도움이 되며, 산에 많은 솔과 계수나무가 관사를 둘러싸고 있어 독서하기에도 안성맞춤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소나무와 계수나무는 일찍이 한유(韓愈)가 지은 <현재독서(縣齋讀書)>에서 “산수 좋은 고을의 원으로 나가 솔과 계수나무 숲에서 글 읽네[幸山水縣讀書松桂林]”<sup>244)</sup>라고 한 데서 온 것으로, 김현문이 영월의 군수로 나가게 된 것과 관청 주변이 솔과 계수나무로 둘러싸인 상황이 합치한다. 한적한 공무를 비롯해 천혜의 환경까지 조성되어 있는 부임지인 것을 표현한 것이다.

미련에서는 직접 배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현문이 1668년 10월 영월군수로 제수될 당시 63세였던 홍주원은 추위의 위세 때문에 노인으로서 직접 송별할 수 없는 상황을 말했다. 그 해 9월 병으로 인해 직명 및 겸대(兼帶)하고 있는 제조의 직임을 면하게 해줄 것을 요청한 홍주원의 입장에서 교유가 없던 김현문을 직접 배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보다는 상대방이 이해해 주길 바라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다음의 시는 1671년 여주목사로 부임하는 권상구(權尙矩, 1618~1676)가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방문하여 즉석에서 지어준 송별시로, 문집 내 권상구 관련 유일한 것이다.

<여주목사 지숙(止叔) 권상구(權尙矩) 영공(令公)이 하직인사를 하고 방문하였기에 즉석에서 입으로 읊다[呂牧權止叔尙矩令公 辭朝歷訪 卽席口號]>

銀臺纔謝六仙班 은대(銀臺)에서 비로소 육선(六仙)의 반열을 사직하고

244) 韓愈, 『韓昌黎集』 卷4.



天借名區作吏閑 하늘이 명승지를 빌려주어 한가로운 관리 되었네  
 試向淸心樓上坐 시험 삼아 청심루(淸心樓)에 올라앉으면  
 肯教魂夢到塵間 어찌 꿈 속 혼이 티끌세상으로 이르게 하랴<sup>245)</sup>

기·승구(起承句)에서는 직책의 변화를 말했다. 승정원의 도승지를 비롯한 여섯 승지의 자리를 뜻하는 육선(六仙)의 자리에서<sup>246)</sup> 천혜의 명승지이자 상대적으로 한가로운 직책인 여주목사로 임명된 것이다. 부임 후 여주의 대표적 인 누대인 청심루에 오르면 꿈에서조차 혼이 여주를 벗어나 속세로 오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몸은 이미 속세와 떨어져 있으니, 혹시나 서울로 돌아오기를 희망하지 말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구의 ‘비로소 사직했다[纔謝]’는 표현을 통해 그가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외직으로 가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명승지의 한직(閑職)으로 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고생스러웠던 서울의 벼슬 생활을 떠올리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기구의 육선을 필두로 하늘이 빌려준 명승지에서의 한가로운 관리, 주변의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청심루,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티끌세상과 대척점에 놓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신선사상의 분위기를 풍기게 한다. 이 시를 지을 당시 홍주원은 66세로 병이 심해 공무에 나아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녹봉까지 사양했다. 특히 그는 만년에 그의 삶을 돌아보며 제승(濟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선망의 감정을 드러냈는데, 이러한 감정은 주로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이들의 송별사에서 표출되었다. 특히 이러한 감정들은 비유나 전고를 비롯한 특정 수사법으로 표출한 것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농도가 짙었는데,<sup>247)</sup> 이 시에서는 이러한 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효종의 둘째 딸인 숙명공주(淑明公主)와 혼인해 청평위(靑平尉)에 봉해진 심익현(沈益顯, 1641~1683)이 1666년 사은사의 정사로 연경으로 갈 때 이별의 말을 요청하자 노정기로 지어준 30편의 연작시를 살펴보겠

245) 『無何堂遺稿』 冊4.

246) 권상구는 여주목사에 임명되기 직전 해인 1670년 9월 2일에 승정원의 정3품 당상관직인 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

247) 이에 대해서는 拙稿, 「無何堂 洪柱元의 漢詩 일고찰-晩年の 시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 76집, 동양고전학회, 2019, 15-23면 참조.

다. 종친으로서 궁에서 자주 조우했을 사이임에도 이 시가 심익현과의 유일한 교유시이다. 25년의 나이 차이와 장인(丈人)이 다르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홍주원은 동서(同壻)들 중에 특별히 친분을 유지한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sup>248)</sup>

이 시는 개인적인 교유 없이 부마로서 지은 의례적인 시에 속하지만, 앞서 제시한 시들과는 차이가 있다. 첫 번째로 제목의 형태와 내용이다. 홍주원은 시의 제목을 대체로 간결하게 짓는 편이다. 주로 시를 짓게 된 이유나 대상 등을 간단히 언급하는데,<sup>249)</sup> 심익현에게 지어준 시처럼 산문형의 제목들이 일부 있다.<sup>250)</sup> 이러한 경우 정해진 편폭 내에 자신의 의도나 감정, 알리고자 하

248) 〈華藏寺 次樂全申公 翊聖 留題韻〉, 〈池亭 與東淮申公翊聖 汾西朴公瀾 畸翁鄭公弘溟 諸丈會飲 卽席次畸翁韻〉, 〈次李觀海敏求韻 贈全昌君柳公廷亮燕行〉 이상 冊1, 〈次樂全病中見寄韻〉, 〈樂翁因求言 進筍蒙獎 且有賜馬之教錄呈〉, 〈宗府大同會 口占示樂全〉, 〈丁丑孟冬 放榜山城科 以雲劍入侍 錦陽亦同參有詩 次之〉 이상 冊2, 〈玄洲舅氏第 次樂全咏梅韻〉, 〈鷺梁 次樂全韻〉, 〈玄洲舅氏第 次樂全咏梅韻〉, 〈和東淮韻 送眞西瓜種〉, 〈過樂翁蒼亭〉 이상 冊4. 10명의 동서 중 만시를 제외하고 교유를 보인 인물은 이상과 같이 신익성, 박미, 유정량 등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신익성과 관계된 시문이 가장 많은데, 개인적인 교유 관계에 기반한 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49) 대상의 죽음을 읊는 만시에서는 〈挽成司諫 子栗〉과 같이 ‘挽’이라는 시를 짓는 목적과 대상의 직위와 자(字)나 성명 등만 언급한다. 송별시의 경우 앞서 살펴본 예들처럼 부임자의 성명과 부임지, 직책 정도만 적었다. 또한 어떤 현상에 촉발되어 시를 짓는 경우도 〈亂後遷洛〉, 〈入直揔府〉 등과 같이 간략하게 기술한 편이다.

250) 시서(詩序)를 남긴다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산문형으로 지은 경우는 드물다. 〈送朴德雨滿赴靈光(注 있음)〉, 〈初度日 送酒饌於國卿 仍寄短律 時國卿以校理乞暇在松楸 移拜執義 上章祈免〉, 〈次李鷺渚時萬昔年人日韻并序〉, 〈孫兒冠禮日 偶有所吟 鷺洲令兄 聞而遂和其韻二篇寄示 感玩之餘 復次以呈 韻甚強矣 詩云乎哉〉, 〈又次鷺洲前韻(注 있음)〉 이상 冊1, 〈吉州牧伯李汝休令公 曾占別區於洛東江上 欲爲終老計 上年冬 選部舉汝休牧定州 定卽西關孔道 朝廷之遣汝休彈壓者 豈偶然哉 上仕席未暖 旋又升擢於古城 抑西北緩急 有殊而然耶 汝休濱行過余 盛言嶠南幽居之勝 頗有形役之歎 仍誦一律 云是古人所作 而詩中情境 若有先獲者然 要余和其韻以爲臚 遂步其韻 奉呈行軒〉 이상 冊2, 〈病中因兒輩 得見李蕙徐文尙 兩上舍醉唱之韻 此是後輩好事 不覺歎歎 遂於其夕 攀爾和之 以寓病懷〉, 〈歲丁未秋八月 舍弟國卿 以問禮官 纔從鴨綠江而回 未及復命 道拜北評事 乃於冬十月 又向豆滿江而去 數月之內 踏遍西北地盡頭 此實近來縉紳間所未有之行役 豈非數耶 及至辭朝而啓行也 其兄無何翁病淹床席 末由摻別於郭外 益無以爲懷 強搆一律 倩筆書贈 非日詩也 只示規戒之意〉, 〈昨呈拙詩 立伴賜和 其敏速之才 令人敬服 又步前韻以呈者 非敢有相較之意 只報洪子晦令公還洛之期〉, 〈其翌日 元九令公強疾來訪 謂明將發行 卽要舍弟鼎坐對酌 席上又步前韻 用申別懷〉, 〈春坊沈學士仲美攸 爲養得鶴城 臨行過余索別語 余卽垂死人也 寧有吟咏之趣 辭以病不能矣 作別後偶閱東岳集咸營錄 見其爲王大監莅鶴城時壽筵稱賀之詩 記事甚詳 令人感歎 遂次其韻 而寄送於門外 豈日詩哉 以博莊笏時一粲云爾〉 이상 冊3, 〈宿醉矇矓中 忽聞有叩門聲 疑是兩兄來過 亟起呼字 夢也非眞也 悵然獨坐 無以爲懷 仍成一絕 仰呈止菴兄弟案下〉, 〈柳汝中之赴谷山也 濱行枉訪余於病中 不覺顛倒而迎 各說故情 愴感隨至 醉後仍贈 二絕〉, 〈春長以原城伯 陞拜按察 非例政也 故舊皆識喜 吾獨不然 只以二絕戲贈〉, 〈庚戌七月初 病臥洿洿中 夢見沂川相公來訪 覺來悲感 朝起寄書於其胤洪教官碩普 仍送砂糖一圓 時洪方痛癘疫云〉, 〈庭前三色桃全株盡枯 最晚忽開六七朵於枝頭 感其得沾春意 遂咏一絕〉, 〈垂死病中 偶閱休紙 得王大監先府君遺墨 進淚悲吟 何異杜工部追思高蜀州之感也 再拜封還 仍寄一絕於郭參奉昌徵昆季〉, 〈謹步來韻 奉呈李雪海晚榮案下 兄有萬里之行 而弟病如此 不敢爲一杯叙別之計 兄乃以行資 有此留臚之與 世間事不可期者如是夫〉 이상 冊4, 〈聞姜譯以車牛疲病 欲令行次留宿沙嶺 使趙東立以下爭之 不勝駭憤 攀爾口占〉, 〈四月初一日 副使書狀 偕往角山寺 余雖以曾已登眺辭

는 상황 등을 모두 담아내지 못해 제목을 산문형으로 짓거나 주(注)의 형태로 부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시들은 개인적인 소회를 읊은 것이거나, 교유 관계에 기반한 사적인 시들이 대부분이다. 심익현처럼 의례적으로 지은 시 중 이와 같은 경우는 문집 내에 단 두 편만이 수록되어 있다.<sup>251)</sup>

두 번째로는 심익현에게 지어준 송별시가 30편에 달하는 장편의 연작시라는 점이다. 홍주원은 연작시를 즐겨 짓는 편이었으나, 10편 이상의 장편 연작시는 심익현에게 지어준 것을 제외하면 4편 밖에 없다. 인평대군의 만시 10편, 외사촌이자 평생 긴밀하게 교유했던 이일상(李一相, 1612~1666)의 단양 십절(端陽十絶)을 차운한 10편과, 그것을 재차 차운하면서 쓸쓸히 자신의 심사를 읊은 것 10편, 가장 많은 시를 주고받은 인물 중 한 명인 강유(姜瑜, 1597~1668)가 황해도관찰사로 부임하게 되자 이별하며 지은 30편의 연작시가 그것이다.<sup>252)</sup>

이렇듯 심익현에게 지어준 산문형 제목의 30편 연작시는 의례적으로 지은 시들 중에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동류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경으로 가게 된 심익현이 송별시를 부탁하러 방문했을 때, 부마로서 정사로 임명되어 4차례 여행길에 올랐던 과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이다. 이에 초행길인 그를 배려해 길과 산천을 두루 열거하며[歷舉道里山川] 지었더니 심익현이 이것을 노정기로 삼은 것이다.

之 實坐衰憊 不勝羨歎 錄成一律》, 〈中後所 被擄人李鳴朝 卽副使族姪也 與副使同坐招見 有感口占〉 이상 冊7로 총 20수에 불과하다.

251) 『無何堂遺稿』 冊2, 〈吉州牧伯李汝休令公 曾占別區於洛東江上 欲爲終老計 上年冬 選部舉汝休牧定州 定卽西關孔道 朝廷之遣汝休彈壓者 豈偶然哉 上仕席未暖 旋又升擢於古城 抑西北緩急 有殊而然耶 汝休濱行過余 盛言嶠南幽居之勝 頗有形役之歎 仍誦一律 云是古人所作 而詩中情境 若有先獲者然 要余和其韻以爲臚 遂步其韻 奉呈行軒〉와 『無何堂遺稿』 冊3, 〈春坊沈學士仲美攸 爲養得鶴城臨行過余索別語 余卽垂死人也 寧有吟咏之趣 辭以病不能矣 作別後偶閱東岳集咸營錄 見其爲王大監莅鶴城時壽筵稱賀之詩 記事甚詳 令人感歎 遂次其韻 而寄送於門外 豈曰詩哉 以博拄笏時一粲云爾〉으로, 모두 송별시이다. 전자는 이상일(李尙逸, 1600~1674)이 길주목사로 임명되기 전까지의 우여곡절과 노자로 삼기 위해 화운을 요구하여 짓게 된 상황을 말한 것이다. 후자는 학성으로 부임하는 심유(沈攸, 1620~1688)가 송별시를 요청하였으나 병으로 사양하고, 이후 『동악집(東岳集)』의 「함영록(咸營錄)」에서 학성에서 수연(壽筵)을 축하한 시를 보고 차운하여 부쳐 보낸 것으로 시를 짓게 된 경위를 기록한 것이다.

252) 『無何堂遺稿』 冊1, 〈挽麟坪大君〉, 『無何堂遺稿』 冊4, 〈次咸卿端陽十絶寄子和之作〉, 〈再次〉, 〈別姜公獻海伯之行〉.

이보다 앞서 손위 동서인 전창군(全昌君) 유정량(柳廷亮, 1591~1663)이 연경으로 갈 때 지어준 송별시에서 “나도 자주 명령을 받들었는데 그대 또 이번 행차가 안타깝네[以我頻將命 憐君又作行]”<sup>253)</sup>나 “앞과 뒤의 역할로 다만 나뉘었을 뿐이니 가고 머무는 정은 똑같이 괴롭습니다[只分前後役 均惱去留情]”<sup>254)</sup>와 같이 공감을 통해 부마라는 동류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유정량과도 그의 만시를<sup>255)</sup> 제외하고 교유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익현의 경우와 동일하다.

30편의 연작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4수까지는 출발하기 전의 내용들로 가문 및 심익현에 대한 칭양, 연행의 미화, 격려 및 젊은 시절에 대한 부러움 표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29수까지는 그 노정을 따라 순차적으로 읊었는데, 궁궐을 나서는 순간부터 연경의 객관인 만관(蠻館)에 도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주로 노정에서 경유하는 지역들의 대표적인 산수 및 유적들을 가·승구에서 언급하고, 전·결구(轉結句)에서는 자신이 느꼈던 소회나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30번째 시는 지난 연행들을 회고하면서 혹 시를 짓게 되면 편지를 부쳐줄 수 있겠냐는 내용으로, 앞서 29개의 시들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몇 작품만 선별하여 살펴보겠다.

〈청평도위(靑平都尉) 심익현(沈益顯) 공이 장차 연경(燕京)으로 가게 되었다. 이 별의 말을 매우 간절히 찾았으나, 글도 되지 않는 말로써는 불가능했다. 내가 일찍이 이 행차를 질리도록 경험했다. 그러므로 길과 산천을 두루 열거하며 30편을 부연(敷演)하여 지었더니 노정기로 갖추겠다고 하였다 그 두 번째[靑平都尉沈公益顯將赴燕京也 索別語甚勤 不可以不文爲辭 余嘗飽經此行 故歷舉道里山川 演成三十絕 以備路程記云爾 其二]〉

溫溫風味藹儀容 따뜻한 풍미(風味)에 의용도 온순하니  
寶帶猩袍雨露濃 보배로운 띠와 홍포(紅袍)에 임금님 은혜 깊도다

253) 『無何堂遺稿』 冊1, 〈次李觀海敏求韻 贈全昌君柳公廷亮燕行〉.

254) 『無何堂遺稿』 冊1, 〈次李觀海敏求韻 贈全昌君柳公廷亮燕行 其二〉.

255) 『無何堂遺稿』 冊4, 〈挽全昌君柳廷亮〉.

朝罷天香携滿袖 조회를 마치면 천향(天香)이 소매에 가득 끌려올텐데  
九街春風馬如龍 큰 거리에 봄바람 불면 말이 용과 같겠지<sup>256)</sup>

첫 번째 시에서 심익현의 부친이자 영의정인 심지원(沈之源, 1593~1662)을 들어 청송(靑松) 심씨 가문을 칭양하면서 부마로 선발된 심익현에게 대가의 풍모가 있었음을 말했다. 전편에 이어 1구에서는 그의 뒸뒸이가 따뜻하며, 의용까지 온순하다고 칭찬하였다. 이러한 내외의 장점에 임금의 은혜까지 더해져 고관대작의 상징인 보배로운 띠와 홍포까지 입게 되어 연경에 가게 된 것이다. 천자를 배알하고 나면 그 향기가 옷에 배어 큰 거리에서조차 봄바람이 불면 그 향이 퍼져 말이 용처럼 보일 정도로 성대하고 화려할 것이라 하였다.

연작시 초반에 연행의 화려한 끝을 언급하며 미화한 것은 출발 전 심익현이 예상하는 연행의 괴로움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는 격려의 수사 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4번째 시에서 ‘타향에서 유람하니 바야흐로 젊은 시절이구나[遊覽殊方且壯時]’라며 연행을 유람으로 미화시킨 것도 같은 의도로 볼 수 있다. 제목에서 언급한 ‘질리도록 경험[嘗飽]’했다는 것이나, ‘가고 오에 어찌 얼굴이 늙지 않을 수 있으랴[去來安得不凋顏]’<sup>257)</sup>라는 구절과는 대조적이며, 격려의 의도가 내포되어 미화시킨 구절들에 비한다면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진다.

다음으로 5~29수의 노정 과정을 읊은 것 중 객수(客愁)를 읊은 것, 현실적인 조언을 해 준 것, 역사적인 사실에 자신의 감회 및 도덕적인 평가를 더한 대표적인 세 가지 구성의 작품들을 살펴보겠다.

#### 〈그 아홉 번째[其九]〉

華譙粉堞壓蒼崖 화려한 망루와 흰 성가퀴가 푸른 절벽을 누르니  
政是黃岡物色佳 이곳이 바로 황강(黃岡)의 물색 아름다운 곳이로다

256) 『無何堂遺稿』 冊4.

257) 『無何堂遺稿』 冊4, 〈靑平都尉沈公益顯將赴燕京也 索別語甚勤 不可以不文爲辭 余嘗飽經此行 故歷舉道里山川 演成三十絕 以備路程記云爾 其十五〉.



應向太虛樓上望 응당 태허루(太虛樓)에 올라가 바라보아야 하는데  
 客懷迢遶轉難排 나그네 회포 아득하여 갈수록 밀어내기 어렵겠지<sup>258)</sup>

이 시는 황해북도 황주에 대해 읊은 것으로, 시에서 제시된 태허루(太虛樓) 외에 월파루(月波樓), 죽루(竹樓) 등에서도 사신들이 감회를 많이 읊은 바 있다. 푸른 절벽 위에 있는 망루와 성가퀴에 올라 조감(鳥瞰)하면 한 눈에 아름다운 황주의 정경을 만끽할 수 있음을 말했다. 이러한 절경을 응당 태허루에 올라 감상해야 하지만, 여정이 진행될수록 증첩되는 객수를 풀어내기 어려워 충분히 감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승구에서는 노정을 제시하고 전결구에서는 먼 객지로 떠나는 나그네의 심정을 보여주는 구성의 시들이 있다. 〈其五〉의 “무엇보다도 벽제(碧蹄)의 외로운 객관에서 밤에 술 깨고 나면 나그네 생각에 곱절로 그립겠지[最是碧蹄孤館夜 酒醒羈思倍依依]”, 〈其六〉의 “도리어 흰 구름 있어 그리움에 바라보면 어머니는 저물녘에 문에 기대어 계시겠지[還有白雲瞻望戀慈顏日夕倚門閭]”, 〈其十一〉의 “오며 가며 응당 이 길을 지날 것이라 생각하니 잠시 동안 헤어져도 마음 아파하지 마시게[來去想應經此路 暫時分手莫傷神]”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모두 국내에서의 노정에서 지은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국경을 넘고 난 후에 지은 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겪은 자연이나 사물 등을 제시한 후에 그에 대한 감회나 개인적인 가치 평가를 위주로 구성했기 때문이다. 다음의 시는 노정과 그에 따른 현실적인 조언으로 구성된 것이다.

#### 〈그 열네 번째[其十四]〉

遼野茫茫鴨水寒 요동 들판 아득하고 압록강 물은 차가운데  
 統軍亭上獨憑欄 통군정(統軍亭)에 올라 홀로 난간에 기대겠지  
 星槎一渡山川隔 성사(星槎)가 한 번 산천을 건너 떨어지면  
 從此鄉書入手難 이로부터 고향의 편지는 손에 넣기 어렵다네<sup>259)</sup>

258) 『無何堂遺稿』 冊4.

259) 『無何堂遺稿』 冊4.



국경인 압록강은 2월의 날씨로 인해 차가울 것이고, 이를 넘어도 마주하게 될 광활한 요동 벌판을 통군정(統軍亭)에 올라 바라볼 수 있다. 통군정은 관서팔경 가운데 하나로, 의주 압록강 기슭에서 가장 높은 삼각산(三角山) 봉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곳 역시 많은 사신들이 국경을 넘기 전 방문하여 감회를 읊은 곳이다.<sup>260)</sup> 통군정에 올라 바라보면 국경인 압록강과 이를 넘어 타국인 요동 벌판이 시야에 들어오고, 등 뒤로는 고국이 있기에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

가·승구에서 압록강과 요동 들판 등 지리적인 것을 들어 물리적인 경계들을 언급했는데, 사실상 국경을 처음 넘는 심익현에게는 막연할 수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국경을 넘는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도록 서신 왕래가 어렵다는 것을 조언한 것이다. 앞선 경우와 달리 이러한 구성의 시들은 이 시를 제외하고 모두 중국 내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조언들이다. 이와 같이 노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조언한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其十九>의 “나그네들은 때때로 들판의 불에 놀라는데 그대에게 빨리 지나가라 권할테니 잠깐 수고로움도 잊겠지[行旅有時驚野火 勸君馳過暫忘勞]”,<sup>261)</sup> <其二十三>의 “관법(關法)으로 지금은 출입이 막혀 있으니 행인은 새벽에 출발하려고 닭 울음 기다린다오[關法至今防出入 行人曉發候鷄鳴]” 등이다.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한 후에 자신의 감회 및 가치 평가를 반영한 것을 살펴보겠다.

#### <그 스물 두 번째[其二十二]>

從來寧遠壯關防 예로부터 영원(寧遠)은 웅장한 관문인데  
控衛神京接大荒 신경(神京)을 보위하며 황량한 땅에 접해 있다네  
堪笑祖生何事業 조생(祖生)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스우니  
漫教河岳失金湯 부질없이 하악(河岳)이 금탕(金湯)을 잃게 했도다<sup>262)</sup>

260) 홍주원 역시 1647년 연행에서 통군정에 올라 감회를 읊은 바 있다. 『無何堂遺稿』 冊7, <統軍亭登覽後復用前韻>, “西來贏得雪渾頭 暫向危譙驕遠眸 天地已分夷夏界 山河尚帶古今愁 長流袞袞歸何處 畫角鳴鳴起此樓 明日九連城外路 嚴程無計少淹留”

261) 홍주원은 1647년 연행 도중 고평(高平)에서 들불을 만나 수레의 장막이 모두 불탄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장관이 지은 <高平途中爲野火耿圍困車帷盡燒詩以壓驚>를 차운해 두 편의 연작시인 <次高平道中卒遇野火韻>을 지었다.

영원성을 읊으면서 명나라의 장수인 조대수(祖大壽, ?~1656)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부연하고 있다. 영원성은 조대수의 출신지이자 그가 후금과의 전투에서 항전하며 전공(戰功)을 세운 곳이기도 하다. 중국 내지와 동북쪽 지역을 연결하는 군사적 요충지에 위치한 영원성은 홍주원도 일찍이 1647년 연행에서 “구름은 하얀 성가퀴에 잇따라 겹겹으로 있는데 산하를 끼고 광녕까지 접해있어 적을 막아 지키네[連雲粉堞設重扃 控扼山河接廣寧]”<sup>262)</sup>라며 그 위용을 언급한 바 있다. 내륙과 동북쪽 별판의 중간에 위치한 웅장한 관문임을 말한 것이다.

3구의 조생(祖生)은 조대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는 대릉하를 지키다 성을 포위당하여 군량이 떨어지자 결국 오랑캐에 항복하였다.<sup>264)</sup> 3구는 조대수가 끝내는 항복한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인데, 4구에서는 그의 행위로 인해 중국을 상징하는 황하와 오악(五岳)의 금성탕지(金城湯池)를 잃게 되었고, 이는 결국 명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말했다.<sup>265)</sup> 이에 조선의 많은 사신들이 이곳을 지나며 조대수를 비판하였다.<sup>266)</sup>

이와 같이 노정을 제시한 후에 그에 따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신의 도덕적인 평가를 남긴 시들은 다음과 같다. 요양땅에 전쟁이 번갈아 일어났지만, 명과 청의 교체는 역사에 끝내 욕됨과 부끄러움을 모두 남겨 사신 가는

262) 『無何堂遺稿』 冊4.

263) 『無何堂遺稿』 冊7, 〈次寧遠城感懷〉.

264) 朴趾源 著, 리상호 옮김, 『열하일기』上, 「駉汎隨筆」, 〈7월 19일〉, “後錦州松山之戰 祖大樂祖大成祖大明 皆被擒 大壽守大凌河城 被圍糧盡 舉城降”

265) 『無何堂遺稿』 冊7, 〈次寧遠城感懷〉에서 “이백년 간 지켜온 땅이지만 오늘날 모두 비린내 나는 곳이니 가련하도다[二百年來防戍地 可憐今日撚羶腥]”라 언급한 것과 같은 시 〈其三〉에서 “홍노는 아직 멸망하지 않고 감히 집으로 삼았구나[凶奴未滅敢爲家]”라는 것을 통해 명나라 패망의 원흉 중 한 명으로서 조대수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66) 홍주원도 영원성에 있는 조대수의 패루를 보고 지은 〈次寧遠城感懷 其二〉에서 “4대에 걸친 충정은 진실로 부질없는 말이었던가 지금까지 인간 세상에서 너무도 부끄럽게 여긴다[四世忠貞眞謾語 卽今人世已忘羞]”고 한 언급이나, 〈到大凌河〉에서 “장수를 백년 간 길렀으나 끝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조생처럼 도리어 한 번에 투항하고 포로가 되었구나[養將百年終底事 祖生還作一降俘]”, 〈寧遠城中 見祖大壽牌樓〉에서 “4대의 충정은 모두가 부질없는 말이었는지 노년에 쉽사리 한 번에 투항한 포로 되었다네[四世忠貞渾謾語 暮年甘作一降俘]” 이상 『無何堂遺稿』 冊7에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강한 비판을 한 바 있다. 참고로 연암 역시 “오늘 조씨네 집 패루들은 으리으리하게 번쩍이고 있지만 농서(隴西) 집안의 명성은 말이 아니고 공연히 후인들의 웃음거리밖에 못 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今其牌樓崢嶸而隴西之家聲墮矣 徒爲後人之嗤點 有何益哉]”라고 농도 짙은 비난을 했다. 朴趾源 著, 리상호 옮김, 위의 책, 284면.

것 자체가 후인들의 비웃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sup>267)</sup> 북평(北平)에서 흉노족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공훈을 세운 명장이자 정통 한족인 이광(李廣)을 아직도 기억한다면 그가 범인 줄 알고 활을 쏘 화살이 깊이 박힌 바위가 형체만 남은 것을 들어 땅의 주인이 바뀐 것을 한탄한 것,<sup>268)</sup> 고죽성에서는 절개의 대명사인 백이숙제를 들어 당시에 두 사람이 수양산을 오른 것을 아직도 기억하지만, 현재는 땅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은근히 내비친 것,<sup>269)</sup> 통주(通州)의 장엄하고 화려함을 조감(鳥瞰)하기 위해 오른 누대 위에서는 예전부터 전하던 물색 중 남은 것이 적다는 점을 통해 변화에 대한 씁쓸함을 잊혀진 집에서 홀로 올려대는 새에 의탁하여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sup>270)</sup> 또한 북경에 대해서는 황제의 도성으로 형세가 험준하고 씩씩하지만, 나라가 망한 것을 상징하는 동타(銅駝)와 나라의 위태로움을 상징하는 이마(泥馬)를 통해 도성의 형세는 그대로 남아있으나 그 주인이 바뀐 것을 은근하게 한탄하기도 했다.<sup>271)</sup>

이 외에 노정에 따라 물색을 제시한 후에 그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역할만 한 시들도 있다. 백상루(百祥樓)와 향산(香山)에 대해 읊은 것,<sup>272)</sup> 평안도 신안(新安)에 선조(宣祖)가 머물렀던 일,<sup>273)</sup> 삼강(三江)과 팔도(八渡)를 읊으

267) 이외에도 홍주원의 동일한 의식이 토로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靑平都尉沈公益顯將赴燕京也 索別語甚勤 不可以不文爲辭 余嘗飽經此行 故歷舉道里山川 演成三十絶 以備路程記云爾 其十八〉, 이상 『無何堂遺稿』 冊4, 이외에도 〈夷齊廟感懷〉, 〈又次短律示副使〉, 〈次副使韻〉, 〈途中有感 錄呈副使 兼示書狀〉, 〈次追記燕京韻 其二〉, 〈次杏山店舍 次杜詩咏懷韻〉, 〈到夷齊廟 有感記懷〉, 이상 『無何堂遺稿』 冊7 등이 있다.

268) 이외에도 홍주원의 이광의 고사를 활용해 유사한 감정을 표출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靑平都尉沈公益顯將赴燕京也 索別語甚勤 不可以不文爲辭 余嘗飽經此行 故歷舉道里山川 演成三十絶 以備路程記云爾 其二十四〉, 이상 『無何堂遺稿』 冊4, 〈次杏山途中韻〉, 〈永平府次 其二〉, 이상 『無何堂遺稿』 冊7.

269) 『無何堂遺稿』 冊4, 〈靑平都尉沈公益顯將赴燕京也 索別語甚勤 不可以不文爲辭 余嘗飽經此行 故歷舉道里山川 演成三十絶 以備路程記云爾 其二十五〉.

270) 『無何堂遺稿』 冊4, 〈靑平都尉沈公益顯將赴燕京也 索別語甚勤 不可以不文爲辭 余嘗飽經此行 故歷舉道里山川 演成三十絶 以備路程記云爾 其二十七〉.

271) 이 외에도 문집 내에서 유사한 감정이 드러난 시는 다음과 같다. 〈靑平都尉沈公益顯將赴燕京也 索別語甚勤 不可以不文爲辭 余嘗飽經此行 故歷舉道里山川 演成三十絶 以備路程記云爾 其二十八〉, 이상 『無何堂遺稿』 冊4, 〈次涇字韻〉, 〈入接寧遠衛鄉校有感〉, 〈永平府路中 次外祖記行韻〉, 〈次薊州韻〉, 〈元日〉, 〈次三里店韻 其二〉, 이상 『無何堂遺稿』 冊7.

272) 『無何堂遺稿』 冊4, 〈靑平都尉沈公益顯將赴燕京也 索別語甚勤 不可以不文爲辭 余嘗飽經此行 故歷舉道里山川 演成三十絶 以備路程記云爾 其十二〉.

며 근처에 있는 왕상(王祥)의 무덤을 언급한 것,<sup>274)</sup> 대릉하(大凌河)를 지나며 주변 경치에 대해 언급한 것,<sup>275)</sup> 요충지인 계주(薊州)에서는 독락사(獨樂寺)에 남아있는 이백의 필적에 대해 언급했다.<sup>276)</sup> 이와 같은 시들은 앞서 제시한 것들에 비해 감정이 절제되고 객관적인 정보 전달의 기능에만 충실한 것들이다. 이러한 시들에서는 본 항에서 다른 시인의 부재에 부합하고 있다.<sup>277)</sup>

이상과 같이 객관적 서술의 한 단면으로서 시인의 부재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술하였듯 당대(唐代)에 들어 송별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비교적 중요한 사교 행위의 일환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에 자연스레 송별시는 사교의 수단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대상과의 인간적인 교감과는 별개로 요구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러한 풍조는 학당풍(學唐風)이 확산되던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사교 행위의 일환으로써 요구나 요청에 의해 지어지는 의례적인 작시의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의례적인 작시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서정적인 경향이 강했던 송별시가 개인적인 감정 표출이 축소되는 형태로의 변화를 야기했으며, 시의 구성 및 내용도 다소 정형화되는 추세가 되었다. 홍주원의 경우는 이러한 시류에 부마라는 지위의 특수성이 더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객관적인 서술로 인한 시인의 부재는 전송하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사적인 교유가 전제되지 않더라도 서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으며, 객관적인 정보의 나열이자 일반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서술 형태 속에서 시인은 화자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외하면, 시 안에 등장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는 등의 직접적인 개입은 대체로 보이지 않았다.

273) 『無何堂遺稿』 冊4, 〈靑平都尉沈公益顯將赴燕京也 索別語甚勤 不可以不文爲辭 余嘗飽經此行 故歷舉道里山川 演成三十絶 以備路程記云爾 其十三〉.

274) 『無何堂遺稿』 冊4, 〈靑平都尉沈公益顯將赴燕京也 索別語甚勤 不可以不文爲辭 余嘗飽經此行 故歷舉道里山川 演成三十絶 以備路程記云爾 其十六〉.

275) 『無何堂遺稿』 冊4, 〈靑平都尉沈公益顯將赴燕京也 索別語甚勤 不可以不文爲辭 余嘗飽經此行 故歷舉道里山川 演成三十絶 以備路程記云爾 其二十〉.

276) 『無何堂遺稿』 冊4, 〈靑平都尉沈公益顯將赴燕京也 索別語甚勤 不可以不文爲辭 余嘗飽經此行 故歷舉道里山川 演成三十絶 以備路程記云爾 其二十六〉.

277) 조대수를 비롯해 명청교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개인의 비판의식을 드러낸 경우들이 있다. 장편의 연작시를 지으며 연행길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당시 중원의 정세에 대한 홍주원의 견해가 삽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해당 지역을 통해 촉발된 청에 대한 개인적인 부정(否定)의식을 드러낸 것이지만, 심익현과의 개인적 교유에 기반한 서술로 보기에는 어렵다.

홍주원의 경우는 부마라는 지위까지 겹쳐져 다수의 의례적인 송별시를 창작하게 되었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이러한 창작 환경이 조성된 것도 일조한 측면이 있다. 즉 이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른 당시 사교 행위로서의 송별연의 확대와 이에 따른 송별시의 의례적 창작 증가라는 문단의 한 지류(支流)를 파악할 수 있는 실례(實例)이다. 또한 홍주원 개인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례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 정보의 편린들을 다채롭게 조합함으로써 참신함을 확보하였다.

## 2) 부임자의 상황에 맞는 수사를 통한 정형성 극복

앞서 의례적인 송별시 창작의 확대와 이에 따른 개인적인 감정 노출의 감소 및 객관적인 서술 경향으로 인해 그 구성과 내용이 다소 정형화되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시인의 부재를 통한 객관적 정보의 다채로운 조합 방식으로 획득한 참신함 외에 본 항에서 살펴볼 위로와 격려의 수사로서 부임의 명분 제시도 당시 송별시의 정형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수사 방식의 한 부면으로서 다루고자 한다.

조선시대가 고려시대에 비해 중앙의 집권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것은 비록 임기가 정해져 있으며, 향후 다시 중앙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권력과 문화의 중심에서 멀어진다는 불안감이 존재했을 것이다.<sup>278)</sup>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지방으로 부임하는 인물들에게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여러 방식으로 위로와 격려의 표현들이 송별시 내에 삽입되게 된 것이다.

의례적으로 지은 홍주원의 송별시에서 내용상 전체적으로 부임을 축하하는 경우는 앞서 1항에서 인용했던 오시복(吳始復)이 어린 나이에 과거에 합격해 함평으로 부임하게 되어 지은 것과<sup>279)</sup> 교유 관계가 있는 조중려(趙重

278) 김창원은 황일호(1588~1641)의 어부가(漁父歌)를 중앙이 지방을 압도해 가는 시대에 중앙의 양반이 중앙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느끼는 현존재에 대한 불안의 표현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이렇게 중앙이 지방을 압도하면서, 중앙에 일찍부터 기반을 두었던 양반들은 서울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고심하였다. 그들은 서울에서 가급적 멀어지지 않기 위해 근기에 살 만한 곳을 물색하여 서울의 경저와 근기의 별서를 중심으로 생활하였다. 이들은 은거에 대해서도 남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있어 은거란 대체로 서울에서 가까운 근기의 별서에 머무는 것이었다.”라고 하였으며, 이는 서울이라는 중심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 때문으로 보았다. 김창원, 「‘중앙-지방’의 권력과 17세기 어부가(漁父歌)의 갈등 구도」, 『국제어문』 40집, 국제어문학회, 2007, 99-126면.



묘, 1603~1650)의 아들인 조종저(趙宗著, 1631~1690)의 화순 부임을 축하한 것,<sup>280)</sup> 이른 나이에 황해도관찰사로 부임하게 된 원만석(元萬石, 1623~1667)을 송별한 것<sup>281)</sup> 등으로 총 3편에 불과하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부임하게 된 경우와 지인의 아들에게 지어준 것이라는 점에서 의례적일지언정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만 전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1항에서 살펴본 객관적인 시선과 서술을 유지한 채 긍정과 부정 그 어느 한 쪽으로도 저울질하기 어려운 시들과 본 항에서 살펴볼 위로의 수사로 점철된 시들의 비율은 비슷하다. 이러한 위로의 수사들도 부임자 및 부임지 등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부모 봉양과 관련된 내용이다. 부모에게 효를 실천할 가장 효과적인 지위가 지방관이라는 논리가 가장 많았으며, 귀경으로의 희망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경우 금방 서울로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직접적 표현과 부임자가 부임지에서 서울을 항상 그리워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부임자가 귀경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 자신도 잘 알고 있다고 공감한 간접적인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도 직명이나 부임지 칭양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임자의 위상을 제고(提高)시키므로써 격려하는 경우, 부임의 명분 제시를 위해 성은(聖恩)을 활용한 경우, 부임자의 능력이 출중해 선정을 베풀 것이라는 격려 등이 있다. 이러한 위로의 수사들은 보통 한 편의 시에서 혼효되어 있어 위로와 격려의 효과를 배가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들 역시 정서적인 차원이라기보다 의례적 작시 환경에서 상투성 극복을 위한 방식의 일환에서 접근해야 한다. 작품을 통해 예증하겠다.

〈원로(元老) 홍명구(洪命耆) 영공(令公)께서 안동(安東)으로 가신다기에 전송하며

279) 『無何堂遺稿』 冊1, 〈送吳學士始復咸平之行〉.

280) 『無何堂遺稿』 冊1, 〈送趙宗之宗著赴和順〉, “先府聲名重 今君有典刑 相携半日話 如襲昔年馨 毛檄爭看喜 潘輿更報寧 應逢武靈宰 爲說我羸形”

281) 『無何堂遺稿』 冊2, 〈別海伯元羣玉萬石〉, “春天玉節去如飛 三十觀風古亦稀 趁日銀臺纔密邇 經年綵服又離違 時當候客煩能靜 政尙便民化並威 湖嶺至今棠詠在 好將庭訓繼光輝”



[送洪元老命壽令公赴安東]

只爲專城養 다만 전성(專城)의 봉양을 위한 것일 뿐이니  
爭稱捧檄情 봉격(捧檄)의 정이라 다투어 칭찬하네  
官從都護重 벼슬은 도호(都護)의 무거움을 좇고  
地擅永嘉名 땅은 안동이라는 이름 빼어나도다  
滿郭絃歌鬧 성곽 가득 현가(絃歌)가 시끄러울 것이고  
當筵彩服明 자리에 임하면 채색옷 밝겠지  
惟應東閣夢 아마도 동각(東閣)에서 꿈에 응답하여  
夜夜入西淸 밤마다 서청(西淸)으로 들어가시겠지<sup>282)</sup>

이 시는 홍명구(洪命壽, 1596~1637)가 경상 감사로 부임할 때 지은 것이다. 수련은 이 부임이 전적으로 부모의 봉양을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1구의 ‘전성(專城)’은 지방 장관의 별칭으로, 장관으로서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것을 말하며, 2구의 ‘봉격정(捧檄情)’은 격서를 받고 관로에 나아가는 것으로, 부모를 위해 벼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련은 이 부임이 부모 봉양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유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인 효를 강조함으로써 부임의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

3구에서는 직명을 통해 그가 중책을 맡았음을, 4구에서는 지역의 명성을 드러내 홍명구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홍명구를 격려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그가 부임한 후에 예악(禮樂)의 교화를 뜻하는 ‘현가(絃歌)’가 시끄러울 것이라 예상했으며, 일흔이 넘어서도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색동옷을 입고 아이처럼 재롱을 부렸던 초(楚)나라의 노래자(老萊子)를 인용하여 이 부임을 통해 효도의 앞날이 ‘밝을[明]’ 것이라고 격려했다. 5구에서 교화와 선정을 통해 공적인 업적을 성취하고, 이를 토대로 부모의 봉양까지 수월할 전망이라는 것으로 공사(公私)의 대비를 자연스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련은 경련에서 읊은 부임 후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부임지에서의 밤을 읊었다. 홍명구는 지방 고을의 관아인 동각(東閣)에서의 꿈속에서 서울의 부름에 응답하여 밤마다 홍문관[西淸]으로 들어갈 것이라 읊었다. ‘아마도[惟]’

282) 『無何堂遺稿』 冊1.

라는 부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홍명구가 서울로의 귀환을 매일 밤 꿈꾸고 있을 것이라 추측했다. 이 시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라는 당위성, 직명과 지역의 명성을 활용, 선정을 베풀 것이라는 격려, 귀경 의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공감 등의 수사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부임의 명분을 제시함과 동시에 위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다음의 시는 최옥(崔煜, 1594~?)이 고성(固城)으로 부임할 때 송별한 것으로, 문집 내 최옥 관련 유일한 교유시이다.

〈최여명(崔汝明)이 고성(固城)으로 부임하기에 전송하며[送崔汝明赴固城]〉

珥筆多年侍紫局 여러 해 동안 붓 꽃고 붉은 대궐에서 모셨는데  
向來何事滯郎星 지난날 무슨 일로 낭성(郎星)에 막혔는지  
分憂下邑人皆惜 아랫고을 지방관이라 사람들이 모두 안타까워했는데  
得意行旌自不停 가는 깃발에 만족하여 스스로 멈추지 않았도다  
橘林噴香成霧暗 향기를 뿜는 귤 숲에 안개가 자욱하게 생겼을테고  
海魚盈尺入盤脰 한 자 남짓한 바닷고기에 소반으로 비린내 들어오겠지  
郵程會見徵書急 임금께서 급히 부르시는 글을 역로(驛路)에서 만나 보면  
屈指歸期變幾莫 돌아갈 기약 손가락 구부려봐도 며칠이나 변하려나<sup>283)</sup>

수련에서는 최옥이 그동안 겪은 관로에서의 험난함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시종신으로서[珥筆]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신 경력이 있으나, 한 때는 무비(武備)를 관장하는 별인 낭장성(郎將星)에 막혀 있다는 것을 통해 그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반(武班)의 하급 직책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간 험난했던 관로에 더해 더욱이 이번 부임은 국토의 동남쪽 끝인 경상도로 가는 것이기에 주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으나, 정작 최옥 본인은 지방관으로서의 행차에 만족하고 하급 무관의 직책에 머무르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주변의 안타까운 시선은 객관적인 사실이겠으나, 최옥이 이 부임에 실제로 만족했는지에 대해 시인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을 통해 시인이 최옥을 이러한 인물로 판단하고 있음을 부임자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벼슬의 경

283) 『無何堂遺稿』冊2.

중을 따지지 않고 만족하는 인물이라는 사적인 명분을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부임지의 특산물을 통해 오감이 만족스러울 것이라 언급했다. 향기를 뿜는 굴 숲의 자욱한 안개를 통해서는 후각과 시각적 정취를, 소반에 올려진 바닷고기를 통해서는 후각과 상상되는 맛을 통해 미각을 자극하는 것으로 부임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미련에서는 마땅히 임금이 그를 급히 찾게 될 것이라며 희망을 제시하면서도 서울로 돌아갈 기약을 손꼽아 세어보아도 시간이 빨리 흐르지는 않으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조언했다.

험난했던 과거 관력에 이번 부임 역시 주위에서 안타까워했으나, 최옥의 벼슬관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통해 명분을 만들었으며, 물리적으로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역이지만 특산물에 대한 언급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했다. 끝으로 응당 서울로 복귀할 명이 있을 것이니 조급해 하지 말라는 것으로 위로하고 있다.

다음의 시는 평해(平海)로 부임하는 박정(朴筵, 1602~?)을 송별한 것으로, 문집 내 박정 관련 유일한 교유시이다.

〈평해(平海) 박정(朴筵)이 부임가기에 전송하며[送朴平海筵之任]〉

纔由騎省轉鴻臚 겨우 병조(兵曹)에서 홍려(鴻臚)로 옮겼는데  
底事栖栖向海隅 무슨 일로 안정되지 않고 바다 모퉁이로 향하는가  
欲把三牲勤奉養 삼생(三牲)을 잡아 힘껏 봉양하고자 했으니  
方知五馬寂良圖 바야흐로 오마(五馬)가 가장 좋은 계책임을 알았도다  
黃堂謾興琴徽響 황당(黃堂)에서 흥 나는대로 거문고 울려 보아도  
北極歸心嶺月孤 북극(北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봉우리 달은 외롭겠지  
早晚郵程飛尺一 조만간 역로(驛路)로 조서 날아갈텐데  
海棠花下莫踟躕 해당화 아래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길<sup>284)</sup>

박정은 1628년 1월 5일에 병조정랑으로 임명되었다 동년 8월 28일에 통

284) 『無何堂遺稿』 冊2.

레원[鴻臚] 봉례(奉禮)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3년 후인 1631년 12월 30일에 평해군수로 임명되었다. 자리가 안정되지 못한 것에 더해 부임지인 경상북도 울진을 바다 모퉁이[海隅]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 홍주원이 이 부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함련에서는 이 부임이 부모의 봉양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소, 돼지, 양의 세 가지 고기를 갖추어 풍요로운 봉양을 뜻하는 삼생(三牲)으로써 부모를 모시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도가 지방의 태수[五馬]임을 깨달았다는 것을 통해 부임의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 태수의 거처인 황당(黃堂)에서 거문고 연주로 한껏 흥을 내고자 해도 왕을 상징하는 북극성(北極星)이 있는 궁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sup>285)</sup> 인해 온전히 즐길 수가 없다. 또한 감정이 있을 리 없는 봉우리 달이 외롭다는 것은 박정의 마음이 즐거운 자리에서도 서울에 대한 그리움으로 즐길 수 없기 때문임을 달에 의탁해 표현했다. 미련에서는 서울로의 복귀를 알리는 조서가 금방 갈 것이니, 해당화를 완상하느라 머뭇거리지 말고 하루빨리 오라는 것으로 시를 마쳤다.

바다 모퉁이의 외직으로 부임하는 박정에게 부모 봉양을 위해 가장 훌륭한 방책임을 들어 격려했으며, 귀경의 의지로 인해 부임지에서 거문고도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심사에 대해 공감하고자 했다. 이를 공감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미련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早晚]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며 희망을 안겨주고자 했다.

다음 시는 1638년 최유해(崔有海, 1588~1641)가 길주목사(吉州牧使)로 부임하게 되자 써 준 송별시로, 역시 문집 내 유일한 교유의 흔적이다.

〈묵수영감(默守令監)이 길주로 부임하는 것을 받들어 전별하며[奉別默守令監赴吉州]〉

北門雄鎮屬蘇殘 북문(北門)의 웅진(雄鎮)이 회복되었으니  
簡擢如今輟講官 지금처럼 간택되어 강관(講官)을 그만두셨네  
自是聖心徒得重 이로부터 임금님 마음 다만 무겁게 얻었으니

285) 『論語』, 「爲政」, “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 而衆星共之”

早知王事不辭難 일찍 아셨도다 나랏일은 어려워도 사양할 수 없음을  
 危譙戍角當秋怨 높은 망루의 뿔피리 소리는 가을 맞아 원망하는 듯 하고  
 疊嶺行裝未雪寒 겹겹의 봉우리로 가는 행장은 눈 내리지 않아도 추우리라  
 回首日邊歸意杳 머리 돌려 하늘 멀리 보면 돌아갈 뜻 아득할텐데  
 夢隨南鴈落江干 꿈에서는 남쪽 기러기 따라 강가로 떨어지겠지<sup>286)</sup>

1구는 부임 시기로 보아 병자호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함경도 지역이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음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구는 길주목사로 부임하기 전 수찬(修撰)을 지내고 있었기에 언급한 것이다. 병란의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했더라도 고을의 정상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덕망 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파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간택(簡擇)’이라는 표현을 통해 최유해가 책임자임을 명시해 명분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상을 이어 함련에서도 이 부임은 임금의 마음을 무겁게 얻어 간택된 것이며, 일찍부터 국사(國事)에 있어서는 어렵더라도 사양할 수 없음을 깨달은 최유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 명분을 강화하고 있다.

경련부터는 시상이 전환되어 최유해의 입장에서 상상하며 서술이 진행되었다. 높은 망루에서 들려오는 뿔피리 소리는 가을을 맞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는 길주에서 뿔피리 소리를 듣는 부임자의 마음이 그러하리라 추측한 것이다. 국사의 위급함으로 이번 부임의 부득이함은 잘 알고 있으나, 마음으로는 원망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정으로 인해 먼 길 떠나는 행장은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춥게 느껴질 수 있다며 공감을 통해 위로하고 있다. 미련에서도 공감의 수사가 이어져 그의 마음이 서울로 향해 있음을 알고 있다 언급했다. 7구의 ‘일변(日邊)’은 임금을 상징하는 태양 주변이라는 뜻으로 임금 주위나 도성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함경북도에 위치한 길주에 도착해 머리 돌려 멀리 서울 방향을 바라보면 돌아갈 날이 아득하게만 느껴져 꿈에서나마 기러기를 따라 남쪽으로 향할 것이라 추측한 것이다.

전반부는 정상화가 시급한 지역에 인재를 파견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과 임금의 마음을 무겁게 얻어 간택된 책임자라는 것, 최유해가 국사에 난이(難易)를 따져 사양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들어 부임의 명분을 제시했다. 후반

286) 『無何堂遺稿』 冊2.

부에서는 최유해 개인의 심정에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수사를 통해 위로하고 있다.

다음은 이한(李憫)이 나주(羅州)로 부임하는 것을 전송한 시로, 유일한 교유시이다. 이한은 인조반정의 공으로 연양부원군(延陽府院君)에 봉해진 이시백(李時白, 1581~1660)의 아들이다.

〈나주(羅州) 이한(李憫)을 송별하며[送李羅州憫]〉

難治從古錦城尤 예로부터 금성(錦城)은 특히 다스리기 어려웠으니  
縱號通才鮮不憂 비록 재주 뛰어나다 일컬어지지만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네  
君自沂州移此地 그대는 기주(沂州)에서 이 땅으로 옮겼는데  
人稱岩邑得賢侯 사람들은 암읍(岩邑)이라 하지만 어진 수령 얻었도다  
臨机定使剛柔濟 안석에 임해 바야흐로 강함과 부드러움으로 구제할 것이고  
游刃寧愁簿牒留 능숙한 솜씨이니 어찌 장부와 문서 지체할 것 근심하리  
仍想綵衣頻上壽 생각건대 색동옷 입고 자주 축수할 것이고  
惠連鳬鳥會官樓 혜련(惠連)이 부석(鳬鳥)이 되었으니 관루에서 모이리라<sup>287)</sup>

전반적으로 부임자인 이한을 칭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구와 4구를 통해 나주[錦城]는 험지의 고을[岩邑]이라 소문이 나 예로부터 다스리기 어려운 곳에 꼽히지만, 개인의 능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격려하였다. 예로부터 악명 높은 지역이라 뛰어난 인물이라 하더라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시인은 이한이 어진 수령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임한 후에는 경우에 따라 강함과 부드러움[剛柔]을 효율적으로 조절해 백성들을 구제할 능력이 있으며, 경력자로서 능숙한 일처리로 서류 작업의 지체도 근심할 필요없다는 인물로 평가했다. 또한 사적으로는 효의 실천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시적 재능은 남조(南朝) 송(宋)나라의 뛰어난 시인인 사혜련(謝惠連)에 비겨 그를 필두로 관루(官樓)에서 시회(詩會)가 잦을 것임을 예상했다.

난치(難治)의 지역인 나주로 부임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이나 위로의

287) 『無何堂遺稿』 冊3, 〈送李羅州憫〉.



수사보다는 이한의 개인적인 능력을 칭양하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는 그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을 시인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격려의 효과를 발휘한다.

이 외에도 나주로 부임하는 인물에게 지어준 의례적인 송별시가 2편 더 있는데, 사상과 전개는 사뭇 다르다. 1639년 나주목사로 부임하는 김상복(金尙宓, 1573~1652)에게 지어준 것과,<sup>288)</sup> 1664년 남평현감(南平縣監)으로 부임한 구일(具鎰, 1620~1695)에게 지어준 것인데,<sup>289)</sup> 나주의 악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전자는 김상복 가문의 식락과 함께 전체적으로 쓸쓸한 분위기의 시상으로 전개되어 유일한 교유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감정적인 표현들이 많다. 후자의 경우, 구일이 서울로의 귀환을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한가한 공무와 질 좋은 종이에 시흥(詩興)을 즐길 것이라는 것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이한에게 지은 송별시는 나주와 이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해 어려움을 개인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격려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664년 개성유수로 부임하는 오정위(吳挺緯, 1616~1692)에게 지어준 2편의 연작시이다.

〈유수(留守) 오정위(吳挺緯)를 송별하며[送吳留守挺緯]〉

|         |                                      |
|---------|--------------------------------------|
| 纔讓西藩施舊京 | 서도(西道)를 사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옛 수도를 베푸시니     |
| 主恩前後倍光榮 | 임금님 은혜가 앞뒤로 영광이 곱절이로구나               |
| 天心似軫程遐邇 | 하늘의 마음은 길의 멀고 가까움을 안쓰러워하는 것 같은데      |
| 地望寧分任重輕 | 땅의 명성으로 어찌 임무의 경중을 나눌 수 있겠는가         |
| 卿月影隨萊服暎 | 경월(卿月)의 그림자가 따르며 노래자의 옷을 비추고         |
| 壽星光動板輿明 | 수성(壽星)의 빛이 움직이며 판여(板輿)를 밝히겠지         |
| 遙知棣萼連枝會 | 체악(棣萼)의 연지(連枝) 모임을 멀리서도 알겠으니         |
| 按使還將彩鷁迎 | 안찰사는 다시 화려한 배로 맞이하겠지 <sup>290)</sup> |

288) 『無何堂遺稿』冊2, 〈送金羅州尙宓〉, “相國仙庄已寂寥 尙書門巷日蓬蒿 孤懷政似遼陽鶴 旅夢還占益部刀 故里風光雙涕盡 錦城行色九秋高 仍思嶺外看雲恨 霜鬢逢秋又幾毛”

289) 『無何堂遺稿』冊3, 〈送具南平鎰〉, “河橋楊柳綠依依 太守雙旌去若飛 行盡湖山仍葉縣 夢回京國即椿闥 官居似畫樓臺迥 農務當春薄牒稀 聞說溪牋明勝雪 興來應復彩毫揮”

성은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시상이 전개되어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 오정위는 1664년 3월 18일에 평안감사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4월 13일에 다시 개성유수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1구를 언급한 것인데, 이것이 모두 임금의 은혜이자 영광이라 하였다. 혹 하늘이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안쓰러워할 수도 있지만, 관료의 입장에서 부임지의 명성으로 그 임무의 경중을 나눌 수 없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며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2구에서 성은을 언급한 것에 이어 바로 관료로서의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오정위의 입장에서 그 의미가 한층 강하게 다가올 수 있다.

조정의 경대부(卿大夫)를 상징하는 경월(卿月)의 그림자는 도승지를 비롯해 고위직을 역임한 오정위를 비유한 것이다. 이 그림자가 노래자의 옷을 비추었다는 것은 그의 뛰어난 공적인 능력이 사적 영역인 효의 실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를 관장하는 별인 수성의 빛이 지방관으로서 노부모를 효성으로 모시는 것을 뜻하는 노인용 가마[板輿]를 밝힐 것이라며 칭양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개성 부임 후 우애 깊은 형제들[棣萼]의 모임[連枝]이 있을 것이라 추측했는데, 당시 개성 부근에 오정위의 형제가 안찰사로 근무하고 있었기에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부에서는 성은과 관료로서 견지해야 할 자세를 통해 명분을 제시했고, 후반부에서는 효의 실천 및 형제 간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 것을 통해 부임의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했다.

두 번째 시는 첫 번째 시 미련의 시상을 이어 형제가 지방관으로 동시에 부임한 것과 삼대가 다섯 번의 분사(分司)를 지낸 관력에 대한 것으로 시작해 성은에 대한 언급, 대대로 시재(詩才)와 선정이 있던 가문이라는 점까지 언급한 후에 미련에서는 임기가 끝나기 전 서울로 부름이 있을 것이라 위로했다.<sup>291)</sup>

다음은 1666년 충청감사로 부임하는 이민직(李敏迪, 1625~1673)에게 지어준 시이다.

290) 『無何堂遺稿』 冊3.

291) 『無何堂遺稿』 冊3, 〈送吳留守挺緯 其二〉, “一家三世五分司 兄弟居留況並時 人事固知千古盛 聖恩偏借一家私 芳徽句續籀紗板 舊迹名聯墮淚碑 不待瓜期應有召 橐駝橋畔有躑躅”

〈충청(忠淸) 방백(方伯) 혜중(惠仲) 이민적(李敏迪) 영공(令公)이 가는 것을 송별하며[送忠淸方伯李惠仲敏迪令公之行]〉

相公曾按錦江營 상공(相公)이 일찍이 금강(錦江)의 감영을 살폈는데  
 令子褰帷又此行 아들도 휘장 걷어 올리고 또 이번 길 가는구나  
 兩世巡宣眞盛事 두 세대가 순선(巡宣)하는 것은 참으로 성대한 일이고  
 一時超擢亦殊榮 한 때에 초탁(超擢)된 것도 특별한 영광이라네  
 甘棠豈獨追先躅 감당나무에서 어찌 선대의 자취만 쫓겠는가  
 黃閣終須繼大名 황각(黃閣)에서 끝내 모름지기 큰 이름 이어 가야지  
 遙想落花岩畔宅 멀리서 낙화암(落花岩) 가의 집을 생각해 보는데  
 感增風樹若爲情 느낌이 불어나니 풍수지탄의 마음 어찌하랴<sup>292)</sup>

1구의 상공(相公)은 영의정을 지낸 이민적의 부친 이경여(李敬輿, 1585~1657)를 말하는 것으로, 그는 1627년에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된 바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언급한 것이다. 부친인 이경여에 이어 아들인 이민적이 같은 지역의 지방관으로서 민정을 직접 시찰하기 위해[褰帷] 임명된 것을 말했다. 함련에서는 시상을 이어 두 세대가 관찰사로서 같은 지역에서 왕정을 펴는 것[巡宣] 자체만으로도 성대한 일이며, 더욱이 관등을 넘어선 발탁까지 임금의 특별한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선대를 좇아 지방관으로서의 선정[甘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나아가 정승의 거처인 황각(黃閣)을 들어 큰 명성을 이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전반부에서 성은에 대한 언급이 단편적으로 있기는 했으나[殊榮], 영의정을 역임한 부친과 같은 곳으로의 부임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명분을 만들고 있다. 미련 역시 이러한 시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인이 서울에서 멀리 부여의 낙화암 근처 거처를 생각하면, 같은 공간에서 정사를 돌보았을 죽은 부친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민적이 애통해 하고 있을 것이라 했다.

표면적으로 부친인 이경여와 같은 임무를 받은 것에 대한 축하와 그 자취를 이으라는 격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찌 선대의 자취만 쫓겠는가[豈獨

292) 『無何堂遺稿』冊3.

追先躅’, ‘끝내 모름지기 큰 이름 이어가야지[終須繼大名]’라는 표현으로 부친의 업적을 활용해 이민적에게 다소의 부담감을 안겨 주고 있다. ‘어찌[豈]’나 ‘끝내 모름지기[終須]’와 같은 표현들이 부담감을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지방관으로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는 보이지 않는데, 부친에 대한 언급들이 시상을 전개하는 데에 주도적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시는 1668년 평안도 방백(方伯)으로 부임하는 이태연(李泰淵, 1615~1669)에게 지어준 것이다.

〈정숙(靜叔) 이태연(李泰淵)이 평안도 방백으로 가기에 송별하며[送李靜叔泰淵平安方伯之行]〉

才猷譽望際清朝 재능과 높은 명망이 맑은 조정 사이에 있어  
 簡畀天官睿鑒昭 천관(天官)에 선발되었었으니 임금님의 감식은 밝도다  
 超擢西關新按察 서관(西關)에 초탁(超擢)되어 새로 안찰사가 되었고  
 旬宣南服舊風謠 남쪽지방을 순선(旬宣)했으니 옛 풍요(風謠) 같도다  
 山河不變繁華減 산하는 변하지 않았어도 변화함은 줄었는데  
 溪壑難充物力凋 큰 골짜기는 채우기 어렵고 물력은 시들었다네  
 報政歸時應有獎 정사를 보고하러 돌아오는 때에 응당 격려가 있을 것이니  
 佇看卿月麗層霄 우두커니 경월(卿月)이 높은 하늘에 걸린 것 본다네<sup>293)</sup>

1구에서는 재능과 높은 명망을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조정 내에서 그의 위상을 짐작케 했다. 2구에서는 평안감사로 임명 되기(5월 25일 임명) 직전 이조[天官]에서 참의를 지낸 것(1668년 4월 24일 임명)을 통해 임금이 그의 능력을 잘 파악했다고 언급했다. 임금의 밝은 감식안을 칭송한 것은 간접적으로 이태연의 능력을 칭양함과 동시에 이번 부임 역시 그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임금의 결정이라는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등을 넘어 안찰사로 임명되었으며, 이는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교화를 입은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의 국풍(國風)처럼 그간 충청감사(1659년), 전라감사

293) 『無何堂遺稿』 冊3.

(1661년), 경상감사(1666년) 등 남쪽 지방 관찰사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완수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언급했다.

경련에서는 부임지인 평안도에 대해 언급했다. 5구에서는 오랜 세월 변치 않는 산하에 비해 변화했던 지역이 쇠락했음을, 6구에서는 큰 골짜기를 채울 수 없는 데에 더해 물력까지 시들었음을 말했다. 큰 골짜기[溪壑]는 ‘계곡을 채울 수는 있어도 이 욕심을 채울 수 없다[谿壑之盈 是不可充]’는 『국어(國語)』의 구절에서 유래한 용어로 끝없는 욕심을 비유한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도 불가능한데, 물력까지 예전 같지 않아 더 어려운 상황임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었다. 7구에서는 그가 순선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응당 임금의 격려가 있을 것이라 위로했다. 이어서 8구에서 재신(宰臣)을 상징하는 경월이 높은 하늘에 걸렸다는 것은 앞서 임금의 격려와 더불어 이태연이 서울로 돌아왔을 때 환로가 탄탄할 것이라는 고무적인 격려로 읽을 수 있다.

이태연은 과거 관찰사로서 뚜렷한 업적을 남겨 임금의 눈에 들어 관등까지 넘어서 발탁되었다. 이는 물력이 시든 지역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결정된 인사라는 것이며, 시의 이면에 깔린 시인의 인식이자 부임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격려의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다음은 1672년 광주목사로 부임한 오두인(吳斗寅, 1624~1689)에게 지어 준 송별시이다.

〈오원징(吳元徵)이 광주(光州)로 부임가기에 송별하며[送吳元徵赴光州]〉

|         |   |
|---------|---|
| 銀臺一䟽感宸衷 | 은대(銀臺)에서 하나의 상소문으로 임금님 마음 감동시켰는데              |
| 養許南州地最雄 | 남주(南州)에서의 봉양을 허락 받았으니 땅이 가장 웅장하다네             |
| 甘載美魚供案上 | 단 고기와 맛있는 물고기를 상에 올려 드릴 것이고                   |
| 飛樓傑閣擅湖中 | 높고 커다란 누각은 호남에서 제일이라오                         |
| 潘輿日送慈顏喜 | 반여(潘輿)를 날마다 보내면 어머니 기뻐하실테고                    |
| 萊服春隨聖渥融 | 색동옷 입고 봄을 따르게 되었으니 임금님 은혜 두텁도다                |
| 聞說山高號無等 | 듣자하니 산이 높아 무등(無等)이라고 부른다던데                    |
| 使君名譽想應同 | 사군(使君)의 명예가 응당 같아질 것을 생각해 본다네 <sup>294)</sup> |

294) 『無何堂遺稿』 冊3.

수련에서는 오두인이 상소문을 통해 임금에게 재능을 인정받은 과거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남쪽에서 가장 웅장한 고을인 광주의 목사로 부임해 봉양을 통한 효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했다. 조정에서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고, 성은을 입어 광주로 부임할 수 있게 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3구에서는 허여 받은 봉양을 고기와 물고기라는 음식으로 구체화해 보여 주었고, 4구에서는 부임지인 광주의 위상을 호남 제일의 누각이라는 대표성을 띤 사물을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

경련에서도 전반부의 시상을 이어 봉양과 성은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언급했던 판여(板輿)와 동의어로 진(晉)나라의 반악(潘岳)이 노모를 모실 때 쓰던 가마인 반여(潘輿)를 통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노래자처럼 색동옷을 입고 효성으로 모실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두터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이다. 미련에서는 오두인이 목사로서 선정을 펼쳐 광주의 진산(鎭山)인 무등산의 높이와 명예가 같아질 것이라고 격려했는데, ‘응당(應)’이라는 표현으로 격려와 기대감을 동시에 드러내었다. 전반적으로 이 부임을 통해 효의 실천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은 성은이라는 격려의 수사로 부임의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집 내 흔치 않은 고시(古詩) 형식으로 지은 송별시를 살펴 보겠다. 철원으로 부임하는 김만균(金萬均, 1631~?)에게 지어준 것이다.

〈정평(正平) 김만균(金萬均)이 철원으로 부임가기에 전송하며 붓을 달려 쓰다[送金正平萬均赴鐵原走筆]〉

君有五馬行 그대에게 오마(五馬)의 행차가 있으니  
 我豈無一語 내 어찌 한 마디도 없겠는가  
 刺史縱云榮 자사(刺史)가 비록 영광스럽다 말들 하나  
 如何離玉署 어찌 옥서(玉署)를 떠날 수 있는가  
 爲因捧檄誠 임명장을 받드는 정성으로 인하여  
 宸心感一疏 임금님 마음 한 통의 소에 감동하셨다네  
 阜蓋導板輿 검은 수레 덮개가 판여(板輿)를 이끄니  
 好趁春風去 좋이 봄바람 따라 가는구나



野雉與溪魚 들의 꿩과 시내의 물고기  
 山蔬皆可飫 산나물 모두 풍족하도다  
 應知舞綵樂 응당 색동옷 입고 춤추는 즐거움 알테니  
 鎮日窮晷曙 종일토록 밤이나 아침이나 다한다네  
 此行望若仙 이번 행차는 마치 신선과 같으니  
 不啻乘鸞馭 다만 신선수레를 타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老夫病在床 늙은이는 병으로 침상에 있으나  
 公私集萬慮 공사(公私)의 온갖 생각 모인다네  
 無由摻征袂 떠나는 소매를 붙잡을 방법이 없으니  
 悵望河橋阻 하교(河橋)가 막힌 것을 슬피 바라보네  
 試看滯獄人 시험삼아 체옥(滯獄)된 사람을 보면  
 世路猶灩澦 세상 길은 아직도 험난하다오<sup>295)</sup>

1~2구는 작시의 당위성에 대해 말했다. 김만균은 홍주원과 가까웠던 송시열의 문인이지만, 개인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96)</sup> 3~6구에서는 김만균의 재능을 칭양했다. 주위에서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지방 관리[刺史]로 부임하지만, 청반(淸班)으로 평가되는 옥서(玉署)에서 근무하는 것만은 못하다고 하였다. 한 통의 소로 임금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로 문사로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게 느낀 것이다. 7~14구는 봉양의 즐거움에 대해 말한 것으로, 지방관을 상징하는 검은 수레 덮개[阜蓋]가 봉양을 상징하는 판여를 이끌고 봄바람 따라 부임하게 될 것을 상상했다. 부임 후에는 철원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봉양에 필요한 각종 식재료들이 풍부하고, 혼전신성(昏定晨省)할 수 있게 되었음을 언급했다. 또한 관동으로의 부임이기 때문에 이 행차가 신선과 같다고 하면서 단순히 비유적으로 신선 수레를 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신선이 될 수 있는 부임이라 규정했다.

15~20구는 홍주원이 자신의 처지 및 감회를 읊은 것으로, 의례적으로 지은 시에서는 드문 경우이다. 와병(臥病)의 신세인 노부(老夫)로, 만사에 대한

295) 『無何堂遺稿』 冊4.

296) 이 송별시 외에 술자리에서 지어 준 시가 1편 더 있다. 3년 전에 죽은 누군가를 두 사람이 함께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공통적인 그리움의 대상인 망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無何堂遺稿』 冊4, 〈醉贈金文學萬均〉, “一簾微雨落花天 把酒相看涕泫然 回首錦江千里隔 夜臺消息已三年”

만단(萬端)의 생각에 사로잡힌 신세임을 말했다. 이러한 처지로 인해 직접 전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이별의 장소로 상징되는 하교(河橋)를 슬피 바라보고 있다는 표현으로 드러냈다. 19구의 체옥(滯獄)된 인물은 누구인지 상고할 수 없으나, 체옥된 사람을 통해 세상의 험난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sup>297)</sup>

이상과 같이 부임의 명분을 제시하기 위한 위로와 격려의 수사에 대해 살펴해보았다. 당시는 중앙의 집권이 한층 강화되었던 시대적 변화로 인해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것은 권력과 문화의 중심인 서울에서 멀어진다는 불안감이 존재했던 경우가 많았다. 이에 부임자 스스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히려 주변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였다. 홍주원의 송별사에서 보인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수사도 이와 같은 자장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전반부에 부임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미련에서는 여러 표현을 통해 조정으로 금방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거나, 부임자가 부임지에서도 서울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라는 마음에 공감한다는 표현들이 많았다. 이와 같은 것들은 격려보다는 위로의 수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격려의 방식으로는 첫 번째로 예로부터 지방관이 부모 봉양에 효율적인 지위라는 것, 지역 특산물 제시를 통해 물질적 봉양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두 번째로는 직명이나 부임지를 칭양함으로써 부임자가 이러한 지위와 지역에 적합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그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수법으로 격려하는 경우가 있었다. 세 번째로는 부임자의 관력이나 능력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여 부임 후 선정을 베풀어 민정(民情)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통해 격려한 경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은을 활용해 명분을 제시한 경우가 있다. 임금이 부임자의 능력을 잘 알고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했다. 한유(韓愈)의 〈잡설(雜說)〉에 비유적으로 잘 드러나듯 천리마는 항상 있는 것이지만, 그 재능을

297) 15구부터 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19~20구에서 다른 사람으로 대상이 전환되어 시를 끝맺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역시 홍주원의 이야기로 추측된다. 이 시를 지은 1672년은 홍주원의 몰년으로, 그 외에 특별한 사건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를 천착해 본다면, 갇혀진 병세에 자신을 세상에 간혀 있는 사람으로 표현했으며 70이 넘는 연륜에도 ‘아직도(猶)’ 세상살이가 어려움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추측된다.

알아봐 줄 백락(伯樂) 같은 이는 늘 있지 않다.<sup>298)</sup> 재능 있는 신하가 있어도 임금의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회재불우에 대한 문인들의 탄식이 시대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시문으로 창작된 것이다. 이에 홍주원은 자신의 능력에 부합해 부임을 하게 된 것을 은혜를 입은 것으로 자주 표현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부모 봉양, 직명이나 부임지를 칭양을 통한 격려의 경우도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성은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전제된 경우들이 있었다.

대체로 이러한 수사들은 한 편의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는 있었으나, 하나의 요소가 시 전체를 관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부임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방식이 적절히 혼용된 상태로 구성되어 위로와 격려의 의도에 대한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부임자의 상황에 맞춰 수사와 내용을 적절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의례적으로 짓는 송별시의 전형성을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 2 절 만시(挽詩)

앞서 2장에서 이정귀와 홍주원의 사승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문학적 친연성을 담보할 근거 중 하나로 만시(挽詩)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도봉시(悼朋詩), 여성 대상 만시, 현달하지 못한 인물의 만시들을 예시로 들어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근체시의 비율이 높다는 창작 성향은 만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전체 만시의 96%가 근체시로 지어졌으며, 애도의 대상이 다양하다는 공통분모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전술했듯 692편의 만시를 남긴 홍주원은 한국한시사에서 가장 많은 만시를 창작한 인물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시가 문집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34%라는 비율의 측면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특히 시기적으로 상장례의 보편화로 인해 만장(輓章)의 사용이 일반화 되어 만시의 창작 요구가 증가했다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sup>299)</sup> 개인적인 교유

298) 韓愈, 〈雜說〉, “世有伯樂 然後有千里馬 千里馬常有 而伯樂不常有 … 天下無良馬 嗚呼其真無馬耶 其真不識馬耶”, 『古文真寶後集』, 明文堂編輯部 校閱, 2003, 75면.

에 의한 사적인 만시보다 의례적으로 지은 만시의 수가 월등히 많다는 점,<sup>300)</sup> 의례적으로 지은 시들은 주로 홍주원의 부마라는 신분과 문재(文才)에 의해 청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 주목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의례적으로 지은 만시를 애도 대상별로 분류하여 표현 방식의 차이 및 그에 따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어떤 상황에 감발되어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는 한시의 일반적인 특성과 달리 만시는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선택할 수 없는 강제된 상황 하에 상대적으로 제한된 감정만을 담아내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특성에 더해 시대적 상황과 요청에 의한 작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만시의 상투성 및 폐단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나왔다.<sup>301)</sup> 그러나 만시의 상투성과 폐단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상장례라는 제도적인 차원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302)</sup> 또한 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투성과 망자에 대한 과도한 칭양, 심할 경우 허위에까지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는 이것 그대로 당시에 관습·보편화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아울러 의례적으로 지은 만시라 하더라도 시인의 역량과 창작 성향을 비

299) 안대희, 『韓國 漢詩의 分析和 視角』,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51-52면 참조.

300) 의례적으로 지은 만시는 앞서 제1절에서 살펴본 송별시와 마찬가지로 공사(公私)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의례적으로 지은 만시에 대한 판단 역시 앞서 송별시 구별의 판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음을 밝힌다. (각주 181 참조) 이를 토대로 구분한 의례적인 만시의 편수는 총 422제 562편으로, 전체 만시의 81%에 달한다.

301) 만시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퇴계(退溪)는 “만사를 아무데나 구하거나 헛되이 과장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쓰는 것이 무슨 해가 되는가?(挽詞不宜廣求虛誇 不然 用之何害).”라고 옹호하였다. 죽은 자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된 찬사를 늘어놓지만 않는다면 해가 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표명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폐단이 극단에 도달한 시기에 상례(喪禮)를 깊이 고찰한 정약용(丁若鏞)은 “만사를 짓는 관례는 경전과 예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근세에는 친소(親疏)를 따지지 않고 널리 칭하고 힘써 구한다. 이로 인해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자가 은밀히 망자에게 누를 끼치는 험뜯는 말을 지어내어 시구에 기탁함으로써 서로 틈이 벌어지고 원수가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한 시대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거니와, 만시의 폐단이 여기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고 하겠다. 간혹 평소에 친우가 청하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지은 만시를 영계 앞에 펼쳐서 고하고 난 다음 자기 글상자에 거두어 두는 그것은 괜찮다. 영구차의 앞에 만장으로 세우는 것은 예가 아니다[總之 挽詞之作不由經禮 而近世不揆親疎 廣請力求 乃有素不相善者 陰爲亡者玼累之毀 託於詩句 轉相仇隙 貽笑一世 挽詩之敝 極矣 或有平生親友 不請而自製者 爲之展告於靈几之前 而收之篋笥焉 可矣 其建于柩車之前 則非禮也].”라고 〈挽詞不宜自請〉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상 퇴계와 정약용의 언급은 안대희, 앞의 책, 52-53면에서 재인용.

302) 주지하듯 사조의 변화에 따른 기존 문풍과 새로운 문풍 사이에서의 시비 논란은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했던 것으로, 만시의 점진적인 유행과 폐단 논란 역시 이와 같은 통시적 흐름 속에서 당시 사회상과의 연결을 통해 조명해야 한다.

롯데 작시의 제반 상황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보다 많은 개별 작가들의 만시 연구가 축적되어야만 보다 치밀한 범주화와 계열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은 췌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홍주원이 의례적으로 지은 만시를 고찰하는 것은 제도와 인식의 변화에 따른 조선후기 만시의 폭발적인 유행 전단계의 일면을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다. 동시에 다수의 여성 대상 만시, 현달하지 못한 인물들에 대한 만시와 같이 일반적으로 흔치 않은 대상들에 대한 만시가 많다는 특수성의 일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홍주원의 만시를 위와 같이 애도의 대상별로 분류한 이유는 대상에 따라 그 내용이나 구성 방식 등의 유사성으로 범주화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sup>303)</sup> 이에 홍주원의 만시를 분류하는 애도의 대상은 크게 세 부류이다.<sup>304)</sup> 첫 번째는 관료(官僚)로, 일반적으로 만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이면서 의례적인 작시가 많았던 대상이기 때문에 이후에 살펴볼 현달하지 못한 인물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만시와 여러 측면에서 비교의 기준점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는 현달하지 못한 인물이다. 만시는 관용적인 목적과 관련하여 망자를 훌륭한 사람이라 평가하여 망자의 넋이나 유족들을 위로하고, 애도자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sup>305)</sup> 망자의 생전 삶과 함께 그를 칭양하면서 한편으로는 망자와의 관계를 드러내 애도자 역시 이런 훌륭한 인

303) 최재남은 애도시의 관습적 표상에 대해 애도자와 망자를 관계 짓는 혹은 망자를 지칭하는 상징적, 비유적 형상화가 애도 대상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애도 대상을 규정하는 문화적 관습에서 이러한 차이가 생긴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애도시의 유행을 애도 대상에 따라 분류하는 일이 타당한 방법론임을 증명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최재남, 『韓國哀悼詩研究』,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165면.

304) 최재남은 인간이 가족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또 사회적 제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했다. 그 중 가족 구성원은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으로 가족 구성원의 죽음에 대하여는 슬픔의 비중이 강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절실한 슬픔, 통절한 아픔이라 한다면 이러한 통상(痛傷)을 형상화한 것이 애도시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내의 죽음(悼亡詩), 자식의 죽음(哭子詩), 동기의 죽음(哭兄弟詩)로 분류했다. 다음으로 인간이 사회적 제관계를 맺으면서 교유하게 되는 친구나 동료들도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봉시(悼朋詩)를 추가했다. 최재남, 위의 책, 21-24면 참조. 이러한 분류를 했던 이유는 본격적인 만시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연구 대상을 개별 작가가 아닌 주요 선집(選集)들로 설정하여 광범위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홍주원이라는 인물의 만시에 국한해 고찰하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가 가능하다. 또한 의례적으로 지은 만시에 한해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망자와 애도자 사이의 개인적 관계를 전제한 최재남의 분류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305) 최재남, 앞의 책, 220면.

물과 교유했다는 자긍심을 내비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달하지 못한 인물들은 입신양명을 통해 효를 실천해야 하는 유교 사회에 있어 불우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관료들에 비해 만시의 수도 적을 수밖에 없다. 관직을 통해 교유관계를 확대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요절하여 재주를 채 펼치지 못하고 죽은 인물을 비롯해 생원(生員)이나 진사(進士)에 그친 인물, 혹은 여가에도 미치지 못한 인물들이 해당된다.

세 번째는 여성이다.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가 “만사는 결코 예법이 아니요, 부인의 상에는 정말 쓸 필요가 없다[輓詞終非禮文 內喪尤不必用]”<sup>306)</sup>라고 언급한 것은 기본적으로 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기저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만시 창작을 가장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경세의 언급은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이러한 언급과는 달리 조선에 성리학이 정착된 시기에도 여성이라고 배척하여 일부러 만시를 짓지 않거나 물리치지는 않았다.<sup>307)</sup> 그렇다고 하더라도 홍주원이 남긴 117제 134수의 여성 대상 만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이다. 또한 다수의 작품을 남긴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이는 여성의 만시가 부인이나 모친에 국한되어 있는 것에 비해 장모[聘母], 조모(祖母), 외조모(外祖母), 양모(養母), 고모[姑氏], 종고모[從姑] 등 그 대상의 폭도 넓은 편이다.

이상 세 분류의 의례적으로 지은 만시의 대표적인 특징을 작품을 실례로 들어가며 살펴보겠다.

### 1) 관료 대상 만시

관료 대상 만시는 최재남의 분류에 의하면 친구 및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는 도봉시(悼朋詩)의 계열에 포함할 수 있다. 도봉시는 도망시(悼亡詩), 곡자

306) 안대희, 앞의 책, 52면. 재인용.

307) 이에 대해 윤인현은 「고려·조선 儒者의 輓詩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제56집, 2014에서 남명(南冥) 조식(曹植), 퇴계, 서거정(徐居正) 등이 남긴 여성 대상 만시를 근거로 제시했으며, 고려시대에도 묵은(牧隱)과 같은 인물이 여종에 대한 만시를 남긴 점을 들었다. 근거로 든 예시가 일부 몇 사람의 거두(巨頭)들이라는 점, 조선과 고려라는 국가를 지배하는 이념의 차이와 그 이념을 따르는 개인적인 신념의 농도 차이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배제되긴 하였으나, 정경세와 같이 극단적인 부정론자와 함께 그렇지 않은 인물들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한 단면을 증명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哭子詩) 등과 견주면 통절함에서 한 발 멀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 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만시의 대부분이 친구 및 동료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례적인 목적 혹은 예의(禮儀)의 격식을 차리기 위해 관례적으로 지은 관용적인 행사시(行事詩)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sup>308)</sup> 또한 친구의 죽음이란 한 대상을 두고 보면 일회성이지만 애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없이 많이 맞을 수 있는 것이고 통절함은 교유의 폭에 따라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인 입장에서 관용적인 행사시로 쓰인 만시는 정서의 일과성(一過性)이라는 특징이 있다.<sup>309)</sup>

홍주원이 관료들을 대상으로 의례적으로 지은 만시 역시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서의 일과성이라는 특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만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동료 및 친구에 대한 만시 연구는 망자에 대한 감정의 농도에 따른 슬픔의 형상화 방식과 양상, 미적 특질 등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었다.<sup>310)</sup> 이와 같은 연구 성과들은 결국 망자와 애도자 간 친소(親疏)의 차이와 애도자의 시각 성향 등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반면에 홍주원이 의례적으로 지은 만시는 망자와의 관계가 깊지 않거나, 청탁 혹은 유족과의 관계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동일한 상황과 망자의 낮이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만시의 기본적인 기능은 여타의 만시들과 동일하지만, 망자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상대적으로 소원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조금 떨어져 객관화된 시선으로 시를 지었다는 점에서

308) 최재남, 앞의 책, 37면.

309) 최재남, 위의 책, 38면 참조.

310) 박준호, 「輓詩에 대한 一考察 -惠實 李用休의 작품을 위주로-」, 『東方漢文學』 19집, 동방한문학회, 2000; 주영아, 「朴世堂 挽詩의 흐름과 표현 양상」, 『東方學』 21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1; 이남면, 「鄭斗卿 挽詩 研究」, 『大東漢文學』 35집, 대동한문학회, 2011; 하정승, 「고려후기 挽詩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목은 이색의 시를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50집, 동방한문학회, 2012; 하정승, 「정몽주 시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團隱學研究』 10집, 포은학회, 2012; 윤재환, 「玉洞 李澈의 輓詩를 통해 본 朝鮮朝 輓詩의 一 樣相」, 『韓民族語文學』 제 65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하정승, 「이승인의 挽詩類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韓國漢詩研究』 21호, 한국한시학회, 2013; 손유진, 「愚伏 鄭經世의 輓詩를 통해 본 죽음의 形象化方式」, 『퇴계학과 유교문화』 54권,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4; 김진옥, 「栗谷 李珣 輓詩 研究」, 『문화와 융합』 38권 5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6; 김진옥, 「梅泉 輓詩의 文藝美 研究」, 『한국시가문화연구』 40권,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하정승, 「藥泉 南九萬의 한시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挽詩를 중심으로-」, 『東洋漢文學研究』 47집, 동양한문학회, 2017; 허윤진, 「희망의 유산(遺産) -혜환 이용휴 만시(挽詩) 연구-」, 『韓國詩歌文化研究』 40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유명석, 「昆侖 崔昌大의 輓詩 研究」, 『고전과해석』 31집, 고전문화한문학회, 2020.

차이가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관료 대상 만시는 총 183제 239수로,<sup>311)</sup> 전체 만시의 약 33%이다. 만시의 구성 요소는 망자가 관료였다는 측면에서 칭양의 비중이 대체로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sup>312)</sup>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현상이 전제되어야만 지을 수 있는 타인에 대한 만시는 전술했듯 노출할 수 있는 감정과 표현에 있어 제한이 있는 양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속에서도 시인에 따라 시의 구성 및 전개 방식, 표현 양상 등의 차이는 존재한다. 홍주원이 관료를 대상으로 의례적으로 지은 만시에서 보이는 특징은 ‘죽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및 분위기의 시어들을 상대적으로 배제한 채 긍정적이고 밝은 시상으로 점철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sup>313)</sup>

이와 같은 양상은 망자와의 관계가 깊지 않거나, 청탁 혹은 유족과의 관계에 의해 지은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 기반한 의례적인 작시이기 때문에 비통함과 괴로운 심정을 노정(露呈)한 시어들의 활용이 적은 것이다. 비단 감정 노출과 관계된 시어들의 사용이 배제된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만시에서 보이는 쓸쓸함이나 적막한 시상, 하강 이미지 등의 사용도 빈도가 적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시들은 가문, 문재(文才), 관리로서의 업적, 자손의 번성함, 장수 등의 공사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칭양을 위주로 구성한 경우가 많다.<sup>314)</sup>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311) 이는 천장만(遷葬挽)을 포함한 숫자로, 이후 살펴볼 현달하지 못한 인물과 여성 대상 만시의 편수 집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했다.

312) 절친한 관계에서 비롯된 통절한 아픔을 토로할 내용이 없거나, 죽은 낮이나 유족을 위한 위로의 성격으로 관용적인 목적이 중시될 경우 도봉시에서의 애도는 망자의 지난 행적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칭양이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실제 칭양을 통해 죽은 낮을 위무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애도자도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하여 망자를 좋게 말하는 칭양의 충위가 중시된다. 최재남, 앞의 책, 155-156면. 홍주원이 의례적으로 지은 관료 대상 만시의 칭양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13) 감정의 조화와 절제를 추구하는 것이 유자들의 생활 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친한 삶의 죽음에 대해서만은 슬픔을 마음껏 표출하고 나아가 극대화시키는 것이 유교사회의 관습이었다. 이은영, 「조선 초기 제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60면. 그러나 이와 같은 관습도 ‘절친한 삶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지은 만시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14) 슬픔을 직접적으로 노출한 경우들이 없지는 않으나, 이러한 내용은 칭양 위주로 시상이 진행되다 미련(尾聯)에서 상투적인 표현으로 시상이 전환되며 나타난 경우가 많다.

〈영의정(領議政)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 신경진(申景禎)공 만사(挽詞)[挽領議政  
平城府院君申公景禎]〉

平山家世擅吾東 평산 집안은 대대로 우리나라에서 으뜸이었으니  
降嶽當年氣槩雄 신령한 기운 받아 태어날 때부터 기개가 썩썩했다네  
日轂扶時詐大計 임금을 도왔을 때는 문득 큰 계책으로 하였고  
雲臺畫處此元功 운대의 그림 걸린 곳 이것이 원공(元功)이라네  
身同柱石安危係 몸은 기둥과 주춧돌 같아 나라의 안위가 달려 있으니  
位冠岩廊寵渥隆 지위가 암랑(巖廊)의 으뜸으로 총애가 컸도다  
從古似公知有幾 예로부터 공과 같은 이 얼마나 되겠나  
汾陽福祿始能終 분양(汾陽)의 복록으로 비로소 수를 누리셨도다<sup>315)</sup>

만사의 대상은 인조반정의 초창기 계획을 모의한 공으로 일등공신에 녹훈되고, 평성군(平城君)에 봉해졌다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왕을 호종하여 부원군(府院君)에 봉해진 신경진(申景禎, 1675~1643)이다. 전체적으로 칭양을 위주로 시가 전개되며, 8구를 제외하면 그의 죽음을 짐작하기 어렵다. 먼저 가문에 대한 칭양으로 수련을 구성했다. 그의 가문인 평산(平山) 신씨가 대대로 명성을 떨쳤음을 말했는데, 가까운 사례로 그의 증조부는 이조판서를 역임한 신상(申鎬, 1480~1530)이며, 부친은 임진왜란 때 충주 탄금대 전투로 유명한 도순변사(都巡邊使) 신립(申砮, 1546~1592)이다. 이러한 집안의 기개를 그대로 물려받아 훌륭한 인물로 탄생하게 되었음을 『시경』, 〈송고(崧高)〉 편의 ‘강악(降嶽)’에서 차용해 표현했다.

함련에서는 인조반정의 계획을 모의했던 업적과 이로 인해 공신에 책록되었음을 후한(後漢) 명제(明帝)가 전대의 공신들을 추념하기 위해 초상화를 걸었던 운대(雲臺)를 끌어와 언급했으며, 이것을 원공(元功)이라 극찬했다. 이어 그를 조정으로 대변되는 집을 지탱하는 기둥과 주춧돌로 비유해 나라의 안위가 직결되는 존재로 부각시켰으며, 임금의 총애를 받고 영의정까지 역임한 사실을 드러냈다.

미련에서는 앞서 언급한 칭양들을 정리하며 압축적으로 제시했다. 가문과

315) 『無何堂遺稿』 冊2.

원훈(元勳), 조정 내에서의 입지 등을 예로부터 지금까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 한편, 신경진을 안록산(安祿山)의 난으로 많은 공을 세워 분양왕(汾陽王)에 봉해진 당나라 곽자의(郭子儀)에 비겨 그가 누렸던 복록에 장수(69세)한 것까지 언급했다. 시의 제목과 8구의 ‘수를 누렸다[能終]’는 표현이 없었다면, 이 시를 만시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이다.

이 시는 두 편의 연작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번째 시에서도 이와 같은 시상과 전개가 이어진다. ‘타고난 호걸의 기질로 무리에서 출중했으며, 이를 통해 성군을 도와 공훈을 세운 관료로서의 업적[天生豪俊迥超羣 身際風雲翊聖君 勲業爭推上柱國 褊裨皆列大將軍]’을 내세운 전반부에 이어 ‘조정에 소문난 가문의 장한 절조, 세상을 덮는 위엄 있는 명성[傳家壯節同朝識 蓋世威聲異域聞]’까지 공사(公私)로 그의 삶의 행적을 칭양했다. 첫 번째 시와 마찬가지로 미련에서는 그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표현이 보인다. 7구인 ‘애영(哀榮)이 무한한 곳을 보니[看取哀榮無限處]’에서는 자공(子貢)이 공자에 대한 진자금(陳子禽)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죽어서 사람들을 애통하게 했다[其生也榮 其死也哀]’<sup>316)</sup>는 구절을 차용해 신경진을 성인(聖人)에 비겨 칭양하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 8구에서는 ‘눈처럼 흰 옷의 사람들 새벽 강변에 있도다[白衣如雪曉江濱]’라고 하며 조의를 표하기 위해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백의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있음을 들었다. 신경진의 죽음을 암시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앞서 언급했던 그에 대한 상양(賞揚)의 내용들에 대한 증명에 가까운 표현으로 근본적인 의도는 찬칭(讚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두 편의 시에는 망자의 죽음을 알 수 있는 ‘能終’, ‘哀榮’, ‘白衣’와 같은 일부 표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시어들의 기능은 하나같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는 이로 하여금 슬픔을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닌 신경진을 칭양하기 위함에 방점이 있다. 이는 위로의 한 방식으로서 죽음과 한 발 떨어진 채 거리를 두는 구성을 통해 유족들에게는 망자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며, 한편으로 그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도록 하

316) 『論語』, 「子張」, “陳子禽謂子貢曰 子爲恭也 仲尼豈賢於子乎 子貢曰 君子一言以爲知 一言以爲不知 言不可不慎也 夫子之不可及也 猶天之不可階而升也 夫子之得邦家者 所謂立之斯立 道之斯行 綏之斯來 動之斯和 其生也榮 其死也哀 如之何其可及也.”

는 정서적 환기의 기능도 한다.

다음의 시는 강원도관찰사 등을 지낸 유성증(兪省曾, 1576~1649)의 만시이다.

〈감사(監司) 유성증(兪省曾) 만사(挽詞)[挽兪監司省曾]〉

魁甲聲名獨冠羣 장원 급제한 명성은 홀로 무리에서 으뜸이니  
歷敷華貫際風雲 차례로 화관(華貫)에 오른 것 풍운의 때였네  
同朝父子三巡察 같은 조정에서 부자가 세 번 관찰사를 지냈으니  
曠世尊榮萬石君 세상에 보기 드문 영화로움은 만석군(萬石君)이로다  
贈以貳公恩至渥 이공(貳公)을 주시니 임금님 은혜 두텁고  
年踰七袞古稀聞 나이는 칠순을 넘었으니 고희라고 듣네  
欲知臺省遺芳在 대성(臺省)에 아름다운 명성 있음을 알고자 한다면  
看取他時太史文 다른 때 태사(太史)의 글에서 볼 수 있으리<sup>317)</sup>

수련에서는 1619년 장원급제한 그의 재능이 동기들 중 최고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정에서 차례로 청요직[華貫]에 올랐음을 말했다. 또한 차례로 청요직에 등용되던 시기가 여러 인재들이 두각을 드러내던 풍운(風雲)의 때였음을 제시함으로써 장원 급제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았음을 언급했다. 개인적인 재능에 더해 부자(父子)가 함께 세 번이나 관찰사로 부임한 이력을 제시하면서 한(漢)나라 때 석분(石奮)과 그의 네 아들이 모두 이천 섬[石]의 관직에 이르러 경제(景帝)가 석분에게 내린 호인 만석군(萬石君)을 차용해 보기 드문 가문의 영광이라 칭양했다.

공적으로는 그 재능을 인정받아 정승의 다음 가는 위치[貳公]까지 오르는 명예를 이뤘고, 사적으로는 ‘인생에서 70세는 드물다[人生七十古來稀]’는 두보의 시구처럼 칠순을 넘는 장수까지 누렸다. 또한 사헌부에서 장령(掌令)과 집의(執義) 등을 역임한 유성증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 전인(前人)이 남긴 아름다운 명성을 뜻하는 ‘유방(遺芳)’이 태사의 글을 통해 후세까지 길이 전할 것이라 확신[欲知]했다.

317) 『無何堂遺稿』冊2.

이 시에서는 간접적으로도 그의 죽음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표현은 없다. 다소 늦은 마흔이 가까운 나이에 장원 급제 했지만, 그 이후로 꾸준히 재능을 발휘해 조정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인정받았던 사실만 언급했다. 또한 ‘어진 사람이 장수한다[仁者壽]’는 구절처럼<sup>318)</sup> 예로부터 드문 칠수를 넘겨 천수를 누렸다는 사실은 그가 평생을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평탄한 삶을 살았기에 가능한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다음은 청환직(淸宦職)을 두루 역임한 이성신(李省身, 1580~1651)의 만시이다.

〈참의(參議) 이성신(李省身) 만사(挽詞)[挽李參議省身]〉

藥老聲名舉世知 약노(藥老)의 명성은 온 세상이 아니  
家庭法訓乃孫宜 가정의 법훈(法訓)이 손자에게도 마땅하네  
清朝宿望三司遍 맑은 조정에서 오랜 바람은 삼사에 두루 있었으나  
暮歲卿班一步遲 늦그막에 경반(卿班)에는 한 걸음 늦었도다  
偃蹇曾分湖外竹 우뚝하게 일찍이 호외(湖外)의 대나무를 나누었고  
優遊不廢病中扈 한가로이 병중에도 술잔은 그만두지 않았다네  
相門餘慶今猶古 재상의 가문에 경사가 넘치는 것은 지금도 예와 같으니  
臺省聯翩見二兒 대성(臺省)에서 잇달아 나는 두 아이가 보이는구나<sup>319)</sup>

수련에서는 이성신의 조부이자 도승지(都承旨)를 역임한 약포(藥圃) 이해수(李海壽, 1536~1599)의 명성을 먼저 언급하며 가문의 위상을 드러냈고, 이러한 가문의 법도와 가르침이 손자인 이성신에게도 배어있음을 언급하며 칭양했다. 이를 통해 헌납(獻納), 수찬(修撰), 지평(持平), 교리(校理), 장령의 청환직을 두루 역임하며 삼사(三司)에서의 생활이라는 오랜 바람을 이루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까지 정승[卿]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음을 아쉬워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이성신이 정승의 반열에 오를 재주가 있었으나 때가 늦어 오르지 못했다는 것으로,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경련에

318) 『論語』, 「雍也」,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319) 『無何堂遺稿』 冊2.



서는 1643년 외직으로 충남 서천군수(舒川郡守)에 임명된 것과 병중에도 한가롭게 술잔을 놓지 않는 호기로운 성격을 들었다.

미련에서는 영의정을 역임한 증조부 이탁(李鐸, 1509~1576)을 비롯해 예나 지금이나 관로에서 경사가 넘치는 가문임을 들면서 이성신이 죽은 당시에도 두 아들인 이재(李梓, 1606~1657)와 이항(李杭, 1612~1656)이 모두 과거에 급제해 가문의 명성을 잇고 있음을 언급했다.

3구에서 정승이라는 최고위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개인적인 바람[宿望]대로 삼사에서 두루 벼슬한 것을 들어 높은 직책보다 소망대로 관직생활을 했던 삶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그의 관직생활은 자기만족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직책보다 가치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미련에서는 그의 자제들이 대대로 위세를 떨쳤던 가문의 위상을 이어 재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망자에게는 자식 걱정을 덜고 편안히 잠들라는 위안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또한 유족들에게는 이성신의 죽음보다 자식들의 삶을 생각하게 하여 죽음보다 삶으로의 분위기를 조성해 위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특히 8구의 ‘잇달아 난다[聯翩]’는 표현은 죽음과 대비되는 삶의 역동성을 담고 있어 그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다음은 경세가(經世家)로 명성을 떨친 잠곡(潛谷) 김육(金堉, 1580~1658)의 만시로, 총 4편의 연작시로 구성되어 있다.

〈상국(相國) 잠곡(潛谷) 김육(金堉) 만사(挽詞)[挽潛谷金相國堉]〉

名賢之後又斯人 명현(名賢)의 뒤에 또 이 사람이니  
濁世艱貞早潔身 탁한 세상에서 정도를 지켜 일찍이 몸을 깨끗이 했네  
一蹴青雲依日月 높은 벼슬에 한 번에 올라 일월에 의지하며  
幾登黃閣任陶勻 몇 번이나 황각에 올라 도균(陶勻)을 뜻대로 했도다  
謙恭接物常如士 겸양과 공손함으로 남 대하기를 항상 선비같이 하였고  
利病經心必在民 이익과 병폐에 마음 쓰기는 반드시 백성에게 있었다  
臨絕寸忱猶耿耿 돌아가실 제 마음은 오히려 밝고 밝으니  
數行遺表看精神 몇 줄의 유표(遺表)에서 정신이 보이네<sup>320)</sup>

320) 『無何堂遺稿』冊2.

1구의 명현(名賢)으로 지칭된 인물은 김육의 증조부인 김식(金湜, 1482~1520)으로, 기묘팔현(己卯八賢)의 한 사람이다. 김육은 기묘팔현의 가계와 행적 등을 비롯해 기묘사화에 연관된 현인 160여 명의 간략한 정보를 <기묘팔현전(己卯八賢傳)>을 통해 기술한 바 있다. 2구에서 언급한 것은 1610년(광해군 2) 김육이 태학생의 신분으로 올린 <청종사오현소(請從祀五賢疏)>로<sup>321)</sup> 인해 문과의 응시자격을 박탈당해 가평의 잠곡 청덕동에 은거한 채 수신(修身)한 것을 말한다. 명현의 후손임을 밝히면서 그 절개가 계승된 것을 언급함으로써 가문과 함께 김육 개인을 칭양한 것이다.

함련에서는 은거 이후 인조의 즉위와 함께 관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도승지와 대사헌을 비롯한 삼정승의 자리까지 모두 역임해 임금의 곁에서 정사를 펼친 사실을 말했다. 관력을 통해 관료로서 김육의 조정 내 입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어서 5구에서는 높은 직위를 두루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함으로 타인을 대하는 자세를, 6구에서는 이익과 병폐에 대한 생각은 사적인 것 없이 오로지 백성에게만 있었다는 위민적(爲民的)인 그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미련에서 언급한 유표(遺表)는 그가 죽기 9일 전인 1658년 8월 26일에 위독해진 병세에 손자인 김석주(金錫胄, 1634~1684)를 불러 입으로 부르며 적게 한 것이다. 그 내용은 임금으로서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라는 것, 위민정책에 대한 당부, 대동법의 중도 폐지에 대한 염려 등으로 다소 강한 어조로 직간(直諫)한 것이다.<sup>322)</sup> 8구로 미루어 보아 홍주원은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짧은 유표에서 보이는 김육의 정신은 죽음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밝게 빛나는 우국충정(憂國衷情)임에 감탄해 칭양한 것이다.

이후 개인적인 소회를 위주로 구성한 네 번째 시를 제외하고,<sup>323)</sup> 두 번째

321) 연보에 의하면, 그의 나이 31세인 1610년 “관학(館學)의 ‘오현을 종사하기를 청하는 소[請從祀五賢疏]’가 대부분 공의 손에 의해 지어졌으며, 또 관학의 제생(諸生)들과 더불어서 우계 선생이 모함을 당한 것을 신설(伸雪)시켜 달라는 상소를 올렸다([學請從祀五賢疏 文多出公手 又與館學諸生 上疏伸雪牛溪先生之誣].”라고 한다. 정선용 역, 『국역 잠곡유고』, 민족문화추진회, 1998, 298면.

322) 유표의 자세한 내용은 정선용 역, 위의 책, <연보>, 348~350면 참조.

323) 네 번째 시는 재상을 역임한 것에 더해 장수까지 한 사실과 서로 왕래했던 일, 가르침에 대한 감사, 남아있는 전별시를 감상하며 느낀 슬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先人同榜盡凋零 獨有台星帶壽星 每憶辱臨勞几鳥 還憐病蟄阻門屏 書紳敢忘曾垂誨 滿席猶留舊挹馨 燕路贈行詩尚在 不堪披玩想儀形).

와 세 번째 시는 공사 다방면의 칭양 위주이다. 두 번째 시의 수련에서는 백성과 사림(士林)들이 모두 그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름난 덕과 복을 겸비한 것은 마땅하다[蒼生係望士林依 名德還兼福履宜]는 것으로 그의 복덕(福德)을 칭양했다. 이어 도승지 및 육조의 참판을 고루 지낸 김좌명(金佐明, 1616~1671)과 국구(國舅)로서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에 봉해진 김우명(金佑明, 1619~1675)의 두 아들과 현종의 비인 명성왕후(明聖王后)가 된 손녀 등을 통해 이어지는 가문의 융성함을[兒比徐卿聯玉樹 天教周姒配銅闥] 언급했다. 경련에서는 가문의 위세가 성대해질수록 겸손한 태도와 사당에 새벽마다 참배하는 기본적인 예를 항상 잊지 않는 개인적인 몸가짐에 대한 칭양을[門闥日盛心猶小 祠宇晨參禮不衰], 미련에서는 그가 펼친 정사가 사서(史書)에 길이 남아 빛날 불후의 업적[前後揔裁皆信史 等閑編簡亦垂輝]임을 언급했다.

세 번째 시에서는 앞선 시들에 비해 김육의 사적인 면에 대한 칭양이 주를 이루었다. 수련에서는 사적인 모임에서도 신선과도 같은 모습에 앉은 채로 좌중을 압도했던 모습을[坐壓耆英洛社筵 白鬚紅頰望神仙], 함련에서는 평생 시의 몸가짐조차 부끄러움이 없었던 떳떳함에도 불구하고 곤궁함과 영달함이 고르게 나뉜 80여 년의 삶을 살았다는 칭양과 안타까움을[操持不媿尋常處 窮達均分八十年] 드러냈다. 경련에서는 김육의 존망에 국운이 걸려있으며, 인조와 효종대 두 조정에서 임금의 총애를 받았던 사실을[一老存亡邦運係 兩朝終始主恩偏] 통해 조정 내에서 그가 차지했던 비중을 보여주었다. 미련에서는 이러한 그에게 못자리는 명당이 당연하다는 것과 그가 남긴 뜻이 무덤에 묻히면 안 된다는 것을 다소 감정적인 어조로 표현했다[佳城不乏牛眠地 遺意丁寧屬舊阡].

만시는 감성의 기능이 우세하면 슬픔의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사유의 기능이 우세하면 위안 혹은 진혼의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여기에 사회적 성격 및 관용적 목적과 관련하여 대상에 대한 칭양이 추가된다. 만시의 구성 방식은 크게 비탄, 진혼, 칭양의 세 층위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복합적인 성격을 띠며, 실제 구성에서는 이 세 가지 층위 중 어느 한 층위가 우세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sup>324)</sup>

김육을 대상으로 한 만시 4편은 위와 같은 구성 방식의 측면에서 보자면 한 편의 시에서가 아닌 연작시 4편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는 죽음과 관련된 내용은 전무하고, 개인적인 성품과 관료로서의 업적 등의 칭양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 시 역시 찬칭 위주의 구성이지만 미련에서는 그의 묘소로 쓰기 좋은 명당을 뜻하는 표현인 우면지(牛眠地)를 통해 김육의 죽음을 암시했고, 그 유의(遺意)가 무덤 속으로 함께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감정을 드러냈다. 네 번째 시에서는 감성의 기능이 우세해 슬픔의 시상이 주조를 이룬다. 수련에서 고관을 두루 역임한 것과 장수했다는 사실로 위안을 하고 있으나, 이후의 심상은 김육과의 추억을 제시하면서 드러내는 슬픈 감정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만시가 하나의 층위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4편 중 3편의 만시가 죽음에 대한 내용과 비탄의 감정보다 죽음과 거리를 둔 채 상양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삼정승을 모두 역임한 심지원(沈之源, 1593~1662)의 만시로, 두 편의 연작시로 구성되어 있다.

〈정승(政丞) 심지원(沈之源) 만사(挽詞)[挽沈政丞之源]〉

艱貞濁世際休明    탁한 세상에서 정도를 지키다 밝은 시대를 만나  
一節三朝仰老成    한결같은 절조에 세 조정에서 노성(老成)하다 우러러봤네  
位冠岩廊符望實    지위가 암랑(岩廊)의 으뜸으로 명망과 실상이 부합했고  
門連禁掖戒芬榮    문중이 궁중과 이어졌어도 영화로움을 경계했도다  
新春洛社纔聯步    새 봄에 낙사(洛社)로 비로소 걸음을 이었는데  
一夕秦春遽輟聲    하루저녁에 방아 쪼는 노래소리가 갑자기 멈추었네  
最是延英登對地    무엇보다도 연영(延英)의 등대(登對)하던 곳에서  
幾回亡鑑軫宸情    몇 번이나 거울을 잃어 임금님 마음 아프셨던가<sup>325)</sup>

1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김육 만시 첫 번째 수 2구의 조어[濁世艱貞]와 유사한 방식으로 광해군대에 낙향하여 은거했다 인조반정 이후 등용된 심지원

324) 최재남, 앞의 책, 42면 참조.

325) 『無何堂遺稿』冊3.

의 출처에 대해 말했다. 홍주원은 이러한 그의 처신을 한결같은 절조로 규정했으며, 이에 더해 임금이 세 차례 바뀌는 장기간 동안 조정 내에서 노성(老成)하다며 칭송된 사실을 강조했다. 이러한 성품과 능력을 바탕으로 삼정승을 모두 지낸 그는 명실상부하다기에 부족하지 않았으며, 그의 아들 심익현(沈益顯)이 효종의 딸인 숙명공주(淑明公主)와 혼인해 궁중의 인척(姻戚)이 되었음에도 영화로움을 경계하고자 한 성향을 칭양했다.

경련에서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말했다. 물년 봄에 어진 사대부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낙사(洛社)에 참여했다는 것은 당시 심지원이 건강상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6구의 ‘하루저녁[一夕]’과 ‘갑자기[遽]’라는 표현만 보아도 그의 죽음이 주변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황망(慌忙)한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방아 쪼는 노랫소리가 멈추었다’는 것은 심지원을 진(秦)나라 때 재상을 지내며 현인으로 추앙받은 오고대부(五穀大夫) 백리해(百里奚)에 비친 것이다.<sup>326)</sup> 6구를 통해 심지원의 죽음을 문면에 드러내고 있지만, 이 구절은 전체적인 흐름상 죽음이라는 사실보다 그를 백리해에 견주어 덕망과 재상으로서의 삶을 칭양한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련에서도 매개체의 차이가 있을 뿐 경련에서의 서술 방식과 동일한 칭양이 이어진다. 경련에서는 백리해의 전고를 차용해 만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으로 생전의 삶을 칭양했다면, 미련에서는 그 매개체가 임금이다. 8구의 ‘거울을 잃었다[亡鑑]’는 것은 당태종(唐太宗)이 신하 위징(魏徵)이 죽자,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잘잘못을 알 수 있는데 위징이 죽어 거울을 하나 잃었다.”고 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진 신하를 잃은 것을 비유한다. ‘몇 번이나[幾回]’를 통해 심지원이 거울로 삼은 유일한 신하는 아니지만, 그 중 한 명인 것을 보여주었고 그의 죽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마음 아파했음을[軫宸情] 보여주었다.

경련과 미련에서는 심지원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아 쪼는 노랫소리의 멈춤’과 ‘거울을 잃음’이 있지만, 그 의도는 죽음보다는 생전 삶의 궤적과 그에 대한 평가를 백성과 임금이라는 매개체의 슬픔을 통해 압축적으

326) 『史記』 卷68, 〈商君列傳〉에 “오고대부가 죽었을 때, 진나라의 남녀가 눈물을 흘렸으며, 어린아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방아를 쪼는 자들은 장단을 맞추지 않았으니, 이는 오고대부의 덕이다 (五穀大夫死 秦國男女流涕 童子不歌謠 舂者不相杵 此五穀大夫之德也).”

로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 것이다. 즉 애도의 표현 속에 내포된 칭양이 시인의 의도이며, 이러한 의도는 곧 망자와 유족들에게는 위로의 형태로 전달된다.

두 번째 시는 새해에 만났던 일을 추억하는 것[新正東閣趁餘閑 乍襲蘭薰几席間]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장수와 두터운 복을 겸한 것을 축하하며, 생전에 백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낫빛만큼은 밝았던 것을 회상했다[爲賀遐齡兼厚福 尙看華髮映韶顏]. 경련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 죽음을 맞은 그를 이미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통해 그의 죽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드러냈으며[落來萸葉纔垂盡 騎去箕星已莫攀], 미련에서는 와병(臥病)으로 인해 곡할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으로 슬픔을 대신했다[淹病在床違一哭 不堪揮涕望坡山]. 전반부까지는 생전의 모습을 회상하며 그의 복을 칭송했고, 후반부에서는 잡을 수조차 없는 곳으로 떠나버린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예를 갖춰 애도할 수 없는 처지를 한탄하는 것으로 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했다. 앞선 김육의 연작시와 마찬가지로 슬픔을 드러냈으나, 칭양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다음은 광해군~현종까지 4명의 임금을 섬기며 직언으로 이름났었던 민응형(閔應亨, 1578~1662)의 만시이다.

〈대사헌(大司憲) 민응형(閔應亨) 만사(挽詞)[挽閔大司憲應亨]〉

|         |   |
|---------|---|
| 一生憂國炳丹衷 | 일생토록 나라 걱정하던 충심은 빛이 났고                      |
| 謙直兼存長孺風 | 강직한 말에 장유(長孺)의 풍도까지 겸하셨네                    |
| 未信明廷無闕事 | 밝은 조정에서도 빠진 일이 없나 믿지 않았으며                   |
| 每從前席啓宸聰 | 늘 앞자리에서 임금님 귀를 열어드렸도다                       |
| 耆英座最三朝舊 | 기영(耆英)의 자리에서 세 조정의 옛 신하가 최고였으나              |
| 清白家徒四壁空 | 청렴한 집에는 다만 네 벽이 비어있을 뿐이로다                   |
| 看取他時言行錄 | 다른 때에 언행록을 보게 된다면                           |
| 不渝終始少如公 | 공과 같이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은 사람 적으리라 <sup>327)</sup> |

327) 『無何堂遺稿』 冊3.



전반부는 관료로서 그의 삶을 대표할 수 있는 직언에 대한 칭양으로 이루어졌다. 수련에서는 평생 나라 걱정만 하던 그의 충심을 찬칭했는데, 우국에 대한 실천 방법 중 임금에게까지 바른 말을 서슴지 않고 했던 그의 성향을 한(漢)나라의 직신(直臣)으로 유명한 급암(汲黯)에 비겼다. 또한 광해군 대와 상대적으로 밝은 조정이라고 할 수 있던 이후의 시기에도 업무적으로 해이해 지지 않고 항상 조심했던 성격을 3구를 통해 언급했으며, 직언을 바탕으로 임금의 귀를 열어 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각 조의 참판을 비롯해 청요직을 두루 역임한 그는 사대부들 중에서도 일두지에 꼽힐 수 있으나, 화려한 관직생활에 비해 사적으로는 청렴했음을 사면의 벽이 비어있음을 통해 보여주었다. 홍주원은 이와 같은 민응형의 삶이 마땅히 언행록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할 것이라 전제하면서,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시종일관 변치 않았던 그의 태도는 언행록 내에서도 드물 것이라는 표현으로 칭송했다. 청렴과 일관(一貫)의 삶의 자세, 관료로서의 태도 등의 칭양만으로 구성되었다.

민응형과 사촌지간인 민응협(閔應協, 1597~1663)의 만시<sup>328)</sup>도 이와 유사하다. 수련에서는 죽음 직전 잦은 병으로 인해 조정에 폐를 끼칠까 요직을 피하던 상황을[都憲年來告病頻 雅心應爲避要津], 함련에서는 민응형과 마찬가지로 청렴한 성격과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것보다 순리에 따르고자 했던 성품을[居無第宅何嫌陋 事不經營只任眞], 경련에서는 자손의 번성함과 장수함을 들어 그의 삶을 칭양했다[邇列一孫隨二子 遐齡七袞減三春]. 미련은 앞서 민응형의 만시와 유사한 구조로 민응협이 마땅히 명신전(名臣傳)에 수록될 것을 전제하면서 청렴함으로는 그에 비길 자가 많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다[他時試檢名臣傳 廉約如公更幾人]. 민응형의 만시와 마찬가지로 칭양 일변으로 구성되었다.

민응형과 민응협은 1년 사이로 죽었고, 두 사람의 만시를 보게 될 유족들이 상당수 겹칠 것을 염두에 두고 홍주원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유사한 구성을 취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칭양 일변도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두 인물과 사적인 교유가 없는 것에서 기인한 의례적 작시 때문이다. 그러나 민응형의

328) 『無何堂遺稿』冊3, 〈挽閔大憲應協〉.

경우는 오로지 의례성에 기탁한 작시로 볼 수 있더라도 가문 내 연이은 죽음의 대상이 된 민웅협(민응협)의 만시가 이전 민웅협(민응협)의 그것과 내용과 구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측면은 쉽게 간과할 수 없다. 일차적으로는 두 사람의 청렴함과 후대에 길이 전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표현으로 이를 가정(家聲)의 일환으로 칭양해 유족들까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차적으로는 잇달은 가문 내 상사(喪事)로 심신이 지쳤을 유족들에게 죽음과 관련된 시어와 분위기를 배제한 채, 생전의 삶을 칭양하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해 환기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을 비롯해 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낸 유여해(兪汝諧, 1586~1664)의 만시이다.

〈침정(僉正) 유여해(兪汝諧) 만사(挽詞)[挽兪僉正汝諧]〉

令子清朝早蜚英 아들은 맑은 조정에서 일찍이 재능을 떨쳤는데  
 入司喉舌出專城 후설(喉舌)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관찰사로 나갔다네  
 肥甘至養知無憾 좋은 음식으로 지극히 봉양했으니 한이 없음을 알겠고  
 賜賚殊恩與有榮 물품을 하사하시니 특별한 은혜와 영광도 있었도다  
 班亞九卿非薄宦 반열은 구경(九卿)에 버금가니 작은 벼슬이 아니고  
 年垂大耋厭浮生 나이는 대질(大耋)까지 누리셨으니 삶도 가득 찼다네  
 桐鄉美績今猶頌 동향(桐鄉)의 아름다운 업적은 지금도 칭송하니  
 我是高陽舊籍氓 나는 곧 고양(高陽)에 옛날 호적을 둔 백성이라오<sup>329)</sup>

전반부는 유여해의 아들인 유창(兪瑒, 1614~1690)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인조대에 관료생활을 시작한 그는 후설(喉舌)의 자리인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이어 충청도관찰사를 역임했는데, 2구는 이에 대해 말한 것이다. 3구는 관찰사로 나아간 유창이 옷과 음식 등을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해 서운함이 없음을 말했지만, 실제로 유여해는 봉양을 받을 때마다 근심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으며, 백성들을 힘들게 할까 근심했다고 한다.<sup>330)</sup> 5구의 내용은 유

329) 『無何堂遺稿』 冊3.

330) 金壽恒, 『文谷集』 18卷, 〈贈參判兪公墓碣銘〉, “場幸竊科第 歷叨中外職 先君恒以盛滿爲戒 其有服食之奉 輒蹙然不樂 恐其病民而悲其不泊親也.”

창이 1655년 통신사의 부사로서 일본에 갈 때 효종이 부친인 유여해가 연로한 것을 걱정하여 특별히 음식을 하사하고, 병에 걸리자 의약을 하사한 일을 말한 것이다.<sup>331)</sup>

경련에서는 시상을 전환하여 대상을 유창에서 유여해로 옮겼다. 종4품의 지위까지 올라간 그에게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나 구경(九卿)에 버금가는 관력이 작은 것이 아니며, 나이는 79세까지 살았으니 수를 가득 채운 것으로 공사에서 모두 복을 누렸음을 언급했다. 7구에서는 현풍현감, 덕산현감, 고양군수 등의 수령직을 역임한 그가 선정을 베풀어 아직도 칭송되고 있다는 관료로서의 업적을 말했으며, 8구에서는 홍주원 자신의 옛 호적이 고양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통해 망자와의 간접적인 인연을 드러냈다.

전반부는 유창의 양명(揚名)과 지극한 봉양을 통한 효의 실천, 아들로 인해 임금에게 음식과 의약품을 하사받은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자식을 훌륭히 교육시킨 아버지로서 유여해의 면모를 간접적으로 칭양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유여해와는 교유관계가 전무하다는 점, 그의 아들인 유창과는 긴밀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교유가 있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sup>332)</sup> 후반부에서는 유여해의 관력과 장수한 사실 등의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그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역시 전반적으로 죽음과는 거리가 있는 긍정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었다.

다음은 인조반정으로 원종공신(原從功臣) 1등에 녹훈된 후, 순창·능주 등의 지역에 선정비가 세워질 정도로 이름났었던 이시담(李時聃, 1584~1665)의 만시이다.

〈동지(同知) 이시담(李時聃) 만사(挽詞)[挽李同知時聃]〉

勳盟帶礪弟兄隨    훈신의 맹세로 공신에 책봉된 형제들이 따르니  
 台席卿班並一時    태석(台席)과 경반(卿班)에서 한때에 나란했었다네

331) 金壽恒, 『文谷集』 18卷, 〈贈參判俞公墓碣銘〉, “不肖瑒奉使過海 上念先君老 特賜食物 疾又賜醫藥.”

332) 유창이 함경도 안변(安邊)으로 부임할 때 2편의 연작시로 구성된 송별시를 지어준 바 있다(『無何堂遺稿』 冊3, 〈送俞伯圭瑒安邊之行〉). 이별하는 괴로움과 시를 보내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으로 보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나 문집 내에서는 이 시가 유일하다.

獨向湖山存晚計 홀로 호산(湖山)을 향한 만년의 계획이 있었는데  
 猶從州牧有遺思 오히려 목사(牧使)가 되어 남긴 생각이 전하네  
 居閑攝養添遐算 한가히 지내며 섭양(攝養)하여 장수에 보태었고  
 優老超陞荷聖慈 노인 우대로 초승(超陞)되니 임금님 은택 입었도다  
 乘化歸眞無復憾 조화를 따라 죽음으로 돌아가니 다시 한스러움 없으나  
 寸情偏爲棘人悲 작은 마음은 오로지 극인(棘人)을 위해 슬퍼하리<sup>333)</sup>

수련에서는 인조반정으로 공신이 된 이시담과 그의 형 이시백(李時白)에 대해 언급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시백은 영의정[台席]에까지 올랐으며, 이시담 역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형제가 한 조정 내에서 나란히 관직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영광을 칭양한 것이다. 함련은 이시담이 만년의 삶을 충청도에서 보낼 계획이 있었는데, 충주목사가 되어 정사를 펴고 자신의 생각을 남길 수 있었던 운수에 대한 내용이다.

5구의 ‘한가로이 지내며[閑居]’는 그의 관료 생활이 주로 외직에 집중되어 있어 중앙의 정쟁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다. 이시담은 순창군수, 대구부사, 담양부사, 능주목사, 광주목사, 충주목사, 강릉부사, 남평현감 등 전국 각지에 지방관으로 부임한 이력이 있다. 이러한 외직 생활이 양생(養生)에 보탬이 되어 82세라는 수를 누릴 수 있었으며, 여기에 더해 임금의 은혜로 단계를 뛰어넘는 승진까지 경험해 공사에서 모두 복을 누렸음을 말했다.

7구의 ‘조화를 따라 죽음으로 돌아가니[乘化歸眞]’는 도잠의 <귀거래사> 중 “애오라지 조화를 따라 죽음으로 돌아가리니, 천명을 즐길 뿐 다시 무엇을 의심하랴[聊乘化以歸盡 樂夫天命復奚疑]”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는 이시백의 죽음이 천명을 전부 누리고 자연의 조화에 따라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임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죽음은 자연의 섭리에 의한 것으로 슬퍼할 일도, 의심할 일도 아니기에 망자에게는 한스러움이 없다고 ‘다시[復]’라는 강조를 하면서까지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8구는 애도자의 입장에서 망자의 죽음에 슬퍼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부모상을 당한 자식[棘人]을 위해서만 슬퍼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1~6구의 내용을 통한 이시담의

333) 『無何堂遺稿』 冊3.

생전 삶과 7구를 통해 망자의 죽음이 애도나 위로의 대상이 될 현상이 아님을 드러냈기에 가능한 표현이다.

다음은 도승지와 형조참판 등을 지내며 특별한 정치적인 사건 없이 40년이 넘게 조정에 몸담았던 여이재(呂爾載, 1600~1665)의 만시이다.

〈판서(判書) 여이재(呂爾載) 만사(挽詞)[挽呂判書爾載]〉

翺翔華貫踐銀臺 화관(華貫)으로 훨훨 날아 은대(銀臺)를 밟았고  
玉節觀風鬚未摧 옥절(玉節)로 풍속 관찰했을 때는 귀밑머리 쇠하지 않았네  
身歷三朝知宿望 몸은 세 조정을 지냈으니 숙망(宿望)임을 알 수 있고  
班躋八座見通才 벼슬은 팔좌(八座)에 올랐으니 훌륭한 재주를 보인 것이라  
人稱積慶雙兒顯 사람들은 경사가 쌓여 두 아이가 드러났다 칭송하는데  
天靳稀年一病催 하늘이 일흔 살에 인색하여 한 번의 병으로 재촉했도다  
親舊暮途零落盡 친구들이 늙어서 대부분 세상을 떠났는데  
白頭題挽恨難裁 흰머리에 만사를 짓자니 한스러움을 가누기 어렵다네<sup>334)</sup>

전반부에서는 그의 관력을 제시하면서 관료로서의 모습을 칭양했다. 1구는 여이재가 1637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638년 승정원(銀臺)의 임시 관직인 가주서(假注書)를 지내면서 조정 내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했음을 말한 것이며, 2구는 1649년에 전남감사로 임명된 사실을 말한 것이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로 귀밑머리가 세지 않았다고 할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나이만큼 늙지 않았던 그의 형용을 칭양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인다. 또한 인조~현종대까지 세 조정에서 관직에 몸담았다는 사실은 조정 내에서 그에게 ‘오랜 기간 명망[宿望]’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판서직[八座]에 오른 것이 그의 재주를 증명한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서 경련에서는 사적인 면모의 칭양이 이어졌다. 5구는 장남인 여안제(呂顔齊, 1622~?)와 차남 여증제(呂曾齊, 1626~?)가 1646년 식년시(式年試) 진사(進仕) 3등(三等)에서 각각 8위와 12위로 합격한 사실을 말한다. 6구에서는 수명에 대해 언급했다. 향년 66세로 장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나이지

334) 『無何堂遺稿』 冊3.

만,<sup>335)</sup> 지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병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것은 유족의 입장에서는 황망한 것이다. 이에 예로부터 드물어 고희(古稀)로 불리는 일흔의 나이에 이르지 못하고 그가 죽게 된 것은 하늘이 인색하기 때문이라 언급했다. 갑작스런 병으로 죽음에 이르렀기에 유족들에게 하늘이라는 원망의 대상을 만들어 줌으로써 황망함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게끔 위로한 것이다.

미련에서는 시인의 친구들도 늙어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말했는데, 이를 통해 홍주원보다 6년 연상인 여이재 역시 죽음을 맞이할 자연스러운 나이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유족들로 하여금 그의 죽음이 자연의 섭리의 측면에서도 시기가 어긋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했다. 이어서 8구에서는 친구들이 대부분 떠난 세상에 남아 죽음을 기다리며 만사를 짓는 한스러움을 가눌 수 없다는 표현으로 망자와 유족 모두에게 남은 자의 괴로움을 보여주어 간접적인 위로를 하고 있다.

다음은 해풍군(海豊君) 정효준(鄭孝俊, 1577~1665)의 만시이다.

〈해풍군(海豊君) 정효준(鄭孝俊) 공 만사(挽詞)[挽海豊君鄭公孝俊]〉  
 五子登龍孫又隨 다섯 아들이 용문(龍門)에 오르고 손자도 따르니  
 推恩秩視正卿巍 추은(推恩)된 품계는 정경(正卿)보다 높도다  
 廚移列邑供甘旨 여러 고을에서 부엌을 옮기며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했고  
 朝罷三司舞綵衣 삼사(三司)에서 조회 끝나면 채색옷 입고 춤췄다오  
 厚福固知前古罕 두터운 복은 예로부터 드물었음을 진실로 아니  
 遐齡更賀九旬幾 장수하셔 구순에 가까운 것을 더욱 축하드리네  
 最憐泣血齊仍斬 자취에 연이어 참침까지 입고 피눈물 흘림이 가장 안타까우니

335) 홍주원은 망자의 수명에 대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해 기술했다. 일례로 향년 64세인 김익렬(金益烈, 1602~1665)의 만시(『無何堂遺稿』 冊3, 〈挽金南原益烈〉)에서는 “고희의 나이에는 차지 못했지만 수를 누렸다 할 수 있다[稀筭未盈猶得壽]”고 언급하며 장수한 것으로 규정했다. 반면에 향년 60세인 오정일(吳挺一, 1610~1670)의 만시(『無何堂遺稿』 冊3, 〈挽吳判書斗元名挺一〉)에서 “나이는 화갑이 되어야 겨우 수를 누렸다 할 수 있거늘[年周花甲纔稱壽]”이나, 향년 61세인 심황(沈樞, 1606~1666)의 만시(『無何堂遺稿』 冊3, 〈挽沈承旨樞〉)에서 “덧없는 세상 육십갑자 돌아와도 겨우 하수(下壽)인데[浮世甲周纔下壽]”, 향년 60세인 이규명(李圭明)의 만시(『無何堂遺稿』 冊3, 〈挽李鎮安奎明〉)에서 “나이는 겨우 예순인 것이 가장 슬프도다[年纔耳順最堪悲]”라고 한 언급에서는 장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렇듯 비슷한 수명을 누렸다 하더라도 위로의 방식과 상황에 따라 장수한 것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삶의 궤적에 초점을 맞춰 어질었던 삶에 비해 수명이 짧다는 식의 표현으로도 사용했다.



可忍晨昏膝下違 혼정신성을 슬하에서 어기는 것을 견딜 수 있으랴<sup>336)</sup>

수련은 다섯 명의 아들이 모두 관직에 등용되어<sup>337)</sup> 1633년에 정2품인 정경(正卿)보다 높은 종1품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승진된 사실을 말한 것이다. 함련은 봉양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다섯 아들이 각지의 관찰사나 수령 등을 지내며 물질적인 봉양을 잘한 것과 조정의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부모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舞綵衣] 것을 통해 효를 실천했음을 말했다. 전반부의 이러한 자제 관련 칭양은 정효준이 부모로서 교육에 성공적이었다는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섯 아들이 모두 입신(立身)에 더해 사적으로도 지극한 효성을 보인 것에 대해 이는 예로부터 드문 두터운 복이라 하였으며, ‘진실로[固]’를 통해 강조했다. 더욱이 개인적으로 당시로서는 상당한 장수에 해당하는 89세를 누렸기에 오히려 그의 죽음을 축하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대상이 자제들로 바뀐다. 정효준의 죽음보다 모친상에 이어 부친상까지 연달아 당한 자제들의 상황을 가장 안타까워했으며,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올릴 수 없어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할 수 없게 된 것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언급은 정효준이 생전의 어버이로서 자제들을 성공적으로 교육시켜 노년에 물심양면의 봉양을 받았다는 점, 89세의 수를 누렸다는 점 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위로의 대상에서 망자를 배제한 채 오로지 유족인 자식들에게로 한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6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모두 자제들에 관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정효준이 관료로서 특기할 만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으나, 서술 대상이 망자가 아닌 유족에 치중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의 죽음이 애도할 만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은 청송군(靑松君) 심액(沈謫, 1571~1654)의 만시이다.

〈청송군(靑松君) 만사(挽詞)[挽靑松君]〉

336) 『無何堂遺稿』 冊3.

337) 정식(鄭植)은 세자시강원필선(世子侍講院弼善), 정익(鄭楨)은 승정원우승지(承政院右承旨), 정석(鄭皙)은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정박(鄭樸)은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정적(鄭積)은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이다. 姜栢年, 『雪峯遺稿』 卷28, 〈資憲大夫知敦寧府事海豐君鄭公墓誌銘〉.

靑松華閣擅吾東 청송의 화별(華閣)로 우리나라에서 떨쳤는데  
 近世尤稱冢宰公 근세에는 더욱 총재공(冢宰公)을 칭송한다네  
 位逼台階紆異渥 지위는 삼공(三公)에 가까우니 특별한 은총 드리웠고  
 官兼盟府襲先功 관직은 맹부(盟府)를 겸했으니 선대의 공을 이었도다  
 壽躋八袞神猶旺 나이는 팔십이 넘었으나 정신은 오히려 왕성하셨고  
 身歷三朝望益隆 몸은 세 조정을 지냈으니 명망이 더욱 높았네  
 北海清尊多暇日 북해(北海)의 맑은 술동이로 한가한 날 많았고  
 平泉別墅有高風 평천(平泉)의 별서에는 고상한 기풍이 있었네  
 門闌輝赫超今古 가문이 찬란한 것은 고금을 뛰어넘었으니  
 福祿哀榮看始終 복록과 애영(哀榮)을 시종 보셨도다  
 繞座諸孫皆峙鵠 자리를 둘러싼 여러 자손들은 모두 우뚝하니  
 承家令子早乘驄 집안을 이은 훌륭한 아들은 일찍이 총마(驄馬)를 탔다네  
 貞元供奉人誰在 정원(貞元)의 공봉(供奉)과 같은 사람 누가 있으랴  
 洛社耆英迹已空 낙사(洛社)의 기영(耆英)도 자취가 이미 비었도다  
 仍憶昔年叨盛宴 예전에 성대한 잔치 즐겼던 것 거듭 생각하니  
 駱峯春色思無窮 낙봉(駱峯)의 봄빛이 끝없이 그리워라<sup>338)</sup>

전반적으로 칭양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1-2구에서는 심액이 높은 문별인 청송 심씨 가문의 일원으로, 근래까지 칭송이 이어져왔음을 말했다. 이어서 삼공(三公)에 가까운 형조·예조·이조 등 각 조의 판서를 지낸 사실과 충훈부[盟府]에 이름을 올렸던 양부(養父) 심우승(沈友勝, 1551~1602)과 같은 길을 지나온 것을 언급했다. 고령의 나이에도 이른 바 ‘10가지의 말라[十無]’는 차자를 올려 효종을 감탄시켰으며,<sup>339)</sup> 여러 대에 걸쳐 조정 내에서 명망이 있었다고 칭양했다.

사적으로는 후한(後漢) 때의 공융(孔融)처럼 손님들과의 음주와 접대를 즐

338) 『無何堂遺稿』 冊4.

339) 심액은 죽기 두 달 전인 1654년 10월 10일에 임금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항목을 차자를 통해 올린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스로 성철(聖哲)하다 하여 신료들을 가벼이 보지 말 것, 격노하여 형벌에 중정(中正)을 잃지 말 것, 허물을 숨기고 직언 듣기를 싫어하지 말 것, 소인을 등용하여 거듭 인심을 잃지 말 것, 편벽되게 한쪽으로 쏠려 취사(取捨)가 공명하지 않게 하지 말 것, 나태하고 소홀히 하여 시작만 있고 끝은 없게 하지 말 것, 아첨하는 무리를 가까이하여 사(私)가 통할 수 있는 길을 열지 말 것, 이름만 있고 일은 헛되이 하지 말 것, 사치를 숭상하여 제도를 무너뜨리지 말 것, 재물을 손상하여 백성을 곤궁하게 하지 말 것 등입니다.” 『효종실록』 5년(1654) 10월 10일 3번째 기사.

기며 교유한 성품과 그의 정원을 정자와 누대, 기이한 식물들이 많아 마치仙境(仙境)과도 같았다는 당(唐)의 정승 이덕유(李德裕)의 평천장(平泉莊)에 빗대어 고상한 기풍을 언급했다. 이어서 다시 가문의 칭양으로 화제를 돌렸다. 심액이 생전에 누린 복록과 살아서는 명성이 있고, 죽어서는 추모받는[哀榮] 인물임을 드러내면서 자연스레 사헌부의 장령[乘驄]을 지낸 장남 심광수(沈光洙, 1598~1662)를 언급하며 가문의 명망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했다.

13-14구에서는 심액의 부재를 들어 옛 어른들이 남아있지 않음을 말했다. 13구의 정원(貞元)은 당 덕종(德宗)의 연호이며, 공봉(供奉)은 당시 유우석(劉禹錫)이 악공의 노래를 듣고 지은 〈청구인목씨창가(聽舊人穆氏唱歌)〉의 “정원연간의 공봉곡 부르지 말라 당시 조정의 선비들 이미 많이 사라졌도다 [休唱貞元 供奉曲 當時朝士已無多]”에서 차용한 것이다. 심액의 죽음으로 끝내 옛 선비가 사라졌음을 표현했으며, 같은 맥락에서 14구는 그의 죽음으로 낙사기영회와 같은 학덕 높은 노인들의 모임도 이제 비게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마지막 15-16구에서는 심액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밝은 이미지로 시를 끝맺었다. ‘성대한 잔치를 즐긴 것[叨盛宴]’, ‘봄빛[春色]’과 같은 죽음과는 상반되는 밝은 이미지로 시를 마치면서 애도자와 유족 모두 심액의 죽음이라는 암울한 상황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이상으로 관료들을 대상으로 지은 의례적인 만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들은 망자와의 관계가 깊지 않거나, 청탁 혹은 유족과의 관계에 의해 지어진 것들이다. 타인의 죽음이 기본적으로 전제된 상황과 망자의 님이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만시의 기본적인 속성은 일반적인 만시와 동일하지만, 망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하기 때문에 그 죽음과 거리를 두고 객관화된 시선으로 시를 지었다. 이에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및 분위기의 시어들의 활용 빈도는 낮았으며, 칭양의 수법을 통해 망자의 삶과 죽음에 있어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시켜 전반적으로 밝은 시상을 유지한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인 수사 방식으로는 첫 번째로 관료로서의 공적인 능력이나 업적을 칭양한 것이다. 대표적인 관직, 지방관으로서의 선정, 청렴, 직간 등 관료로서

발휘한 능력들에 대한 언급들이 그것이다. 시 전반부에는 주로 이러한 내용들을 배치하고, 후반부에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관료로서 차지하고 있던 조정 혹은 국가에서의 입지 등을 통해 그의 삶을 압축적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사적인 부분에서의 칭양이다. 수명, 교육, 성품 및 기질 등에 대한 내용들이 해당한다. 망자의 수명에 있어서는 장수의 절대적인 기준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죽음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찬칭 및 위로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비슷한 향년이라 하더라도 장수했다고 표현하는 한편, 하늘의 시기로 수를 누리지 못했다고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망자와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의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교육에 있어서는 자손들의 과거 급제 및 관로 진출, 관직 현황 등을 통해 망자의 교육이 성과를 낸 것을 보여줌으로써 부모로서의 면모를 간접적으로 상양했다. 성품 및 기질에 대한 내용은 주로 접객과 술자리를 통해 풍류를 좋아하는 호기로움을 드러내거나, 겸양이나 겸손함을 말한 것으로 전고를 통해 표현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수사 방식은 망자를 대표할 만한 표상을 내세워 칭양한 것이다. 이를 통해 만시를 보는 유족들로 하여금 망자의 죽음이 아닌 생전의 삶으로 생각을 이동시킨다. 나아가 망자의 삶에 대한 수많은 기억 중 제시한 표상을 중심으로 기억하게 하는 미화의 기능도 하고 있다. 또한 망자에 있어서는 제시한 표상을 통해 자긍심을 가질 만한 삶이었음을 인정함으로써 넋을 위로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홍주원이 의례적으로 지은 관료 대상 만시의 수사 방식은 칭양을 위주로 죽음이라는 사실과 거리를 두고, 망자의 생전 삶의 긍정적인 면모에 집중함으로써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만시의 기본적인 역할인 위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2) 현달하지 못한 인물

본 항에서 다룰 대상은 진사(進士)나 생원(生員), 또는 미관말직에 머물렀거나 요절 등의 이유로 포의(布衣)에 그친 채 재능을 펴지 못한 인물들이 해당한다. 이들에 대한 만시의 내용은 앞서 칭양을 위주로 죽음과 거리를 두며

망자의 ‘삶’에 초점을 맞췄던 관료들의 그것과는 상반된다. 의례적인 작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대한 원망, 슬픔, 안쓰러움 등의 감정을 여과 없이 직서한 경우가 많다. 망자나 유족과의 관계가 깊지 않은 경우 이러한 감정 표현은 자칫 예부터 지적되어오던 만시라는 장르의 지나친 비탄과 칭양 일색의 상투성을 벗어나지 못한 의례적인 문자 행위로 치부될 수 있다.<sup>340)</sup>

그러나 비탄으로 포괄할 수 있는 이러한 감정들의 직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시의 중심적인 기능과 목적이 애도자 개인의 비탄에 있음을 의미한다. 홍주원이 지은 관료 대상 만시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관행적으로 지으며 애도하는 공동체를 위한 위로의 성격이었다면,<sup>341)</sup> 현달하지 못한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의 안타까운 ‘죽음’ 자체에 대해 읊은 만시의 전형이자 기본적인 성격에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이라는 제재와 노출하는 감정 등 작시 환경의 제약이 따르는 만시의 특성상 항상 거론되었던 상투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상투성이라는 것은 조선 중기 이후 상장례의 보편화에 따른 만시의 양적 팽창에서 기인했다. 이러한 작시 환경의 제약과 양적 팽창 속에서 조어(措語)나 전고 활용의 중복 등의 관습적인 표현들이<sup>342)</sup> 상투성 논란의 결정적인 원인

340) 이와 관련해 윤재환은 “만시의 창작이 본격화되고 관습화되면서 많은 수의 만시가 비탄에서 칭양 위주로 그 내적 정서를 바꾸었고, 상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의례적 문학 양식으로 변모되었다. 죽은 사람과 작가가 생전에 맺어두었던 긴밀한 유대관계가 만시 창작의 전제가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시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조선 중기 이후에 와서 많은 수의 만시가 이러한 인간적인 유대관계나 개인적인 친분보다 칭양에 의해 양산되면서 만시는 의례적 문자 행위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여 주게 되었다.”며 생전의 긴밀한 관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시 창작의 전제조건임을 주장하면서도 “의례적이고 관습적인 행위이든,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한 창작이든 만시는 본질적으로 특유의 상투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만시가 시적 대상의 죽음이라는 특별한 상황 아래에서 창작되는 특수한 문학 양식이기 때문이다. 문학적 형상화의 방법과 수사 기법의 차이에 의해 각각의 만시 작품이 지니는 문학성의 質量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만시 속에 드러나는 작가의 정서는 동일하다.”며 장르의 특성상 지닐 수밖에 없는 창작자 정서의 동질성과 결핍이라는 기본 정조에서 기인한 상투성이 만시의 문학성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玉洞 李湊의 輓詩를 통해 본 朝鮮朝 輓詩의 一 樣相』, 『韓民族語文學』 제65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349-350면 참조.

341) 이에 대해 허운진은 “비탄은 애도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의미를 갖는 구성요소”라고 지적인 한편, “혜환이 만시의 주된 목적과 기능을 위로에 두고 있으며, 시의 중심 기능이 ‘애도자 개인의 비탄’에서 ‘애도하는 공동체를 위한 위로’로 윤리적인 전환을 맞는 점을 중요하게 살핀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허운진, 「희망의 유산(遺産) -혜환 이용휴 만시(挽詩) 연구-」, 『韓國詩歌文化研究』 40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284면 참조. 홍주원의 경우 앞서 살펴본 관료 대상 만시는 ‘애도하는 공동체를 위한 위로’에, 현달하지 못한 인물을 대상으로 한 만시는 ‘애도자 개인의 비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42) 최재남, 『韓國哀悼詩研究』,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165-239에서 애도시의 관습적 표현에 대해

중 하나로 작용했다. 그러나 관습적이고 상투적이란 것은 바꿔 말하면, 가장 적합하다고 검증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수많은 만시가 창작되면서 죽음의 상황에 따라 망자와 유족을 위로하기에 적합한 표현들이 축적·선별되었고, 이 과정에서 단련(鍛鍊)된 것들이 집적(集積)되어 관습화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같은 표현이라도 시인에 따라 조어와 조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글자의 동일함과 유사성만으로 관습과 상투성을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많다.<sup>343)</sup>

이러한 관습화의 과정은 제도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사회의 요구와 창작의 필요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이러한 과정이 등한시 된 채 상투성이란 표현으로 저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했듯 이러한 관습적인 표현들을 만시의 특수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만시의 문학성 판단에 대한 시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장 내에서 비탄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홍주원의 만시도 예시와 함께 후술하겠다.

이 외에도 작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되는 망자와의 직·간접적인 인연 언급, 부모와 처자식을 비롯한 유족들의 슬픔을 공감하는 표현, 하늘에 대한 원망, 망자의 회재불우했던 삶, 덕이나 정성과 같은 추상적인 가치에 대한 평가 등이 현달하지 못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지은 만시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보인다. 여기에 해당하는 만시는 총 28제 43수로 전체 만시의 6%이다. 비율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의례적인 작시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이 아닌 이러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지은 만시는 흔치 않으며, 43편이라는 숫자가 한 작가에 국한하면 결코 적은 편수가 아님을 감안한다면 하나의 대상으로 분류하기에 충분한 특징적 유형으로 판단된다.

작품을 들어가며 살펴보겠다.

#### 〈김홍명(金洪命) 만사(挽詞)[挽金洪命]〉

자세히 다룬 바 있다.

343) 이와 관련하여 이은영은 “여러 작품을 통해 반복해 등장함으로써 특정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투식은 양식화된 정서를 가장 응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 장치 중의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여러 사람이 습용하면서 관례화된 경향이 강하고 동일한 의미라 하더라도 획일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작가에 따라 개성적인 변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은영, 앞의 논문, 172-173면 참조.



春府陪遊早 일찍이 춘부(春府)를 모시고 놀았을 적에  
 憐君玉雪姿 그대의 옥설(玉雪) 같은 자태 좋아했었다네  
 珠纔掌上墮 구슬은 비로소 손바닥에서 떨어졌고  
 夢又曰中炊 꿈에서는 또 절구통 안에 밥을 지었도다  
 荀倩仍長逝 순천(荀倩)도 이내 멀리 떠나갔는데  
 王脩竟短期 왕수(王脩)는 끝내 기약이 짧구나  
 鍾情無限痛 정을 쏟았기에 끝없이 마음 아픈데  
 臨挽不勝悲 만사를 짓자니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네<sup>344)</sup>

망자인 김홍명(金洪命)은 생몰년을 비롯해 남아 있는 기록이 많지 않다. 수련에서는 사헌부 장령 등을 역임한 부친인 김덕승(金德承, 1595~1658)과의 교유를 통해 김홍명을 만나게 된 인연을 언급하고 있다. 김덕승의 만시가 문집 내에서 김홍명의 만시보다 뒤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친보다 먼저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친인 김덕승의 만시를 보면, “평생 한 동이 술을 함께했으니 취해서 말 더듬었던 것 아직도 기억한다네[平生一樽酒 尙憶醉期期]”<sup>345)</sup>, “거리 북쪽에서 이웃한 지 오래고 평소에 이석(履鳥)으로 사귀었다네[巷北比隣久 尋常履鳥交]”<sup>346)</sup>와 같은 표현들을 보면 김덕승과는 교유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함련은 모두 그가 상처(喪妻)한 사실에 대한 내용이다. 김홍명 부인의 만사도 세 편의 연작시로 남아있는데, “영원히 함께하자던 백년의 약속이 어그러졌구나[永乖偕老百年期]”<sup>347)</sup>, “생각건대 낭군이 부인을 잃은 곳 작은 서재는 등불도 어둡고 꿈은 아득하네[想得郎君悼亡處 小齋燈暗夢依依]”<sup>348)</sup> 등을 비롯해 남겨진 남편의 입장을 위로한 바 있다. 이어서 5구에서도 부인을 잃고 난 뒤 상심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절한 위(魏)나라의 순천(荀倩)에<sup>349)</sup> 김홍

344) 『無何堂遺稿』 冊1.

345) 『無何堂遺稿』 冊1, 〈挽金襄陽德承 其二〉.

346) 『無何堂遺稿』 冊1, 〈挽金襄陽德承 其四〉.

347) 『無何堂遺稿』 冊4, 〈金洪命妻挽〉.

348) 『無何堂遺稿』 冊4, 〈金洪命妻挽 其二〉.

349) 『世說新語』, 〈惑溺〉. 순천(荀倩)은 순욱(荀彧)의 아들 순찬(荀彧)을 말하는 것으로, 그의 자가 봉천(奉倩)이기 때문에 순천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명을 비겨 부부의 안타까운 상황을 말했다. 6구의 왕수(王脩)는 서화에 능했던 인물로, 김홍명이 생전에 서화에 재능이 있었기에 차용한 의도도 있으나, 앞서 5구에서 순찬이 부인을 따라 요절한 것처럼 짧은 생을 살고 떠난 것에 대한 언급[竟短期]에 방점이 있다.

수련에서 망자의 부친과의 인연으로 면식이 있었던 일화를 통해 작시의 당위성을 보여준 이후, ‘떨어진 구슬[珠墮]’, ‘멀리 떠나감[長逝]’, ‘짧은 기약[短期]’과 같은 죽음을 암시하는 어두운 심상의 시어들을 중심으로 전개했다. 이어서 미련에서는 ‘끝없이 마음 아픈데[無限痛]’,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네[不勝悲]’와 같이 앞서 정을 절제한 채 담담하게 언급하다 한 번에 감정의 폭발로 이어지면서 다소 과장된 비탄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처(喪妻)에 대한 상실감으로 괴로워했을 김홍명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함련과 경련을 모두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했다. 사용된 표현들은 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망자가 죽기 전까지 심적으로 가장 괴로워했을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생전의 슬픔에 공감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강한 비탄의 표현들로 구성하는 것에 비해 담담하게 두 사람의 죽음을 언급하다가 미련에서 압축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애도자의 심리와 시의 흐름상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인다.

다음은 22세의 나이로 요절한 김렴(金濂, 1637~1658)의 만시이다.

〈수재(秀才) 김렴(金濂) 만사(挽詞)[挽金秀才濂]〉

每愴君兄夭    늘 그대의 형이 요절한 것 슬퍼했는데  
君亡又妙年    그대가 죽은 것도 묘년(妙年)이로구나  
人才俱可惜    사람의 재주가 모두 아깝게 되었으니  
天理豈其然    하늘의 이치가 어찌 그러한가  
伯仲瑩連域    만이와 둘째의 무덤이 연결해 있으니  
爺孃淚徹泉    야양(爺孃)의 눈물이 황천에 사무치네  
魂應膝下戀    혼은 응당 슬하를 그리워 할텐데  
忍發上灘舡    차마 여울 오르는 배를 띄우누나<sup>350)</sup>

350) 『無何堂遺稿』 冊1.

전반적으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를 위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련에서는 김렴의 큰형인 김심(金滄) 역시 요절했는데,<sup>351)</sup> 이어서 둘째인 김렴까지 22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뜬 것을 말했다.<sup>352)</sup> 함련에서는 뛰어난 재주가 있음에도<sup>353)</sup> 요절한 것에 대해 하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빼어난 자질을 주고서 도리어 서둘러 빼앗아버리는 것은 마치 사람을 희롱한 것 같다[既畀之厚而旋奪之速 若以人爲戲者然]”<sup>354)</sup>는 김렴의 죽음에 대한 송상기(宋相琦, 1657~1723)의 언급과 같은 맥락에서 하늘의 이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경련에서는 인륜을 거스르고 부모보다 먼저 간 자식의 무덤을 돌이나 바라보게 된 부모[爺孃]의 눈물은 이승과 저승이라는 단절된 세계마저 초월해 깊이 스며든다고 하였다. 이어서 김렴의 혼이 부모의 곁[膝下]을 응당 그리워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여울을 오르는 배처럼 가기 어려운 길을 차마 보내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에 공감했다.

김렴의 만시이기는 하나, 위로의 대상은 그 부모로 한정해 김심과 김렴 두 아들의 죽음을 모두 애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눈물이 황천에 사무치네[淚徹泉]’와 같이 만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형적인 슬픔의 표현도 있지만,

351) 공의 큰형인 심(滄) 부부는 모두 일찍 죽어 후사가 없다[公之伯兄滄夫婦 俱早塲無后]. 또한 김렴 역시 아들 없이 죽자 김근석은 김렴의 조카인 김상원(金相元, 1665~1727)을 김렴의 양자로 삼아 집안의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承旨公以公弟僉知泓之子相元爲公後 仍主宗祀]. 宋相琦, 『玉吾齋集』 14권, 〈贈參判金公墓表〉. 홍지원은 김심에 대한 만시도 2편의 연작시로 지었다. “나이 겨우 약관시절부터 문사가 풍부하여 앞뒤로 이름을 날린 것 해액(解額) 때부터라네 슬프다! 자안(子安)이 끝내 요절하였으니 예로부터 그대처럼 사람을 슬프게 하는 이 있으랴[年纔弱冠富文辭 前後名騰解額時 悵悵子安終短折 似君從古使人悲].”라며 역시 재능이 있으나 요절한 것에 대해 감성적인 표현들을 사용했다. 두 번째 시에서는 부모와 젊은 부인이 남기고 떠난 것을 안타까워했다. 『無何堂遺稿』 冊4, 〈挽金秀才滄〉.

352) 김렴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두 가지의 기록이 있다. “김렴(金濂) 등 권세 있는 간신에게 미움을 받아 죄가 없는데도 죽임을 당한 사람을 하나하나 셀 필요도 없는 것은 나라 사람들이 이미 아는 바입니다[其餘金濂等 見嫉於權奸 無辜而就戮者 不必枚舉 而國人之所已知者也].”라는 尹宣舉, 『混定編錄』 8의 기록과 “생각건대 나이가 많이 어리니 감기가 어찌 감히 독이 되겠는가 여겼었다네[意謂年甚少 霜露何敢毒].”라는 趙綱, 『龍洲遺稿』 제5권, 〈挽金生濂〉이 있다. 전자가 권력의 질시에 의해 맞은 무고한 죽음이라면 후자는 급병으로 인한 것인데, 두 언급의 상관관계나 진위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353) “생원 조서(趙鉉), 김렴(金濂), 이양부(李陽敷) 등은 모두 이곳에서 배웠는데, 능력이 출중해 과거에 급제했다. 대개 이 고을에 학교를 설치한 이래로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生員趙鉉金濂李陽敷等 皆自是學 褒然而起 擢中科第 蓋自是府置學以來 所未嘗有)” 권近, 『陽村集』 제14권, 「記類」, 〈永興府學校記〉에서도 김렴에게 재능이 있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354) 宋相琦, 『玉吾齋集』 卷14, 〈贈參判金公墓表〉.

망자를 비롯한 그 가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애석해한 것은 애도자로서 보다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4구에서 실체가 없는 하늘의 이치에 대해 원망한 것은 부모가 자식의 요절로 인해 느낄 허탈감과 상실감에 공감하는 한편, 원망의 대상을 명시함으로써<sup>355)</sup> 자식을 먼저 보낸 자책감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

다음은 이극(李極)의 만시이다.

〈이극(李極) 만사(挽詞)[挽李極]〉

六十年俱迫 육십년을 함께 다급하게 살다가  
相逢各歎衰 만나서는 각각 쇠함에 탄식했었지  
纔聞返鄉社 비로소 향사로 돌아갔다고 들었는데  
忽報戒靈輻 문득 영구(靈柩) 실은 수레가 떠났다고 하네  
世乏吹噓力 세상에 도와줄 힘도 부족했었지만  
吾憐骯髒姿 나는 강직한 자태를 안타까워했도다  
慈闈隔千里 어머니는 천리나 떨어져 계시기에  
泉路亦含悲 황천에서도 슬픔을 머금겠지<sup>356)</sup>

망자인 이극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sup>357)</sup> 수련을 통해서는 이극이 60세가 넘어 사망했다는 점, 60세 이전까지 홍주원과 교유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각자의 삶에서 60년을 여유 없이[迫] 살아온 그들은

355)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송상기도 “아, 예로부터 재주가 있어도 천명(天命)이 없어 일찍 죽어 펴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았던가. 이것이 공자께서 꽃은 피웠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탄식을 하신 까닭이다. 대저 이미 빼어난 자질을 주고서 도리어 서둘러 빼앗아버리는 것은 마치 사람을 희롱한 것 같으니, 조물주는 과연 무슨 생각인가. 공은 약관의 나이에 요절하여 성취한 바가 없어 명성도 지위도 볼 만한 것이 없고, 행적도 전할 만한 것이 없으니 천도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누가 말하지 않겠는가[嗚呼 自古有才無命 天闕不遂者何限 此夫子所以有秀而不實之歎也 夫既畀之厚而旋奪之速 若以人爲戲者然 造物者果何意也 若公弱冠短折 未及成就 無名位可見 無事行可傳 孰不曰天道不可知也]”라고 재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절한 것에 대해 조물주를 원망하는 언급을 했다. 조경(趙綱) 역시 같은 맥락으로 그의 재능을 칭양한 뒤, “기이하다 조화옹의 마음이며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어찌 이리 잔인한가[異哉造化心 始善終何酷]”라고 하였다.

356) 『無何堂遺稿』 冊1.

357) 일부 기록에 단편적인 언급이 보이기는 하나, 이 만시의 대상인 이극이라고 특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노년이 되어서야 만날 기회가 생겼다. 또한 여유 없이 살아온 삶의 흔적인 노쇠함이 겉으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기에 서로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첫 만남 후 이극이 바람대로[纔] 향사(鄕社)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한동안 소식을 알지 못하다가, 이미 죽어 장례까지 다 치른 뒤에야 그가 유명을 달리했음을 알게 되었다.

경련에서는 이극의 화재불우에 대해 언급했다. 올곧고 강직한 태도가 있었으나, 누군가의 추천이나 장려를 받지[吹噓] 못하고 결국은 향사로 돌아가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미련에서는 어머니를 두고 먼저 유명을 달리한 자식의 입장을 애도했다. 현실과 저승의 단절을 관습적으로 표현하는 ‘천리(千里)’를 통해<sup>358)</sup> 어머니와 다시는 재회할 수 없는 아들이 황천에서도 슬픔을 머금고 있을 것이라 했다. ‘머금다[습]’는 글자를 통해 그 슬픔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마음에 품은 채 오랜 기간 괴로워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미련을 제외하면 애도자인 홍주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극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첫 만남(수련), 죽기 전 마지막 소식(함련), 홍주원과 알기 전 불우했던 삶(경련) 등이다. 5구까지 애도자가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담담하게 풀어냈기 때문에 이 시에서 드러난 애도자의 유일한 감정표현인 6구의 ‘안타까움[憐]’에서는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진다. 미련은 자식을 잃은 노모를 위로하기 위해 직설적인 방식이 아닌 먼저 떠나간 자식 역시 저승에서 같은 마음으로 슬퍼할 것이라는 상련(相憐)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담담히 이극의 죽음을 관조(觀照)하는 시상으로 전개되었으나, 오히려 이러한 전개 덕분에 홍주원이 이극의 삶에 대해 느낀 안타까움이나 망자의 마음을 대변한 표현에서 상대적으로 절절함을 느낄 수 있다.

다음은 18세의 나이로 증광시(增廣試)에 합격해 생원이 되었으나, 약관의

358) 신념의 공간으로 내세를 설정한 경우나, 그렇지 않고 막연한 구천(九泉)이나 지하(地下)를 사후 세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에도 사후 세계와의 거리는 아득히 먼 거리로 표상되고 있다. 사후 세계와의 거리는 보통 “천리(千里)”, “만리(萬里)”, “천만리(千萬里)” 등과 같이 표현된다. 이때의 “千”, “萬”은 구체적인 거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먼 거리를 지칭하는 관습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습적 표현은 망자와의 현격감(懸隔感)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최재남, 앞의 책, 235-236면 참조.

나일로 죽은 오관주(吳觀周, 1645~1664)의 만시이다.

〈진사(進士) 오관주(吳觀周) 만사(挽詞)[挽吳進士觀周]〉

夭折誰非慘 요절한 것 누군들 참담하지 않으랴만  
如君寂可憐 그대 같은 이가 가장 가련하도다  
身方持服日 몸은 바야흐로 상복 입던 나날이고  
齒是勝冠年 나이는 무릇 약관을 지났다네  
白璧泉臺閼 티 없는 옥이 저승에 막혔으나  
靑衿姓字傳 유생들에게 이름자는 전하는구나  
仍思乃翁慟 늙은이의 서러운 눈물을 생각해보니  
何處不潸然 어느 곳인들 눈물을 흘리지 않으랴<sup>359)</sup>

수련에서는 오관주의 죽음이 요절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가련하다는 것을 먼저 언급했고, 이후의 전개에서 그 이유를 밝혔다. 함련에서는 그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향년이 약관의 어린 나이임을 언급했다. 오관주는 계모(繼母)인 김씨 부인을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는데, 계모 역시 그를 친자식처럼 여겼다. 김씨가 병에 걸렸을 때, 잠도 제대로 자지 않으며 반년 간 눈물을 흘리며 직접 병간호를 했다고 한다. 또한 상중에는 의려(倚廬)를 떠나지 않고 식음도 챙기지 않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때 그의 나이가 스물이었다. 조정에서는 그의 효행을 듣고 정려문(旌閭門)까지 세웠다고 한다.<sup>360)</sup>

5구의 티 없는 옥[白璧]은 재능 있는 인물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다. 만시에서는 주로 ‘황천 혹은 구천에 묻혔다.’는 표현과 함께 유능한 자가 재주를 펼치지 못하고 죽었음을 비유할 때 쓰인다. 6구는 어려서부터 재능을 보인 그가 1662년 증광시에 18세의 나이로 합격해 이름이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sup>361)</sup>

359) 『無何堂遺稿』 冊1.

360) 權尙夏, 『寒水齋集』 卷32, 〈進士吳公觀周墓表〉, “事繼母金夫人至孝 夫人亦視如己出 夫人病革 公手執湯劑 不交睫不解帶 半年如一日 日夜涕泣 衣袖盡腐 癸卯四月夫人竟不起疾 公執喪過禮 不離倚廬 不脫衰麻 恐有草木之滋 菜羹亦不食 至病作不變 以甲辰六月十八日終 年僅二十 葬陽城天德山丙坐原 從先兆也 後朝廷聞公孝行 旌表其門.”

361) 尹鳳九, 『屏溪集』 卷53, 〈進士吳公觀周墓誌〉, “幼文墨自戲 長而績學攻文 十八 中司馬 聲譽出等



미련에서는 효성과 재능을 두루 갖춘 어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친 오두인(吳斗寅, 1624~1689)의 입장에 적극 공감하며 위로했다. 약관의 나이에 요절한 것만으로도 부모로서 견디기 어려운 슬픔인데, 더욱이 그 자식이 성품과 재능까지 훌륭했기 때문에 요절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련하다고 수련에서 언급한 것이다. 이는 홍주원이 일찍이 세 아들의 요절을 경험한 아버지로써<sup>362)</sup> 그의 슬픔에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언급이다. 또한 오관주와의 교유는 없었으나, 오두인과는 어느 정도 교유 정황이 포착된다는 점<sup>363)</sup>과 전반적인 시상의 전개로 보아 오두인의 청탁으로 그를 위로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보인다. 홍주원과 사적인 교유는 보이지 않으나, 어린 자식을 잃는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공통분모가 ‘서러운 눈물[慟]’과 ‘눈물 흘리다[漣然]’와 같이 직설적인 감정 표현을 쓸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두인이 흘릴 눈물을 생각하면 애도자인 자신도 어느 곳에 있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조부인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이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의 성이 함락되자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절하려고 했을 때, 13세의 나이로 함께 죽은 김수전(金壽全, 1625~1637)의 만시이다.

〈김수전(金壽全) 만사(挽詞)[挽金壽全]〉

從妹爲君嫂 사촌 누이가 그대의 형수가 되니  
通家有歲年 집안끼리 통한 세월이 있다네  
誰知違一面 누가 알았으랴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하고  
遽爾隔重泉 갑자기 그대가 중천으로 떠날 줄을  
短折天何忍 요절하였으니 하늘은 어찌 차마 그러한지

夷.”

362) 장남 홍태망(洪台望, 1625~1641)을 비롯해 홍태량(洪台亮, 1637~?), 홍태육(洪台六, 1639~?)이 채 장성하기도 전에 요절했다.

363) 문집 내에 오두인과 관련된 시는 다음과 같다. 『無何堂遺稿』 冊1, 〈吳斗寅外祖母挽〉, 『無何堂遺稿』 冊3, 〈送吳元徵斗寅洪州之任〉, 〈吳執義斗寅內挽〉, 〈送吳元徵赴光州〉. 부인이나 외조모의 만시, 부임할 때의 송별시 등이 있는데, 이 외에 교유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孩提兒可憐 어린아이들조차 그대를 가련히 여긴다네  
 北堂聞夜哭 북당에서 밤에 곡소리가 들리니  
 行路亦潸然 길가에서도 또한 눈물 흘리네<sup>364)</sup>

수련에서는 망자와의 간접적인 인연을 제시하면서 작시의 당위성을 드러냈다. 인척 관계이기는 하나, 13년 이상 얼굴 한 번 보지 못했을 정도로 따로 왕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수전의 죽음에 대해서는 신익성의 <우의정 김공 시장(右議政金公諡狀)>에 그 전말이 기록되어 있다.

(김상용이) 마침내 남쪽 성의 초루(譙樓)에 올라 입고 있던 용의(戎衣)를 벗어 시종에게 주고는 불을 놓아 스스로 불살랐으니, 그 뜻은 옷을 남겨 초혼(招魂)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공의 손자인 수전(壽全)은 나이가 열세 살로 당시 곁에 있었다. 시종에게 데리고 돌아갈 것을 명하자 옷을 붙잡고 가지 않으며 말하기를, “마땅히 조부님을 따라가야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하자 시종 역시 가지 않았고 마침내 함께 죽었으니, 이 행적은 정월 22일 임술일이다.<sup>365)</sup>

이러한 그의 행위에 대해 예조판서 민진후(閔鎭厚, 1659~1720)가 경연(經筵)에서 “노(魯)나라 사람 왕기(汪錡)는 동자(童子)로 국사(國事)에 죽은 것에 대해 성인(聖人)께서 칭찬하였으니, 김수전의 죽음에 대해서도 정표(旌表)가 있어야 됩니다.”<sup>366)</sup>라고 하여 숙종이 정표를 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문의 후손인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은 <남문루 감회(南門樓感懷)>에서 “어린 손자는 왕기의 명성에 부끄럽지 않고[童孫不愧汪錡名]”<sup>367)</sup>라고 하며 실록의 기록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란 중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에 대해 칭양했다.

그러나 홍주원은 김수전의 죽음에 대해 ‘갑자기[遽]’, ‘요절[短折]’ 등의 표

364) 『無何堂遺稿』 冊1.

365) 申翊聖, 『樂全堂集』 卷14, <右議政金公諡狀>, “遂登南城譙樓 解所服戎衣授僮人 放火自燒 意留以爲復也 公孫壽全年十三 時在側 命僕掖歸 挽衣不去曰 當從翁逝 當何歸 僕亦不去 遂同死 實正月二十二日壬戌也.”

366) 『숙종실록』 13년(1704) 3월 15일, <동자 김수전의 문에 정표하도록 명하다>.

367) 金昌協, 『農巖集』 卷6, <南門樓感懷>.

현만 했을 뿐, 국가의 위기상황에 목숨을 던진 충절이나 조부를 버리고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한 효행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죽음의 경위와 그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13세의 어린 나이에 자의로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죽음의 원인이 전란이든 병이든, 충을 위한 것이든 효를 위한 것이든 부모의 입장에서 성인이 되지도 못한 아이를 먼저 보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후반부의 전개에서는 안타까움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늘에 대한 원망과 2~3세의 아이들[孩提]조차도 그를 가련히 여길 만큼 안쓰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경련에서 보였다. 미련에서는 성인(成人)의 예로 장사지낼 수 없는 어린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밤새 곡을 하며, 이를 들은 행인들도 눈물을 흘린다고 언급했다. 이는 어머니의 심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행인들조차 그 곡소리를 듣고 눈물 흘릴 정도로 깊은 슬픔이 배어 있는 울음이라는 것을 뜻한다.

김수전의 죽기 전 행동은 당시 사회에서 중시하던 가치관인 충효의 관점에서 칭송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더욱이 13세라는 어린 나이는 이러한 행동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조건이다. 비록 사후 70여 년이 지난 뒤의 평가이기는 하나, 실록에서의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홍주원 역시 이러한 점을 들어 김수전의 행동을 칭양하며 유족을 위로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요절했다는 사실과 슬퍼할 어머니의 입장에만 초점을 맞추어 시를 구성했다. 이는 인척이라고는 하나 왕래가 없던 사이에서 예기치 못하게 어린 자식을 잃게 된 부모의 심정에 공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의 측면에서는 앞서 살펴본 오관주의 만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종9품 무관직을 지낸 초관(哨官) 김정표(金廷標)의 만시이다.

〈초관(哨官) 김정표(金廷標) 만사(挽詞)[挽金哨官廷標]〉

風神秀出萬夫間    풍채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뚝했고  
百步穿楊世聳觀    백 보 밖에서 버들잎을 명중시키니 세상에서 우러러 보았네  
幾歲田園拋壯士    몇 해 동안 전원에 장사(壯士)를 버렸던가

一秋京洛繫微官 어느 가을 서울에서 작은 관직에 매였도다  
 僑居冷落身仍病 쓸쓸한 임시 거처에서 몸은 곧 병들었으니  
 舊壠蕭條骨亦寒 적막한 옛 무덤에서 뼈까지 차갑겠지  
 聞道老親携婦泣 듣자하니 노친은 부인을 데리고 운다던데  
 等閑行路共悲酸 관계없는 행인들도 쓰린 슬픔 함께하겠지<sup>368)</sup>

전반부에서는 김정표의 뛰어난 재능에 비해 관로가 트이지 않았던 회재불우의 삶에 대해 언급했다. 무관으로서 그의 풍채는 군계일학이었고, 활숨씨 역시 백보 밖에서 버들잎을 명중시킨 중국 초(楚)나라의 명사수 양유기(養由基)의 고사를 들어 칭양했다. 수련에서의 칭양은 함련에서 회재불우의 삶을 언급하기 위한 근거가 되었다. 무관으로서의 빼어난 자질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이나 관직에 오르지 못하다 그나마 임명된 관직도 종9품의 말직이었음을 드러내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경련에서는 죽음의 원인과 외로이 묻히게 된 상황을 말했다. 임시 거처에 병으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된 것인데, ‘쓸쓸한[冷落]’, ‘적막한[蕭條]’ 등의 음울하고 부정적인 수식어와 ‘옛 무덤[舊壠]’, ‘뼈[骨]’, ‘차갑다[寒]’ 등의 시어가 죽음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sup>369)</sup> 미련에서는 남겨진 자들의 슬픔을 언급했다. 7구를 통해서도 김정표가 노부모와 부인을 남겨두고 먼저 죽었음을 알 수 있다. 8구는 앞서 살펴본 김수전 만시의 시상과 유사하다. 남겨진 노부모와 부인의 울음소리를 듣고 지나가는 행인들조차 감화되어 함께 슬퍼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이 역시 유족들의 깊은 슬픔에 공감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김정표에 대해서는 이 시를 제외한 어떤 기록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청탁으로 인해 지은 것인지, 자발적으로 지은 것인지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시의 내용상 사적인 내용이 배제된 채 사실 정보 위주로 구성이 되었다는 점과 초관이라는 김정표의 직위 상 궁에서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적인 교유가 없었기 때문에 풍채나 활숨씨 등의 객관적인 정보

368) 『無何堂遺稿』 冊2.

369) 음울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죽음의 분위기를 형상화하는 것은 애도시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최재남, 앞의 책, 184면 참조.

를 통한 지나치지 않은 칭양, 회재불우했던 삶, 죽음을 맞이한 과정, 유족들의 슬픔 등으로 구성되었다. 앞서 살펴본 시들에 비해 감정 노출의 농도는 옅고, 보다 전형적인 성격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다음은 해남(海南) 태수를 지낸 한익주(韓翊周, 1615~?)의 부친인 한담(韓曇)의 만시이다.

〈해남(海南) 한익주(韓翊周) 대인(大人) 만사(挽詞)[韓海南翊周大人挽]〉

令子登龍借一麾 아들이 용문(龍門)에 올라 깃발 하나 빌려  
三牲榮養縣廚移 삼생(三牲)의 극진한 봉양을 고을의 부엌으로 옮겼구나  
忍言阜蓋趨庭日 검은 덮개가 뜰을 지나던 날을 차마 말하자니  
纔及高堂易簀時 비로소 고당에서 역책(易簀)하는 때에 이르렀네  
守靜頤神君自得 수정(守靜)과 이신(頤神)은 그대가 스스로 얻은 것인데  
有才無名世誰知 재주 있어도 이름 없는 것을 세상의 누가 알라  
年踰七十猶堪賀 나이는 칠십을 넘었으니 오히려 축하할 만하나  
只爲元方倍覺悲 다만 원방(元方)은 곱절로 슬픔을 느끼리라 생각한다네<sup>370)</sup>

만시의 대상인 한담은 평생 관직에 오르지 않고 유생으로 지냈다는 것 이외의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련에서는 과거에 급제한 한익주가 해남 태수로 부임하여 부모를 극진히 봉양할 수 있었던 것을 언급했다. 이러한 칭양은 앞서 송별시에서도 자주 보였듯 부모의 입장에서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

함련에서는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탄력적인 시제와 시점의 활용이 돋보인다. ‘검은 덮개[阜蓋]’는 지방 장관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수련의 연장선상에서 당시의 한익주를 빗댄 것이다. ‘뜰을 지나던 날[趨庭日]’은 주지하듯 공자가 뜰을 지나는 아들 백어(伯魚)에게 시(詩)와 예(禮)를 배워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던 것을 지칭하는데, 한익주가 어린 시절 부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일을 말한다. 3구에서는 가르침을 받던 어린 한익주가 성장해 지방 수령이 되었을 만큼 시간이 흘렀음을 암시했고, 4구에서 ‘비로소[纔]’를 통해 자연스럽게 현재 한담의 죽음으로 다시 시점을 옮긴다. 증자(曾子)가 임종 당시 자신

370) 『無何堂遺稿』 冊3.

의 분수에 맞는 갈개[簣]로 바꾸라고 한 일화에서 유래한 역책(易簣)을 통해 한담의 학자로서의 면모를 칭양했다.

경련에서는 평생 유생으로서 수신(修身)에만 몰두한 한담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정(守靜)은 『도덕경(道德經)』의 “텅 빔의 지극함에 이르고, 고요함을 돈독히 지키라[致虛極 守靜篤]”는 구절에서 온 말로, 세상에 욕심이 없음을 말하며 이신(頤神)은 정신을 수양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공명에 대한 욕심 없이 자기 수양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홍주원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현달하지 못한 인물을 대상으로 한 만사에서 생전의 행위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를 드러낸 경우는 흔치 않다.<sup>371)</sup> 스스로의 선택으로 관로를 버리고 수신의 길을 택한 것인데, 이에 대해 홍주원은 재주가 있음은 인정하지만,<sup>372)</sup> 양명(揚名)하지 못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평했다. 기본적으로 그 재주를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기저에 깔려 있지만, 이는 앞서 2장의 사승 관계에서 살펴보았던 문장의 효용성 및 문장을 국가 경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한 이정귀의 문장관과 맥을 같이 한다. 즉, 홍주원 역시 이정귀의 문장관과 같은 맥락에서 수신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세상에 펼쳐야 한다는 가치관을 견지(堅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한담의 재주를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펼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칭양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홍주원의 평가와 양명이라는 사회적 성공과는 별개로 한담은 자신의 뜻대로 평생 수양을 업으로 삼으며 살았다. 또한 자신과 달리 관로에 진출한 자식의 봉양을 받으며 장수했다는 사실 등에서 미루어보면 자족적 삶이었다고 평가하기에 무리가 없다. 그러나 부친을 잃게 된 자식의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보

371) 이 외에는 도승지를 역임한 이경직(李景稷, 1577~1640)의 아들 이기영(李起英)의 만사에서 날선 비판의식을 내비친 것이 유일하다. “집안의 아버지와 형제들 중에서 그대만 서와 검 하나도 이룬 것 없으니 가련하도다 … 부질없이 큰 술잔을 잡고 일생을 저버렸네[是父門闌是弟兄 憐君書劍獨無成 … 謾把深杯負一生].” 『無何堂遺稿』 冊3, 〈挽李君起英〉.

372) 홍주원의 만시 외에 유일하게 보이는 조문수(曹文秀, 1590~1647)의 기록에서도 “그대 가문의 두 형제 재주가 참으로 가련한데[君家兩兄弟 才調儘堪憐]”라며 능력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曹文秀, 『雪汀詩集』 卷6, 〈留別韓曇兄弟〉.



다는 당장 상실의 괴로움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8구에서 조심스럽게 한  
익주의 슬픔에 공감하고자 했다.

다음은 포저(浦渚) 조익(趙翼, 1579~1655)의 다섯째 아들로, 생원인 조현  
양(趙顯陽, 1616~1643)의 만시이다. 총 3편의 연작시로 구성되어 있다.

〈생원(生員) 조현양(趙顯陽) 만사(挽詞)[挽趙生員顯陽]〉

得御尙書二十秋 상서를 모신 이십 년 동안  
如何終未識荊州 어찌하여 끝내 형주(荊州)를 알지 못했는지  
謫來暫使魁星耀 귀양 와서 잠시 괴성(魁星)이 빛나게 하더니  
舊跡還尋白玉樓 옛 자취를 백옥루(白玉樓)에서 도리어 찾는구나

庭園無恙弟兄怡 부모님 아무 탈이 없고 형제들은 즐거운데  
少婦閨中抱二兒 젊은 부인은 규방에서 두 아이 안고 있네  
底事遽拋人世樂 무슨 일로 갑자기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獨歸冥漠捻無知 홀로 아득한 곳으로 돌아가 모두 알지 못하게 되었나

王子池邊永宅開 왕자의 못가에 영원한 집이 열렸는데  
曉天風雪薤歌催 새벽 하늘 눈보라에 해로가(薤露歌) 재촉하네  
游魂若解新城近 떠도는 혼은 새로운 성이 가까움을 알텐데  
夜夜高堂入夢來 밤마다 고당(高堂)의 꿈속으로 들어오겠지<sup>373)</sup>

조현양은 1642년 식년 감시(式年監試)에 장원으로 선발되어<sup>374)</sup> 청운의 꿈  
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었으나, 이듬해 유명을 달리했다. 첫 수의 기승구  
에서는 부친인 조익과의 인연은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의 아들인 조현양과  
는 그가 죽음을 맞을 때까지 일면식도 없었던 점을 언급했다. 승구의 ‘식형주  
(識荊州)’는 이백(李伯)이 형주자사(荊州刺史)로 명망 높았던 한조종(韓朝宗)  
에게 보낸 편지인 〈여한형주서(與韓荊州書)〉에서 “평생 만호후에 봉해지는

373) 『無何堂遺稿』 冊4.

374) 宋浚吉, 『同春堂集』 22卷,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傳浦渚趙公諡狀〉, “次曰顯陽生員壯元”.

것은 쓸모가 없다. 다만 한형주를 한 번 알길 원할 뿐이다[生不用封萬戶侯 但願一識韓荊州]”라고 한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를 통해 조현양을 한형주에 빗대어 칭양한 한편, 조현양과 교유를 원했던 자신의 바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과장법을 통해 드러냈다.

전결구에서는 조현양의 문장 능력을 칭양함과 동시에 그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전구는 원래 신선이었던 조현양이 잠시 인간 세계에 귀양와 식년 감시에서 장원한 것을 문운(文運)을 주관하는 괴성(魁星)을 빛나게 했다는 표현으로 비유했다. 이어 그의 죽음을 원래 있던 신선 세계의 누대인 백옥루(白玉樓)에서 옛 자취를 찾는다는 것으로 미화시켰다. 주지하듯 시선(詩仙)이백을 적선인(謫仙人)으로 비유한 이래로 신선은 능력 있는 문장가에 대한 미칭으로 흔히 사용되었다.<sup>375)</sup> 그러나 신선 세계를 사후 세계로 설정한 것은 도교에의 경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막연한 사후세계에 대한 지칭어로서 활용한 것이며, 망자를 신선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흐름상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설정으로 봐야 한다.

두 번째 시에서는 시점을 현실의 유가족들로 옮긴다. 전구에서 부모가 무탈하고 형제들이 즐겁다고 한 것은 조현양의 요절이 유독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점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더욱이 승구에서 남편을 잃은 부인이 우두커니 어린 두 아이를 안은 채 방에 있는 모습은 기구와 대비되어 안쓰러움을 더욱 배가시킨다. 예기치 못한[遽] 그의 죽음은 기승구에서 언급한 가족들과의 즐거움을 버리게 된 것뿐만 아니다. 결구를 보면 즐거움 상실의 주체는 조현양으로 한정되어 언급한 것이기는 하나, 기실 가족들의 즐거움 역시 함께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홍주원은 첫 번째 시에서 사후 세계를 하늘로 상정하고, 두 번째 시에서는 무덤인 지하[冥漠]로 상정했다. 혼백(魂魄)이 육신을 떠나는 것을 죽음으로 인식한 한국인의 보편적인 사생관에 있어<sup>376)</sup> 이는 특기할 만한 사실

375) 강문정(姜文井)의 만사에서 그들 신선에 비유하며 그의 죽음을 신선 세계[玉樓]에서 바빠 부르는 것이라 비유한 바 있다[召自玉樓催]. 『無何堂遺稿』 冊4, 〈挽姜進士文井〉.

376) 이는 고대 중국인의 사생관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사생론의 최절정이라 할 수 있는 율곡(栗谷)이 〈死生鬼神策〉에서 “사람의 일신은 혼백(魂魄)의 성곽입니다. 혼은 기(氣)의 신(神)이요, 백(魄)은 정(精)의 신입니다. 그 살아 있는 때에는 퍼 있어 신(神)이 되고, 죽었을 때에는 곁혀져 귀(鬼)가 됩니다. 혼기(魂氣)가 하늘로 오르고 정백(精魄)이 땅으로 돌아가면 그 기는 흩어집니다

이 아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백은 육신과 함께 땅에 묻힌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이와 같은 인식에 기반해 의도적으로 두 편의 시에 혼과 백을 따로 분리하여 설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첫 번째 시에서 조현양을 신선이라는 형이상학적 존재에 대입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선이 살고 있는 하늘로 그 공간을 설정한 것이고, 두 번째 시에서는 시점이 현실로 돌아왔기 때문에 현실적인 차원에서 장례 절차에 따라 무덤에 묻히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시의 내용과 구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전개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시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례 절차의 진행과 망자의 혼이 세상에 미련이 있음을 말했다. 그의 무덤[永宅]이 왕자의 못 근처에 마련되었고, 눈보라 날리는 새벽에 상여를 댄 행렬은 부추 위에 땀한 이슬처럼 덧없이 지는 인생을 슬퍼한 만가(挽歌)인 ‘해로가(薤露歌)’를 부른다. 무덤으로 향하는 상여를 따라 조현양의 혼은 자신이 머물게 될 새로운 성[新城]이자 영원한 집인 무덤이 가까움을 알고 있지만, 부모를 두고 먼저 떠나는 자식의 한이 남아 밤마다 부모[高堂]의 꿈속에 가게 될 것이라 언급했다.

세 편의 연작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었다. 망자의 죽음→이로 인한 유족들의 상황→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위해 무덤으로 향하는 상여의 행렬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언급의 주체도 자연스럽게 달라졌다. 두 번째 시에서는 유족이 중심이 되었고, 첫 번째와 마지막 시의 주체는 망자로 동일하다. 그러나 첫 번째 시에서는 망자 개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세 번째 시에서는 부모를 먼저 두고 떠날 수 없는 자식으로서의 입장을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만 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시어와 전고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절구 시 세 편이라는 짧은 분량 안에 망자를 신선에 비유하거나, 해로가와 같이 만 시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기법들에 망자와 유족의 현실적인 상황을 담아냈다는 점은 전형성과 공감의 조화롭게 조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현달하지 못한 인물들의 만시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인물에 대한 만시는 2장에서 살펴본 바, 이정귀의 영향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귀 역시 공명을 이루지 못하거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인물들의 만시

[人之一身 魂魄之郭郭也 魂者 氣之神也 魄者 精之神也 其生也伸而爲神 其死也屈而爲鬼 魂氣升于天 精魄歸于地].”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재남, 앞의 책, 222-230면 참조.

를 지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망자와 유족을 위로했다. 다만 이들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을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던 이정귀와 홍주원의 위로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홍주원은 망자 및 유족과의 인연을 서두에 배치함으로써 작시의 당위성을 확보해 의례적 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는 이후 서술되는 내용들이 상투적인 문자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여타의 대상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구성은 보이지만, 유독 현달하지 못한 인물들의 만사에서 자주 보이는 것은 현달하지 못한 망자에 대한 안쓰러움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측면에서는 만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평범한 시어나 전형적인 전고들을 사용했지만, 망자의 생전 삶이나 죽음으로 인한 상황 중 특히 슬픔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부분을 들어 제시했다. 이는 추상적인 조의(弔意)를 표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유족들의 슬픔 중 특정 부분에 공감하면서 위로하고자 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즉 이정귀의 방식이 망자가 삶에서 이루었던 가치를 인정하는 면에 중점을 두었다면, 홍주원은 삶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는데에 방점이 있다. 그러나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만시는 양명하지 못한 망자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문학의 순기능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 3) 여성 대상 만시

17세기 조선은 임병양란을 거치면서 종법제(宗法制)에 입각한 보다 완벽한 성리학적 가부장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예학의 발달로 퇴계와 율곡에 의해 체계화된 의례적인 윤리는 17세기 전반까지 학문적 차원으로 발전하였고, 17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사람이 정계의 주도권을 잡자 정책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학(小學)』 교육과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장려 및 보급이 강조되었다. 특히 『소학』은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 성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결정되었다.<sup>377)</sup>

377) 이은봉, 「조선시대 婦權의 존재 양상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73집, 동양고전학회, 2018, 74-75면 참조.

즉 17세기는 성리학적인 정통론이 강조되던 때로 여성의 역할과 책임이 이전 시기에 비해 과중해졌고, 그 지위는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조선 여성의 삶으로 규정되던 여러 실상이 사실은 17세기에 형성되고 정착되었다.<sup>378)</sup> 이러한 사회 제 방면에 있어 성리학적 요소의 확장과 발달은 본장의 서두에서 언급했듯 상장례의 보편화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만장 사용이 일반화 되어 만시의 창작 요구가 증가한 문학적인 변화에도 일조했다.

일례로,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1628)의 문학에 국한된 사례이기는 하나 그의 문학에 나타난 여성 형상에 대해 최운정이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전범적인 글에서는 규범적 질서를 유지하고 행동 규범을 철저하게 내면화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즉, 철저하게 사대부의 입장에서 관념화되고 전형화된 여성 형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각기 서로 다른 인물이지만, 작가가 부각시키고 있는 유교적인 덕목(孝·節·貞·順 등)들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칭송되는 부분들은 유사하다.”<sup>379)</sup>라고 한 언급은 성리학과 예학의 발달로 인한 학문적·사회적 변화가 문학 작품에 투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상이 극단적으로 전형화 된 양상은 사대부의 입장에서 여성 형상의 한 특징을 규정한 것이며, 결국 남성의 입장에서 말하는 여성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380)</sup>

만시의 일차적인 목적이 전범(典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주체적 삶의 내용은 배제된 채 아내·며느리·어머니 등의 역할에만 국한되어 부덕(婦德)과 관련한 획일화된 가치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향후 독자들에게 여성에 대한 전범적인 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다.

홍주원의 여성 대상 만시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이 감지된다. 규범화 된 여성에 대한 인식은 자녀 번성, 거안제미(擧案齊眉)로 상징되는 남편에 대한 내조와 공경, 삼종지도(三從之道) 등 지극히 협소한 칭양의 범위를 통해서도 짐

378) 황수연, 「17세기 ‘祭亡室文’과 ‘祭亡女文’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제30집, 한국한문학회, 2002, 40면 참조.

379) 최운정, 「象村 申欽 문학에 나타난 여성 형상」, 『동양고전연구』 제18집, 동양고전학회, 2003, 98면.

380) 최운정, 앞의 논문, 99면 참조.

작할 수 있다. 칭양의 범위도 협소하지만, 그 비중 역시 다른 만시 대상들에 비해 현저히 적다. 여성 대상 만시의 구성은 망자보다 남편 및 아들을 중심으로 한 남성들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여성의 사망은 한 개인으로서의 사망보다 아내, 어머니 등 여성이 맡고 있던 역할의 부재가 생긴 것에 집중된 서술 양상을 보인다.

단적인 예로 김천석(金天錫, 1604~1673) 부인의 만시 중 경련에서 “제미(齊眉)하던 상은 칠이 벗겨져 나갔고 젖을 찾는 아이만 외로이 울부짖는다[剝落齊眉案 零丁喚乳兒]<sup>381)</sup>에서 볼 수 있듯 상의 칠이 벗겨져 나간 것을 통해 부인 역할의 부재를, 젖 찾는 아이를 통해 어머니 역할의 부재를 드러냈다. 당시 여성들의 삶은 개인적·주체적 측면이 거세된 채 남성과 성리학으로 위시되는 사회상에 규격화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망자가 아닌 남성을 대표로 한 유족 중심의 서술 경향을 보이는 작품들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다음은 나만갑(羅萬甲, 1592~1642) 부인의 만시이다.

〈동지(同知) 나만갑(羅萬甲) 부인 만사(挽詞)[羅同知萬甲夫人挽]〉

夫子官年促 지아비는 벼슬한 해가 짧으니  
公私尙有思 공사에서 아직도 그리워한다네  
忍題今日挽 차마 오늘 만사를 지으려니  
重起九原悲 거듭 저승에 대한 슬픔 일어나누나  
名父門楣訓 이름난 아버지의 가문을 빛낸 가르침으로  
諸郎玉雪姿 여러 아들은 옥과 눈 같은 자태라네  
廣陵秋色裡 가을빛 속의 무덤에서는  
神劍竟相隨 신검이 마침내 서로 따르겠지<sup>382)</sup>

8구에 의하면 부인보다 나만갑이 먼저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는 1642년 이후에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련은 나만갑의 짧았던

381) 『無何堂遺稿』 冊1, 〈金洪川天錫室內挽〉.

382) 『無何堂遺稿』 冊1.



관료 생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1613년 진사시에 수석으로 합격해 성균관에 입학했으나, 1618년 인목대비의 서궁 유폐 사건 때 벼슬을 버리고 귀향했다. 1623년 인조반정 후 본격적인 관직생활을 시작해 내외직을 두루 거쳤다. 이마저도 1629년 7월 해주 유배, 1631년 11월 해배(解配), 1635년 상소로 인한 파면 후 은거 등으로 순탄치 않았으며, 총 10여 년의 관직 생활을 했다.

함련에서는 부인의 죽음을 통해 나만갑의 죽음을 상기했다. 부인의 죽음으로 나만갑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重]’ 떠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죽음과 저승에 대한 시인의 슬픔이 촉발되었다. 경련에서는 훌륭하게 성장한 자식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자제들이 옥설과 같은 자태로 훌륭히 성장한 것은 ‘이름난 아버지’의 ‘가문의 현창(顯彰)함’을 이끈 가르침 덕분에, 모친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미련에서는 미망인으로서의 신세를 엿볼 수 있다. 신검은 주지하듯 용천검(龍泉劍)과 태아검(太阿劍)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들이 서로 따른다는 것은 죽어서 부부가 합장(合葬)하게 된 것을 뜻한다. 숙살지기(肅殺之氣)를 띠는 쓸쓸한 가을에 죽음을 맞았지만, 이는 먼저 떠난 남편을 따르게 된 것에 불과하다. ‘마침내[竟]’라는 표현이 이와 같은 의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인의 만시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생전 관력과 그 인품, 부인의 죽음을 매개로 상기된 남편의 죽음, 모친의 역할은 배제된 자식 교육에 대한 언급,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미망인으로서의 삶을 규지(窺知)할 수 있는 표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시 역시 망자가 아닌 남편과 아들 등 주변 남성을 중심으로 점철되었다.

다음은 창성(昌城)에서 수령을 지낸 신원 미상 인물의 부인 만시이다.

〈창성(昌城) 정실내(正室內) 만사(挽詞)[昌城正室內挽]〉

|       |                          |
|-------|--------------------------|
| 室閭簾垂地 | 방은 고요하고 발 드리운 곳에         |
| 床空塵滿筵 | 침상은 비었고 먼지만 자리에 가득하네     |
| 榴花照愁眼 | 석류꽃이 근심스런 눈에 비치고         |
| 燭影伴孤眠 | 촛불 그림자가 외로운 잠자리의 짝이구나    |
| 婉孌音容隔 | 어여뻤던 목소리와 모습과는 떨어지게 되었으니 |

孩提子女憐 어린 자녀들 가엾기도 하여라  
 王孫此情境 왕손의 이러한 처지는  
 盡入悼亡篇 모두 <도망편>에 들어있다고<sup>383)</sup>

전반적으로 부인을 잃은 남편의 입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수련과 함련은 부인의 부재를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남편의 상황에 대해 읊었다. 남편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방은 고요할 뿐이며, 부인의 자리가 빈 침상은 어느새 먼지가 가득 찼다. 2구는 대표적인 도망시 중 하나인 반악(潘岳)의 <도망(悼亡)>에서 차용한 것이다.<sup>384)</sup> 자리의 주인인 부인의 부재로 먼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은 남편의 입장에서 그 자리를 대체할 인물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함련에서도 이와 같은 시상이 이어진다. 평소 같으면 붉은빛으로 밝게 핀 석류꽃을 감상하며 시를 읊었겠지만, 근심 가득한 그의 마음은 눈빛에까지 고스란히 드러나 시야에 들어온 석류꽃도 감상할 수 없는 심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경물을 감상할 심적인 여유도 없이 낮을 보냈지만, 밤이 되면 다시 부인의 빈자리를 느끼게 된다. 짝을 잃은 그의 곁에는 오로지 촛불 그림자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또한 밤이 되어도 촛불을 끄지 않은 채 홀로 잠을 청하지 못하는 남편의 쓸쓸한 모습도 연상케 한다.

경련에서는 어머니를 잃은 자식들을 안타까워했다. 생전 아름다웠던 그 목소리와 모습은 현세와 저승이라는 단절된 공간으로 떨어져 마주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자식들은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2~3세의 어린 아이[孩提]들로 어머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는 시인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배가될 수밖에 없다.

8구에 의하면, 홍주원은 만시를 짓기 전 남편이 지은 도망시를 읽었다. 8구는 자신이 지은 한 편의 짧은 만시에 남편의 상실감을 전부 담아내지 못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도망시를 통해 남편의 심정과 처지를 알고 시를 지었음을 보여준다. 역시 망자를 중심으로 전개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383) 『無何堂遺稿』 冊1.

384) 해당 구절은 “빈 침상에는 맑은 먼지만 쌓였고 빈 방에는 서글픈 바람만 불어오네[床空委清塵 室虛來悲風]”이다.

다음은 이민적(李敏迪, 1625~1673) 모친의 만시이다.

〈사인(舍人) 이민적(李敏迪) 대부인 만사(挽詞)[李舍人敏迪大夫人挽]〉

學士曾封乞郡章 학사가 일찍이 고을 수령 원하는 글로 봉해졌으니  
聳看殊渥湔高堂 특별한 은총이 고당에 넘치는 것을 삼가 보았도다  
欲將寸草春暉報 한 치 풀이 봄빛에 은혜 갚고자 하여도  
奄見西山夕照忙 서산으로 석양이 바빠 넘어가는 것 문득 보게 되었네  
痛結崩城常涕淚 남편 죽음으로 맺힌 애통함에 항상 눈물 흘렸는데  
盟尋同穴幾星霜 같은 무덤에 묻히자는 맹세가 몇 해나 되었는데  
人間已盡三從道 인간 세상에서는 이미 삼종의 도를 다하였고  
況是遐齡七袞強 하물며 장수를 누린 일흔이 넘었음에랴<sup>385)</sup>

수련은 이민적이 고을 수령을 청한 것[乞郡]이 받아들여져 모친을 봉양할 수 있었던 임금의 은혜를 언급했다. 망자가 생전 자식의 봉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임금의 은혜이며, 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식인 이민적이 그만큼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함련에서는 풍수지탄(風樹之嘆)의 한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3구는 “한 치 되는 풀의 마음 가지고 봄날의 햇볕 같은 은혜 보답하기 어렵네[難將寸草心 報得三春暉]”라는 당(唐)나라 맹교(孟郊)의 〈유자음(遊子吟)〉에서 차용한 것이다. 자식을 풀에, 어머니의 은혜를 햇볕에 비유했다. 즉 자식의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였으나, 흔히 말년을 비유하는 석양이 서산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표현으로 결국 이루지 못한 상황을 말했다.<sup>386)</sup> 수련과의 연결을 생각한다면, 고을 수령을 통해 물질적인 봉양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으나 이는 모친의 은혜에 보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련은 미망인으로서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편의 죽음 후, 가슴에 맺히는 고통을 안고 항상 눈물 흘린다는 것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함

385) 『無何堂遺稿』 冊3.

386) 참의를 지낸 윤강(尹絳, 1597~1667) 모친의 만시(『無何堂遺稿』 冊2, 〈尹參議絳大夫人挽〉)에서도 “봄빛에 은혜 갚고자 하나 어찌 다함이 있으랴 가련하다 서쪽으로 해지는데 돌연 새벽은 없어졌네[欲報春暉寧有極 可憐西日忽無晨]”라며 유사한 시상이 전개된 바 있다.

께 따라 죽지 못한 미망인의 삶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닌 남편의 죽음 후 자신의 죽음에 이르는 삶의 기간 동안 타자의 시선으로 강제되는 것에 가깝다. 6구 역시 앞서 나만갑 부인의 시에서 ‘마침내[竟]’로 압축되었던 것과 유사하다. 표면적으로는 같은 무덤에 묻히자는 부부 간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표현이나, ‘몇 해나 되었는데[幾星霜]’라는 언급은 남편의 죽음을 따라야 한다는 미망인에 대한 의식이 다분히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련에서 미망인의 삶에 대한 의식이 드러났다면, 미련에서는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삶에 대한 인식이 보인다. 부덕에서 항상 거론되는 삼종지도(三從之道)를 생전에 다한 것과 일흔을 넘겨 장수했다는 것을 언급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물며[況是]’이다. 혼례 전에는 딸로서, 혼례 후에는 부인으로서, 남편 사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하는 삼종지도를 생전에 다했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복 중 장수 하나를 누린 것만으로도 여한은 없다는 표현이다. 그러나 ‘하물며[況是]’를 통해 여성의 삶은 삼종지도를 따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sup>387)</sup>

자식에게 받은 봉양, 자식 입장에서 실천하지 못한 효, 남편의 죽음 후 미망인의 입장에 구속되어야 하는 삶, 삼종지도의 역할로 대변되는 수동적인 삶의 자세 등의 내용은 모두 남편과 아들의 입장에서 표현된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로부터 규정된 성 역할이 내재되어 있다.

다음은 세 편의 연작시로 구성된 김홍명(金洪命) 아내의 만시이다.

〈김홍명(金洪命) 아내 만사(挽詞)[金洪命妻挽]〉

徽儀曾著結褵時 아름다운 모습은 일찍이 향주머니 매었을 때에 드러났으니  
夢叶熊羆抱二兒 태몽에서 곰 같은 두 아이 안았도다  
忍說鍾情無限痛 정을 쏟은 만큼 끝없이 아픈 마음 차마 말하자면

387) 이정기(李廷夔, 1612~1671) 모친의 만시(『無何堂遺稿』 冊3, 〈李參判一卿廷夔大夫人挽〉)도 이와 유사한 시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편의 연작시로, 벼슬을 통한 이정기의 봉양과 이에 대한 임금의 은혜를 언급했다. 두 번째 시의 미련에서는 “같은 언덕에 부장(附葬)했으니 응당 한이 없을 것인데 하물며 장수를 누린 팔순에 가까웁에라[同原附葬應無憾 況是遐齡近八旬]”라며, 부장한 것으로 미망인의 한을 풀 것과 장수를 누린 것으로 한없는 삶이었음을 말했다.

永乖偕老百年期 백년을 함께 살아가자던 기약은 영원히 어그러졌네

餘香猶着嫁時衣 향기는 아직도 시집을 때 옷에 남아있건만  
可忍開箱縛束歸 상자를 열고 묶어서 차마 돌려보내는구나  
想得郎君悼亡處 생각건대 낭군이 아내를 애도하는 곳  
小齋燈暗夢依依 작은 서재에 등불은 어둡고 꿈은 아득하겠지

薤露聲殘素幔移 해로가(薤露歌) 소리 사라지고 흰 장막도 옮겼으니  
人間親愛此長辭 인간 세상에서 친애하던 이 여기서 길이 이별하네  
可憐血屬惟兒女 가련하다! 피붙이는 오로지 여자아이 뿐이니  
留與衣裳作母儀 남겨준 의상으로 어머니의 의범을 짓기를<sup>388)</sup>

결혼했을 때부터 장례를 치른 시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었다. 첫 번째 시에서는 결혼 당시를 언급했다. 아내의 모친이 잠언(箴言)을 해 주며 매달아 준 향주머니를 차고[結褵] 혼례를 치렀으며, 아들을 낳게 될 상서(祥瑞)로 상징되는 곰과 큰 곰의 태몽까지 꾸었다. 그러나 혼례 때의 설렘과 태몽의 기대는 오래 가지 못한 채, 정을 준만큼 무한한 아픔과 함께 백년해로의 기약은 영원히 어그러지게 되었다. 김홍명의 시선과 입장에서 혼례 때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었다.

두 번째 시에서는 집에 홀로 남겨진 김홍명의 모습을 생각하며 위로했다. 혼례 때 입었던 옷에 달린 향주머니의 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통해 함께 한 시간이 길지 않음을 드러냈다. 승구에서는 망자의 생전 모습이 담겨 있는 물품을 정리해 처가로 되돌려 보내야만 하는 남편의 심정을 ‘차마[可忍]’를 통해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아내 부재에 대한 시상은 전 결구에서도 이어졌다. 함께 지내던 집은 이제 아내를 애도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작은 서재에 켜진 등불이 어둡다고 한 것은 김홍명의 심정을 사물에 의탁해 표현한 것이며, 꿈속에서 아련한 모습으로 그리워할 것을 상정했다. 어둡고[暗], 아련하다[依依]는 것으로 김홍명의 암담한 심정과 현실과 단절된 공간으로 떠나 버려 꿈속에서도 아득해 진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388) 『無何堂遺稿』 冊4.

세 번째 시에서는 장례가 끝난 뒤 김홍명과 자녀를 중심으로 한 유족들이 잘 극복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앞서 두 편의 시에서 상실감에 빠져 있을 김홍명의 상황에 공감하며 위로했다면, 이 시의 기승구에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살아가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먼저 초상 때 애도하는 노래인 해로가도 사라졌고, 쳐 놓았던 흰 장막도 옮겼다는 것으로 장례가 모두 끝났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이제는 현세에서 친애했던 사람과 길이 이별해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할 때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서 이러한 극복에의 응원은 남겨진 자식들에게로 옮겨졌다. 남겨진 자식이 오로지 여자아이 뿐[惟]이라는 표현에서 아들을 기대했던 것(첫 번째 시 승구)과는 다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망자의 상징처럼 언급한 ‘남겨준 의상’을 통해 어머니의 의범을 이어가길 바란 것이다. 전결구는 표면적으로 아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입장에서 결혼 전까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김홍명에게도 책임감이 있음을 전달함으로써 상실감 극복의 동력을 제공하고자 했다.

세 편의 연작시는 각 편마다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시는 과거 회상을 통해 슬픔을 야기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하며 독자로 하여금 감정을 북돋게 한다. 이어서 두 번째 시에서는 유품 정리와 홀로 남아 부인을 애도하는 남편의 시선에 한정하여 현실적으로 죽음을 체감하고 인정하게 되는 단계를 말했다. 죽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담담함과 체념의 심정이 주가 되어 감정의 진폭으로는 첫 번째 시에 비해 잔잔하다. 세 번째 시에서는 애도자의 입장에서 유족들이 상사(喪事)를 원만히 극복하길 바라는 기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 만시 역시 부인을 잃은 남편의 입장을 위로하는 내용이 중심적이다.

이상, 망자보다 남편 및 자제들을 위시한 유족 중심의 서술 경향을 보이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시들과 달리 망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라 할 수 있는 칭양이 나타난 시들을 통해 망자에 대한 서술 경향은 어떠한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는 회양(淮陽)에서 벼슬을 한 이모(李某)의 고씨(姑氏)의<sup>389)</sup> 만시이



다.

〈이회양(李淮陽) 고씨(姑氏) 만사(挽詞)[李淮陽姑氏挽]〉

宿願違偕老    오랜 소원인 함께 늙는 것이 어긋나  
餘生慟獨留    남은 생을 통곡하며 홀로 남았었다네  
孀閨惟涕淚    과부의 안방에서 오직 눈물만 흘린 채  
窮峽幾春秋    깊은 골짜기에서 몇 해나 있었던가  
痛哭尊行盡    높은 향렬 모두 돌아가신 것에 통곡하며  
追思婦道柔    부녀자의 도가 부드러웠던 것 돌이켜 생각하네  
人間三血指    인간세상에서 세 번 손가락에 피를 낸 것은  
烈女傳中求    「열녀전」에서나 구할 수 있다오<sup>390)</sup>

두 편의 연작시 중 첫 번째 시이다. 전반부는 남편을 먼저 보낸 후 미망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언급했다. 수련에서는 백년해로를 약속하며 혼인했지만, 그 약속이 어긋나 홀로 남은 생을 통곡으로 보내야 했음을 말했다. 함련에서도 규방에서 ‘오직[惟]’ 눈물만 흘리며 외진 산골에서 보낸 세월을 언급했다. 앞서 살펴봤던 미망인들에 대한 언급과 마찬가지로, ‘통곡[慟]’과 ‘눈물[涕淚]’로 대변되는 미망인의 삶에 대한 사회적인 규정과 맥락이 드러나고 있다.

후반부는 망자에 대한 두 가지 칭양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6구에서는 여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婦道]가 부드러웠다는 것을 언급했다. 부드러움이라는 수사가 부도(婦道)에 대한 가치 평가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도의 대표적인 삼종(三從)에서 알 수 있듯 여성은 평생 남성을 따라야 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그렇기 때문에 순함[順]과 부드러움[柔]이 부덕에 있어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미련에서는 효에 대한 행적을 언급했다. 손가락에서 피를 낸 것[血指]은 위독한 부모를 위해 자신의 피를 먹여 살리는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효행을 상징하는 용어이다. 이와 같은 행동을 세

389) 고씨(姑氏)는 경우에 따라 고모(姑母), 장모 등의 용례로 쓰인다. 그러나 이 시의 내용만으로 이회양과 어떤 관계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390) 『無何堂遺稿』 冊1.

변이나 할 수 있었던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녀전」에나 있는 것이라고 칭양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칭양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모두 희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녀자의 도가 부드러웠다는 언급은 당대 여성에 대한 가치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순종(順從)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순종과 내조로 대표되는 부녀자의 도는 상대방인 남성에 대한 양보와 배려를 통해 이루어지며 타자의 시선에 의해 평가되는 가치관으로, 주체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측면에서 희생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또한 손가락에서 피를 내는 행위는 가시적이고 육체적인 희생을 통해 이루는 효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행위의 실천이라기보다는 그만큼의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신적인 차원의 강조를 의미한다.<sup>391)</sup>

시인은 생전 망자가 보인 위와 같은 행위들을 두 번째 시의 “병은 응당 지극한 행실로 인한 것인데 하늘은 또 장수의 기약에 인색하도다[病應緣至行天又嗇遐期]”라는 구절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죽음의 원인으로 보이는 병은 첫 번째 시의 미련에서 언급했던 지극한 행실[至行]들로 말미암은 것이고, 장수의 기약에 인색했다는 것은 하늘이 장수를 내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청원부원군(靑原府院君) 심기원(沈器遠, 1587~1644) 모친의 만시이다.

〈청원부원군(靑原府院君) 심기원(沈器遠) 대부인 만사(挽詞)[沈靑原大夫人挽]〉

哲範能存女士風    밝은 법도에 능히 여사의 풍도가 있으니  
閨儀不獨組紃工    규방의 의범은 길쌈을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네

391) 여성에 국한된 사례는 아니지만,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 1832~1893)의 〈同中樞立齋柳公行狀〉에서 그의 부인인 흥양 이씨(興陽李氏)가 자녀를 훈계한 일화를 참고할 만하다. “일찍이 자녀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혈지(血指)와 순절(殉節)은 다만 효열(孝烈)의 한 가지 일일 뿐이다. 혈지의 정성으로 평소 공직(供職)할 때에 바치며, 순절(殉節)의 뜻을 한가할 때에도 유념한 뒤에야 효열의 이치에 바야흐로 흠이 없다고 하였다[夫嘗訓子女曰 血指殉節 特孝烈之一事 以血指之誠 施諸恒居供職 以殉節之義 措諸燕晏事爲然後 孝烈之理 方無缺也云].’”라며 혈지와 순절은 효열의 한 가지 예시일 뿐, 그 행위 자체가 아닌 평소에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견지(堅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유가적 사상과 가치관이 약화된 19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관을 보이고 있다.

迎賓截髮尋常事 손님 맞아 머리를 자르는 것은 예삿일이고  
 敎子擎天不世功 자식 가르쳐 하늘을 받들게 한 것은 세상에 없는 공이라오  
 甲第歌鍾榮養備 좋은 집에서의 음악 소리는 봉양을 갖춘 것이고  
 壽筵筐篚聖恩隆 수연에 선물 담긴 광주리는 임금님 은혜 융성함이었네  
 城南半夜林鳥血 성 남쪽에서 한밤중에 숲 까마귀는 피 울음 토하니  
 宿草新阡白露中 묵은 풀 사이 새로운 무덤은 흰 이슬에 덮였네<sup>392)</sup>

전반부인 수련과 함련이 망자에 대한 칭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희생이 수반되는 수동적 차원의 칭양보다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위상을 인정하고 있다. 1구에서는 망자를 밝은 법도[哲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진 선비의 조행(操行)을 지닌 여사(女士)로 평가했다. 이어서 규방의 아녀자로서 지킬 의범이 다만[獨] 길쌈만이 아님을 언급했다. 이 구절은 함련에서 언급할 망자의 업적을 보다 제고(提高)시키기 위한 초석의 기능을 하고 있다.

밝은 법도와 여사의 풍도가 있던 망자는 생전 진(晉)나라 도간(陶侃)의 모친이 가난한 형편에 머리카락을 잘라 돈을 마련해 손님을 대접했던 것처럼 안주인으로서 손님맞이에 예를 닮았다. 이러한 대접이 예삿일[常事]이라는 것은 망자가 항상 도간의 모친인 담씨(湛氏)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생활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자식 교육에 대한 공을 언급했다. 교육을 통해 그 자식이 나라에서 중임을 맡은[擎天] 인물로 성장시켰다는 것으로, 세상에 다시 없을 공[不世功]이라는 과장된 표현으로 그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심기원은 인조반정의 공으로 청원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이후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까지 지냈다. 망자는 여성의 역할 중 하나인 길쌈뿐만 아니라 안주인과 모친으로서 손님 접대와 자식 교육에 있어서도 뛰어난 인물이었음을 강조했다.

후반부는 주체가 망자에서 심기원으로 전환되었다. 좋은 집에서의 음악은 모친을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한 봉양의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며, 수연(壽筵) 때 받은 광주리는 임금의 은총임을 말했다. 이는 앞서 함련에서 언급한 교육의 성과로, 심기원이 지위와 명망을 통해 봉양을 갖추 수 능력이 있었으며, 임금의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392) 『無何堂遺稿』 冊2.

7구에서는 모친을 잃은 자식으로서의 슬픔을 말했다. 까마귀는 새끼가 자라 늙은 어미새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반포(反哺)’를 비롯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상징으로 자주 쓰인다. 당(唐)나라 백거이(白居易)도 〈자오야제(慈烏夜啼)〉에서 어미 잃은 까마귀가 슬피 우는 것을 통해 까마귀의 효성에 대해 읊은 바 있다.<sup>393)</sup> 이와 같은 측면에서 홍주원도 모친의 만시에 까마귀를 자주 활용했다.<sup>394)</sup> 이 시에서도 까마귀는 모친을 잃은 심기원의 비유이며, 피 울음은 심기원의 슬픔의 정도를 극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8구는 이슬이 생기는 새벽이 되었다는 시간의 흐름을 말한 것으로, 상실감으로 인한 극도의 슬픔이 밤새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 본 두 편의 시에서는 망자에 대한 칭양이 두 연씩 한 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대상 만시에서 칭양은 대체로 한 구 혹은 한 연 정도의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술했듯 여성 대상 만시가 망자보다 유족들에 집중하는 경향과 여성의 사망을 한 개인의 사망이 아닌 여성이 맡고 있던 역할의 부재로 인식하는 것에서 기인했다. 이에 따라 칭양의 내용 역시 부덕(婦德)과 규의(閨儀) 등에 한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두 편에서 보인 칭양의 양상은 희생이 수반되는 순종에 대한 것과 여성 역할의 위상을 인정하는 형태로 드러났다. 큰 틀에서 여성 만시에서의 칭양은 이 두 가지 궤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분법적으로 구분되기보다는 적절히 혼효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내용은 자식 교육을 포함한 부덕으로 압축할 수 있으며, 표현 방식은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죽음과 유족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함으로써 의례성과 상투성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보였다. 예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393) “까마귀가 그 어미를 잃고 까악까악 슬픈 울음 토하네. 밤낮으로 날아가지도 않고 해 지나도 옛 숲을 지키는구나. 밤마다 한밤중에 울부짖으니 듣는 이는 눈물로 옷깃을 적시게 되네. …중략… 까마귀여 저 까마귀여 새 가운데 증삼이로다[慈烏失其母 啞啞吐哀音 晝夜不飛去 經年守故林 夜夜夜半啼 聞者爲沾襟 …중략… 慈烏復慈烏 鳥中之曾參]”. 『古文眞寶前集』, 明文堂編輯部 校閱, 2003, 27면.

394) 〈挽君山養母〉의 경우 7구가 “城南半夜林鳥血”로 완전히 동일하다. 이외에도 〈南參議大夫人挽〉의 8구인 “밤에 까마귀의 피울음 소리는 갓끈을 적시게 하는구나(夜烏啼血助沾纓)”, 〈判書汝省景曾大夫人挽〉의 7구인 “강성에서 한밤중에 숲 까마귀는 피울음 토하니[江城半夜林鳥血]”, 〈洪承旨大夫人挽〉의 7구인 “숲 까마귀는 한밤중에 울다가 피를 토하니[林鳥半夜啼成血]” 등에서 까마귀를 통해 모친을 잃은 자식의 슬픔을 표현한 바 있다.

“가르침으로 어진 두 아들 두었다네[訓有二郎賢]”<sup>395</sup>), “가르침이 백미의 어짐으로 드러났도다[教著白眉賢]”<sup>396</sup>), “자식을 가르쳐 법종(法從)의 반열을 잇게 하였네[教子能聯法從班]”<sup>397</sup>). 이상은 모두 자식 교육과 관련한 칭양이다. 어질게 키웠다는 추상적인 표현도 있는 반면, 교육의 결과를 ‘법종의 반열’이라는 시신(侍臣)의 지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아녀자의 덕이 모두 전할 만하다오[婦德儘堪傳]”<sup>398</sup>), “규방에 밝은 법도 있음을 익히 알았으니[慣識閨門存哲範]”<sup>399</sup>), “규방에서 몇 사람이나 능히 절조를 지켰던가[閨閫幾人能抗節]”, “부인의 밝은 법도는 규방에서 으뜸이라네[夫人哲範冠閨房]”<sup>400</sup>), “한 덕으로 삼종(三從)을 했으니 처음과 끝이 마땅하다[一德從三始卒宜]”<sup>401</sup>), “평생의 아름다운 덕을 집안에서 알고 있으니 다른 때에 여사편(女史編)에서 볼 수 있으리[平生懿德通家識 看取他時女史編]”<sup>402</sup>), “집안에서 밝은 법도를 끝까지 게을리 하지 않았고[居家哲範終無懈]”<sup>403</sup>), “듣자하니 내범(內範)이 규방에서 으뜸이라던데[憑聞內範冠閨房]”<sup>404</sup>), “말한 것은 평생토록 어진 아녀자로서의 행실이니[爲說平生賢婦行]”<sup>405</sup>), “가업은 오직 총부(冢婦)에 의지해 지켰다네[家業惟憑冢婦持]”<sup>406</sup>), “부도(婦道)와 모의(母儀)는 응당 전해질 것이니[婦道母儀應有傳]”<sup>407</sup>), “봉양과 장사, 제사를 거듭 영애(令愛)에게 의지했으니 친족과 인척, 이웃들 모두 휘의를 칭송했다네[養葬祭仍依令愛 族姻隣共頌徽儀]”<sup>408</sup>), “거듭 어머니의 법도가 규방에

395) 『無何堂遺稿』 冊1, 〈許持平慈親挽〉.

396) 『無何堂遺稿』 冊1, 〈曹參議漢英大夫人挽〉.

397) 『無何堂遺稿』 冊2, 〈權參議夫人挽〉.

398) 『無何堂遺稿』 冊1, 〈張僉知夫人挽〉.

399) 『無何堂遺稿』 冊1, 〈挽金思晦室內〉.

400) 『無何堂遺稿』 冊2, 〈李子範大夫人挽〉.

401) 『無何堂遺稿』 冊2, 〈丁正郎大夫人挽〉.

402) 『無何堂遺稿』 冊2, 〈許判府事徽夫人挽〉.

403) 『無何堂遺稿』 冊2, 〈朴南原濠大夫人挽〉.

404) 『無何堂遺稿』 冊2, 〈邊錦山命益內挽〉.

405) 『無何堂遺稿』 冊2, 〈李陽川哲英內挽〉.

406) 『無何堂遺稿』 冊3, 〈李殷山憲邦室內挽〉.

407) 『無何堂遺稿』 冊3, 〈權都事斗樞慈堂挽〉.

서 제일이라 칭송했네[仍稱慈範冠閨房]<sup>409)</sup>, “평생의 부덕은 모두 자랑할 만  
하니 장림(張林)의 큰 붓으로 쓴 비문에서 보게 되리[平生婦德皆堪詒 看取張  
林大筆碑]<sup>410)</sup>, “휘의를 어찌 이웃들만 칭송했겠는가 바야흐로 장림의 큰 붓  
으로 쓴 비문에 있을 것이라네[徽儀豈獨同隣頌 定有張林大筆碑]<sup>411)</sup>, “휘의  
를 술과 음식에서 볼 수 있었고 밝은 법도는 이웃 고을을 진동시켰네[徽儀看  
酒食 哲範動鄉隣]<sup>412)</sup>, “규방에는 절로 유순하고 아름다운 바탕이 있었고[閨  
闈自有柔嘉質]<sup>413)</sup>.

이상은 모두 부덕과 관련된 내용이다. 타인의 언급이나 평가를 통한 간접  
적인 칭양들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듣자하니’, ‘(남편이) 말한 것은’과 같  
이 간접적인 칭양임을 직접 드러내기도 했으며, 가문이나 이웃에서 칭송했던  
것을 들어 자신만의 평가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  
은 칭양의 내용이 시인 개인의 판단에 의한 의례적인 칭양이 아니라, 동일한  
여러 평가들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구절의 설득력과 진실성을 획  
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문집 내 유일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비복(婢僕)들도 은혜와 인자함을 우  
러러보았네[婢僕仰恩慈]<sup>414)</sup>처럼 종들의 언급을 통해 인품에 대해 칭양하기  
도 하였다.

이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례적인 만시를 살펴보았다. 전술했듯 17  
세기 중반은 『소학(小學)』 교육과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장려 및 보급이  
강조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규정화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 이는  
만시 창작의 요구가 증가하던 시대적 요구와 결합해 여성 대상 만시의 풍조  
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사회적·문학적 변화 속에 만시에서 여성은 개  
인적·주체적인 측면보다 아내, 며느리,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국한된 존재로 인

408) 『無何堂遺稿』 冊3, 〈李金溝室內挽〉.

409) 『無何堂遺稿』 冊3, 〈吳始鳳慈親挽〉.

410) 『無何堂遺稿』 冊3, 〈權掌令格母夫人挽〉.

411) 『無何堂遺稿』 冊3, 〈李正郎志雄慈堂挽〉.

412) 『無何堂遺稿』 冊4, 〈金修撰文叔慈夫人挽〉.

413) 『無何堂遺稿』 冊4, 〈趙察訪遠期室內挽〉.

414) 『無何堂遺稿』 冊1, 〈權右尹玲夫人挽〉.



식되었다. 이처럼 규범화 된 여성에 대한 인식은 부덕(婦德)으로 포괄할 수 있는 가치평가를 통해 문면에 드러났다.

표현 방식의 차원에서의 주류(主流)로는 망자인 여성보다 남편과 자식 등 유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서술 경향이 돋보였다. 다음으로 망자를 중심으로 한 칭양이 드러난 시에서는 두 가지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희생이 수반되어야 하는 내조와 순종적인 면모에 대한 것, 여성의 역할에 대한 위상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정은 다시 자녀 교육, 부덕과 관련한 내용으로 양분할 수 있겠다. 특히 부덕과 관련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주로 타인의 언급이나 평가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칭양의 설득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 제 4 장 자의식의 형상화와 특징

앞서 제3장에서는 부마라는 홍주원의 신분에 천착하여 작품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3장에서 다룬 송별시나 만시는 송별과 위로의 대상 등 창작에 있어 타자의 비중이 큰 편에 속한다. 더욱이 이것이 부마라는 공적인 지위로 인해 의례적으로 지은 시라면 그 비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시들에서 홍주원은 대체로 주관적 감정이나 가치관의 노출을 자제했다. 즉 창작의 주체인 시인보다 객체에 집중된 표현 위주로 구성한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홍주원 한시의 입체적 조망을 위해 전술한 3장과 대비되는 또 다른 단면으로서 홍주원이라는 ‘개인’에 주목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홍주원을 한 사람의 ‘시인’이자 ‘개인’의 측면에서 자의식이나 자아에 초점을 맞춰 그의 내면이 시에서 어떻게 형상화 되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홍주원은 일반적인 시인들이 그렇듯 시를 통해 다양한 형태와 표현으로 자의식을 표출했다. 표출된 자의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성격이 강했다. 먼저 고독을 제재로 한 유형들이 있다. 먼저 고독감을 느꼈을 때, 이를 홀로 느끼고 사유하면서 내적으로 침잠시키며 감내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작품들이 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고독감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심리가 작용한 작품들로, 이는 주로 회인(懷人)의 형태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고독에 대처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매개체를 활용해 타인과의 교유하는 양상이 있다.

다음으로 스스로를 재주가 없는 인물로 평가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부(病夫)에 지나지 않는 인물, 게으른 성격, 능력에 비해 과분한 신분 등으로 묘사한 것이 많다. 겸사의 차원에서 언급한 것들도 있겠으나, 생애 전반에 걸쳐 자주 포착되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그의 내면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조적인 의식은 운명론적 시각을<sup>415)</sup> 비롯해 스스로를 이룬 것이

415) 운명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상에 따라 다양한 견해와 이론이 존재한다. 본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운명론은 사상·철학·신학 등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사전적 정의로서 ‘모든 일은 미리 정하여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는 바꿀 수 없다는’ 이론이다. 홍주원

없거나[不成], 쓸모 없는[無用] 인물로 평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 제 1 절 고독의 형상화와 대처

홍주원이 시를 통해 표출한 자의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정서를 내포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독이다. 고독이라는 정서는 일반적이고 흔한 시재(詩才) 중 하나로 그 자체로 특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는 고독이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로 그 필요조건은 개인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독이라는 정서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심리 상태이지만, 그만큼 발생 원인이나 발현 양상, 경중의 차이를 비롯한 변수가 많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은 곧 시인의 감정이 전이된 시어의 조탁을 거쳐 그만의 개성으로 이어진다.

작품 속에서의 발현 양상이나 고독의 농담(濃淡)에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발생 원인은 불만족·결핍·결여 등의 표현으로 아우를 수 있다. 지음(知音)의 부재, 정치적·사회적인 고립, 타인과의 불화, 현실과 이상의 괴리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타자 혹은 외부적 요인과 시인의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야기된다는 것이다. 홍주원의 경우도 발생 원인의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자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홍주원이 고독을 제재로 삼아 지은 시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류는 개인으로서 그의 내면 의식을 이해하는 데에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 보고, 고독이 그의 내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구하겠다.

### 1) 고독의 내적 침잠

일반적으로 고독한 인간은 끊임없이 타자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며, 이는 고독이 배태하고 있는 분리 불안감을 외부 세계

---

이 한시에서 드러난 운명론적 시각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인식이 도드라진다. 이는 곧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나 타개에 있어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지 않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와의 소통을 통해 해소하려는 본능적 행위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음을 운명적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면세계로 침잠하기도 한다. 이에 전자를 외재적 고독[loneliness], 후자를 내재적 고독[沈潛, solitude]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sup>416)</sup>

그러나 고독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정서 중 하나로, 추상적인 개념인 만큼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일단 고독은 문자의 표면적인 의미로 ‘홀로인 채 외로움’을 느끼는 감정이다.<sup>417)</sup> 이러한 기본적인 의미에 충실한 양상이 바로 고독을 홀로 인식하고 표현하면서 내적으로 침잠시킨 것들이다. 이러한 양상의 시들에서는 자신의 쓸쓸한 상황을 묘사한 후,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언급한다.<sup>418)</sup>

홍주원은 위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부재에 대한 대체재로 주로 자연물을 선택했다. 그러나 자연물은 인간사와 관계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인간과 달리 감정 없이 자연스럽게 존재만 하고 있는 사물을 대체재로 선택한 결과는 오히려 고독감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홍주원의 내적 침잠이 고독감의 심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면, 같은 침잠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유만주(兪晩柱, 1755~1788)는 고독의 내적 침잠을 통해 ‘임화동천(臨華洞天)’이라는 이상향적인 상상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다방면에 걸친 개인의 취향이 다양하고도 세세하게 펼쳐지면서 인물·사건·배경을 갖춘 허구의 세계를 구축한 것이다. 치밀한 계획과 구상을 통해 창조한 이 세계는 그만의 상상의 공간이면서 치유의 공간이기도 했다.<sup>419)</sup>

416) 윤세순, 「18세기 사대부 지식인 유만주의 고독」, 『漢文學論集』 제38집, 근역한문학회, 2014, 320면 참조.

417) 『中文大辭典』에서 『禮記』의 예를 들어 고독의 의미를 “어려서 아버지가 없는 것을 고(孤)라 하고, 늙어서 자식이 없는 것을 독(獨)이라 한다[幼而無父曰孤 老而無子曰獨]”라고 한 것이나, “도움이 없다[無助也]”라고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418) 남궁달은 고독이라는 어휘를 유가의 전통적인 차원에서 언급하면서 ‘생리적·사회적으로 무력한 이가 의지할 만한 존재를 상실한 상태에 처한 상황 또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한 바 있다. 남궁달, 「元天錫의 漢詩에 나타난 孤獨의 樣相」, 『한문고전연구』 제8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4, 54-55면. 의지할 만한 존재를 상실한 상태에 처한 상황은 곧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로도 치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독을 수용하는 태도가 유사하더라도 그 결과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내적으로 침잠된 고독이 당사자의 내면의식을 비롯한 개인적인 성향과 융합되어 유무형의 개성적인 형상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작품을 통해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의 운을 다시 쓰다[復用前韻]〉

世路猶多險 세상길엔 아직도 험함이 많으니  
 行身若避丸 세상살이는 탄환을 피하는 것과 같네  
 排愁頻舉白 시름 떨치려 자주 술잔을 들어보지만  
 竄史謾磨丹 업무에서 달아난 채 부질없이 단사(丹砂)만 가는구나  
 惻惻春寒重 드센 봄추위에 서글퍼  
 依依月影團 둥그런 달 그림자는 어렴풋하네  
 無人慰幽獨 쓸쓸한 외로움 위로해 줄 사람 없으니  
 庭畔對蒼官 프락에서 소나무만 대한다네<sup>420)</sup>

이 시의 제목으로 보았을 때, 앞서 지은 시와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지은 시는 태의(太醫)가 약재를 선물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 내용인데,<sup>421)</sup> 수련에서 고난으로 상징되는 탄환은 곧 자신의 질병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구에서는 고난(질병)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신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그에게 질병은 마치 탄환처럼 빠르게 닥쳐오기 때문에 차마 피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한 근심을 떨쳐내기 위해 업무를 뒤로한 채 술잔을 자주 드는 행위는 신선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단사(丹砂)를 가는[磨] 부질없는 행동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될 뿐이다. 두 편의 연작시로 구성된 이 시의 두 번째 시 1구에서 “경영할 일 없으니 다시 무슨 일을 하랴[無營更何事]”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련부터는 시상이 보다 시인의 주관적인 시선에서 전개된다. 심한 봄추위

419) 윤세순, 앞의 논문, 337-341면 참조.

420) 『無何堂遺稿』 冊1.

421) 『無何堂遺稿』 冊1, 〈謝李太醫惠清蘇〉.

는 자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것인지 유독 추웠던 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인을 슬프게 한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 봄이라는 계절에 맞지 않는 날씨와 달리 달은 때에 맞춰 가득 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련에서는 자신의 외로움[幽獨]을 위로해 줄 이가 없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대체재로 소나무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말했다. 그러나 소나무는 시인의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물로, 날씨(추위)에 따라 기분과 상태가 좌우되는 자신에 비해 사시사철 푸른 모습을 유지하는 대나무의 속성이 그러하다. 더욱이 위로 받을 사람이 없다는 직접적인 표현과 홀로 덩그러니 소나무만 마주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고독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두 번째 시에서 “차가운 매화의 넋을 매우 사랑하였고 붉은 치자를 자세히 살펴보았네 경전 보는 것에 마음이 빠져 있었는데 포단(蒲團)에 누우니 몸은 평온하구나[酷愛梅魂冷 耽看梔子丹 心潛閱經卷 身穩臥蒲團]”라고 표현한 것도 자연물인 매화와 치자를 홀로 살펴보고, 홀로 경전을 보는 등 인용시와 유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할 이 없이 모두 혼자 하는 행위로, 평온한 몸과 달리 마음은 평안하지 않음을 은근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4편의 연작시로 구성된 것 중 세 번째 시로, 사찰을 방문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사를 읊은 것이다.

〈밤에 앉아서 회포를 적다 그 세 번째[夜坐書懷 其三]〉

驟雨非時節    소나기 내릴 시기가 아니건만  
 狂風屋可頽    미친 바람은 집도 가히 무너뜨리겠구나  
 身孤縮如蝟    외로운 몸은 줄어들어 고슴도치 같고  
 心死冷於灰    죽은 마음은 재보다 차갑다네  
 曙色依依至    희미하게 새벽빛 이르고  
 雞聲喔喔催    꼬꼬댁 닭소리가 재촉하는구나  
 梅魂不解事    매화의 넋은 사정도 알지 못하고  
 頻送暗香來    은은한 향만 자주 보내오네<sup>422)</sup>

422) 『無何堂遺稿』 冊1.



4편의 시 모두 전반적으로 쓸쓸한 분위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의 시가 그 정서를 압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시의 “동지 후에 다시 응당 짧아질텐데 시름이 많아 밤이 긴 것 깨달았다네 … 잠들지 못해 누워도 또한 방해될 뿐이구나[至後更應短 愁多覺夜長 … 無眠卧亦妨]”나, 네 번째 시의 “서글퍼 잠 못 이루며 오직 암탉소리 들리기만 기다린다네[惘然仍不寐 惟待聽司晨]”와 인용한 시의 경련 등을 통해서 어떠한 근심으로 인해 밤새 잠 못 이루고 있는 작시 당시 시인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근심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심신의 약화에 있었다. 두 번째 시의 “오래 앉아 있어 몸은 도리어 게을러졌고[久坐身還倦]”와 인용시의 3구를 보면 신체적 약화에 대한 자괴감이 드러난다. 마음에 대한 평가는 보다 더 냉정하다. 두 번째 시에서 “젊은 시절의 뜻은 다시 없으리니[無復少時情]”나 인용시의 4구를 통해 보면 개선이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차갑게 식은 재는 곧 다시 타오를 수 없는 젊은 시절과 상통한다. 이 외에도 “문 닫고 즐거이 자취를 감추었으니 세상으로 가는 일엔 다시 마음이 없다네[閉門甘屏迹 蹈世更無心]”<sup>423)</sup>와 같은 구절에서도 유사한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다.

심신의 약화에 더해 홀로 잠들지 못하고 있는 때에 시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오직 자연물을 관찰하고 자신의 소회를 읊는 시작(詩作) 뿐이었다. 두 번째 시의 “시는 홀로 앉음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네[詩因獨坐成]”를 통해 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작시의 당위성으로 치환하여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네 번째 시의 “안식에 기대니 맑은 밤이 안타까워 시 지으려 자주 붓대 잡는다네[隱几憐清夜 題詩把管頻]”를 통해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작시는 불면(不眠)과 고독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의 결과물로,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사물(매화, 달, 등불, 대나무)을 관조(觀照)하며 소회를 읊은 것이다. 이는 스스로에 대한 성찰까지 이어졌지만, 심신 약화나 고독에 대한 극복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내적으로 침잠시키고 있다. 이는 마주하고 있는 객체인 자연물들에 의

423) 『無何堂遺稿』 冊1, 〈贈子裕〉.

한 영향도 있는데, 인용시의 미련에 잘 나타나 있다. 시인의 사정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소임인 은은한 향만 내고 있는 매화의 모습은 시인의 입장에서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체와 객체의 입장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 〈회포를 쓰다[書懷]〉

寂寞從愁疾 적막하게 시름의 병 앓아  
 無營晝閉門 하는 일 없이 낮에도 문 닫고 있도다  
 此身元土木 이 몸은 본디 흙과 나무 같으니  
 餘事任乾坤 남은 일은 모두 하늘과 땅에 맡겼다네  
 驟雨花全謝 소낙비에 꽃은 전부 떨어졌고  
 浮雲日易昏 뜬 구름에 해는 쉬어 어두워지는구나  
 平生遯世志 평생 세상 피할 뜻 있었는데  
 何處是桃源 어느 곳이 도원(桃源)이려나<sup>424)</sup>

앞서 인용한 시와 달리 한낮에 회포를 읊은 것으로, 고독감을 표현한 시어들과 어두운 시상으로 점철되어있다. 수련에서 쓰인 적막, 하는 일 없이[無營], 낮임에도 문을 닫고 있는 모습은 다분히 폐쇄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적막한 상태에 근심까지 더해졌고 경영해야 할 일도 없지만, 누군가를 만나 상황을 타개할 의지도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문을 닫고 홀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함련에서는 두보의 〈봉증소십이사군(奉贈蕭十二使君)〉에서 “우뚝이 높은 벼슬자리에 창망한 토목의 몸이로세[磊落衣冠地 蒼茫土木身]”를 차용해 자신을 쓸모없으면서[土木] 높은 벼슬의 반열에 있다는 것을 자조(自嘲)했다.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시인에게 있어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운명론적인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경련에서는 꽃이 전부 떨어졌다는 하강의 이미지와 구름으로 인해 쉽게 어두워진 하늘의 풍경을 읊으면서 전반부의 시상을 이어 부정적인 시상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424) 『無何堂遺稿』 冊1.

미련에서는 현실을 탈피하고자 한 욕구를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평생 세상을 피할 뜻을 품고 살았지만, 제시한 해결책은 소극적이다. 자신이 현재 속해 있는 속세를 피하고자 하면서 도원(桃源)을 언급한 것은 현실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에는 어렵다. 무릉도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이상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찾으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 아닌 ‘어느 곳일까[何處]’라는 자문의 형태로 끝맺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홍주원은 노년에 현실 탈피에 대한 욕구로서 은거에 대한 지향을 자주 드러낸 바 있는데, 이는 부마라는 그의 신분이 결코 변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었다.<sup>425)</sup> 미련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현실 탈피의 욕구는 있으나, 변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의 형태를 빌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신세는 빈 배에 맡겼다오 … 만사는 모두 이와 같으니 덧없는 인생 부질없이 홀로 시름겨워하네 어찌해야 속세의 근심 벗어나 강가의 정자에서 갈매기 짝하랴[身世任虛舟 … 萬事渾如此 浮生謾自愁 何當脫塵累 江榭伴沙鷗]”<sup>426)</sup> 역시 부질없지만 홀로 시름하기만 하면서 탈속의 욕구를 읊은 사례 중 하나이다.

#### 〈밤에 앉아[夜坐]〉

巷僻更難數 후미진 골목 어찌 다 헤아리라  
愁多夜抵年 시름은 많아 하룻밤이 일년 같네  
如何獨起坐 어찌하여 홀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지  
渾室盡酣眠 온 집안은 모두 한창 잠들었도다  
禍福皆前定 복과 화는 모두 예전에 정해졌으니  
身名只自憐 몸과 명예 다만 절로 가련할 뿐이라네  
死生無媿處 죽음과 삶은 부끄러울 것 없으니  
頭上有蒼天 머리 위로 푸른 하늘만 있다네<sup>427)</sup>

425) 拙稿, 「無何堂 洪柱元의 漢詩 일고찰-晩年の 시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76집, 동양고전학회, 2019, 23-34면 참조.

426) 『無何堂遺稿』 冊1, 〈차자유재로중기시운(次子裕在路中寄示韻) 其二〉.

427) 『無何堂遺稿』 冊1.

객체 및 정경, 사물에 대한 언급은 절제하고 오로지 시인의 생각을 위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1구는 후미진 골목에서 고독감에 빠져 있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sup>428)</sup> 시름으로 잠 못 드는 하룻밤은 마치 일년과 같이 길게 느껴지지만, 후미진 골목에 있는 시인의 이런 상황까지 알아주는 이는 없다. 함련 역시 자신과 집안의 식구들을 홀로[獨]/모두[盡]·온 집안[渾室], 일어났다 앉았다[起坐]/한창 잠들[酣眠]과 같이 대비되는 표현들을 통해 수련의 정서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후반부는 화복(禍福), 신분과 명예, 생사와 같은 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길흉화복이 이미 정해졌다는 운명론적 시각에서 보면, 자신의 처지는 다만 가련할 뿐이라는 자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생사에 관한 것만은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것으로 시를 끝맺고 있다. 경련에서 언급한 화복 및 신분과 명예 등은 인위적인 판단에 근거한 개념으로,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다. 또한 이 개념들은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 복잡다단한 삶의 궤적 등의 근거를 토대로 적용되지만, 같은 인물에 대한 평가 일지라도 평가자에 따라 그 판단이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과 삶이라는 존재의 유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이와 달리 명료하다. 이미 삶과 죽음이라는 유이한 두 가지 현상만 존재할 뿐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만인에게 공평한 것이다. 정해진 운명으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가련할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죽음과 삶이라는 인간의 삶의 양 꼭짓점에 있는 현상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을 포함한 만인이 공평하다는 것으로 자위하고 있는 것이다.

#### 〈그윽한 거처에서 부질없이 읊다[幽居謾詠]〉

屏跡仍經歲 자취 감추고 거듭 해가 지나갔는데  
 幽居亦物華 그윽한 거처에는 또 물색이 화려하네  
 籬栽彭澤菊 울타리에 도연명의 국화를 심고  
 園種邵平瓜 동산에는 소평의 참외를 심었다네

428) 홍주원은 자신의 거처를 궁벽진 곳이나 후미진 골목 등으로 자주 표현한 바 있다. 이는 겉사이면서 외로운 분위기의 시상을 조성하거나 증폭시키기 위한 시적 표현의 일환으로 보인다.

天遠看孤鶴 하늘 멀리 외로운 학이 보이고  
 林深集亂鴉 수풀 깊이 어지럽게 까마귀들 모였구나  
 何須問世事 어찌 반드시 세상일 물을쏘나  
 一醉是生涯 한 번 취하면 그것이 바로 삶인 것을<sup>429)</sup>

1구로 미루어 보아 홍주원의 집안 여복(女僕)이 연루된 기묘년(1639) 무고(巫蠱) 옥사 사건 이후 5년간 두문불출하던 시기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시인은 스스로 자취를 감춘 것이 여러 해가 지났는데, 물색은 늘 그렇듯 때가 되어 다시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흘러만 가는 자신의 시간에 비해 자연의 시간은 늘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불변의 사실을 또[亦]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함련에서는 자신의 정원에 심은 국화와 참외를 언급했는데, 단순한 수식어가 아닌 도연명과 소평(邵平)의 전고를 들었다. 주지하다시피 도연명은 팽택현령에 임명된 후 벼슬을 그만두고 귀거래 했으며, 소평 역시 진나라가 망한 뒤 포의로 평생을 살며 참외 재배를 생업으로 삼았다. 두 사람 모두 벼슬을 그만둔 이후, 정사에 뜻을 두지 않은 채 전원생활을 즐기며 살아갔다는 공통점이 있다. 임명직이 아닌 이상에야 관직을 받을 수 없었던 부마의 신분으로서 홍주원도 관직에 대한 염증을 시를 통해 자주 드러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도연명과 소평의 삶은 홍주원에게 있어 이상적인 삶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경련에서는 시상이 전환되어 고고(孤高)한 모습의 학과 어지러이 모여있는 까마귀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늘만으로 충분히 거리감을 부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遠]라는 수식어를 더해 외로운 학이 그만큼 세상과 동떨어진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까마귀들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수풀에서 무리지어 있는데, 질서도 없이 어지럽게[亂] 모여있다는 표현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했다. 기본적으로 흑백으로 대비되는 두 조류를 선택했는데 미련과의 연결성을 생각했을 때 외로운 학은 시인 자신을, 어지럽게 모인 까마귀들은 타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미련에서 시인은 세상과 격절된 채 충분히 혼자 살아갈 수 있음을 자신하

429) 『無何堂遺稿』 冊1.

고 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반드시 알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번 취한 것이 바로 삶이라는 표현으로 세상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취해 있는데 나 혼자만 깨어 있다[衆人皆醉 我獨醒]”라고 언급한 굴원(屈原)의 <어부사>와 술 취한 대상만 다를 뿐, 강조하고자 하는 ‘홀로’라는 의미에서는 유사한 맥락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낸 이면에는 오히려 태연한 모습을 통해 외로움을 감추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연작시는 아니지만, 연달아 실려 있는 두 편의 시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 ① <제목 없음[無題]>

月照虛簷枕簟涼 달은 빈 처마를 비추고 잠자리는 서늘한데  
草間秋露泣寒蟬 풀 사이로 가을 이슬 맺혔고 쓰르라미 우는구나  
懸知隔面無多日 얼굴 못 보는 것 많은 날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此夜相思鬢欲霜 이 밤에 그리워서 귀밑머리 세려고 하네<sup>430)</sup>

#### ② <작지어 나는 제비를 읊다[詠雙飛燕]>

雨打疏簾苦日遲 비가 성긴 발을 때리고 해 더딘 것 괴로운데  
孤懷無語悄然時 외로운 회포에 말없이 처량한 때로구나  
簷前愛見雙飛燕 처마 앞에 작지어 나는 제비 보기 좋으니  
猶勝人生有別離 이별이 있는 사람의 삶보다 낫구나<sup>431)</sup>

위의 인용시들은 고독감을 유발한 근본 원인이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시들과 차이가 있다. ①의 가·승구에서는 빈[虛], 서늘함[涼], 쓰르라미[寒蟬] 등의 표현에서 싸늘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으며, 이는 서늘한 잠자리에서 빈 처마로 들어오는 차가운 달빛을 바라보고 있는 시인의 외로움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전·결구에서는 어

430) 『無何堂遺稿』 冊4.

431) 『無何堂遺稿』 冊4.



면 인물에 대한 시인의 그리움을 여실히 보이고 있다. 만나지 못하는 날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워서 밤에 잠 못 들고 시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홍주원은 보통 그리움의 대상이 있을 경우, 제목에 그 대상을 명시하고 시를 보냈는데, 이 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목 없음[無題]이라는 시제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알아주는 이는 없지만, 볼 사람 없는 시 한 편을 짓는 것으로 그리움을 삼켜내려 하고 있다.

②는 짝지어 나는 제비를 보고 감응되어 지은 것이다. 봄비 내리는 날 해가 더디게 가는 것이 괴로울 정도로 시인은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 이유는 대화할 인물도 없이[無語] 홀로[孤懷] 처량[悄然]히 있는 자신의 상황 때문이다. 이러한 시인과 달리 제비는 빗속이라는 곳은 날씨에도 짝지어 날고 있어 시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 순간만큼은 제비라는 미물이 이별이 있는 인간의 삶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는 표현으로 부러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짧은 시 속에 시인과 제비의 여러 조건을 대비시키면서 고독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루한 일상을 보내는 시인/무언가를 위해 날고 있는 제비, 말없이 홀로 있는 시인/서로 지지귀고 있는 제비, 처량한 시인/짝이 있어 인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제비 등의 상황이 그것인데, 이는 마치 <황조가>의 심상과도 유사하다.

위의 두 인용시들은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단순히 그리움을 홀로 드러내기만 했을 뿐,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거나 ‘그대를 만나러 길을 나선다.’든가 하는 여타 능동적으로 그리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행위의 단서는 찾아볼 수 없다. 즉 그리움을 느끼는 것에서 그친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인용시에 이에 제비가 등장하는 시를 살펴보겠다.

#### <눈 앞의 경관[即景]>

春雨霏霏燕語忙    봄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제비 소리 바쁘네  
小庭塵靜落花香    작은 뜰에는 티끌도 고요하고 지는 꽃은 향기롭네  
重門晝掩無人到    겹문은 낮에도 닫으니 사람이 오지 않고

拋却尊前白玉觴 술통 앞의 백옥잔도 내버려 두었다오<sup>432)</sup>

기구와 승구는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고독한 시인의 마음을 주변 정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연은 주기적인 순환의 흐름에 따라 봄이 되어 비를 뿌리고, 제비는 이러한 봄을 맞아 분주하다. 그러나 인간의 뜰은 티끌조차 고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정적(靜的)으로, 기구의 비가 내리는 모습과 바쁘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제비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룬다. 또한 봄을 맞아 생동하는 자연물 사이에서도 이와 반대로 지고 있는 꽃이 있지만, 지는 순간까지도 향기를 내뿜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눈앞의 경치를 시각·청각·후각적으로 묘사해 생동감을 주었는데, 이러한 생동감이 전경구에서 보이는 시인의 정적이며 고독한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낮에도 겹문을 닫아 사람이 오지 못하게 한 것은 시인의 의지에 의한 자발적인 것이다. 그러나 술통 앞의 백옥잔을 내버려 둔 것은 기실 함께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지로 두문(杜門)했지만, 술을 함께할 사람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은근하게 드러낸 모순적인 상태로 볼 수 있다. 눈앞에서 생동하는 자연을 감상하다 도리어 홀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가을창에 갑자기 새벽비 내리고 짧은 초만이 외로운 사람 짝이로구나[秋窓曉雨急 短燭伴人孤]”<sup>433)</sup>, “손님은 드물어 문은 마땅히 가려놓았고 … 가련하다 여위어 누운 곳에서 누가 외로운 나그네 마음 위로할꼬[客罕門宜掩 … 最憐羸卧處 誰慰旅情孤]”<sup>434)</sup>, “찬 매화는 한창 피었으나 님과 함께 감상하랴 좋은 날을 부질없이 술 한 통으로 저 버리네[寒梅政發誰同賞 虛負良辰酒一樽]”<sup>435)</sup>, “등불 하나 깜빡이는 빈 집만 짝하고 있는데 흙벽에 벌레소리만 날 뿐 밤은 고요하고 서늘하네[一燈明滅伴虛堂 土壁虫鳴夜靜涼]”<sup>436)</sup>처럼 함께할 사람이 없어 외로운 신세임을 다양한 표현과 상황 제시

432) 『無何堂遺稿』 冊4.

433) 『無何堂遺稿』 冊1, 〈次姜公獻臨行寄示韻 其二〉.

434) 『無何堂遺稿』 冊1, 〈次姜公獻臨行寄示韻 其三〉.

435) 『無何堂遺稿』 冊2, 〈咏大雪〉.

436) 『無何堂遺稿』 冊3, 〈效玉連環〉.

를 통해 표현한 바 있다.

이상으로 고독감을 느끼고 내적으로 삼켜낸 시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들은 대체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해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거나, 스스로의 상황에 대한 성찰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독감과 성찰은 현실에 대한 개선이나 극복 의지가 보이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내적으로 침잠시키는 것에서 그친다. 이에 해당하는 시들이 대체로 홀로 있는 상황에서 소회를 읊은 것이라는 이유도 있겠으나, 오히려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솔직한 심정일 가능성이 높다.

## 2) 고독의 외적 표출

1항에서 다른 시들은 고독이라는 문자적 의미에 걸맞게 홀로 느끼고 사유(思惟)한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결과물이었다. 본 항에서는 1항과 달리 고독을 표출하면서 영회(詠懷)하는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고독감을 느끼는 자신의 상태를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심리가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객체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객체는 일반적인 회인시에서처럼 특정인을 지칭하기도 하고, 불특정한 존재로서의 인간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분명한 객체의 존재로 인해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영회와 회인(懷人)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회인시의 연원은 『시경(詩經)』에서부터 비롯된다.<sup>437)</sup>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회인시는 특별하다고 할 수 없는 보편적인 양식이다.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박제가(朴齊家, 1750~1805)가 청(淸) 왕사정(王士禎, 1634~1711)의 「세모회인절구육십수(歲暮懷人絕句六十首)」(칠언절구)와 장사전(蔣士銓, 1725~1784)의 「회인시방장심여(懷人詩仿蔣心餘)」(오언육구)를 흉내내어 지은 이후 문인들에 의해 연작 회인시가 지속적으로 창작된 바 있다.<sup>438)</sup>

그러나 조선 후기에 유행한 이러한 연작 회인시는 기본적으로 대상 인물

437) 정후수, 「李尙迪의 〈懷人詩〉考」, 『한성어문학』 6권, 한성어문학회, 1987, 48면.

438) 박종훈, 「조선 후기 聯作 懷人詩의 사적 흐름과 제 양상」, 『온지논총』 제58집, 온지학회, 2019, 58-59면 참조.

에 대한 그리움에 창작 동인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배경에는 특정한 목적과 의식이 내재되어 있었다. 회인시를 통해 자기의 문학적이고 문화적인 상승을 우회적으로 노출한 경우,<sup>439)</sup>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재확인하여 동류의식을 강화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의 산물로 평가한 경우<sup>440)</sup> 등이 대표적이다. 즉 신분으로 인한 차별 대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인시 창작을 통한 과시, 자기 표출 및 사대부예의 편입 욕구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실증이라고 할 수 있다.<sup>441)</sup> 이와 같은 연작 회인시의 창작은 조선 후기 중인 계층의 경제적·문화적 성취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당시 특정 계층의 입지와 현실을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회인시의 범주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회인시는 그리움이라는 감정과 그리움의 대상인 객체가 있다는 전제 조건이 수반되는 양식이다. 이에 대체로 객체인 대상 인물의 형상화 방식이나 서정시의 일환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sup>442)</sup> 홍주원이 지은 영회시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회인시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주원처럼 작자와 객체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회인시의 특성을 벗어나 특정인이 아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리워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 고독감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2장에서 살펴 본 송별시나 만시들을 보면 그가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복잡한 인간관계 안에서 그는 외로움을 느낀 날들이 많았다.

전술했듯 홍주원의 영회시에서는 특정인이 객체가 되기도, 불특정의 누군가가 대상이 되기도 했다. 먼저 불특정의 누군가가 객체가 된 경우를 살펴보겠다.

439) 정후수, 위의 논문, 59면. 이에 대해 정후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단순히 이상적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 역관사(譯官四官)를 비롯한 모든 중인 계층 문인들의 특징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440) 김동건, 「조선 후기 회인시(懷人詩)의 인물형상화 방식-김석준(金奭準)의 회인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6권 제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참조.

441) 정후수, 위의 논문, 58면.

442) 회인시를 다룬 연구는 김용태, 「玉樹 趙冕鎬 漢詩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배종석, 「梅泉 漢詩의 抒情的 特徵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박종훈, 「楚亭 朴齊家 詩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표가령, 「玉坡 申弼永의 「冽上紀行絶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등이 있다.

〈빗 속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며[雨中懷人]〉

懶慢詩全廢    게을러서 시(詩)는 완전히 그만두어  
吟哦句未成    싯구를 읊어도 완성하지 못하는구나  
佳辰憐舊病    좋은 날 묵은 병으로 가련하나  
末路荷深情    노년에 깊은 뜻을 짊어졌네  
小雨桃花發    가랑비에 복숭아꽃 피었고  
東風燕語輕    동풍에 제비 울음소리 가볍도다  
家家起新火    집집마다 새로운 불을 일으키니  
節序近清明    절기는 청명절에 가까워졌구나<sup>443)</sup>

제목에 보면 비 오는 날 홀로 사람을(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지은 것으로 보이나, 내용상 어떤 인물을 특정할 수는 없다. 전반부에서는 심신의 피폐함을 읊었다. 수련에서는 권태로움으로 인해 시작(詩作)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억지로 읊고 있는 상황을 말했다. 묵은 병과 깊은 뜻을 짊어진 심신의 고단함에 지쳐 있지만, 절기는 자신과 상반된 좋은 날[佳辰]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대비는 경련까지 이어지면서 시점은 시인에서 정경으로 전환된다. 저물어 가는 자신의 처지에 비해 복숭아꽃과 제비는 봄을 맞아 생명을 틔우고 생동감이 넘치며, 집집마다 새로운 불[新火]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청명절이 가까워졌음을 짐작했다.

빗속에서 사람을 그리워하며 지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은 상이하다. 내용만으로는 고독감에 대해 홀로 사유한 것에서 그친 것으로 보이나, 제목과의 연관성을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 앞서 언급한 심신의 피폐함, 자신의 처지와 상반된 좋은 날, 생동감 넘치는 자연물 등의 내외적인 요소들이 고독감을 야기했고, 사람을 그리워하게 만든 요인까지 된 것이다. 제목에 회인(懷人)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특정인이 그리움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막연한 표현이 오히려 시인의 심리 상태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물도 아닌 바로 ‘사람’ 그 자체라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443) 『無何堂遺稿』 冊1.

〈큰 눈이 내려 읊다[咏大雪]〉

忽見頑雲蔽日昏 문득 짙은 구름이 해를 가려 어두워 보이더니  
俄驚積雪失平原 갑자기 놀랍도록 눈이 쌓이며 평원이 사라졌네  
入簾不礙飄飄質 발[簾] 안으로 들어와 나부끼는 성질엔 거리낌이 없고  
着樹都無剪刻痕 나무에 붙으면 자르고 새긴 흉터는 하나도 없구나  
漫興却思尋戴逵 절로 일어난 흥에 도리어 대규(戴逵)를 찾았던 배 생각하나  
孤懷還似閉袁門 외로운 회포는 마치 원안(袁安)의 문 닫은 것 같도다  
寒梅政發誰同賞 찬 매화 한창 피었으나 님과 함께 감상하랴  
虛負良辰酒一樽 좋은 날을 부질없이 술 한 통으로 저버리네<sup>444)</sup>

대설이 내린 것에 감응하여 지은 것이나, 시인의 감정은 결국 외로움으로 귀결되고 있다. 전반부는 경(景)에 치중했는데, 원근의 거리감을 통해 멀리 보이는 눈 내리기 전의 하늘과 눈 쌓인 후의 경치, 가까이서 보이는 눈의 성질에 대해 읊었다. 이어서 경련에서는 두 인물의 전고를 통해 자신의 심정을 우의적으로 표출했다.

5구의 전고는 진(晉) 왕휘지(王徽之)와 대규(戴逵)의 일화로, 왕휘지가 눈 덮인 날 홀로 술 마시다 흥이 올라 섬계(剡溪)에 사는 대규가 보고 싶어 밤새 배를 몰고 갔다가 집 앞에서 흥이 다해 돌아왔다는 유명한 내용이다. 대설이 내렸다는 점과 그에 촉발된 감정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인의 상황과 동일하다. 반면 이를 실행으로 옮긴 왕휘지에 비해 시인은 생각하는 데에서 그쳤다. 6구의 원안(袁安)은 집이 폭설로 눈에 덮였을 때, 다른 집들은 눈을 치우고 음식을 구하러 다녔으나 홀로 “모두 굶주리고 있을 때 남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하며 눈을 치우지 않고 굶주렸던 일화를 말한다. 일차적으로 폭설이 내린 상황의 유사성에서 차용한 것이지만, 시인이 직접 밝혔듯 원안이 고립된 상황에서 느꼈을 ‘외로운 회포[孤懷]’가 말하고자 하는 중점적인 바이다.

결국 고립된 원안처럼 외로움을 느낀 시인은 대규를 찾아갔던 왕휘지처럼 행동할까 생각했지만, 행동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미련에서는 눈과 겨울 때

444) 『無何堂遺稿』 冊2.



화를 함께 감상할 사람이 없어 홀로 술 마시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그러나 눈의 경우는 함련에서 언급했듯 자신의 공간으로 들어와 거리낌 없이 나부끼고, 사물에 붙으면 흥터를 가려주는 등 다른 사물과의 어울림에 위화감이 없다. 매화를 함께 감상할 사람을 기대한 시인에게 부지불식 간에 찾아든 눈은 그 성질처럼 오히려 그의 고독감을 더욱 가중시켰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할 ‘누군가’를 생각만 한 것이다.

연이어 실린 입춘을 읊은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심사가 보인다. “한 방에서 쓸쓸히 만사를 사양하니 적막한 술잔에는 작은 먼지만 생기네[一室蕭然謝萬事 樽疊寂寞生微塵]”<sup>445)</sup>라고 한 것이다. 입춘이라는 좋은 날[佳節] 방 안에서 만사를 사양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술잔에 먼지가 쌓일 정도로 사람이 찾지 않는 신세를 서글퍼한 것이다. 쓸쓸히[蕭然]라는 표현이 시인의 감정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옥연환(玉連環)을 본받다[效玉連環]〉

一燈明滅伴虛堂 등불 하나 깜빡이는 빈 집만 짝하고 있는데  
土壁虫鳴夜靜涼 흙벽에 벌레 소리만 날 뿐 밤은 고요하고 서늘하네  
小逕疎螢飜柳岸 작은 길에 드문 반딧불이 버들 언덕에서 날아다니고  
片雲微雨過蓮塘 조각 구름에서 가랑비가 연꽃 못을 지나는구나  
口因病渴呼杯急 입은 병갈(病渴)로 인해 술잔을 부르는 것 급해졌고  
心爲憂時得句妨 마음은 때를 근심하게 되어 시구 얻는 데 방해로구나  
萬事只宜甘契濶 만사는 다만 멀리 떨어짐을 달게 여김이 마땅하니  
古今榮辱入思量 고금(古今)의 영욕(榮辱)들이 생각 속에 들어오네<sup>446)</sup>

위의 시는 문집 내에서 유일하게 잡체시(雜體詩)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장두체(藏頭體), 옥연환체(玉連環體)라는 명칭을 혼용했으며, 매 구의 첫 글자가 모두 매 구의 마지막 글자에 숨어 있는 시로서, 각 구의 마지막 글자를 파자하여 그 끝부분을 다음 구의 첫 글자

445) 『無何堂遺稿』 冊2, 〈立春日有懷〉.

446) 『無何堂遺稿』 冊3, 〈效玉連環〉.

로 사용하여 시 한 편을 고리처럼 연결되게 지은 것이다.<sup>447)</sup>

전반부에서는 자신이 있는 공간에 대한 묘사로 구성되었는데, 홀로 있는 시인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1구의 등불 하나[一燈]와 빈 집[虛堂]은 시각적으로 등불 하나만 있는 공간에 외로이 있는 시인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2구의 인기척은 전혀 없이 들려오는 벌레 소리와 고요하고 서늘한 느낌은 쓸쓸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3구의 드물게 볼 수 있는 반딧불이 보이는 것도 역시 그만큼 시인의 시선이 닿는 곳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로 볼 수 있다.

음주와 작시로 마음을 달래보려 해도 몸은 병들고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해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별[契濶]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sup>448)</sup> 7구는 모든 일에는 인간관계가 전제되어 있으며, 회자정리가 필연적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결국 모든 일에서 발생하는 이별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지만, 반면에 자신은 그러지 못한 채 고뇌하고 있다. 이별의 대상은 알 수 없으나, 이별 후 홀로 남겨진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마음가짐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확장돼 8구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명예와 치욕은 인간관계에서 유발된다는 사유에까지 이른다.

앞서 살펴본 시들에서는 제목이나 내용에서 특징인은 아니지만 사람 자체를 그리워하는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홀로 있는 공간에 대한 묘사와 특정한 누군가와와의 이별로 촉발된 인간관계에 대한 고뇌를 통해 외로움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앞의 시들보다 우회적인 표현으로 외로움을 노출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sup>449)</sup>

명확한 객체가 있는 고독의 발현이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특징인이 등장

447) 이에 대해서는 이미진, 「조선초 장두체(藏頭體) 및 옥연환체(玉連環體)의 창작방식에 대하여」, 『인문연구』 제75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참조.

448) 옥연환은 시체명이기도 하지만, 송(宋)의 풍애자(馮艾子)가 지은 사패(詞牌)의 이름으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것이기도 하다.

449) 이와 유사하게 홀로 있는 공간을 통해 쓸쓸한 상황을 묘사하고, 누군가와와의 이별로 인한 그리움을 읊은 다음과 같은 시도 있다. “달은 빈 처마를 비추고 잠자리는 서늘한데 풀 사이로 가을 이슬 맺혔고 쓰르라미 우는구나 얼굴 못 보는 것 많은 날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이 밤에 그리워서 귀밑머리 세려고 하네[月照虛簷枕涼涼 草間秋露泣寒蟬 懸知隔面無多日 此夜相思髮欲霜].”. 『無何堂遺稿』 冊4, 〈無題〉.

하는 영화시는 ‘사람’ 그 자체를 그리워한 유형보다 그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러한 시들은 2장에서 다룬 공적인 차원에서 지은 시들과 달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대상들과의 친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무하당유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 400여 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회인시를 지을 만큼 밀접한 관계를 읽어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20회 이상 등장하는 인물은 불과 4명에 불과하며,<sup>450)</sup> 10회 이상으로 그 범위를 넓히더라도 13명에 지나지 않는다.<sup>451)</sup> 문집 내의 인물로 한정된 것이지만, 이는 전체의 3%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이 시사하는 바는 앞서 2장에서 언급한바, 공적 관계에서 기인한 의례적인 작시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집 내 등장인물만의 빈도만으로 그의 인간관계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홍주원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그 지위에 비해 상당히 협소했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을 통해 살펴보겠다. 다음은 친동생인 홍주후의 시를 차운한 것으로, 그는 중부(仲父)인 홍입(洪璽)의 후사로 출계했다. 홍주원은 그의 관로가 풀리지 않는 것을 오랜 기간 근심했다.<sup>452)</sup> 총 7편의 연작시로 구성되어 있다.

- ① <사제(舍弟) 자유(子裕)가 보낸 시를 차운하다 그 두 번째[次舍弟子裕寄示之韻其二]>

別後莫頻落 헤어진 후 명협이 여러 번 떨어졌는데  
離愁轉覺深 이별의 시름 도리어 깊어짐을 깨닫는구나  
看君寄我語 내가 부친 말을 그대가 볼텐데  
慰我憶君心 그대 마음 생각하며 나를 위로하네

450) 외사촌인 이일상(李一相, 1612~1666)이 46회, 강유(姜瑜, 1597~1668)가 29회, 홍명하(洪命夏, 1607~1667)가 26회, 사제(舍弟)인 홍주후(洪柱後, 1613~1657)가 23회이다.

451) 위의 네 사람을 제외하고 이시매(李時樸, 1603~1667)가 17회,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이 15회,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이 12회, 외사촌 이단상(李端相, 1628~1669)이 12회, 홍석기(洪錫箕, 1606~1680)가 12회,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이 11회, 정지화(鄭知和, 1613~1688)가 11회, 박항(朴潢, 1597~1648)이 10회이다.

452) 이와 관련해 과거에 낙방한 그에게 지어준 <贈子裕下第南歸>가 있으며, <又次子裕>의 3구처럼 “그대 응당 과거에 낙방한 것 시름겨워 할텐데[君應愁下第]와 같이 직접적으로 위로하기도 했다. 또한 <送舍弟下第還鄉>의 수련에서 “매번 국화 필 때를 맞으면 어찌하여 이별로 가슴 아픈고[每值菊花時 如何傷別離]”를 통해 그가 연이어 낙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은 모두 『無何堂遺稿』 冊 1.

魂夢知多少 꿈에서나마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  
 池塘自古今 지당(池塘)은 예나 지금이나 같구나  
 折梅無驛使 매화 꺾었으나 역사(驛使)가 없어  
 空費短長吟 부질없이 길고 짧은 노래만 읊는다네

② 〈그 세 번째[其三]〉

念爾羈栖遠 네가 멀리 떨어진 곳에 매여 있음을 생각하니  
 憐吾抱病深 내가 안고 있는 깊은 병 안쓰럽구나  
 音容空入夢 부질없이 음성과 모습이 꿈속으로 들어와도  
 藥裹只關心 다만 약 자루에만 마음이 매이네  
 行樂懷疇昔 잘 놀았던 옛일들을 생각하며  
 歸期待卽今 돌아올 날을 지금까지 기다리네  
 平生鶴鵠曲 평생 할미새 노래 불렀으나  
 腸斷不成吟 애 끊어져 다 부르지 못하겠구나<sup>453)</sup>

인용시는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로, 물리적 거리로 인해 단절된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압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상령(商嶺)의 소식 막혔고 진성(秦城)의 세월은 오래 되었구나[商嶺音書阻 秦城歲月深]”라는 첫 번째 시의 수련을 통해 객체와 시인이 경상도와 서울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험한 길 몇 천리인가[鳥道幾千里]”라는 다섯 번째 시의 3구를 통해 시인이 체감하고 있는 심리적 거리도 짐작할 수 있다.

①은 이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별의 시름이 알아지기는커녕 깊어감을 깨닫는 것으로 동생에 대한 그리움의 크기를 가늠케 하고 있다. 네 번째 시의 3구에서도 “몇 년이나 거듭 이별하게 되었던가[幾年仍作別]”를 통해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축적된 이별의 한을 표출했다. 함련에서는 자신이 보낸 서신을 보고 있을 동생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으로나마 위로로 삼는 시인의 모습은 자못 낭군을 기다리는 여인의 그것과도 유사하다.

현실에서 극복할 수 없는 괴리감은 결국 꿈을 통해 무의식에서 해소되고 있다. 6구에서 언급한 지당(池塘)은 주지하듯 송(宋)의 시인 사령운(謝靈運)

453) 『無何堂遺稿』 冊1.

이 족제(族弟)인 사혜련(謝惠連)을 보고 지은 시구인 “못 가에 봄풀 돋아나고 [池塘生春草]”에서 차용한 것이다. 형제 관계라는 동일성에서 인용한 것으로, 여기서 지당은 시인과 홍주후의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을 상징하고 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공간과 추억은 불변했지만, 이와 반대로 자신들의 처지는 변해 떨어져 있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은연중에 보인 것이다.

미련에서는 안부를 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한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 7구는 송(宋)의 육개(陸凱)가 강남에서 역사(驛使)를 통해 매화 한 가지와 시로 장안(長安)에 있는 범엽(范曄)에게 안부를 전한 일을 말한 것이다. 안부를 전하고 싶어 매화를 꺾어도 전해 줄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길 수 없어 홀로 시만 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화와 시를 통해 안부를 전해야 하는데, 시를 지어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인의 입장에서 이 행위들은 모두 ‘부질없게[空]’ 느껴지는 것이다.

②에서는 ①에서 노출한 일련의 감정들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①의 수련에서 이별의 기간으로 인한 괴로움을 언급했다면, ②의 수련에서는 공간의 차원에서 물리적 거리감이 주는 괴로움을 말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 더해 보고 싶어도 병으로 인해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①의 경련에서는 현실에서의 괴리를 꿈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한 것처럼 언급했으나, ②의 함련에서는 반대로 꿈속에서의 만남이 부질없다며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현실에서의 시인은 꿈에서와는 달리 스스로를 약에 의존하는 병부(病夫)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련에서 언급했듯 즐거웠던 지난 일들을 추억하며 견디면서 헤어진 순간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미련에서는 형제 간의 깊은 우애를 상징하는 『시경』의 ‘척령(鵲鵲)’을 들어 동생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보이고 있으며, ‘평생’을 통해 처음부터 변치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항상 생각하고 있던 만큼 그 그리움은 간절해 짧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차마 다 부를 없는 심정을 ‘애가 끊어진다[腸斷]’는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외에 다른 연작시의 “모든 일에 마음도 사라지려 하네[萬事欲無心]”, “덧없는 인생이 곧 이와 같으니 머리 돌려 홀로 슬피 읊는다네[浮生乃如此]

回首獨悲吟]”, “이별의 시름은 예전보다 곱절이고[離愁倍於昔]”, “적막한 작은 창 아래에서 시 지어도 오직 괴롭게 읊을 뿐이라네[寂寞小窓下 題詩惟苦吟]” 같은 구절들을 통해 동생과의 이별이 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임신하지 못한 그를 위해 “끝내 시작할 날을 보게 될 것이니 명성을 떨쳐 영(郢) 땅에서도 읊게 되리라[終看發軔日 名擅郢中吟]”처럼 격려를 하는 한편 우회적으로 서울에서의 재회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기도 했다.

다음은 유일하게 병서(并序)가 부기(附記)되어 있는 시이다. 원운의 작자인 이시만(李時萬, 1601~1672)은 1647년 사은검동지사에 서장관으로서 홍주원과 동행했으며, 연행 당시 많은 시를 주고받은 바 있다.<sup>454)</sup> 공교롭게도 이시는 두 사람의 몰년인 1672년 작으로, 서로의 집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시인이 함께 술 마시는 꿈을 꾸고 지은 것이다. 두 사람의 대표적인 추억 및 일화들을 소개해 회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문면에는 이시만에 대한 친밀감과 그리움의 정도가 면밀하게 드러나 있다. 먼저 서(序)를 살펴보겠다.

나와 노저(鷺渚) 영형(令兄)은 병을 얻었다가 앞뒤로 낮게 되었다. 증세는 비록 경중의 차이가 있었으나, 병석에서 날 보낸 것은 매한가지였다. 함께 같은 성 안에 있으면서 끝내 해가 다 지나도록 막혀서 만나지 못했으나, 다만 동병상련의 뜻으로 일찍이 마음에 걸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신해년(1671) 정월에 내가 편지로써 안부를 물었는데, 글을 쓰면서 비로소 그 날이 인일(人日)이었음을 깨달았다. 이에 고촉주(高蜀州)가 인일에 시를 지어 초당(草堂)에게 부친 글귀를 읊으면 서도 한스럽게 한 마디도 제대로 읽지 못하여 부치게 되었으니, 또 이 뜻을 글 안에서 말했다. 노저 형이 답서에서 오언율시 한 수를 적어 보내왔는데, 이것은 예전 인일에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대개 계해년(1623) 간에 선군(先君)께서 금릉(金陵)을 주관하실 때에 노저 형이 선춘부(先春府) 존장(尊丈)을 따라서 분포(湓浦)를 갔다가 돌아온 일이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금릉(金陵)도 지나가다 들렀다. 선군께서 때마침 단양(丹陽) 당숙(堂叔)과 아헌(衙軒)에 함께 거처하셨는데, 좋은 손님이 때마침 이르렀기 때문에 술자리를 베풀고 감회를 서술했다. 당시 노저 형은 나와 함께 술자리를 모시

454) 이에 대해서는 拙稿, 「연행록 속 교유시의 양상과 의미-이시만(李時萬)과 홍주원(洪柱元)의 차운시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제40집, 한성어문학회, 2019 참조.



는 반열에 있었는데, 단양 당숙이 운을 불러 그에게 시를 짓게 했다. 노저 형은 그 자리에서 이 시를 지었다. 나 또한 그것에 화운했으나, 나는 아득하여 기억하지 못했으니 마치 전생의 일만 같았다.

아! 계해년은 지금과 49년이나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몇 번이나 상란(喪亂)과 비환(悲歡)을 다 겪으면서 이런 쇠약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또 큰 병의 끝에서 능히 이 시를 어제의 일처럼 분명하게 기억하니, 정신이 어긋나지 않았고 기억력이 남들보다 뛰어나 나로 하여금 경복(敬服)케 하였으니, 또한 부러워할만 하다. 이에 우리들이 여러 세대동안 한 마을에서의 사귀를 생각하면, 나이는 비록 견수(肩隨)해야 하나, 어린아이를 벗어나면서부터 서로 소자(小字)를 부르면서 사귀었다.

계해년에 이르러 나는 이런 몸이 되었고, 영형은 청운(靑雲)에 올랐다. 날아오르는 지경과 적막한 물가처럼 각각 그 길은 달랐으나, 다행히 정동(貞洞)에서 거둬 좋은 이웃이 되었다. 종일토록 서로 따르고 술 마시면서 단란한 것은 어찌 조물자(造物者)가 그 사이에 뜻이 있어서 우리 두 사람을 다시 지난날의 좋음으로 이어지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정해년(1647) 겨울에 나와 영형은 함께 이역(異域)으로 가게 되어 만 리의 긴 여정에서 함께 실컷 고생했다. 읊으면 반드시 수창을 하여서 어느새 시축을 완성했으니, 또한 어찌 숙연(宿緣)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겠는가. 유독 한스러운 것은 세월이 차츰 흘러가 사람의 일도 쉽게 변하여 영형은 세상의 배척을 받아 강 밖에서 정처 없이 살게 되었으며, 나 또한 병을 안고서 약을 먹으며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또 노년에 모두 참절(慘絕)의 상이나 종정(鍾情)의 아픔을 당하였다. 어찌 세월의 깊고 얕음으로 인하여 같지 않은 바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은 평생토록 일찍이 악한 일은 한 적이 없으나 귀신의 미워하는 것은 이미 말할 필요도 없게 되었고, 하늘의 배품의 천착(舛錯)함이 한결같이 어찌 여기에 이르렀는가. 생각이 살고 죽는 것에 미치니 다만 스스로 슬프고 목이 뎀 뿐이다.

근래에 듣자하니 영형은 저갓거리로 옮겨 산다던데, 나의 집과 거리가 조금 가깝다. 그러나 각각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안고 있어 만날 수가 없었다. …중략… 지난밤 꿈에 영형과 함께 정동(貞洞) 집에서 마주하고 술을 마셨는데, 완전히 예전과 같았다. 그러다 오늘 아침 영형의 심부름꾼이 이르렀으니, 어찌 서로 느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마침내 그 운을 밝아 베껴서 드리니, 다른 날 꿈을 증험하는 것으로 삼고자 한다.<sup>455)</sup>

455) 『無何堂遺稿』 冊1, 〈次李鷺渚時萬昔年人日韵并序〉, “余與鷺渚令兄 得病差先後 症雖有輕重之殊 沉綿度日則一也 同在一城之內 而遂值終歲之阻隔 只以同病相憐之意 未嘗不懸懸矣 歲辛亥元月 余作書以候之 臨書始覺其日爲人日 仍吟高蜀州人日題詩寄草堂之句 恨不能構一語以寄之 且及此意於

노년을 병석에서 보내고 있는 두 사람은 가까운 거리임에도 만나지 못했으나, 시인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항상 이시만을 생각하고 있었다[只以同病相憐之意 未嘗不懸懸矣]는 것으로, 동질감과 함께 그리움을 드러냈다. 이어서 1년 전 인일(人日)에 시인이 안부를 전한 것에 이시만이 과거 인일에 지은 시를 답서로 보내준 것이 창작 동기가 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50여 년 전 일을 추억하면서 선대 때부터 이어져 온 인연과 서로 소자(小字)를 부르는 친밀한 관계임을 보였다.

1623년 시인은 부마가 되었고, 이시만은 청운에 올라 앞길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으로서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었음은 조물주의 뜻이라고 언급하며 운명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역만리인 여행길에 동행했던 일까지 들어 두 사람의 관계를 숙연(宿緣)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런 호시절들은 모두 지난 일에 불과했고, 현재 이시만은 세상의 배척을 받아 강 밖에서 지내며, 시인도 약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이 두 사람 모두 말년에 참절(慘絕)과 종정(鍾情)이라는 동일한 아픔까지 겪었다. 평생 악한 일을 한 적 없다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괴로움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함은 귀신의 미워함은 물론이거니와 하늘의 배움의 착오(舛錯)로 인한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우리들[吾輩]이라는 표현의 동류의식으로 묶음으로써 동질감을 발생시키고 서로 위안으로 삼고자 한 의도가 깔려있다.

말미에서는 근래에 들은 이시만의 소식과 만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지난밤 꿈에 함께 술 마신 것을 언급했다. 그런데 마침 다음날 이시만의 심부름꾼이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은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이 통한 것이라 여겼으

書中矣 鷺渚答書 書送五言律一首 是昔年人日所作云 蓋癸亥年間 先君宰金陵時 鷺渚隨其先春府尊丈 有往還濠浦事 歸路歷入金陵 先君適與丹陽堂叔同處衙軒 喜佳賓適至 仍設酒叙懷 時鷺渚與余俱在侍酒之列 丹陽堂叔呼酌使之賦詩 鷺渚即席題此詩 余亦和之云 而余則茫然不記 有若前生事 噫 癸亥距今四十有九歲矣 其間閱盡幾番喪亂悲歡 而到此衰老之境 又於大病之餘 能記此詩了了若昨日事 令精神之不爽 記性之過人 令人敬服 亦可羨也 仍念吾輩累世同閨之交 齒雖肩隨 自免孩提 相呼小字而追逐 及至癸亥 我作此身 令登雲路 飛騰之境 寂寞之濱 各殊其途 而幸於貞洞 重作芳隣 鎮日相隨 盃酒團樂者 豈非造物者有意於其間 而使吾兩人 更續前好耶 丁亥冬 余與令同作異域之行 萬里長程 共飽艱辛 有唱必酬 居然成軸 亦豈非宿緣而然也 獨恨年光荏苒 人事易變 令爲世擯 棲遑江外 余亦抱病 藥餌爲命 又於遲暮之年 均遭慘切之喪 鍾情之慟 豈因歲月之淺深 而有所不同也 吾輩平生 曾無作惡之事 鬼神之忌疾 已不須言 而天之報施之舛錯 一何至此耶 念及存亡 只自摧咽 近聞令移寓閩中 去鄙家稍近 而各抱難醫之病 未由會面 … 中略 … 去夜夢中與令對酌於貞洞第 宛若平昔 今朝令倅至矣 豈有相感處而然耶 遂步其韻 倩寫以呈 以爲他日驗夢之地云。”

며, 이에 지난날 이시만이 인일에 지어 보내준 시를 차운하여 보내는 것임을 밝혔다.

서문을 붙인 것도 이 시가 유일하거니와 시제조차 산문형으로 짓는 경우가 드문 홍주원의 작시 경향상 독특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sup>456)</sup> 또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일대기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시를 살펴보겠다.

〈노저(鷺渚) 이시만(李時萬)의 예전 인일(人日)의 시를 차운하다[次李鷺渚時萬昔年人日韻并序]〉

人日詩重寄    인일(人日)에 시를 거듭 부쳐 주었는데  
當吾病擁裘    나는 병으로 갓옷을 입고 있다네  
非關蜀州作    촉주자사가 지은 것과는 관계없으나  
還有杜陵愁    도리어 두릉(杜陵)의 근심 있구나  
身世憐蝸甲    신세가 매미 허물처럼 가련한데  
春光憶鷺洲    봄빛은 노주(鷺洲)를 생각나게 하네  
親朋零落盡    벗들은 점점 사라지니  
轉覺此生浮    갈수록 이 삶이 부질없음을 깨닫는구나

전반부는 작시의 동기가 되었던 인일(人日)에 대해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명절처럼 시를 주고받는 날로, ‘거듭’ 인일에 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인해 답하지 못한 미안함을 말했다. 이에 인일의 대표적인 고사이면서도 두 사람의 상황에 합치하는 전고를 차용했다. 고적(高適)이 촉주자사(蜀州刺史)로 있을 때 그의 친구인 두보(杜甫)에게 보낸 〈인일기두이습유(人日寄杜二拾遺)〉에 두보가 10여 년 후 시를 발견하고 화답시를 지은 것이 그것이다.

후반부에서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자신의 처지를 매미 허물[蝸甲]에 비유했는데, 이는 가지에 붙은 매미 허물처럼 움직일 수 없어 쓸모없어진 병든 자신의 신체를 말한다. 그러나 정신은 봄빛에 감흥을 받아 노주(鷺

456) 유독 이시만에게 보낸 시의 경우에만 산문형의 제목으로 짓거나, 자주(自注)를 통해 상황을 부기한 경우들이 잦았다. 〈孫兒冠禮日 偶有所吟 鷺洲令兄 聞而遂和其韻二篇寄示 感玩之餘 復次以呈 韻甚強矣 詩云乎哉〉의 제목이 여기에 해당하며, 〈又次鷺洲前韻〉의 경우 3편의 연작시인데, 매 시마다 자주가 부기되어있다.

洲)를 추억하게 했는데, 이는 이시만의 아호 가운데 하나인 노주(鷺州)까지 고려한 중의적이면서 재치 있는 표현이다. 시인에게는 노화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어려움에 동년배들이 점점 죽어가는 것을 목도하면서 생긴 정신적 괴로움까지 더해졌다. 실제로 이일상, 강유, 홍명하 등 홍주원과 절친했던 인물들은 1666년부터 해마다 죽음을 맞았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 두 번째 시에서는 신선의 힘을 빌려도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병에 대해 언급하면서[抱病淹三載 尋眞杳十洲]도 이시만과 꿈에서 나눈 술잔을 떠올렸다[分明前夜夢 共酌綠蛆浮]. 이는 서에서 언급했듯 후일에 이 꿈을 증험하기 위한 역할로 삽입된 것이기도 하다.

안부에 대한 답서에서 받은 시와 지난 밤의 꿈, 당일 아침에 소식을 전하러 온 심부름꾼 등의 상황이 작시의 동인이 되었는데, 추억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회고와 직접 만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괴리로 작용해 이시만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고 있다.

다음은 기천(沂川) 홍명하(洪命夏)가 1659년 반송사(伴送使)로 가게 되었을 때, 이일상(李一相)에게 부친 시를 보고 차운한 것이다.

〈반송사(伴送使) 기천(沂川)이 청호(靑湖)에게 부친 시를 차운하다[次伴送使沂川寄靑湖韻]〉

吾儕晚景幸相依    우리들 늙그막에 다행히 서로 의지하고 있는데  
乍別還驚折柳絲    잠깐의 이별에도 도리어 놀라 버들가지 꺾었다네  
佳節一年淹舊病    한 해의 좋은 날 묵은 병에 잠겨 있는데  
故人千里有新詩    천 리의 친구 새로운 시를 지었구나  
天涯物色驚初囀    하늘 끝의 물색은 피꼬리가 비로소 지저귀는 때인데  
關外山川馬亦知    관외의 산천을 말 또한 알고 있겠지  
已了王程行役債    나랏일 행역의 빚을 이미 마쳤으니  
莫教歸旆更遲遲    돌아오는 깃발은 다시 더딘 걸음을 하지 마시길<sup>457)</sup>

홍명하와 이일상은 가장 많은 교유시를 남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제목에

457) 『無何堂遺稿』冊2.

서 명시했듯 홍명하가 이일상에게 부친 시를 함께 열람하고, 그 시에 차운한 것이다. 1구에서도 우리들[吾儕]이라는 표현과 서로 의지하는 관계로 규정한 것을 통해 친분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2구는 당시 홍명하가 약방 제조로서 병간호를 신중히 하지 못해 관직을 삭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변사에서 홍명하의 기용을 청해 반송사로 선발되어<sup>458)</sup> 예기치 못한 이별에 놀랐던 것으로 보인다.

좋은 날에도 불구하고 묵은 병으로 고생하던 시인은 원정(遠程)을 떠난 친구의 소식에 자신에게 부친 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운까지 하며 반색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기천이 보고 있을 관외의 가을 물색을 상상하면서 공무를 마친 그가 서둘러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있다. 잠깐의 이별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천에 대한 그리움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있다.

인용한 시 외에도 기천이 반송사로 가 있는 기간 동안 3편의 시를 부치고, 기천이 보낸 시에 차운한 1편의 시가 더 있다. 모두 인용시와 유사한 맥락에서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중심으로 걱정,<sup>459)</sup> 돌아올 날에 대한 기대,<sup>460)</sup> 이별의 한스러움<sup>461)</sup>, 친분 과시<sup>462)</sup> 등의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가장 많은 교유시를 남긴 외사촌 이일상에게 부친 시로, 그가 대제학에서 면직된 후 7개월 간 교외에서 대죄(待罪)한 기간에<sup>463)</sup> 지은 것이다.

#### 〈청호(靑湖)에게 부치다[寄靑湖]〉

458) 관련 내용은 『현종실록』 즉위년(1659) 10월 1일, 〈홍명하를 다시 기용하여 원접사로 삼다〉에 자세히 하다.

459) 『無何堂遺稿』 冊2, 〈又步前韻 寄沂川〉, “나그네 상황 응당 근심스러워 하루가 일년 같겠지[旅況應愁日抵年]”, 『無何堂遺稿』 冊2, 〈次沂川到新安寄示韻〉, “나그네 길은 지루하게도 앞뒤가 똑같아 … 무너진 성가퀴의 희미한 피리소리 견딜 수 있으랴[支離客路同前後 可堪殘堞隱悲笳]”

460) 『無何堂遺稿』 冊2, 〈又步前韻 寄沂川〉, “어찌해야 만전(萬錢)짜리 봄술을 얻어 그대와 함께 마주하고 거나하게 취할까[安得春醪斗十千 與君相對醉陶然]”

461) 『無何堂遺稿』 冊2, 〈又次前韻 寄沂川〉, “부질없이 이별의 한을 오사란(烏絲欄)에 쓴다네 … 외로이 읊으니 특별히 사람 그리워지는 곳이 있는데[謾將離恨寫烏絲 … 孤吟別有懷人處]”

462) 『無何堂遺稿』 冊2, 〈又次前韻 寄沂川〉, “천 리의 정신은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니니 백 년의 심사(心事)를 다만 서로 알고 있을 뿐이다[千里精神渾不隔 百年心事只相知]”

463) 관련 내용은 『현종실록』 3년(1662) 3월 21일, 〈대제학 이일상이 면직되다〉 참조.

春明門外卽天涯 춘명문(春明門) 밖은 하늘 끝인데  
 歲暮相思鬢雪華 12월에 서로 그리워하니 귀밑머리는 눈꽃이네  
 都尉向來常伏枕 도위(都尉)는 지금까지 항상 베개에 엎드려 있는데  
 尙書幾日定還家 상서(尙書)는 어느 날에 바야흐로 집으로 돌아오려나  
 終朝小雨仍微霰 아침 내내 오던 가랑비는 이윽고 사라지는 되었으니  
 未臘寒梅已落花 납월도 되기 전에 찬 매화는 이미 꽃이 떨어졌구나  
 聞道倚樓同屏迹 듣자하니 누대에 기댄 채 자취 감춘 것 매한가지니  
 世間行路儘堪嗟 세간의 행로(行路)는 참으로 한탄만 나오네<sup>464)</sup>

수련에서부터 이일상의 처지에 대한 시인의 근심을 표현했다. 교외라고는 하지만 도성에서 물리적으로 멀지 않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끝[天涯]’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대죄하고 있는 이일상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시인이 체감하는 심리적 거리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곧 대제학으로서 조정예, 지음으로서 자신의 곁에 있었던 때에 대한 그리움의 정도이기도 하다. 2구 역시 눈꽃[雪華]이라는 시어로 12월이라는 계절과 이일상에 대한 근심의 정도를 동시에 표현했다. 그러나 드러난 그리움의 정도와 달리 실제로는 이일상을 자주 방문해 위로했다.<sup>465)</sup>

경련에서는 내리던 비가 눈이 될 만큼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함께 납월(臘月)이 되기도 전에 떨어진 매화를 안타까워했다. 추워진 날씨와 떨어진 꽃의 이미지는 이일상과 시인의 현실 및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매화를 감상하며 함께 즐기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기도 하다.<sup>466)</sup>

미련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출처(出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7구는 두보가 “훈업을 염려해 자주 거울을 보고, 출처에 어두워 홀로 누각 기대노라

464) 『無何堂遺稿』 冊3.

465) 『無何堂遺稿』 冊5, 〈祭靑湖李尙書一相文〉, “이름이 높아 많은 이들이 질투하여 참소하는 자들이 마침내 해를 끼쳤네 말을 교묘히 엮은 것이 심했으며 비방이 지나쳐 억울했다오 그대는 당시 자취를 감추었는데 저 역촌(驛村)이었다네 나는 날마다 방문하여 문득 술통을 열라 명했다네 좋은 말로써 위로했지만 마음은 쪼개지는 것 같았다네[名高衆忌 讒者遂基 言甚蓼蓍 謗過薏苡 君時屏跡 于彼驛村 我日往訪 輒命開樽 好言以慰 心則如割]”

466) 『無何堂遺稿』 冊3, 〈冬至日寄靑湖〉의 수련에서 “사람 그리워하며 홀로 앉아 서루(書樓)를 단았는데 매화 아래에서 한 번 놀 자리 마련할 계기가 없구나[懷人獨坐掩書樓 梅下無因辦一遊]”라고 한 바 있으며, 4구에서는 “늙그막의 심사는 역촌(驛村)에 머무른다네[暮年心事驛村留]”라고 하며 그에 대한 근심과 그리움을 표현했다.



[勳業頻看鏡 行藏獨倚樓].”라고 한 것을 차용한 것이다. 여기서는 늙도록 공훈과 업적을 이루지 못해 조바심을 낸 두보가 홀로 우두커니 누대에 기댄 것을 말했다. 그러나 누대에 기댄 채 홀로 고민하는 상황은 두보의 그것과 같지만, 출처 자체로 고민한 두보와 달리 이미 대제학까지 오른 이일상의 처지는 그와 다르다. 공훈을 쌓지 못해 고민하는 자와 공훈을 쌓아 청운의 자리에 이르렀음에도 정쟁(政爭)으로 인해 난처해진 입장이 그러하다. 결국 어떤 처지에 있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行路]은 한탄만 나온다는 것을<sup>467)</sup> 통해 이일상을 위로하고자 한 의도가 보인다.

인용시 외에도 이일상이 대죄하던 기간에 다섯 편의 시를 보낸 바 있는데, 대체로 그를 위로하기 위한 내용으로 점철되어있다. “맑은 얼음은 작은 먼지조차 받지 않으니 상서로운 봉황이 어찌 기이한 새의 울음소리를 용납하라[清水不受纖塵累 祥鳳寧容恠鳥喧]”<sup>468)</sup>에서 이일상을 ‘맑은 얼음’과 ‘상서로운 봉황’에 비유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작은 먼지’와 ‘기이한 새의 울음소리’에 빗대어 질시로 인한 참소로 억울하게 면직된 상황을 읊으며 이일상의 과실이 없음을 말했다. 또한 “평소 밀실에서 거처하기에 괴로움을 아는데 도리어 거친 들판에서 살아도 추위를 참을 만하겠지[平居密室猶知苦 遷次荒郊可耐寒]”를 통해 외로움에 대한 공감과 거친 들판의 추위라는 육체적 고통은 참을 만하다는 표현으로 이일상의 심적 괴로움이 얼마나 클지 공감하기도 했다. “상서(尙書)가 성곽 밖에서 머무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데[最憐尙書淹郭外]”라며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과의 모임이 어긋나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그가 남긴 시에 차운한 것을 살펴보겠다.

#### ① <백헌(白軒)이 남긴 시를 차운하다[次白軒留題]>

尊前後約小桃前 술통 앞에서 뒷날을 약속한 것이 작은 복사꽃 앞이었는네  
勝事差池世故牽 좋은 일은 순탄치 않고 세상일에 끌려다닌다네

467) 같은 의미로 『無何堂遺稿』 冊3, 〈寄靑湖〉 5구에서 “세상길은 태항산(太行山)과 같아 예로부터 험난한데[世路太行從古險]”라고 하기도 했다.

468) 『無何堂遺稿』 冊3, 〈次靑湖來寓東郊寄示之韻〉.

昨日又違花下會 어제 또 꽃 아래의 모임이 어그리졌으니  
一春行樂付誰邊 한 봄의 즐거움을 누구에게 부쳐야 하나

② 〈그 두 번째[其二]〉

春光無限小堂前 봄빛은 작은 집 앞에서 끝이 없으니  
紅杏初開細柳牽 붉은 살구꽃 막 피었고 가는 버들 하늘거리네  
三五更逢今夜月 보름이라 다시 오늘 밤의 달을 만났으니  
却思同醉酒爐邊 함께 취하여 술 화로 가에 있던 것 떠오른다오<sup>469)</sup>

①에서는 지난날 꽃을 감상하며 후일을 기약했었으나, 누군가의 사정으로 인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구에서는 본래 좋은 일[勝事]은 순탄하지 않은 법이며,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말로 어긋난 모임의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3구에서 ‘또[又]’를 통해 이런 적이 처음이 아님을 보이면서 아쉬움 역시 감추지 않고 있다. 시인은 이로 인해 짧은 기간밖에 즐길 수 없는 봄의 즐거움을 기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②에서는 봄의 즐거움과 함께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자 했다. 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 중 하나인 붉은 살구꽃과 하늘거리는 버들가지를 통해 색채감과 생동감 넘치는 봄의 모습을 한 구절에 담아냈다. 또한 보름달까지 뜬 밤이라 예전에 함께 했던 복사꽃 앞에서의 모임이 생각난다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모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켜지지 못한 약속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은 시인의 기대감에 비례하며, 이는 곧 이경석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과 그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으로 치환할 수 있다.

이상으로 고독을 표출하면서 영회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자신의 심회를 읊은 시들이 많지 않은 홍주원에게 영회시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독감을 표출하며 누군가를 그리워한 것이다. 그리움의 대상은 특정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이기도 했다. 먼저 ‘사람’ 자

469) 『無何堂遺稿』冊4.

체를 그리워한 경우에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사색을 통해 관계에 대한 사유로까지 확장되기도 하였다. 또한 객체가 특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물을 비롯한 전고에 의탁하여 감정을 형상화하고자 했다. 반면에 특정인이 그리움의 대상일 경우에는 객체가 명확한 만큼 그리움의 정서가 보다 확실하게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그 감정을 우회적·우의적인 방법을 통하기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즉, 고독의 외적 표출은 영화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읊은 소회는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측면에서 회인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겠다.

### 3) 고독 극복의 방식

고독은 인간에게 있어 일반적으로 고통의 감정으로 인식되어 극복의 대상으로 치부된다. 그러나 고독감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독은 깊이 있는 사유 및 성찰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창작 동인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감정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고독은 인간이라면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로든 경험하게 된다. 개인에 따라 간혹 고독을 즐기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극복해야 할 감정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고독을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성향에 따라 즐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탈피나 극복의 대상으로만 치부하기보다는 개인에 따른 대처 방식의 차이로 봐야 한다.

홍주원과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고독에 대한 다른 인물들의 대처 사례를 살펴보겠다. 유만주(兪晩柱, 1755~1788)는 고독 속에 침잠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발휘하면서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치밀한 상상의 공간을 창조했다. 이는 이상향이자 치유의 공간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고독의 침잠을 통한 긍정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반면에 고독한 처지는 세상의 최고 형벌이며, 천하의 지극한 괴로움이라고 토로하는 양면성을 보이기도 했다.<sup>470)</sup>

여호(黎湖) 박필주(朴弼周, 1680~1784)는 부모의 부재로 인한 고립감을

470) 윤세순, 「18세기 사대부 지식인 유만주의 고독」, 『漢文學論集』 제38집, 근역한문학회, 2014, 참조.

선대와 유대의식 및 학문이나 내적 공통성에 근거한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대처했다. 이러한 대처 방식의 일환으로, 관서지방을 여행하며 선조들의 자취를 찾으며 자신의 존재 기반을 확인하기도 했다. 작시에 있어서는 주로 꽃을 읊었는데 매화, 국화, 연꽃 등 전통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꽃들을 선호했다. 그 중 매화를 읊은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내적으로 강건한 정신을 단련하려는 그의 지향점과 조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 바 있다.<sup>471)</sup>

원천석(元天錫, 1330~?)의 고독에 대한 대처 방식은 평범한 편에 속한다. 가장 쉬운 방식인 음주와 시 읊기, 음악 감상과 독서, 지인 방문, 여행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행과 같은 일부 방식을 제외하고는 소극적·수동적인 방식으로 고독이 수월하게 극복되지 않고, 도리어 더 강화되고 심화되었다.<sup>472)</sup>

둔촌(遁村) 이집(李集, 1327~1387)의 경우 자기 응시를 통한 고고(孤高)한 삶을 지향했다. 소나무와 국화에 자신의 심정을 기탁하면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자신과 같이 올곧은 정신으로 세상과 부딪치면서도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는 두 사물에 정신적 위안을 받는 것으로 고독에 대처했다.<sup>473)</sup>

연경재(研經齋) 성해응(成海應, 1760~1830)은 사회적 소외와 상실감, 심각한 수준의 궁핍 등의 심적·경제적·신체적 고통이 동반되면서 점차 심화되는 고독을 경험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 시문을 저술하거나, 한단지몽(邯鄲之夢), 남가일몽(南柯一夢), 호접지몽(胡蝶之夢) 등의 전고를 인용하여 인생무상을 강조하고 현실에의 초탈을 지향했다. 또 우주 무한의 논리로 현실을 초극화함으로써 고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sup>474)</sup>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은 스스로를 세상과 격절된 존재로 여기고 고독과 비애에 괴로워했다. 그는 남들과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면서 스스로를

471) 이은주, 「黎浩 朴弼周의 시에 나타난 고독감과 극복양상」, 『한국한시작가연구』 14권, 한국한시학회, 2010, 참조.

472) 남궁달, 「元天錫의 漢詩에 나타난 孤獨의 樣相」, 『한문고전연구』 제8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4, 참조.

473) 이희영, 「遁村 李集 한시의 일 양상-隱逸생활과 관련하여」,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16, 한국어문학회, 2011, 참조.

474) 손혜리, 「성해응 문학에 표출된 고독의 양상과 의미」, 『漢文學論集』 37권, 근역한문학회, 2013, 참조.

‘남다른’ 존재로 인식했다. 이러한 시선 속에서 그는 나그네/이방인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면서 ‘蓬’에 자아를 투영했다. 이는 단순한 자기 위로나 자기 변명에 그치지 않고 진심을 담은 삶의 지향이 되어, 이것이 바로 자신의 분수에 편안한 방법[安分]이라 받아들여지게 된다.<sup>475)</sup>

이상과 같이 고독에 대한 대처 방식은 개성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창작을 통해 고독감을 토로했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데, 홍주원 역시 앞서 1, 2항에서 살펴봤듯 시를 통해 내적 침잠과 회인이라는 형태로 고독감을 표출했다. 고독을 내적으로 침잠시킨 경우 위로 받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해 고독이 더욱 선명해졌다. 고독을 표출하며 회인(懷人)하는 사례에서는 객체가 제시된 만큼 그리움의 정서가 보다 명징하게 드러났다. 즉 전술했던 양상들은 작시를 통해 고독과 그리움의 정서가 선명해지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본 항에서는 꽃과 술을 매개로 타인들과 교유하며 고독에 대처한 양상의 시들을 살펴보겠다. 홍주원에게 있어 시와 술, 꽃은 모두 고독을 포함한 근심을 떨쳐내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다. 시에 있어서는 “근심스러울 때 짧은 시 짓지만[憂時有短律]”<sup>476)</sup>이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지만, 기묘년(1639)에 집안 여복이 연루된 옥사 사건 이후 5년간 두문불출하던 시기와 반청의식을 품은 채 4차례 여행을 갔던 때조차도 작시 활동만큼은 멈추지 않았다.

술에 대한 기호 역시 평생 한결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번 생은 가는 곳마다 술로 세월을 보냈으니[此生隨處酒爲年]”<sup>477)</sup>처럼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술을 꼽을 정도였다. 또한 “평생 살아갈 계획은 한 동이 술에 가득하니[平生活計一尊盈]”<sup>478)</sup>나 “시름을 풀려면 오직 술로 병사를 삼는 것 뿐이라오[破愁惟有酒爲兵]”<sup>479)</sup>처럼 술을 찬양하거나, 근심 해결 방안으로 술을 자주 찾았다.

475) 곽은정, 「柳夢寅 漢詩에 보이는 ‘蓬’을 통한 자아 형상화」, 『동양학』 59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5, 참조.

476) 『無何堂遺稿』 冊1, 〈次公獻韻〉.

477) 『無何堂遺稿』 冊2, 〈次朴德雨韻 其三〉.

478) 『無何堂遺稿』 冊4, 〈次咸卿端陽十絕寄子和之作 其六〉.

479) 『無何堂遺稿』 冊4, 〈再次 其六〉.

꽃에 있어서는 폭넓은 취향과 적극적인 활동력을 보였다. “나무 심고 꽃 가꾸며 이번 생을 보냈으니[種樹栽花送此生]”<sup>480)</sup>나 “작은 동산의 복사꽃과 오얏꽃은 바로 내가 관리하니[小園桃李是吾司]”<sup>481)</sup>에서 알 수 있듯 직접 정원을 가꾸기도 했으며<sup>482)</sup> 평생 화훼에 대한 취미를 즐겼다. 나아가 단순히 재배와 감상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인들과 나누거나,<sup>483)</sup>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sup>484)</sup>

이러한 기호들은 “인생에선 자적(自適)이 중요한데[人生貴自適]”<sup>485)</sup>라며 스스로의 만족을 중시했던 그에게 있어 괴로움을 버틸 수 있음과 동시에 평생을 즐겼던 만큼 동반자적인 역할까지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술과 꽃은 다른 성격의 사물인 만큼 애호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단적으로 술이 인위적 산물인 반면 꽃은 자연물이며, 타인과의 음주가 대체로 흥을 바탕으로 한 동적인 행위라면 꽃을 감상하는 것은 정적(靜的)인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꽃과 술을 매개로 타인과의 교유를 통해 고독에 대처한 양상도 사물의 성격과 애호의 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로 이어졌다.

먼저 꽃을 매개로 삼은 시들을 살펴보겠다.

#### 〈뜰의 매화를 읊다[詠庭梅]〉

一樹庭梅好 한 그루 있는 뜰의 매화가 좋으니  
移從何處栽 어느 곳에서 옮겨와 심었는고  
休誇先臘破 선달보다 앞서 피었다고 자랑하지 말게  
自得入春開 봄에 들어가면 절로 피어나겠지

480) 『無何堂遺稿』 冊4, 〈次汾西覓花韻〉.

481) 『無何堂遺稿』 冊4, 〈寄公獻 其四〉.

482) 『無何堂遺稿』 冊1, 〈課菜圃偶吟〉의 “전날 밤 한 번의 비로 충분하여 푸른 덩굴이 이미 밭두둑에 가득하네[前宵一雨足 綠蔓已盈畦]” 같은 구절을 통해서 취미로서 화훼활동이 그에게 있어 일과라고 여길만큼 일상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483) 수박씨(〈和東淮韻 送眞西瓜種〉, 〈和德甫求西瓜種之韻〉), 총죽(〈答朴尙之寄詩求叢竹〉), 국화 화분(〈寄呈金歸隱佐明 仍送盆菊〉, 〈寄呈同春 仍送盆菊〉, 〈寄送盆菊於金一正 仍呈一絕〉) 등을 나눠준 사례가 있다.

484) 〈書寄金水部自珍求蓮盆〉, 〈寄大哉乞菊〉 등에서 연꽃화분이나 국화를 요청한 사례를 볼 수 있다.

485) 『無何堂遺稿』 冊1, 〈贈堂弟鼎卿赴醴泉 其五〉.



嗅愛清香近    맡아 보면 맑은 향기 가까워 사랑스럽고  
 看疑白雪堆    바라보면 흰 눈이 쌓여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네  
 姚黃與魏紫    요황(姚黃)과 위자(魏紫)는  
 比爾儘堪哈    너와 비교하면 참으로 우습도다<sup>486)</sup>

홀로 매화를 감상하는 상황에서 일절 다른 내용 없이 오직 매화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마치 매화에게 말을 하는 듯한 대화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sup>487)</sup> 영물시(詠物詩)가 드물기도 하지만, 이런 구성은 홍주원의 시작 경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뜰에 있는 유일한 매화는 어느 곳에서 온 것인지 궁금할 정도로 관심이 가고 좋아하는[好] 대상이다.<sup>488)</sup> 그러나 함련에서는 음력 12월[臘]의 한창 추운 계절에 다른 꽃들보다 먼저 핀 것을 자랑하지 말 것을[休] 단호하게 말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 봄이 되면 다른 꽃들도 절로 피어나듯 개화의 시기에는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경련에서는 다시 태도를 전환해 자랑할 만한 매화의 매력에 대해 읊었는데, 전통적으로 선비들이 매화를 사랑한 이유 중 하나인 향기와 빛깔이 그것이다. 맑은 향은 사랑스럽다[愛]고 직접적으로 찬양했으며, 색채는 흰색의 대명사인 눈에 비견될 정도로 느끼고 있다. 시인의 시각과 후각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 매화를 미련에서는 비교 대상을 통해 다소 과장되게 표현했다. 7구의 요황(姚黃)과 위자(魏紫)는 당(唐) 낙양(洛陽)의 요씨와 위씨 집안에 핀 황색과 자주색의 진귀한 모란이다. 화왕(花王)인 모란 중에서도 희소가치가 있는 명품 종으로, 송(宋)의 구양수(歐陽修)가 〈낙양모란기(洛陽牡丹記)〉에서도 언급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에게 있어 눈앞의 매화와 비교하면 우

486) 『無何堂遺稿』 冊1.

487) 대화체의 한 형태로 매화를 의인화하여 문답시로 짓는 경우는 조선 초기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의 〈매화를 읊다[詠梅]〉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이후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이항(李滉, 1501~1570)이 〈정자중의 편지를 받고 진퇴의 어려움을 더욱 탄식하며 프락의 매화에게 묻는다[得鄭子中書 益歎進退之難 吟問庭梅]〉, 〈매화를 대신하여 답하다[代梅花答]〉 등을 창작했다. 신익철, 『조선의 매화시를 읽다』, 글항아리, 2015, 191~195면 참조.

488) 『無何堂遺稿』 冊1, 〈賞梅 偶有所吟 寄龜谷老人崔奇男〉를 보면, “외로운 산 좋아하는 흥취가 있어 은근하게 손수 심었다네 … 높은 풍치 아는 자 적으니 세속 사람들 제멋대로 웃으라지[爲愛孤山趣 慙慙手自栽 … 高標知者少 一任俗人哈]라고 한 바 있다. 매화를 손수 심었으며, 남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매화 감상의 풍치에 대한 자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스울 정도로 매화에 대한 극찬으로 끝맺고 있다.

시인은 홀로 뜰의 매화를 감상하며 시를 짓는 내내 매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비롯한 주변의 상황은 모두 망각한 채 매화에만 몰두하게 되었고, 이에 평소 잘 취하지 않았던 대화체의 구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순간만큼은 홀로 있다는 고독감을 비롯해 그 어떤 잡념도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다음의 시 역시 매화를 감상하며 읊은 것으로, 문집 내 칠언율시 중에서 가장 앞에 수록되어 있다.

〈매화를 감상하며[賞梅]〉

|         |   |
|---------|---|
| 冰霜標格玉精神 | 얼음과 서리처럼 깨끗한 품격에 옥처럼 맑은 정신이며                |
| 健步曾移雪裏春 | 힘찬 걸음으로 일찍이 옮겼으니 눈 속은 봄이로구나                 |
| 已喜芳姿供玩賞 | 이미 고운 자태 즐기며 완상을 도와주었으니                     |
| 頓令心地得清新 | 문득 마음으로 하여금 맑고 산뜻함을 얻었도다                    |
| 風前踈影誰能畫 | 바람 앞에 그림자는 성기니 누가 능히 그리랴                    |
| 雨後輕香欲襲茵 | 비 온 뒤라 가벼운 향기가 자리에 엄습하려 하네                  |
| 堪笑師雄惱醉興 | 우스워라 사웅(師雄)은 흥에 취해 괴로워했는데                   |
| 羅浮却訝淡粧人 | 나부산(羅浮山)의 열은 화장한 사람인가 의아했다오 <sup>489)</sup> |

매화에 대한 찬양 일색의 구성이다. 수련에서는 의인화를 통해 매화를 칭송하고 있다. 얼음과 서리[冰霜]는 매화의 깨끗한 모습을 묘사할 때 자주 비유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매화의 품격을 수사하고 있다. 또한 티 없는 옥처럼 맑은 정신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격과 정신을 소유한 매화가 옮겨진 곳은 차가운 눈 속이지만 따뜻한 봄을 품은 것과 같다고 평하고 있다. 깨끗한 품격과 맑은 정신으로 겨울과 눈이라는 고난 속에서 따뜻함을 품고 있는 매화는 시인에게 있어 마치 고결한 선비와도 같다.

매화는 그 자태로 시인에게 완상의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문득[頓令] 마음 속으로 맑고 산뜻한 기운까지 전하고 있다. 시인에게 내외적으로 상

489) 『無何堂遺稿』 冊2.

쾌함을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바람에 나부끼는 매화의 자태는 인간의 재주로는 화폭에 옮기기 어렵다고 느낄 정도로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며, 비 온 뒤 말끔해진 대기 중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가벼운 향기가 자신의 존재를 시인에게 은근하게 알려온다.

미련에서는 1-6구까지 묘사한 매화를 미혹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7구의 사웅(師雄)은 수(隋)나라 때 조사웅(趙師雄)을 말한다. 그는 나부산(羅浮山) 술숲 사이의 술집에서 소복 차림의 단장한 여인에게 대접을 받았다. 그녀에게는 꽃다운 향기가 났으며, 말씨 또한 맑고 고왔는데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잠든 조사웅이 새벽에 깨어 보니 큰 매화나무 아래였다고 하는 일화다.<sup>490)</sup> 흔히 여인을 꽃에 비유하고, 꽃을 여인에 비기듯 매화의 매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인은 사웅이 여인과의 대화와 술에 취해 괴로워한 것을 비웃으면서 한편으로는 또렷한 정신 상태에서도 눈앞의 매화를 나부산에 있던 단아한 여인으로 착각했다는 표현으로 자신이 매화에 얼마나 매료되었는지를 표현했다.

또한 매화를 감상한 다른 시에서 “자잘한 먼지도 받지 않도록 특별한 곳에 심는 것이 마땅하다네 … 어찌 화초들처럼 시샘하겠는가 … 바람이 기만해 여린 꽃술 쌓여 있네 비슷하게 시 짓는 것도 어려우니 너 매화에게 비웃음 당할까 두렵다네”라고 언급한 것을 보아 홍주원이 매화에게 느끼고 있는 매력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고결한 자태에 자잘한 먼지도 허락할 수 없어 특별한 곳에 심었으며, 다른 화초와 바람 등 자연물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꽃꽂하게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말했다. 더욱이 자신의 숨씨로는 비슷하게조차 형용하기 어려운 존재가 바로 매화이다.<sup>491)</sup>

시에 등장하는 빈도나 찬사의 수준으로 보았을 때, 홍주원이 꽃 중에서도 가장 애호했던 것은 바로 매화였다. 매화를 사랑한 이유는 향기와 자태, 맑은 지조 등 평범한 이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sup>492)</sup> 그러나 홍주원에게 있어 매화

490) 柳宗元, 『龍城錄』, 〈趙師雄醉憩梅花下〉.

491) 『無何堂遺稿』 冊1, 〈賞梅 偶有所吟 寄龜谷老人崔奇男 其二〉, “不受纖塵累 偏宜特地栽 寧同羣卉妬 先占上春開 日暎新粧艷 風欺嫩蕊堆 題詩難彷彿 恐被爾梅哈”

492) 이 외에도 “때마침 맑은 향기 띠며 얼굴로 불어오는구나[時帶清香拂面吹]”, “맑은 향기를 보내오니 잔잔하게 흘러오는구나[爲送清香細細來]”, “등불 앞에서 가로로 비낀 그림자가 가장 사랑스러우니[燈前最愛橫斜影]” 등의 찬사를 한 바 있다.

를 비롯한 꽃들은 각각의 객체로서 어떤 상징이나 의미로 기능한다기보다 타인과의 연결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sup>493)</sup>

앞서 살펴 본 시들은 매화를 대표로 한 꽃에 대한 그의 애호 정도를 실증하기 위한 사례들로 든 것이다. 실제로는 “등불 앞에서 좋은 벗들 만나 매화 아래에서 깊은 술잔 잡았다네[燈前逢勝友 梅下把深盃]”<sup>494)</sup>, “담박하게 찬 매화 피었고 술잔은 그득하네[淡淡寒梅滿滿卮]”<sup>495)</sup>, “찬 매화도 또한 술통 앞에서의 흥을 알고 있어[寒梅亦解尊前興]”<sup>496)</sup>와 같이 매화 감상은 대체로 누군가와 함께 했으며, 그 자리에는 보통 술과 시가 있었다. 인용한 구절들에서도 드러나지만, 매화는 타인과의 만남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배경 혹은 흥을 돋우는 사물 정도로 표현되고 있다. 전술했듯 이와 같은 경향은 비단 매화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다음은 김육(金堉, 1580~1658)의 아들인 김좌명(金佐明, 1616~1671)에게 국화 화분을 보내면서 지은 시들로 문집 내 수록 순서로 미루어 보아 가까운 시일 내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① <귀은(歸隱) 김좌명(金佐明)에게 부치면서 국화화분을 보내다[寄呈金歸隱佐明 仍送盆菊]>

扈駕溫泉半死回 온천으로 호가(扈駕)하고 반쯤 죽어서 돌아오니  
黃花似待主人開 국화가 주인을 기다렸다가 핀 것 같도다  
一盆移送終南下 한 화분을 종남산의 아래로 옮겨 보내나  
同病其如未把杯 같은 병 때문에 술잔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다네<sup>497)</sup>

493) 매화 감상의 전통은 고려 말 성리학의 수용과 더불어 매화를 애호하는 풍조가 확산되기 시작하여 조선 후기까지 지속된다. 홍주원은 매화를 애호하면서도 교유의 매개체로 활용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매화 감상의 자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매화에 대한 애호와 매화시에 대해서는 신익철, 앞의 책, 박혜숙, 「조선의 梅花詩」, 『한국한문학연구』 26집, 한국한문학회, 2000; 신익철, 「18세기 매화시의 세 가지 양상」, 『한국시가연구』 15집, 한국시가학회, 2004.를 참조할 만하다.

494) 『無何堂遺稿』 冊1, <與咸卿俞武仲榮趙仲初復陽 同飲口號>.

495) 『無何堂遺稿』 冊4, <口占贈咸卿武仲>.

496) 『無何堂遺稿』 冊4, <與伯昌咸卿共賦賞梅>.

497) 『無何堂遺稿』 冊4.

② <김일정(金一正)에게 국화화분을 부쳐 보내면서 절구 한 수를 드리다[寄送盆菊於金一正 仍呈一絕]>

園丁依舊養黃花 정원사가 예전처럼 국화를 기르고 있으니  
 節近重陽欲吐葩 절기가 중양절이 가까워 오자 꽃이 피려하네  
 垂死病中無意玩 죽음 앞둔 병중에 완상할 뜻은 없으나  
 一盆先寄故人家 한 화분을 먼저 친구의 집으로 부친다오<sup>498)</sup>

①의 1구 및 문집의 수록 순서로 보았을 때 이 시들은 1665년에 지은 것을 알 수 있다.<sup>499)</sup> 기승구는 한 달 가까이 어가를 호종한 김좌명의 노고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국화 역시 이를 알아주듯 때맞춰 피었다며 위로하고 있다. 전결구에서는 그가 돌아온 때를 맞춰 화분을 보냈으나 두 사람의 병으로 술잔을 잡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했다. 그러나 문면의 내용과 시인의 의도는 상반된다.

승구는 표면적으로 때맞춰 핀 국화를 통해 행궁(行宮) 생활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김좌명이 국화의 주인이 되어야 할 당위성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김좌명이 돌아올 때를 기다린 것은 국화가 아닌 시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가 감춰져 있다. 즉, 때마침 핀 국화는 연락을 취하기에 적합한 명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결구 역시 돌아온 김좌명과 술자리를 마련하고 싶은 마음을 은연 중에 비친 것에 방점이 있다. 서로 병으로 인해 자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장기간의 임무에서 복귀한 그와 으레 그러하듯 위로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 뜻을 비친 것이다. 이와 같은 시인의 마음은 ‘같다[其如]’라는 표현을 통해 혹시라도 있을 만남의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역시 시어의 표면적 의미 이면에 시인의 바람을 녹여 냈다. 기구의 ‘예전처럼[依舊]’은 김좌명이 시인의 정원에서 국화를 기르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꽃이 피려한다[欲吐葩]’는 조만간 국화가 만개할 때가

498) 『無何堂遺稿』 冊4.

499) 『현종실록』 6년(1665) 5월 21일, <온천 행궁에서 출발하다> 참조. 당시 현종은 4월 21~5월 12일 까지 온천에 머물렀다.

오니 함께 완상하고 싶다는 의미이다. 시인은 죽음을 앞둔 병부의 몸으로 완상할 뜻은 없다고 하면서도 화분을 보냈다. 결국의 ‘먼저 부치다[先寄]’의 ‘먼저’는 화분을 부친 이후에 마땅히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함을 전제한 것이다. 곧 피게 될 국화가 시인의 정원에도 김좌명에 집에도 있게 된 셈이니, 결국 둘 중 어느 쪽에서 움직이든 시인의 바람대로 함께 국화를 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국화 화분은 김좌명을 만나고 싶어하는 홍주원에게 명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화의 경우 앞서 매화처럼 칭송의 대상으로 삼아 읊은 경우는 없다. 앞선 경우처럼 국화 화분을 보내거나,<sup>500)</sup> 다른 사람에게 국화를 구하는 등<sup>501)</sup>이 대부분이다. 기본적으로 국화를 기르고, 없을 경우 타인에게까지 구하는 것으로 보아 애호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매화만큼 경도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연꽃,<sup>502)</sup> 대나무,<sup>503)</sup> 왜철쭉<sup>504)</sup> 등을 통해 타인과 교유한 사례들이 있다.

다음으로 술을 매개로 한 교유로 고독에 대처한 양상의 시들을 살펴보겠다.

〈그윽한 거처에서 부질없이 읊다[幽居謾詠]〉

屏跡仍經歲 자취 감추고 거듭 해가 지났는데  
孤懷只自憐 외로운 마음에 다만 가련할 뿐이네  
何來人似玉 어디서 온 사람인지 옥과 같고  
那得酒如泉 어찌 얻은 술인지 샘물 같도다  
密席三更夜 삼경(三更)의 밤에도 자리는 뻑뻑하고  
寒花十月天 시월의 날씨에도 국화꽃 피었구나  
丁寧後會約 정녕 이후의 모임을 약속하니  
更指臘梅前 다시 선달 매화 피기 전을 가리키네<sup>505)</sup>

500) 『無何堂遺稿』 冊4, 〈寄呈同春 仍送盆菊〉.

501) 『無何堂遺稿』 冊4, 〈寄大哉乞菊〉.

502) 『無何堂遺稿』 冊1, 〈聞諸人昨夕賞蓮南池〉, 『無何堂遺稿』 冊4, 〈書寄金水部白珍求蓮盆〉.

503) 『無何堂遺稿』 冊4, 〈答朴尙之寄詩求叢竹〉.

504) 『無何堂遺稿』 冊4, 〈謝趙君獻劇送倭躑躅〉.



1구로 미루어 보아 1639~1643년의 5년간 두문불출하던 시기로 추정된다. 2구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듯 이 시기는 스스로를 가련하게 여길 정도로 고독감을 느끼던 때였다. 그런 때에 가장 절친했던 외사촌 이일상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시인을 찾아왔다. 외로움에 사무쳤던 시인에게 있어 방문자들은 옥처럼 귀했으며, 술은 샘물처럼 맑게만 보인 것이다. 여러 사람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지며 회포를 푼 시인에게는 시월의 날씨와 국화를 인식할 정도의 여유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미련에서는 아쉬움을 채 이기지 못한 채 다음 기약을 미리 정했다.

즉석에서 지은 시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시어가 평이하며 전고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는 순차적으로 과거-현재-미래의 시점을 매끄럽게 담아내고 있다. 수련은 이 모임이 있기 전까지 시인이 처했던 과거의 상황으로, 폐쇄적인 삶 속에서 고독감을 느끼던 모습을 담고 있다. 함련과 경련은 시를 지은 현재 시점으로 수련에서 보인 과거의 모습과 달리 즐거움과 여유가 보인다. 미련에서는 다음 모임을 기약했는데, ‘정녕(丁寧)’이란 시어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현재에 대한 만족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선달 매화가 피기 전[臘梅前]’이라고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이 기약이 의례적인 표현이 아님을 강조했다. 즉 시인은 술을 매개로 동석자들과의 교감을 통해 잠시나마 고독감에서 탈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 역시 술자리 여흥의 하나로 지은 것이지만, 의례적인 미사여구가 아닌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sup>506)</sup>

다음의 시는 외사촌인 이일상이 방문을 고마워하며 지은 것이다.

〈청호(靑湖)가 찾아온 것에 감사하며 그대로 유능(幼能)에게도 보이다[謝靑湖來訪 仍示幼能]〉

505) 『無何堂遺稿』 冊1.

506) 이와 유사한 내용과 구조의 다른 사례도 있다. 『無何堂遺稿』 冊1, 〈與咸卿俞武仲榮趙仲初復陽 同飲口號〉로 “해 지나도 병이 낫지 않고 지속되는데 그윽한 회포는 어느 곳에서 풀꼬 등불 앞에서 좋은 벗들 만나 매화 아래에서 깊은 술잔 잡았다네 물시계는 느리게 가도록 맡겨두었으니 돌아가는 안장을 또 재촉하지 마시게 오늘밤 다하지 못한 흥은 마땅히 이번 달 중 오길 기다려야지[經歲沉綿病 幽懷底處開 燈前逢勝友 梅下把深盃 禁漏從他緩 歸鞍且莫催 今宵不盡興 須待月中來]”라고 읊었다. 지루한 병부 생활로 지친 몸에도 더하여 그윽한 회포를 풀 길 없어 고민이던 시인은 좋은 벗들과 매화 아래에서 술자리를 가졌으며, 인용시에서와 같이 다음 기약을 명시하고 있다.

謝客門常掩 손님 사양하며 문을 항상 닫았었는데  
 君來我亦疑 그대가 찾아와 나도 의아하다네  
 人誰無此境 사람이라면 누군들 이런 경우 없으랴만  
 天若借佳期 하늘이 멋진 약속을 빌려준 것 같구나  
 月欲當樓滿 달은 누각 마주해 가득 차려 하고  
 盃猶抱病持 술잔은 오히려 병이 있으면서도 잡는다네  
 憑傳季方語 계방(季方)의 말에 의지하여 전하니  
 明日且如斯 내일이면 또 이와 같겠지<sup>507)</sup>

수련을 통해 두문불출하던 시인에게 이일상이 약속 없이 의외의 방문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함련에서는 의외의 손님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담담하게 말하면서도 이 방문이 멋진 약속[佳期]이라고 하며 시인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였다. 4구의 ‘하늘이 빌려주었다[天若借]’는 표현은 중의적 의미를 지닌 미사여구로 볼 수 있다. 시인에게 있어 이일상의 방문은 예측할 수 없던 뜻밖의 것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하늘에서 결정한 운명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두문불출하던 병부의 신세이지만, 의외의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고 심지어 달까지 밝은 밤이기에 술잔을 잡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오히려[猶]’를 통해 드러냈다. 미련에서는 원방(元方)과 계방(季方) 형제에게서 유래한 난형난제 고사를 비유로 삼아 이일상의 동생인 이단상(李端相)에게 말을 전했다. 8구가 이단상을 향한 전언인데, 이일상처럼 그도 자신을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이와 같다[如斯]’는 것은 손님을 사양하고 폐쇄적으로 지내고 있는 자신의 처지와 기약 없이 이일상이 방문한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즉 ‘내일도 또 이와 같다.’라는 말은 이단상 역시 자신을 찾아 주길 바라고 있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며, 제목에서도 이단상의 호인 유능(幼能)에게 보일 것을 부탁했기 때문에 사실상 초대할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스스로 손님을 사양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초대하기에는 멋쩍을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또

507) 『無何堂遺稿』 冊1.

[且]’를 통해 이러한 바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두 사람과의 친밀한 사적 관계에 기반한 가벼우면서도 농담조의 강압적인 초대라 할 수 있다. 고독하게 지내던 시인의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친우의 방문은 병든 몸으로도 즐겁게 술잔을 잡을 수 있는 기운과 시를 통해 농담까지 전할 정도의 심적 여유를 주었다.

다음은 덕우(德雨) 박항(朴潢, 1597~1648)의 시를 차운해 지은 4편의 연작시 중 마지막 시이다.

〈덕우(德雨) 박항(朴潢)의 시를 차운하다 그 네 번째[次朴德雨韻 其四]〉

局促樊籠任逝年 우리에 갇혀 바깥 움츠린 채 몇대로 세월 지났으니  
江湖漫浪恨無緣 강호 유랑에 인연 없는 것 한스럽다네  
窮途自幸逢知己 막힌 길에서 지기(知己)를 만난 것은 다행이나  
亂世還愁未息肩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깨는 쉬지 못해 근심이라오  
弊簾塵生經卷萬 해진 상자에는 먼지가 일만 경서에서 생겼고  
小園風動竹竿千 작은 동산에는 바람이 일천 대나무를 움직이네  
何時更辦池亭會 어느 때에나 지정(池亭)의 모임 다시 주관하여  
意氣相傾把酒前 의기(意氣)로 앞의 술잔 잡고 서로 기울이라<sup>508)</sup>

삼복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에<sup>509)</sup> 박항과의 술자리에서 지은 것이다. 박항은 사적으로 자주 교유하던 인물 중 한 명인데, 다음의 구절들은 이들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좋은 날에 자주 얼굴 맞대며 애써 의지했고 사귄 정은 어깨 따르기를 허여했음을 오래 전에 알았네[強倚佳辰頻會面 久知交誼許隨肩]”,<sup>510)</sup> “그대와 함께 노닌 것도 좋은 인연이라네[與子遊從亦勝緣]”<sup>511)</sup> 등을 통해 9년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주 만나며 서로 의지한 기간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508) 『無何堂遺稿』 冊2.

509) 두 번째 시 수련에서 “삼복에 더위를 먹어 하루가 1년 같은데 하삭음(河朔飮) 같은 기이한 놀이는 인연이 없나보오[三庚病暍日如年 河朔奇游未有緣]”라고 했다.

510) 『無何堂遺稿』 冊2, 〈次朴德雨韻 其二〉.

511) 『無何堂遺稿』 冊2, 〈次朴德雨韻 其三〉.

박황과의 만남은 “잔 돌리며 삼백 잔을 기울이려 하는데 … 생각건대 오늘 밤은 흥이 끝이 없으니[杯行直欲傾三百 … 想得今宵無限興]”<sup>512)</sup>에서 알 수 있듯 흥이 넘치는 즐거운 술자리였지만, 마지막 시인 인용시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다. 수련에서는 지난날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있다. 시인은 스스로의 삶을 우리에게 갇힌 것[樊籠]도 모자라 바짝 움츠린 채[局促]로 살아왔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1구에서 언급했듯 자유롭지 못한 처지로 인해 강호를 유람할 수 있는 인연이 없는 것을 한탄했다. 자신의 인생을 회고했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임에 자명하다.<sup>513)</sup>

함련에서도 수련의 암울한 시상은 계속된다. 어지러운 세상[亂世]에 놓인 자신의 처지는 설상가상 활로가 보이지 않는 ‘막힌 길[窮途]’이며, 본인에게 지워진 책임을 내려놓을 수도 없다[息肩]. 그나마 박황과 같은 지기(知己)가 있음에 위로를 받고 있다. 경련에서는 자연과의 대비를 통해 시인의 상태를 말했다. 먼저 5구에서 해진 상자는 그만큼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쌓인 먼지는 경서에 대한 관심이 줄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유자(儒者)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덕목마저 방치한 것이다. 5구의 해진 상자와 먼지 등이 정적(靜的)이고 인위적이라면, 6구에서는 이와 대비되는 동적(動的)인 자연에 대해 읊었다. 방 안의 작은 상자와 작지만 동산이라는 공간의 규모가 먼저 비교되며, 작은 상자에 쌓인 더 작은 먼지와 일천 대나무를 움직일 수 있는 바람은 전자보다 더욱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시인의 무기력감과 무관심한 상태는 상대적으로 더욱 도드라진다.

미련에서는 술자리의 아쉬움을 정해진 것 없는 다음 기약을 향한 바람으로 드러냈다. 7구의 지정(池亭)에서의 모임을 ‘다시[更]’ 주관할 날을 묻는 것으로 이전의 즐거웠던 모임을 박황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8구에서는 자신들은 의기(意氣)가 통하는 사이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자유롭지 못

512) 『無何堂遺稿』 冊2, 〈次朴德雨韻 其二〉.

513) 홍주원은 부마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적막한 것으로 인식한 한편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는 지위보다 유자(儒者)로서 뜻을 펼칠 기회가 타의에 의해 가로막혔다는 사실에 좌절의식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내적으로 갈등을 일으켰으며, 그 갈등의 한 양상으로 평생 남아로서 ‘사방에 뜻을 두지[志四方]’ 못했던 것에 대한 한스러움과 이를 이룬 타인에 대한 선망 의식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서는 拙稿, 「無何堂 洪柱元의 漢詩 일고찰-晩年의 시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76집, 동양고전학회, 2019, 15-23면 참조.

한 삶을 살아왔으며, 현재도 선비의 본분인 경서마저 방치할 정도의 무력감에 빠져 있지만, 지기인 박항과의 술자리를 통해 위로 받고 있다. 또한 정해진 기일은 없으나 향후 다시 함께 할 자리를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심리상태에 있던 시인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홍주원과 절친한 관계였던 조복양(趙復陽, 1609~1671)이<sup>514)</sup> 보낸 시를 차운한 두 편의 연작시 중 첫 번째 수이다.

〈학사(學士) 조송곡(趙松谷)이 부쳐 보낸 시를 차운하다[次趙學士松谷寄示韻]〉

看盡三春尙舊痾 삼춘(三春)을 모두 보았어도 아직 묵은 병이 남았는데  
寂寥門巷斷經過 쓸쓸한 골목길에는 지나는 발걸음도 끊어졌다네  
方知暮境親朋少 바야흐로 늙그막에 친한 벗들이 적음을 알았는데  
謾憶佳辰樂事多 부질없이 좋은 날에 즐거웠던 일 많았음을 추억한다  
詩社酒壚憐我倦 시사(詩社)로 술 마시던 곳에서 피곤한 날 가여워했으나  
白頭靑瑣奈君何 흰 머리로 청쇄(靑瑣)에 있는 그대를 어찌하랴  
空齋睡起渾無興 빈 집에서 잠 깨어 전혀 흥이 없으니  
欲和新篇費苦哦 새로운 시에 화운하고자 괴로이 읊조린다네<sup>515)</sup>

전반부에서는 상념에 빠진 시인이 소회를 읊었다. 시인은 삼춘(三春)을 보냈음에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병에 괴로워하는데, 아울러 평소에도 적막하던 골목길에는 마침내 지나는 발걸음마저 끊어졌다고 느낄 정도로 고독감에 빠져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본인이 나이가 들었다는 점[暮境]과 죽음으로 인해 친한 벗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좋은 날의 추억들을 회상하면서도 부질없다[謾]고 말한 것은 벗들이 사라져 다시는 그때의 즐거움을 재현할 수 없어 기억에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반부에서의 막연한 회상은 후반부 들어 시점이 조복양으로 집중된다.

세상을 떠난 벗들을 회상하며 탄식할 때 자주 쓰이는 ‘주로(酒壚)’를 전반

514) 조복양의 제문에서 그들의 관계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아 나는 공과 알게 된 것은 조금 늦었으나 한 마디로 사귀를 정하고 망형(忘形)의 사귀를 허락했네 공이 마시면 내가 따르고 내가 읊으면 공이 이었다네 … 옛날 놀던 이들 손꼽아보니 차례로 시들었다네[繫我於公 少遲識荆 一言定交 許以忘形 公飲我酬 我詠公賡 … 屈指舊遊 次第凋零]”. 『無何堂遺稿』 冊5, 〈祭趙判書仲初復陽文〉.

515) 『無何堂遺稿』 冊2.

부와의 연결점으로 사용했다. 시사(詩社)의 자리에서 함께 술 마시며 피곤해하는 시인을 안쓰러워했던 조복양이었으나, 입장이 바뀌어 흰머리로 관직에서 [靑瑣]에서 고생하고 있는 조복양을 시인이 근심하고 있다. 늦은 시간 홀로 잠깨어 다시 잠들지 못한 시인은 흥도 없어 조복양이 부쳐준 시를 화운하고자 하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괴로워한다. 후반부는 답시를 받아 볼 조복양에게 한 말로, 자신의 괴로움과 조복양에 대한 자신의 걱정을 전달하고 있다.

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답시에 대한 의무감으로 늦은 시간 홀로 작시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말한 것은 시인이 조복양에게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한 포석이었다. 두 번째 시의 미련에서 “어느 날에 술동이 앞의 모임을 마련하여 쇠한 몸 붙잡고 장단을 건주려나[何時爲辦尊前會 各把衰羸較短長]”를 통해 술자리에서 함께 시를 읊고 싶다는 바람이 바로 조복양에게 전하고자 하던 바였다. 결국 고독감에 빠져 있던 노쇠한 시인이 사라진 벼들을 추억하며 남아 있는 벼에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조복양과의 만남에 대한 갈망으로 치환되어 드러난 것이다.

다음은 조귀석(趙龜錫, 1615~1665)에게 부친 시이다.

〈또 연자(緣字) 운을 차운하여 학사(學士) 조귀석(趙龜錫)에게 부친다[又次緣字韻寄趙學士龜錫]〉

|         |  |
|---------|--|
| 病似維摩謝萬緣 | 병이 유마(維摩)와 같아 모든 인연 사양했는데                  |
| 故情猶爲盍簪牽 | 옛 정에 오히려 합잡(盍簪)에 이끌리게 되었구나                 |
| 千竿嫩竹侵階近 | 천 그루의 여린 대나무는 섬돌 가까이로 침범했고                 |
| 百轉流鶯選樹偏 | 갓가지로 지저귀는 나는 피꼬리는 나무 골라 돌아다니네              |
| 自是交歡無老少 | 이로부터 사귀는 즐거움에는 노소가 없거늘                     |
| 敢將文藻較姘妍 | 감히 문장을 가지고 미추(美醜)를 비교하랴                    |
| 明朝擬辦尊前會 | 다음날 아침 술동이 앞의 모임 마련하면                      |
| 直到冰輪照四筵 | 곧바로 빙륜(氷輪)이 이르러 온 자리를 비추겠지 <sup>516)</sup> |

앞서 살펴 본 시와 마찬가지로 시인은 병으로 괴로워하는 자신의 처지를

516) 『無何堂遺稿』 冊2, 〈又次緣字韻 寄趙學士龜錫〉.



말했다. 중생이 병을 앓아 자신도 병을 앓는다고 와병했던 유마힐(維摩詰)처럼 자신도 와병의 신세로 모든 인연을 사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귀석에게는 이런 의지가 해당되지 않았다. 옛 정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벗들이 빨리 모인다[盍簪]’는 『주역』, <예괘(豫卦)>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음이 간다[牽]고 했기 때문이다.

함련에서는 와병 신세로 눈앞에 보이는 경물을 읊었다. 여린 대나무들은 부지불식 간에 섬돌까지 다다를 정도로 자랐으며, 지저귀는 피꼬리가 이 나무 저 나무 돌아다니는 것이 시야에 들어온 것이다. 이는 시인의 처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와병 신세로 홀로 누워있는 시인에 비해 여러 떨기가 함께 모여 자라는 대나무와 활동적으로 지저귀며 날아다니는 피꼬리는 생동감이 넘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인은 조귀석과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용한 시 이전에 단오날 조귀석이 보낸 시에 대한 답사에서 “학사가 언제 오는가 좋은 날이 바로 그때이니 병든 사내를 마주함에 옛정에 치우치겠지 … 맑은 시로 훗날을 약속함은 도리어 기쁘니 아이들 시켜 손님 자리 쓸게 하였다오[學士何來佳節是 病夫相對故情偏 … 却喜清詩申後約 擬教兒輩掃賓筵]<sup>517)</sup>”라고 하였다. 조귀석이 돌아오는 날이 곧 병부에게는 옛정에 치우치는 좋은 날임을 직접적으로 말했다. 또한 이렇게 시를 주고받으며 기약하는 것에서 오는 설렘과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아이들로 하여금 손님 자리를 미리 쓸게 했다는 표현으로 재치 있게 전달하고 있다. 연이어 같은 운자로 지은 시에서도 “술통 앞에서 좋은 날이 가까움을 오히려 기뻐하니[尊前却喜佳期近]<sup>518)</sup>”라며 조귀석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렇듯 기대로 가득한 조귀석과의 만남은 노소(老小)도 없으며, 술자리에서 상투적으로 하는 시재(詩才) 다툼 역시 필요가 없는 순수한 즐거움으로 묘사되고 있다. 8구에서 이러한 즐거움을 달빛을 통해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다음날로 예정된 만남이 이루어짐과 동시에[直到] 달[氷輪]이 온 자리를 환하게 비추어 어둠도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상상한 것이 그러하다.

517) 『無何堂遺稿』 冊2, <次趙學士龜錫端午寄示之韻>.

518) 『無何堂遺稿』 冊2, <更步前韻 寄趙學士 兼示幼能>.

이상으로 홍주원이 시와 꽃, 술을 매개로 고독에 대처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꽃과 술과 시는 홍주원이 근심에서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했다. 이 요소들은 향유의 대상으로 각각 애호하기도 했지만, 함께 했을 때 상승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꽃을 감상하는 술자리에서의 작시가 대표적인데, 결국 이는 타인과의 연결고리이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잠시나마 고독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으며, 또한 향후 만남에 대한 기대감은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제 2 절 자조적 의식과 운명론적 관점

홍주원에 대한 당대 및 사후의 평가는 문장과 성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언급되었지만, 성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의견 중 하나가 바로 검손이다.

“공은 집안 대대로 청한(淸寒)하였다가 하루아침에 부귀가 융숭해졌다. 그러나 공은 검손함을 견지(堅持)했으며, 포의(布衣)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 공은 귀한 신분임에도 예가 있었고, 부유하나 검소할 줄 알았다.”<sup>519)</sup>

“문장은 족히 남보다 높았으나 스스로 좋게 여기지 않았고, 덕의 아름다움은 족히 모범이 될 만하였으나 스스로 남다르다고 여기지 않았다.”<sup>520)</sup>

“공의 평생을 논해보자면, … 귀하게 되어서도 예가 있었으며 부유하나 검소할 줄 알았고, 집안이 번창했음에도 검소할 수 있었으니, 사람들이 미치지 못할 바가 있었다. 어찌 탁월하고 흠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sup>521)</sup>

519) 宋時烈, 『宋子大全』 권163, 〈永安尉洪公神道碑銘〉, “公家世淸寒 一朝富貴隆赫 公謙挹自持 不改布素心 … 公貴而有禮 富而能儉.”

520) 李敏鉞, 『西河集』 권16, 〈永安尉洪公諡狀〉, “文章足以高人而不自多 德美足以範世而不自異.”

521) 金壽恒, 『文谷集』 권19, 〈永安尉洪公墓誌銘〉, “以公平生論之 … 至於貴而有禮 富而能儉 盛滿而能謙 則又有諸人所不及者 豈不卓然無玷哉.”

송시열과 김수항의 글에서는 홍주원이 높은 신분과 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했음과 겸소한 태도를 잃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 이민서의 경우에도 문장 능력이나 덕이 있으나 스스로를 평범하게 여긴 겸손을 말한 것이다. 부, 신분, 문장 능력, 덕 등은 모두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칫 거만해질 수도 있지만, 홍주원은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신도비명이나 시장(諡狀), 묘지명 등은 먼저 작성된 내용이나 유사한 자료를 참고해 짓는다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감안하더라도 홍주원은 ‘겸손’한 태도를 평생 견지하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겸손의 자세는 자기 평가에 있어 엄격하게 작용해 스스로를 폄하하기에 이른다. 전술했듯 자신을 재주 없는 무능력자로 묘사하거나,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표현들이 그러한 예이다. 이 표현들은 결국 자조적(自嘲的)이고 냉소적인 의식과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겸손한 성정은 이러한 현상을 야기한 다양한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

홍주원은 만년에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국속(局束)된 신세’로 규정했다. 양명(揚名)에 뜻이 있던 그는 부마로 선발됨에 따라 신분에 의한 제한으로 뜻을 펼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내적으로 많은 혼란을 유발했는데, ‘제승(濟勝)에 대한 선망과 자괴감’, ‘현실 탈피에 대한 욕구로서의 은거 지향’ 등의 형태로 표출되었다.<sup>522)</sup> 모두 현실에 대한 불만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억압된 처지가 심리에도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시에 투영되었다.

한편 부마는 조선 초에는 인재를 신분에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 지위가 한산하고 품계가 낮은 사람을 선발했다. 그러나 선조 이후로 반드시 뛰어나고 빼어나며 문장까지 잘하는 사람을 선택했다.<sup>523)</sup> 그렇기 때문에 학식을 닦아 정사로 치인(治人)하는 것을 목표로 하던 이들에게 족쇄로 여겨졌다. 홍주원의 손위 동서인 해송위(海嵩尉) 윤신지(尹新之)와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도 이와 같은 생각을 드러낸 바 있다.<sup>524)</sup> 왕실의 일원이 되어 부귀영화

522) 이에 대해서는 拙稿, 「無何堂 洪柱元의 漢詩 일고찰-晩年の 시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76집, 동양고전학회, 2019, 참조.

523) 宋時烈, 『宋子大全』 권163, 〈永安尉洪公神道碑銘〉, “自國朝初選儀賓 必取其地散品下者 蓋不欲人才之局束禁道也 自宣廟以後則不然 必擇其傑然而秀竒然而文者 故彬彬乎皆可尙也.”

524) 윤신지는 『玄洲集』, 〈自序〉에서 “그 해 겨울, 의빈(儀賓)에 간택되어 자신의 분수가 폐인(廢人)이 되는 것이라 여겨 마음 쓸 바가 없었다(其年冬 名隸儀賓 自分爲廢人 無所用心).”라고 하였으며, 신

가 보장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부마에 간택된 것을 폐인(廢人)이 되거나, 자신의 목표의 걸림돌로 여기는 등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홍주원처럼 생애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자의식을 표출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각자의 처세 방식과 성향의 차이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홍주원의 자조적인 의식과 나아가 운명론, 무용론(無用論)적 시각으로까지 연계된 양상이 시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는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평(自評)이라는 측면에서 홍주원의 자의식을 규찰(窺察)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 1) 자조적 의식의 토로

앞서 1절에서 살펴본 고독이 인간이라면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본 항에서 다룰 자조(自嘲) 역시 고독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의 발현 양상이다. 특히 유교사회의 가치관 내에서 대표적으로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는 과업의 실행을 뜻대로 이루지 못했을 때 나타난다. 출처의 문제에서 기인한 회재불우를 비롯해 정사에 참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과 정치적 현실이 다른 차이에서 오는 괴리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자신의 이념과 현실 간의 타협이 되지 않을 때 그 간극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즉 꿈이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을 스스로 타개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직시했을 때 고소(苦笑)와 함께 자조적인 의식이 문학을 통해 표출된다.

그 양상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한탄이며, 이는 보통 과거에 대한 후회나 회한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 소재를 온전히 자신에게만 지우는 경우는 드물다. 기본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반대편인 타자와의 상충에 의해 발생하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탄(自嘆)은 원인이 되는 양자 중 한쪽 측면인 자신에 대한 것이다. 다른 한쪽에 대한 책임은 상충되는 타자가 직접적으로 거론되기보다 비유나 상징 등의 우회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익성도 대제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으나, 부마의 신분으로 인해 하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겼다고 하는 다음의 일화가 전한다. 李裕元, 『林下筆記』 35권, 〈薛荔新志〉, “부마도위 신익성이 옥관자가 붙은 망건을 벗어서 공주 앞에 던지면서, ‘나는 이 원수 놈의 물건 때문에 대제학을 하지 못한다.’ 하였다.”고 한다.

경우가 많다. 하늘, 조물주, 귀신 등의 추상적인 존재를 원망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입힌 자연물에 대한 비판 등이 그러한 예이다.

홍주원의 겸손한 성격과 자기 평가에 엄격했던 천성은 자신의 결정권 없이 타의에 의한 부마 간택이라는 현실과 결부되어 자조적인 술회로 이어졌다. 특히 자조적인 술회들은 문학이 진실한 자기 고백이라는 원론적인<sup>525)</sup> 측면에 부합하는데, 의례적인 시보다 홀로 읊거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벗에게 주는 시들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드러내기에는 어려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에서 고백을 통해 토로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홍주원이라는 개인의 실상에 보다 근접할 수 있는 진술이기도 하다.

작품을 통해 살펴보겠다. 다음은 친인척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교유시가 남아 있는 강유(姜瑜, 1597, 1668)의 시를 차운한 두 편의 연작시이다.

① <공헌(公獻)의 시를 차운하다[次公獻韻]>

喜子柴扉靜 그대의 고요한 사립문이 좋은데  
 慙吾廈屋渠 내 넓고 큰 집이 부끄럽다오  
 浮生貴適意 부질없는 삶에 뜻 맞는 것이 귀한데  
 何地不宜居 어느 곳이든 살기에 마땅치 않으랴  
 雷怕冬天動 우레가 겨울 하늘에 요동칠까 두렵고  
 霖愁夏月如 장마가 여름날처럼 올까 근심스럽구나  
 憂時有短律 근심스러울 때 짧은 시 짓지만  
 字字費歎歎 글자마다 탄식의 한숨 내쉬다네

② <그 두 번째[其二]>

卓犖文章手 문장 솜씨 탁월하니  
 端宜置石渠 장서각(藏書閣)에 있음이 마땅하지  
 人稱負地望 사람들이 지위와 명망 저버렸다 말하는데.  
 君自憶山居 그대는 스스로 산에서 살 생각했다네  
 用舍知何者 용사(用舍)를 어느 누가 알라마는

525) 박찬수, 「兼山 俞肅基의 詩文 考察」, 『어문연구』 74권, 어문연구학회, 2012, 258면.

生涯任泊如 생애는 담담하게 맡겨야 한다오  
 古來皆若此 예로부터 모두 이와 같았으니  
 世事不須歎 세상일 굳이 슬퍼할 필요 있으랴<sup>526)</sup>

①은 시인, ②는 강유의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②로 보아 강유의 출처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①의 수련에서는 강유와 자신의 집을 비교했다. 수련에서 고요한 사립문이 좋다는 것은 자신의 넓고 큰 집은 고요하지 못해 부럽다는 것이며, 자신의 집을 부끄러워한 이유는 분수에 맞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이 표현의 이면에는 고요한 사립문에서 살고 있는 강유의 처지에 대한 부러움도 내포되어 있다.

함련과 경련은 산에서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강유(②의 4구)에 대한 위로와 근심을 드러낸 것이다. 사람에게는 거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뜻에 맞는 것[適意]이 귀하다고 하면서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 이는 시인이 삶에 있어 그만큼 적의(適意)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말이다. 또한 뜻만 맞으면 거처는 아무 상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시하고 있는 가치관이기도 하다. 이어서 강유가 산중 생활에서 겨울에는 보기 어려운 우레와 장마 같은 비를 겪게 될까 걱정했다. 계절상 경험하기 어려운 자연 현상을 제시한 것은 자신이 근심하고 있는 정도를 다소 과장되게 표현해 강조하고자 한 의도이다. 미련에서도 이러한 근심은 이어지는데, 근심스러울 때 짧은 시 짓는 버릇은 이 시를 짓고 있는 순간에도 해당된다. 또한 글자마다 탄식을 뱉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강유에 대한 걱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②는 강유의 문장 능력을 칭양하면서 시작한다. 그의 재능은 마땅히 장서각(藏書閣)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산에서 살 생각을 하고 있다. 주위에서는 그 재능을 안타까워하면서 지위와 명망을 저버리는 행위로 치부했지만, 강유의 선택에 영향은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련에서는 강유의 선택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하고 있는데, 『논어(論語)』, 「술이(述而)」에서 용사(用舍)에 대해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쓰이면 행하고, 버려지면 숨는 것[用之則行 舍之則藏].”이라 했는데, 그 주(註)에서 “쓰고 버림은 자기와 관계없으며, 행하고 숨는 것은 만나는 바에 편안히 하는 것이니 운명은 족히 말

526) 『無何堂遺稿』 冊1.



할 것이 못된다[用舍 無與於己 行藏 安於所遇 命不足道也].”가 그것이다. 쓰이고 아니고는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5구에서 ‘어느 누가 알겠냐[知何者].’며 의문의 형식으로 강조했다. 또한 스스로 결정할 행장(行藏)은 자신이 처하게 될 상황에 따라 편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6구처럼 다르게 표현했다.

7구에서는 앞서 경련의 내용들이 마치 고금을 막론한 진리인 양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비단 강유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두[皆]’ 그래 왔다는 것으로 위로의 뜻을 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유가 조정을 떠나 산중 생활을 결정한 것 역시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의 뜻과 관계없는 버림[舍]을 당했지만, 스스로 숨을 것[藏]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편안히 생각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편의 시에는 행간에 시인과 강유의 대비가 숨어 있다. 먼저 ①의 전반부를 다시 살펴보자. 강유에게 자신의 뜻에 맞으면 어디서 거처하든 마땅하다고 조언했지만, 2구에서는 자신의 큰 집을 부끄러워했다. 분수에 맞지 않다고 여기는 이유도 있겠으나, 시인의 거처는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또한 단순히 ‘큰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크기만으로 볼 것이 아니다. 시인의 거처는 부마라는 지위로 인해 얻게 된 것이다. 즉, 큰 집은 부마라는 신분을 포함한 자신에게 과분하고 어울리지 않는 주변 환경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다.

또한 ②의 4구에서 ‘스스로[自]’가 내포하는 의미는 산중에서의 생활을 결정한 것이 강유의 자의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듯 강유에게는 자신의 뜻에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그러나 시인은 분수와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행장을 결정할 수 없는 처지라는 대비가 ‘스스로 생각했다[自憶]’에 감춰져 있다. 이렇듯 시인은 삶을 부질없는 것으로 치부한 것이나, 큰 집으로 대표되는 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조와 냉소를 행간에 감춰 은근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태의(太醫)와의 술자리에서 읊은 다섯 수의 연작시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시이다.

① <우연히 근처서 5수를 지어 이태의(李太醫)에게 주다 그 세 번째[偶成近體五首 贈李太醫 其三]>

平生虛負志經邦 평생 나라 경륜코자 한 뜻을 부질없이 저버렸으니  
 更乏文章筆似杠 더욱이 문장은 부족하고 붓은 막대기 같구나  
 自笑世間同附贅 세상에 붙은 혹과 같아 스스로 우스운데  
 不禁愁緒日紛龐 시름이 나날이 어지럽히는 것을 금하지 못했네  
 踈簾爽氣宜高枕 성긴 발 덕분에 상쾌한 기운이 높은 베개에 알맞고  
 碧樹濃陰翳晚窓 푸른 나무의 짙은 그늘은 저물녘 창을 가려주는구나  
 回首江湖終老地 강호로 머리 돌리니 끝내 늙을 곳인데  
 夢尋鷗鷺上漁汀 꿈속에서 갈매기와 백로 찾아 징검다리 오른다네

② <그 네 번째[其四]>

蕭然相對說襟期 적막하게 마주하고 가슴 속 회포 얘기하는데  
 政是階花欲落時 지금이 바로 섬돌의 꽃 떨어지려는 때로구나  
 一枕清風惟着睡 한 베개에 맑은 바람 붙어와 오직 잠만 오고  
 半簾疎雨又催詩 반 켜 열린 주렴에 성긴 빗발은 또 시를 재촉하네  
 壯心磊落乾坤窄 씩씩한 마음은 우뚝한데 하늘과 땅은 좁고  
 愁病侵尋節序移 시름병이 침범하는데 절서는 바뀌는구나  
 回首江湖春事好 강호로 머리 돌리니 봄철이 좋아  
 此身隨處可棲遲 이 몸은 가는 곳마다 한가로이 지낼 수 있다네<sup>527)</sup>

①의 수련에서는 시인이 품고 있던 이상과 뜻을 알 수 있다. 그가 문장을 연마했던 이유는 이를 정사에 적용해 나라를 경륜(經綸)하는 데에 활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포의(布衣)의 신분일 때의 이러한 포부는 부마로 간택되면서 허무하게 그 기회가 사라지게 되었다. 2구는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시적 재능에 대한 겸사로 쓰인 것이다. 그러나 1구와의 연계를 생각해보면, 문장 연마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국가 경륜의 가능성을 상실한 시인의 입장에서 단련의 이유가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은 연마를 게을리 해 문장이 부족해질 수

527) 『無何堂遺稿』冊2.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그에게 있어 붓은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막대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색한 사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어서 3구에서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附贅]가 된 것에 대해 자조했다.<sup>528)</sup> 첫 번째 시의 2구에서 “게으르고 졸렬하여 할 일 없으니 온갖 생각 사라졌도다[懶拙無營萬慮空].”나 다섯 번째 시 2구에서 “모든 일 이제는 이미 기심(機心)을 쉬는 것 같다네[萬事如今已息機].”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시름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자신 역시 시름으로 괴로워하고 있음을 말했다. 태의와의 술자리에서 지었다는 점과 두 번째 시 5구인 “지팡이에 의지하며 비틀거리는 걸음 잠시 시험해 보고[扶筇暫試蹣跚步].”나 다섯 번째 시 3구인 “뜸 맞은 후에 무릎 통증 계속 돼 견딜 수가 없으니[灸後不堪仍膝痛].” 등의 표현으로 보아 시름은 시인의 병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시상이 전환되어 정반대의 분위기로 전개된다. 첫 번째 시에서 “맑은 술잔 놓고 함께 웃으며 얘기하니 도리어 기쁘구나[却喜清樽笑語同].”라고 했듯 이태의(李太醫)와의 술자리가 즐겁기 때문이다. 이에 생긴 발 사이로 들어오는 기운도 상쾌하고 알맞다[宜]고 느끼게 된다. 수련에서는 현실을 탈피에 대한 지향으로서 은거에 대한 심중을 밝히고 있다. 7구에서 강호를 자신이 끝내 늙을 곳이라고 언급한 것은 은거에 대한 갈망이자 현 상태에 대한 불만족의 표현이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이 아닌 꿈속에서 갈매기와 백로[鷗鷺]를 찾아나선 것이다. 주지하듯 갈매기와 백로는 구로맹(鷗鷺盟)을 말하는 것으로, 속세를 떠나 강호에 은퇴하여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련은 자신의 출처조차 뜻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쓴웃음을 압축적으로 보인 것이다.

②의 전반부에서는 술자리의 주변 환경을 읊었다. 시인은 시간의 흐름에 둔감한 듯 이태의와의 대화 중 어느새 꽃 떨어지는 시기가 온 것을 깨달았다. 함련은 ①의 경련과 유사한 전개로 실내에서 느끼는 바람과 빗발에 작시 욕구가 일어남을 말했다. 이 시의 핵심은 5구에 있는데, 전형적인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표현한 것이다. 자신의 마음은 장대하나, 이와 반대로 하늘과 땅은

528) 김광찬(金光燦)에게 준 시에서 “외로운 몸은 객(贅客)과 같아 내 부끄럽고[媿我孤蹤同贅客].”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無何堂遺稿』冊2, 〈次金思晦 其三〉.

좋다고 했다. 실제로 하늘과 땅이 시인의 마음을 담지 못할 만큼 협소할 리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인의 세상으로 한정해 읽어야 한다. 이 역시 ①의 미련과 마찬가지로 현실 탈피에 대한 욕구를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미련에서는 첫 네 글자를 ①과 동일하게 사용해 대비시키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는 강호에서의 한정(閑情)으로 보인다. 봄철이라 날씨가 좋아 가는 곳마다 여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인데, 날 좋은 봄에 강호의 어느 곳에도 자신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한가로울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용한 두 편의 시의 미련은 표면적으로 한정(閑情)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무능한 자신에 대한 한탄인 것이다.

다음은 강유(姜瑜)에게 부친 시로, 네 편의 연작시 중 첫 번째 수이다.

〈취한 뒤에 공헌(公獻)에게 부치다[醉後寄公獻]〉

|         |   |
|---------|---|
| 客散高樓醉夢長 | 객들 흩어진 높은 누대에서 취하여 든 잠 길어지고             |
| 滿天風露濕衣裳 | 하늘 가득한 바람과 이슬에 옷이 젖었구나                  |
| 三更桂影宜秋色 | 삼정의 밤에 계수나무 그림자는 가을빛에 어울리고              |
| 四壁虫聲得夜涼 | 사방 벽은 벌레 소리로 밤의 서늘함 얻었다네                |
| 嗜酒戕身猶不戒 | 술 좋아해 몸을 상하게 해도 오히려 경계하지 않으니            |
| 出門無面亦堪傷 | 문 나가도 면목이 없어 또한 상심한다네                   |
| 朝來剩被兒曹笑 | 아침에 온 아이들의 비웃음을 실컷 받고도                  |
| 更向樽前覓一觴 | 다시 술통 앞으로 향해 한 잔 술 찾았다네 <sup>529)</sup> |

1구에서 알 수 있듯 술자리 이후 누대에 홀로 남아 지은 시이다. 함께 즐겼던 객들은 모두 귀가했고, 홀로 남은 시인의 곁에는 하늘 가득한 바람과 이슬 뿐이다. 이에 시인에게 주변으로 시선을 돌릴 여유가 생겼고, 계수나무 그림자와 가을빛의 조화 및 밤벌레 소리로 느껴지는 한밤의 서늘한 기운은 흥에 겨웠었을 술자리의 여운을 가라앉히기에 충분했다.

한바탕 술자리 이후 한밤중 홀로 사색에 잠길 수 있었던 시인은 술에 대

529) 『無何堂遺稿』 冊2.

해 생각한다. 애주의 기호는 몸을 상하게 할 수준에 이르렀으며, 시인 역시 이를 자각하고 있지만 스스로 경계하지 않았다. 6구에서는 자신감을 상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면목이 없다는 말은 타인이 전제된 표현으로, 타인을 의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5구와의 연결을 생각해보면, 음주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경계하지 못하는 자제력 없는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에서 기인한 것이다. 미련에서도 이와 같은 전개는 이어졌다. 시인은 아침에 아이들에게조차 비웃음을 당했지만, 그날 밤 바로 술을 찾은 것이다. 이 같은 시인의 모습은 고집을 넘어 아집에 가까워 보일 정도임에도 8구에서는 담담함을 느낄 수 있다.

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기력감에 빠진 채 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인의 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시의 6구에서 “서검(書劍)을 이룬 것 없어 내 스스로 상심했다오[書劍無成我自傷].”나 세 번째 시의 수련에서 “성글고 게을러 평생 재주가 부족했으니 조정으로 가서 헌상(軒裳)을 쫓은 것 스스로 우습도다[疎懶平生乏才長 趨朝自笑逐軒裳].”<sup>530)</sup> 등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문무에서 모두 이룬 것이 없는 자는 사실상 조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조정에 붙어 있으니 우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룬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게으른 성정에 재주마저 부족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음주와 작시만 남아 있다는 의식의 발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후배들의 시를 우연히 얻어 보고 화운한 다섯 편의 연작시 중 첫 번째 시이다.

〈병중에 아이들로 인하여 이훤(李蕙), 서문상(徐文尙) 두 상사(上舍)가 취하여 부른 운(韻)을 얻어 보았다. 이는 후배들에게 좋은 일이니 흠탄(歆歎)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마침내 그 날 저녁에 급하게 그 시에 화운하여 병중의 회포를 부쳤다[病中因兒輩 得見李蕙徐文尙 兩上舍醉唱之韻 此是後輩好事 不覺歆歎 遂於其夕 變爾和之 以寓病懷]〉

530) 강유의 시를 차운해 지었으며, 인용시의 바로 뒤에 실린 〈次姜公獻韻 送趙胤之北行〉에서도 “나는 평생 병들고 게을렀기에 우스울 뿐이네[笑我平生作病慵].”라고 하였다.

萬事人間已謬悠 인간세상의 만사는 이미 허망하니  
 一年吟病伴牢愁 일 년 동안 병으로 신음하며 근심만 짝했다네  
 忽看秀句聯成軸 홀연히 뛰어난 글귀가 잇달아 시축을 이룸을 보니  
 斗覺淸風爽滿樓 문득 맑은 바람이 상쾌하게 누대에 가득참을 깨닫는구나  
 多爾後生眞可畏 너희 후생들은 참으로 두려워할 만하니  
 如吾老子敢相酬 나 같은 늙은이가 감히 수창할 수 있으랴  
 向來習氣消磨盡 지금까지의 버릇은 다 사라져 버렸으나  
 尙憶論文共玉舟 글을 논하며 옥술잔 함께한 것 지금도 기억한다네<sup>531)</sup>

시인은 생원[上舍] 두 사람의 시를 보고 감탄하면서 병중임에도 불구하고 화운했다. 수련에서는 병중인 자신의 처지를 말했다. 세상만사가 이미 허망해졌다는 건 시인의 입장에 국한되는 말로, 자신은 이미 늙고 병들었기 때문에 후배들과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병 때문에 1년간 병으로 신음만 했을 뿐 아무것도 못했음을 말했다. 그러나 그런 시인도 후배들의 재능을 보는 것은 즐거웠기에 그들의 시를 보고난 후 맑은 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진 것이다.

이어 경련에서는 후배들을 권면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다. 5구는 『논어』, 「자한(子罕)」의 “뒤에 태어난 이들이 가히 두려울 만하니, 어찌 앞으로 올 자가 지금만 못할 줄을 알리오.”<sup>532)</sup>를 차용한 것이다. 그 주석에서는 “뒤에 태어난 사람은 살아갈 날이 많고, 힘도 강해 충분히 학문을 쌓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만 하다.”<sup>533)</sup>라고 한 뒤에, “그러나 혹 스스로 힘쓰지 않고 늙도록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sup>534)</sup>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인은 상대적으로 살아갈 날이 적고, 힘도 약하며, 학문을 쌓을 만한 여력이 없으면서 늙도록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자신은 ‘수창할 자격이 없다[敢相酬]’는 표현으로 논어의 구절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작시의 상황 상 후배들에게 권면하기 위한 겸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두 번

531) 『無何堂遺稿』 冊3.

532) 『論語』, 「子罕」, “子曰 後生可畏 焉知來者之不如今也.”

533) 『論語』, 「子罕」, “後生 年富力彊 足以積學而有待 其勢可畏.”

534) 『論語』, 「子罕」, “然 或不能自勉 至於老而無聞 則不足畏矣.”



째 시 8구인 “늙은이는 재주가 퇴보하여 모든 것에 무능하다오[老夫才退百無能]”도 함께 고려한다면, 단순한 겸사로만 치부하기에는 어렵다.

미련에서는 자신은 늙고 병들어 그동안 익혔던 것들[習氣]이 모두 사라져 버렸지만, 글에 대해 논하며 술자리 했던 추억들만큼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말로 술자리에서의 작시 활동을 권면하고 있다.

다음은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이 보낸 시를 차운한 6편의 시 중 두 번째 수이다.

〈문곡(文谷)이 보내 보여준 시에 받들어 차운하다 그 두 번째[奉次文谷投示韻 其二]〉

四月長安一雨初 4월 장안에 비가 비로소 한 번 내렸었는데  
 眼看諸品揔昭蘇 눈에 보이는 여러 사물들 모두 밝게 소생하였네  
 詩因懶慢新功乏 시는 게으름으로 인하여 새로운 공이 모자라고  
 學坐遺忘舊業蕪 배운 것도 잊어버려 옛 기예만 무성하구나  
 病後尙思桑落酒 병든 후에 오히려 상락주(桑落酒)를 그리워하고  
 靜中惟對博山爐 고요함 속에 오직 박산로(博山爐)만 대한다네  
 何時擺脫塵間事 어느 때에 속세의 일을 벗어날는지  
 放浪烟波十里湖 아지랑이와 물결 있는 십 리 호수만 방랑한다오<sup>535)</sup>

첫 번째 시의 7구인 “오직 법가(法駕)가 궁으로 돌아오는 날만 생각하네[惟思法駕回鑾日].”와 다섯 번째 시의 1구인 “4월의 온천에 임금님 수레 막 머물렀을 때[四月靈泉駐蹕初].”로 보아 1665년 4월 21일~5월 12일 현종이 온천에 머물렀던 기간에 김수항이 보낸 시에 차운하여 지은 것으로 보인다.

4월에 처음으로 내린 비에 사물들은 모두 밝게 소생하였지만, 시인은 게으름으로 단련이 부족해 작시에 대한 새로운 기교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배운 것마저도 잊어버려 옛 기예만 남아있다고 자탄하고 있다. 한 번의 비에 소생한 자연과 달리 변할 수 없는 시인이 처지가 대비된다. 경련에서는 시인의 병부로서의 모습을 말했다. 병든 후 술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홀

535) 『無何堂遺稿』 冊3.

로 고요함 속에서 향로만 대하고 있는 외로운 신세임을 담담하게 읊었다. 첫 번째 시 경련에서도 “병 들고 게으른데 늘그막이 되어 우스운데 이미 신세는 홍로(洪爐)를 들었도다[自笑病慵當暮境 已將身世聽洪爐].”라고 하며 게으른 병부인 채로 늙은 자신에 대한 조소(嘲笑)가 보인다.

미련에서는 탈속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속세를 벗어나고 싶지만 기약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어느 때[何時]’를 통해 이러한 의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갈망이었음을 드러냈다. 또한 세상을 떠나 은거하는 곳의 상징인 ‘연파(烟波)’를 통해 다시 한 번 그가 바라는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떠난 그가 바라는 이상적 공간인 강호의 ‘아지랑이와 물결 있는 십 리 호수’에서 시인은 방랑(放浪)하고 있다. 여기서 방랑은 현실을 탈피해 그 곳으로 떠날 수 없는 시인이 막연히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대변해 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러한 탈속 지향은 기실 현실 탈피에의 욕구와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현실에 대한 불만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여섯 번째 시 미련의 “내 가련하다! 한가한 이 몸에 끝내 무슨 일인지 조각배를 오호(五湖)에 띄운 것이 도리어 부럽도다[憐吾散迹終何事 却羨扁舟泛五湖].”에서 병든 자신은 할 수 없는 오호에서의 조각배 놀이를 하는 김수항을 부러워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그가 부마가 된 1623년에 지은 시들이다.

① <정릉(貞陵)의 빈 집에서 당숙께서 보내온 시를 차운하다[貞陵空舍 次堂叔寄韻]>

空館寥寥睡未成 쓸쓸한 빈 객사에서 잠 못 이루고 있는데  
 碧窓惟對曉燈明 푸른 창에 밝은 새벽 등불만 마주한다네  
 衷情欲寫無人會 속마음 쏟아내려 해도 알아줄 사람 없으니  
 坐聽庭前落葉聲 앉아서 뜰 앞의 낙엽 소리만 듣는다오<sup>536)</sup>

② <홀로 앉아 구점(口占)하다[獨坐口占]>

書劒還慙兩不成 서검을 둘 다 이루지 못해 도리어 부끄러운데  
 聖朝堪作一塵氓 성스러운 조정에서 한 명의 시골 백성 될 만하지

536) 『無何堂遺稿』冊4.

虛堂半夜殘燈影 빈 집에서 한 밤중에 희미한 등불 그림자 보니  
 似識愁人覓句情 시름에 잠긴 사람이 시구 찾는 마음을 아는 것 같다네<sup>537)</sup>

③ <태묘(太廟)의 제관으로 임명되어 구점(口占)하여 함께 일하는 요원(僚員)들에게 보이다[差祭太廟 口占示僚員同役]>

慙無才德籍朝紳 재주와 덕 없이도 벼슬아치 명단에 있는 것 부끄러운데  
 還羨儒生戴布巾 유생들이 포건(布巾) 쓴 것 도리어 부럽다네  
 太廟陪香大臣在 태묘(太廟)에 배향(陪香)하던 대신이 있었는데  
 向來唯見屬儀賓 지금까지 오직 의빈(儀賓)에 소속만을 봤다오<sup>538)</sup>

④ <총부(揔府)에서 숙직하며 배사(拜辭)와 분발(分發)함을 듣고서 입으로 읊다[入直揔府 聞拜辭分發口吟]>

九門初啓禁鍾晨 궁궐 문 처음 열리고 새벽 궁중 종소리 들리니  
 多少新恩拜謝人 새로 은혜를 입은 많은 배사(拜謝)하는 사람들 있네  
 佇見群工熙庶績 우두커니 못 신하들 여러 업적 빛낸 것 보았으니  
 腐儒從作太平民 쓸모없는 선비는 태평한 백성이 되었도다<sup>539)</sup>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먼저 ①은 정릉(貞陵)의 빈 집에서 당숙의 시를 차운한 것이다. 아무도 없는 빈 객사에서 쓸쓸함을 느끼며 잠 못 이루고 있는 시인의 곁에는 새벽 등불만 밝을 뿐이다. 늦은 밤 빈 객사에서의 밝은 등불과 외로운 시인의 모습이 상반되면서 그 쓸쓸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시인에게는 잠 못 이루고 있는 근심이 있지만, 마주할 것이라고는 등불 밖에 없는 현실을 3구에서 속마음 쏟아낼 사람이 없다는 표현으로 한탄하고 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건 고요한 밤 가만히 앉아 뜰 앞의 낙엽 구르는 소리만 듣는 것이다. 4구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신에 대한 한스러움을 상황 묘사를 통해 드러낸 것이다.

537) 『無何堂遺稿』 冊4.

538) 『無何堂遺稿』 冊4.

539) 『無何堂遺稿』 冊4.

②는 ①의 바로 뒤에 수록되어 있으며, 3구의 내용으로 보아 ①과 같은 날 지은 것으로 보인다. ①보다 자의식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승구가 바로 그리한데, 자신을 문무에서 모두 이룬 것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부끄러워했다. 이는 앞서 인용했던 〈취한 후에 공헌에게 부치다(醉後寄公獻)〉의 “서검(書劍)을 이룬 것 없어 내 스스로 상심했다오[書劍無成我自傷].”와 “성글고 게을러 평생 재주가 부족했으니 조정으로 가서 헌상(軒裳)을 쫓은 것 스스로 우습도다[疎懶平生乏才長 趨朝自笑逐軒裳].”에서 보인 의식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②는 1623년 작이며, 공헌에게 부친 시는 1639년 작이라는 점에서 16년의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의식이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승구에서는 성스러운 조정[聖朝]과 저잣거리 혹은 시골을 뜻하는 전(廛)을 대비시켜 자신이 부마가 되어 조정에 있는 현실이 분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전결구는 ①의 전체적인 시상과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텅 빈 공간에 시름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시인과 등불만 있는 상황에서 작시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직접 경험하며 다시 한 번 깨닫고 있다. ①에서 상황 묘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자탄했다면, ②에서는 이러한 의식이 보다 선명해져 직접적으로 시구에 표현했다.

③에는 태묘(太廟)의 제관으로 임명된 시인과 동료 관원들의 대비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시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 1구에서는 분수에 맞지 않는 지위에 있는 자신에 대해 말했다. 앞서 문무에서 이룬 것 없다고 한 것을 여기에서는 재주가 없다는 말로 포괄했는데, 여기에 더해 덕까지 부족한 인물로 평가했다. 그런 자신이 태묘의 제관으로서 명단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승구에서는 유생들을 부러워했다. 유생들의 입장에서는 부마의 지위가 부러울 수 있다. 그러나 부마인 시인의 입장에서는 유생들을 부러워했는데, 이는 그들이 향후 과거를 통해 등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로의 입장 차이는 ‘도리어[還]’를 통해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전결구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를 현재의 상황을 들어 설명했다. 임명직 밖에 수행할 수 없었던 부마의 입장에서 태묘로 배향하는 제관이 되었으나, 이들은 ‘오직[唯]’ 의빈(儀賓)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의빈

에 속한 자신은 제관 같은 임명직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신분은 높지만 현재도 미래에도 정사에 참여할 수 없는 자신과 당장의 신분은 낮지만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무한한 유생들의 대비를 통해 무기력한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고 있다. 제사를 함께 준비하는 관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지은 시라는 점에서 겸사와 권면의 의도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에서 직접적인 감정 노출을 자주 하지 않는 홍주원의 작시 경향상 부끄러움[慚]과 부러움[羨]의 감정을 직접 노출했다는 점에서 의례적인 표현으로만 볼 수는 없다.

④는 총부(揔部)에서 숙직한 후 날이 밝은 뒤 감회를 읊은 것이다. 시인은 ③에서의 임시적 임명직인 제관과 함께 관례적으로 부마에게 주어진 임무 중 하나인 총부의 숙직 업무를 마쳤다. 그의 눈에는 궁중의 새벽 종소리로 궁궐 문이 열림과 동시에 새로운 벼슬에 임명 받아 배사(拜謝)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들은 모두 업적이 있는 자들로 국정에 보탬이 된 신하들인데, 시인은 그런 그들을 멀리서 우두커니 바라만 볼 뿐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저들과 같은 공간인 궁중에 있으나 쓸모없는 선비[腐儒]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sup>540)</sup> 벼슬에 임명 받아 수학했던 것을 실제 정사에 적용할 유생들과 대비되어 자신은 그럴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쓸모없는 선비라고 냉조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자신을 태평한 백성[太平民]이 되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배사한 후 각자 맡은 바의 임무를 수행할 자들에 비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숙직은 태평한 백성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sup>541)</sup> 인용한 4편의 시들에서는 표현 방식과 직간접적인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능한 자신의 신세에 대한 자조와 한탄이 녹아있다.

다음은 이일상이 지은 단양십절(端陽十絶)을 차운한 시들 중 일부이다.

- ① <함경(咸卿)이 단양(端陽) 십절(十絶)을 지어 자화(子和)에게 부친 것을 차운하다

540) 『無何堂遺稿』 冊2, <揔府直廬 次元子建斗构>도 숙직하며 지은 시인데, 미련에서 “우스워라 쓸모없는 선비는 끝내 무슨 일 했던가 마음 속으로 나라 걱정 말고 다른 것은 없었노라[堪笑腐儒終底事].”라고 했다. 표면적으로 겸사와 함께 우국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쓸모없는 선비로서 나라 걱정 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자조적 의식의 표현이다.

541) 『無何堂遺稿』 冊1, <入直揔府>의 수련에서도 “출입은 임금님 의장(儀仗)을 따르지만 직함은 보병(歩兵) 같구나[出入隨天仗 官銜似歩兵].”라며 숙직하며 느낀 자신의 신세를 표현했다.

그 여섯 번째[次咸卿端陽十絕寄子和之作 其六]

平生活計一尊盈 평생 살아갈 계획은 한 동이 술에 가득하니  
書劒如何兩不成 책과 검 어찌하여 둘 중 하나도 이루지 못했을꼬  
敢向騷壇爭得失 감히 시단(詩壇)을 향하여 득실을 다투랴만  
怕君堅壁擁千兵 그대가 견고한 벽을 천 명의 병사로 에워쌀까 두렵도다<sup>542)</sup>

② <다시 차운하다 그 일곱 번째[再次 其七]>

平生疎懶一無營 평생토록 게을러서 하나도 경영한 것 없는데  
酒肆詩壇謾結盟 술집과 시단에서 부질없이 맹세를 맺었다오  
宇宙百年吾輩在 우주 속 백년 인생에 우리들이 있으니  
幾時携手謝簪纓 어느 때에 손잡고 벼슬을 그만두려나<sup>543)</sup>

①의 기승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 평가한 것이다. 문무 중 제대로 이뤄낸 것이 없는 자신을 탓하면서, 살아온 시간과 앞으로 살아갈 날에 남은 것은 오직 술 뿐이라는 것으로 자조하고 있다. 아홉 번째 시의 기승구에서 “향기로운 술이 백륜(伯倫)의 무덤에는 이르지 않으니 마땅히 깊은 술잔 잡고 날마다 기울여야 하네[芳醪不到伯倫塋 須把深杯日日傾].”에서도 이와 같은 자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듯 백륜은 죽림칠현 중 한 사람인 유령(劉伶)이다. 애주가였던 그는 녹거(鹿車)를 타고 다니며 항상 호로병에 술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시종으로 하여금 삽을 메고 따라다니게 하여 자기가 죽으면 그 자리에 묻어 달라고 하였다. 그런 백륜의 무덤에 이르지 않을 술이기 때문에 마땅히 날마다 술잔을 잡아야 한다는 것은 음주를 마치 일과처럼 여기는 시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

승구에서 드러난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한 의식은 세 번째 시 전결구에서도 동일하게 보인다. “우물 안 개구리는 평생토록 끝내 무슨 일을 했는지 책상 가득한 책들 멋대로 종횡으로 있다오[蛙井百年終底事 滿床書帙任縱橫].”

542) 『無何堂遺稿』 冊4.

543) 『無何堂遺稿』 冊4.



라며 자신을 우물 안 개구리에 비유한 것에 더해 평생 한 것이 없는 인물로 표현했다. 책상에 가득 책들이 있기는 하지만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제멋대로 있는 것이 스스로 느끼는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결구는 자신의 시적 재능을 낮추는 검사를 통해 원운의 작자인 이일상의 문장 능력을 칭양하는 일반적인 수사로, 세 번째 시의 승구인 “시율은 땅에 던지면 악기 소리 나는 것에 유독 부끄럽네[詩律偏慙擲地聲].”도 같은 맥락이다.

②의 기구 역시 게으른 자신의 천성을 탓하면서 이뤄놓은 것 하나 없는 현실을 말했다. 그런 그가 평생 한 것이라고는 술자리에서의 음주와 시작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돌이켜보면 부질없는 그 순간의 맹세일 뿐, 이뤄놓은 것이라고 평가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전결구에서도 자신의 무능함을 광활한 우주와의 대비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속에서 그에 비하면 백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출처에 대해 고민하는 자신들을 말했다. 광대한 우주의 크기와 역사를 생각했을 때, 벼슬을 그만둔다는 작은 바람조차 실천하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한탄한 것이다.

이상으로 홍주원의 자조적 의식이 드러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의 자조적인 의식은 기본적으로 유자로서 발전 가능성 없이 부마라는 신분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신분의 한계에서 기인했다. 이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스스로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이 아닌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표출되었다. 그 양상으로 은거나 강호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술을 통해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지향에는 자신을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범부(凡夫)로 치부한 자기 비하적 의식도 전제되어 있다.

## 2) 운명론적 의식을 통한 현실 자각

1항에서 살펴본 홍주원의 자조적인 의식은 일차적으로 부마로 간택되면서 직면하게 된 벗어날 수 없는 제도적·신분적 한계가 원인이 되었다. 이는 보장되는 물질적 풍요로움과 왕실의 일원으로 편입된다는 신분 상승의 기회라는

현실적 이익보다 추구하던 가치관과 상충(相衝)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대한 내적 갈등이 더 컸기 때문이다. 유자로서의 꿈이 타의에 의해 봉쇄됨과 동시에 자기 연마를 통한 국가 경영이라는 이전까지의 목표 의식이 사라지게 된 상황을 쉽게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자신의 이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로 인한 불만족이 공존하는 심리 상태가 지속된 것이다.

이러한 심리가 자조적·냉소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은거나 강호에 대한 지향 등의 현실 탈피에의 욕구로 표출되었다. 본항에서는 이러한 의식의 또 다른 양상으로 홍주원의 운명론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운명론은 사상과 철학에 따라 다양한 견해와 이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차용하고자 하는 운명론은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이론이 아니라, 사전적 정의로서 ‘모든 일은 미리 정하여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는 바꿀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홍주원은 성쇠에 대해 믿을 것은 오직 운명 뿐이라거나,<sup>544)</sup> 만사는 자신이 아닌 외물(外物)에 있다는 생각<sup>545)</sup> 등 인간의 삶은 거스를 수 없는 초월적인 개념이나 타자에 의한 것이라는 수동적 자세를 보였다. 이는 현실의 불만족에 대한 원인을 외부에서 찾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기 위안이자 일시적인 정신적 회피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운명론적 의식은 지인의 죽음이나 부임 등의 이유로 이별하게 되는 경우, 출처 문제 등 시인을 포함한 당사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닥쳤을 경우에 표출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외부적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그 갈등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무력감을 유발하기 쉽다. 이 때 홍주원은 적극적인 극복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체로 그 현상을 받아들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용한 것이 운명론적 의식이다.

이는 대체로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갈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운명론적 의식이 개입되어 갈등 해소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을 면피함과 동시에 무기력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대한 당위성도 부여한다. 갈등과 수용 사이

544) 『無何堂遺稿』 冊1, 〈別堂弟鼎卿海西佐幕之行〉, “성쇠는 오직 운명을 믿을 뿐이나 늙고 병들어 뜻을 이길 수 없다네[榮枯惟信命 衰病不勝情].”

545) 『無何堂遺稿』 冊2, 〈次子裕〉, “만사는 예로부터 모두 외물이었거늘[萬事從來皆外物].”

에 개입된 운명론적 요소는 주로 운명을 결정하는 추상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조물주, 조화옹, 귀신, 하늘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작품을 통해 살펴보겠다.

〈사제(舍弟) 자유(子裕)의 시를 차운하다 그 두 번째[次舍弟子裕韻 其二]〉

春色花飛盡 봄빛의 꽃잎도 다 떨어졌는데  
嵐光鳥帶過 산안개로 새 무리가 지나가네  
一生甘寂寞 일생토록 적막함을 달게 여겼으니  
萬事任蹉跎 모든 일을 어긋난 채로 맡겼다오  
強把排愁酒 억지로 시름 없앨 술잔 잡았으나  
還驚怨別歌 도리어 이별을 원망하는 노래에 놀란다네  
那堪獨歸路 홀로 돌아갈 길 어찌 견디랴  
天濶暮雲多 하늘은 탁 트여 저녁 구름 많기도 하네<sup>546)</sup>

인용시는 아우인 홍주후(洪柱後)가 과거에 낙방한 후 지은 시를 차운한 것으로,<sup>547)</sup> 두 편의 연작시 중 두 번째 시이다. 수련에서는 봄빛이 다해 떨어진 꽃잎과 산 아지랑이 사이로 사라져가는 새들의 무리를 말했다. 꽃잎은 떨어져 사라지고, 새들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 시야에서 사라진다는 소멸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는 과거에 낙방해 기회가 사라진 홍주후의 입장과도 같다. 반면 첫 번째 시 3구에서는 “가련하다 봄빛은 흐드러졌는데 도리어 뜻을 놓쳤으니 한스럽도다[可憐春爛熳 還恨志蹉跎].”라고 해 봄빛에 대한 서술이 다르다. 이는 한창 때인 밝은 봄빛과 낙방으로 때를 놓친 홍주후의 상황을 대비시켜 안타까움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같은 풍경을 보고 지은 것이지만 강조를 위한 수사적 장치의 일환이다.

함련에서는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인 채 살아온 시인의 심정을 말했다. 3구에서 쓸쓸함을 달게 여겼다는 서술은 적막함이 자신의 운명임을 받아들였

546) 『無何堂遺稿』 冊1.

547) 첫 번째 시 후반부에서 “슬프게 황금榜(黃金榜)을 바라보며 외로이 백설가(白雪歌) 읊는다네 응당 파교를 건너는 날 수만 가지 시름이 많을 것을 알겠도다[悵望黃金榜 孤吟白雪歌 應知渡灞日 愁緒萬端多].”라고 해 홍주후가 낙방 후 서울을 떠나 이별하게 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는 것이다. 4구 역시 홍주후의 낙방을 포함해 시인의 삶에서 만사가 어긋났다고 여기지만, 이 역시 그대로 두고[任] 있다. 3구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하늘 혹은 조물주 같은 운명을 주관하는 존재에게 맡겨야 할 일이며, 자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의식이 내포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망이나 원성의 표현이 아닌 단념과 체념의 자세를 보인 것이다.

경련에서 시름을 없애기 위해 술잔을 ‘억지로[強]’ 잡았다. ‘억지로’는 두 가지 의미로 풀어볼 수 있다. 먼저 음주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는 홍주후가 과거에 붙었다면 하지 않았어도 되겠지만, 낙방으로 인해 다시 경상도로 떠나야 하는 아우를 송별해야 해야 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련에서는 상심한 채 먼 길을 떠나야 할 아우를 걱정했다. 하늘은 탁 트여 있지만, 저녁 구름이 많다는 것을 통해 떠날 길에 악천후를 근심하는 모습을 보인다. 8구에 좀 더 천착해보자면, 구름은 해를 가린다는 속성상 보통 장애물을 비롯해 부정적인 사물로 쓰이는 용례들이 많다. 따라서 8구도 홍주후의 앞길은 트여있지만, 구름 같은 장애물들이 많다는 말로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홍주후가 낙방한 사실에 대해 정해진 운명인 양 체념하는 듯한 어조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홍주후가 경상도로 내려가던 중에 보낸 시를 차운해 지은 것에서도 이와 유사한 분위기와 시상으로 전개되는 것이 있다.

〈자유(子裕)가 도중에 부쳐 보인 시를 차운하다 그 두 번째[次子裕在路中寄示韻其二]〉

|       |                       |
|-------|-----------------------|
| 節序清和近 | 절기는 청화절(淸和日)이 가까우니    |
| 光陰水急流 | 세월은 급류처럼 흘러가는구나       |
| 行藏同逆旅 | 행장(行藏)은 나그네와 같고       |
| 身世任虛舟 | 신세는 빈 배에 맡겼다오         |
| 萬事渾如此 | 만사가 모두 이와 같으니         |
| 浮生謾自愁 | 덧없는 인생 부질없이 홀로 시름겨워하네 |
| 何當脫塵累 | 어찌해야 속세의 근심 벗어나       |

江榭伴沙鷗 강가의 정자에서 갈매기 짝하랴<sup>548)</sup>

함련에서 시인은 자신의 출처는 나그네와 같다고 했는데, 이는 정착할 곳 없어 떠돌이 신세인 나그네와 마찬가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말한 것이다. 또한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덩그러니 놓인 자신의 신세를 아무것도 없는 빈 배에 맡겼다는 표현으로 비유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시의 4구와 마찬가지로 시인의 만사는 모두 이와 같으며 한탄했다. 그렇기 때문에 덧없는 인생[浮生]으로 규정한 자신의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잘 알기에 ‘부질없이[渾]]’ 홀로 시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의식 속에서 자체적으로 내린 유일한 해답은 현실 도피의 일환으로서의 탈속 지향이다.

다음은 앞서 1항에서 인용했던 후배들의 시를 차운한 5편의 연작시 중 세 번째 시이다.<sup>549)</sup>

〈병중에 아이들로 인하여 이훤(李蕙), 서문상(徐文尙) 두 상사(上舍)가 취하여 부른 운(韻)을 얻어 보았다. 이는 후배들에게 좋은 일이니 흠탄(歎歎)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마침내 그 날 저녁에 급하게 그 시에 화운하여 병중의 회포를 부쳤다 그 세 번째[病中因兒輩 得見李蕙徐文尙 兩上舍醉唱之韻 此是後輩好事 不覺歎歎 遂於其夕 輦爾和之 以寓病懷 其三]〉

河清熙運幾時逢 황하가 맑아질 밝은 운세를 어느 때나 만날런지  
海內兵塵尙盪淘 해내(海內)에 병란의 먼지는 아직도 자욱하다네  
北漠長驅思武帝 북막(北漠)으로 멀리 달리던 무제(武帝)를 생각하고  
東韓再造泣神宗 동한(東韓)을 구원한 은혜에 신종(神宗)을 위해 운다오  
固知興喪關天數 진실로 흥하고 망함은 천수(天數)에 달렸음을 알겠으니  
誰獻謨猷壯國容 누가 계책을 올려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나  
感古傷今無限意 옛 것을 느끼고 지금은 마음 아픈 뜻이 끝없으니  
把杯安得滌心胸 술잔 잡아봐야 어찌 마음을 씻어낼 수 있을까<sup>550)</sup>

시의 전반부에서는 중원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전술했듯 홍주원은

548) 『無何堂遺稿』 冊1.

549) 이 시는 연작시 내에서 돌출적인 내용으로, 후배들이 술자리에서 지은 시와 전혀 관계가 없다. 또한 나머지 4편의 시와도 유기성이 보이지 않아 편집 단계에서 잘못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550) 『無何堂遺稿』 冊3.

전형적인 승명배청형의 인물이었다. 청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의 재기를 바라고 있었다. 중원을 상징하는 황하가 맑아질 밝은 운세를 기다리는 시인에게 청이 장악한 해내(海內)는 병란의 먼지가 가라앉지 않은 자옥한 곳일 뿐이다. 황하의 물이 맑아진다는 것은 위(魏)나라 이강(李康)이 지은 <운명론(運命論)>에서 “황하가 맑아지면 성인이 나온다[黃河清而聖人生].”라고 한 것이 가장 유명해 주로 성인의 등장으로 태평성대가 이룩될 상서로움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의미가 보다 확장돼 맑아진 황하는 오랑캐가 지배하지 않는 중원을 가리킨다.

함련에서는 명(明)나라의 과거를 회상했다. 3구에서는 무제(武帝)라는 명성에 걸맞듯 오랑캐인 흉노족을 성공적으로 토벌하며 북쪽 사막을 내달리던 한나라의 위세를, 4구에서는 재조지은(再造之恩)으로 일컬어지는 임진왜란 때 군사적 원조를 했던 신종(神宗)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청에 대한 반감과 명을 지지하는 명분을 말했다. 이 당시가 청(淸)이 국가로서의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춘 때였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시인의 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경련에서는 흥망에 대한 인식을 밝혔다. 여기에서는 국가의 존망에 한정해 말한 것으로, 결국은 운명[運命]에 달려있음을 말했다. 앞서 전반부에서 청에 대한 반감과 명의 재기에 대한 희망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명이 잘못됐다라는 비판의식이나 운수가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미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임을 시인이 이미 알고 있기[固知] 때문이다. 이에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고, 눈물만 흘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어서 6구에서는 시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중원의 운명에서 조선으로 되돌아와 국방에 대한 근심을 드러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직접 목도했던 홍주원의 입장에서 그 누구라도[誰]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싶었던 것이다.

미련에서도 함련에 이러 소극적인 자세가 이어졌다. 과거 중원의 패자로 군림하던 시기와 군사적으로 조선을 원조해줄 수 있었던 시기를 떠올리며 마음 아파했다. 이러한 심적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술잔을 잡아보지만, 이 역시 부질없는 행위임을 시인은 알고 있다. 중원의 주인이 바뀐 사건을 계기로



감정이 촉발되어 시를 지었으나, 결국 흥망성쇠는 운명에 달려있으며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뿐이다.

다음으로 조물주·조화옹 등이 등장하는 시들을 살펴보겠다.

① 〈회포를 부치다 그 두 번째[寓懷 其二]〉

不死冥頑甚 죽지도 않고 완고함이 심해졌으니  
偏爲造物侵 공교롭게도 조물주에게 침노 당했구나  
如何兒病眼 어찌하여 아이의 눈에 병이 들었는지  
又使我摧心 또 나로 하여금 마음이 꺾이게 하네  
一醉眞歡緒 한 번 술 취함이 진실로 즐거운 일이나  
千篇揔苦吟 천 편 모두 신음하며 읊었다네  
天機與人事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일들을  
獨坐看晴陰 홀로 앉아 맑거나 흐리거나 바라본다네<sup>551)</sup>

② 萬事唯隨造化爲 만사는 오직 조화옹이 하는대로 따라야 할 뿐이니  
三年枕席此生悲 3년을 침상에서 보낸 이 삶은 슬프구나<sup>552)</sup>

③ 身世從他造化司 신세는 그로부터 조화옹이 맡았으니  
一年吟病閉門時 일 년 동안 병 앓아서 문을 닫았던 때라오<sup>553)</sup>

①은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회포를 말한 두 편의 연작시 중 두 번째 시이다. 첫 번째 시 미련에서 “친한 이들 내 수척함에 놀라니 병 근심한 지 이미 해가 지났다네[所親驚我瘦 憂病已經年].”라는 언급을 통해 인용시 수련의 내용이 병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변인들이 놀랄 정도로 수척해진 외형은 병의 위중함을 짐작하게 하는데, 시인의 입장에서는 죽지도 않은 채 고집만 세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 그러나 시인은 완고해지게 된 원

551) 『無何堂遺稿』 冊1.

552) 『無何堂遺稿』 冊3, 〈次從姪萬宗病中寄示韻〉. 종질 흥만종의 이름은 洪萬鍾인데, 제목에 洪萬宗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기(誤記)로 보인다.

553) 『無何堂遺稿』 冊4, 〈寄公獻 其三〉.

인을 조물주에게서 찾고 있다. 이는 공교롭다[偏]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뜻밖에 조물주에게 침노 당한 결과임을 강조한 것이다. ‘偏’과 ‘侵’의 결합을 통해 자신은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객체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조물주는 자신도 모자라 아이의 눈병까지 듣게 해 시인에게 상심을 안겨줬다.

경련에서는 자신과 아이의 병 등 근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시름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셨으며, 이 자체로만으로는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는 으레 그렇듯 시를 지을 때면 창작의 고뇌로 인해 다시 괴로움이 찾아옴을 말했다. 미련에서는 자신의 병으로 인해 생각하게 된 하늘의 이치[天機]와 사람의 일[人事]에 대해 말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로 하늘의 이치에 의해 사람의 일이 결정된다. 자신의 완고해진 성격과 아이의 눈병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시인은 홀로 앉아 맑거나 흐리거나 바라본다면서 소극적이고 관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바라보는 것 외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이 없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는 종질(從姪)인 홍만중(洪萬鍾)이 병중에 보낸 시를 차운한 것의 수련이다. 홍만중과 마찬가지로 시인 역시 3년을 침상에서 보냈다고 할 정도로 병세가 심각하다. 시인은 1구에서 두 사람의 이러한 상황을 저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병이 든 것을 포함해 자신들은 오직[唯] 조화옹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시인은 3년 간 병부로서의 생활로 심신이 지쳐있을 법도 하건만 원망의 목소리는 전혀 없이 슬퍼만 하고 있다. 조화옹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운명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③은 절친했던 강유에게 보낸 네 편의 연작시 중 세 번째 시의 기승구이다. 첫 번째 시의 기승구에서 “영욕은 뒤숭숭한데 누가 시험을 관장했는가 그대의 방랑하는 자취는 이미 때를 지났으니 안타깝네[榮辱紛紛孰主司 憐君散迹已經時].”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강유의 출처와 관련된 내용으로 추측된다. 두 번째 시까지는 화제가 강유에게 있었으나 세 번째와 네 번째 시에서는

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인용한 부분에서는 1년 전 병을 앓아 문을 닫고 폐쇄적으로 지냈을 때부터 자신의 신세는 조화옹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시인의 1년의 삶을 요약해서 보여준 것인데, 자신은 깨닫지 못한 채 1년을 보냈으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병을 앓은 것이나 문을 닫고 지내게 된 것이나 모두 조화옹의 뜻이었다는 말이다. 이는 바꿔말하면 1년 간 자신의 삶에서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자, 책임의 소재를 조화옹에게 회부함으로써 정신적 고뇌로부터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조물주나 조화옹처럼 운명의 절대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 그 자체에 대해 언급한 시들이다.

① 升沉惟信命 부침(浮沈)은 오직 운명을 믿을 뿐이나

去住取傷情 가고 머무름은 가장 마음 상하는 일이라네

...중략...

平生着功地 평생 공들였던 곳인데

萬事不須驚 만사가 놀랍지도 않구나<sup>554)</sup>

② 已判閑蹤自去留 한가한 자취는 절로 가고 머뭇이 이미 정해졌다네<sup>555)</sup>

③ 地無內外宜隨分 땅은 내외(內外)가 없으니 마땅히 분수를 따라야 하고

官有升沈豈要名 관직은 승침(升沈)이 있으니 어찌 명예를 구하라<sup>556)</sup>

④ 平生不解理 평생 이치를 이해할 수 없으니

醉亦怨蒼天 취하여 또 푸른 하늘만 원망한다오<sup>557)</sup>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①은 사촌인 홍주일(洪柱一, 1604~1662)이 귀양 가서 부친 시를 차운한 것으로, 함련과 미련이다. 함련에서는 홍주일의 귀양을 계기로 인간의 부침(浮沈)에 대해 언급했다. 인간의 부침에 대해서는 운명을

554) 『無何堂遺稿』 冊1, 〈次一之兄在謫所寄示韻〉.

555) 『無何堂遺稿』 冊3, 〈次靑湖韻〉.

556) 『無何堂遺稿』 冊3, 〈又次舍弟韻〉.

557) 『無何堂遺稿』 冊4, 〈醉後贈李生夏鎮〉.

믿어야 할 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오직[惟]을 통해 강조했다. 이는 어쩔 수 없었던 일임을 말함과 동시에 운명으로 정해진 일이라고 단정함으로써 홍주일의 잘못을 희석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4구에서는 부침 중에서도 홍주일에게 해당되는 가고 머무름[去住]에 대해서는 가장 마음 아픈 일이라며 공감과 함께 위로를 건네고 있다. 그러면서 홍주일의 귀양은 그가 평생 공들였던 곳에서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sup>558)</sup> 만사가 놀랍지 않다면서 덤덤하게 말했다. 이를 통해 홍주일의 귀양이 특별한 일이 아닌 예삿일로 치부해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이다.

②는 이일상의 시를 차운한 것의 6구이다. 함련에서 “비에 막혀 강밖의 수레를 마침내 멈추고 더위 피하러 빗속의 누대를 자주 올랐었지[阻雨遂停江外駕 納涼頻上雨中樓].”라는 것을 통해 여름철 비가 많이 온 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련인 “서호(西湖)의 백구주(白鷗洲)에 물결 불어났을텐데 낚시터에 작은 배 매어놓은 것 상상해본다네[西湖波漲白鷗洲 想見漁磯繫小舟].”는 언급으로 비 온 뒤 불어난 물가에서 뱃놀이를 함께 즐기고 싶어하는 시인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인용구의 앞구인 5구에서는 “멋진 모임은 더디고 빠름이 없음을 잘 아는데[極知勝會無遲速].”라고 하여 따로 기약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져도 좋다는 뜻을 내비쳤다. 인용구에서 언급한 한가한 자취[閑蹤]는 시인 자신을 말한다. 자신은 가고 머뭇[去留]이 이미 정해져 있는 한가한 존재로 어느 때건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의 내용은 비로 인해 물이 불어나 뱃놀이 하기 좋은 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담은 것이다. 그러나 인용구에서 드러난 자의식은 자신은 남들과 달리 출처가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다.

③은 북쪽 변방으로 부임가는 집안 아우의 시를 차운한 것의 경련이다. 의례적으로 지은 송별시를 다룬 2장에서 언급했듯 중앙에서 멀어져 변방으로

558) 그가 귀양간 것은 1642년 사헌부에서 당시 해운 판관이었던 홍주일의 파직을 청한 일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사헌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해운 판관(海運判官) 홍주일(洪柱一)은 평소의 행사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많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지가 오래입니다. 전일 상중에 있을 때에도 행실을 삼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자기 숙부의 전택(田宅)까지 공공연히 빼앗아 차지 하였으므로 그가 향리에 살 때에 원근의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일찍이 중한 논박을 받았는데도 조심하는 기색이 없으니, 더 이상 의관의 반열에 두어서는 안 되며, 더구나 해운(海運)의 직책은 많은 고을을 호령하는 것으로서 관장하는 바가 매우 중대하니, 더욱 이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당시 인조는 이 의견을 따랐다. 『인조실록』 20년(1642) 8월 20일, 〈사헌부가 해운 판관 홍주일의 파직을 청하다〉.

가는 아우에 대해 명분을 제시함으로써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이다. 국토는 내외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분수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宜]고 했다. 결국 북쪽 변방으로의 부임은 자신의 분수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한 것이다. 6구에서는 관직의 승침(升沈) 역시 자연스러운 것으로 굳이 명예를 구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바꿔말하면 이 부임이 가라앉음[沈]이라는 것을 시인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강한 어조로 제안했다.

④는 전결구로, 1구인 “거문고를 잃었을 즈음 눈물은 다했으니[淚盡亡琴際]”로 보아 누군가의 죽음을 계기로 지은 것으로 보인다. 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으로 하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비롯한 일상에서까지 많은 죽음을 접해 봤던 시인이지만 인간의 생사에 있어서만 큼은 평생토록 이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시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애꿎은 하늘만 원망할 뿐이다. 여기에서 하늘은 기실 사생과 운명을 주관하는 어떤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자조적 자의식의 일환으로 운명론적 관점에 기반한 작품들을 살펴해보았다. 기본적으로 현실에서의 고난을 비롯한 근심 등 불만족 등이 작시의 동인이 되었다. 특히 출처나 신세, 병, 생사 등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와 같은 의식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모두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으로,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운명론적 관점이 개입된 것이다. 홍주원은 이를 통해 자기 위안이나 일시적으로 정신적인 회피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갈등 해결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무력감을 유발해 담담한 어조가 많았으며, 이는 곧 적극적인 극복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소극적이고 관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 제 5 장 결론

본고는 17세기 초·중반 선조(宣祖)의 부마(駙馬) 중 한 사람이었던 무하당(無何堂) 홍주원(洪柱元)의 생애와 한시의 특질을 구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먼저 홍주원의 한시를 살펴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인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이를 작품과 연계해 그의 실상에 가까워지고자 했다. 이후 부마라는 신분적 특성에 기반해 의례적으로 지은 시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각각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홍주원을 한 사람의 ‘시인’이자 ‘개인’의 측면에서 자의식이 표출된 작품들을 통해 그의 내면이 시를 통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파악했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작시와 사적인 영역에서의 작시를 통해 홍주원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한 시도였다. 논의했던 결과를 정리한 후,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작품 분석에 앞서 홍주원 한시의 연원을 규명하기 위해 그의 생애와 사승관계를 살펴보았다. 가족의 상사(喪事)나 병환 등의 문제는 일반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집안 여복이 연루되어 5년간 두문불출하게 만든 기묘년(1639) 옥사 사건 등은 그의 삶에 큰 파장을 남겼던 사건이자 흔치 않은 경험으로, 시문 창작에도 영향을 끼쳤다.

사승관계는 홍주원의 학시기(學詩期)의 작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그가 수학했다고 알려진 외조부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와 북저(北渚) 김류(金鑣)와의 작품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영향 관계 및 친연성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밝혀 홍주원 한시의 연원을 밝히고자 했다. 비교·분석의 방법으로 시의 형식이나 작법 상의 특징 등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용이한 요소들에 중점을 두어 분석했다. 특히 시인을 평할 때 당대와 후대의 풍격(風格)과 관련된 논의들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 풍격은 전반적인 시풍과 정서 등 시인의 개괄적인 특징을 파악하기에는 용이하지만, 평가자에 따라 그 판단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맹점이 있다. 또한 용어별로 명확하게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과 추상적인 평가 용어 등은 비교 근거로서 명



료한 기준으로 삼기에는 다소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구점(口占)과 만시(挽詩)의 다작(多作) 경향 및 시어 사용의 유연성이라는 공통분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구점의 작시 방식은 당대에 크게 유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점은 월사 가계의 작시 특징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즉흥적인 작시 경향을 추구한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또한 구점의 특성상 특별한 전고나 복잡한 수사의 사용보다는 직서(直敍)의 방식을 선호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번째로 만시의 다작이다. 홍주원은 총 692수의 만시를 남겼는데, 이는 전체의 34%의 비율을 차지한다. 홍주원은 한국한시사에서 가장 많은 만시를 창작한 인물로 평가된 바 있으며,<sup>559)</sup> 상장례가 일반으로 보편·확대됨으로써 만시 창작이 활성화된 조선 후기에 비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양이다. 이정귀는 271편의 만시를 남겼는데, 이 역시 이전 문집들을 비롯해 당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다작이라는 측면에서의 공통점도 있지만 근체시의 비율이 높다는 창작 성향에서의 공통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창작의 대상에 있어서도 여성 및 현달하지 못한 인물 등 신분이나 지위에 대한 편견 없이 만시를 지어 주었다는 점도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편독(遍讀)을 통한 시어 사용의 유연성과 포용성이다. 도교나 불교 등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관련 용어들을 작시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시적 흥취를 고양시켰다. 그러나 편독을 통한 용어 사용의 유연성은 그것들에 대한 종교적·사상적인 경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작시 상황에 따라 시구를 다양하게 활용·표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3장부터는 작품 분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부마라는 신분에 초점을 맞춰 의례적으로 지었던 시들 중 대표적인 양식인 송별시와 만시로 양분해 살펴보았다. 먼저 송별시에서는 객관적인 서술의 한 단면으로서 시인의 부재(不在)를 다뤘다. 기본적으로 송별시는 이별의 상황 하에 지은 것으로 서정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인 교유 관계가 전제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부마의 입장에서 의례적으로 지은 홍주원의 송별시는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당대(唐代)에 이르러 시가(詩

559) 하정승, 『藥泉 南九萬의 한시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동양한문학연구』 제47집, 동양한문학회, 2017, 124면 각주5 참조.

歌) 기능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교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했는데, 송별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비교적 중요한 사교 행위의 일환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자리에서는 전송하는 대상과의 인간적 교감과는 별개로 송별시를 짓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sup>560)</sup> 이에 이 시기에 송별시의 창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당시 학당풍(學唐風)이 확산되던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조(詞藻)의 흐름과 당시풍 작가로 평가되는 이정귀의 지대한 영향, 부마라는 지위로 인해 송별연에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경우와 부임자들이 부임 전 방문하여 인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등의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홍주원이 많은 수의 의례적인 송별시를 짓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송별시 창작의 양적 확대는 시의 구성과 내용의 정형화되는 현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형식과 내용의 상투성이 고착화 된 가운데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차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형화 된 틀 내에서도 표현 및 수사 방식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홍주원의 경우 그 첫 번째가 바로 시인의 부재를 통한 객관성의 확보이다. 시에서 자신을 노출하지 않는 수법을 통해 부임에 대한 사적인 가치평가를 드러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감정 또한 노출하지 않았다. 이에 송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객관적인 정보 및 의례적인 제언들이 대다수였다. 이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사적인 교유가 전제되지 않더라도 서술할 수 있는 것들이다. 시에서 시인은 화자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만 하고 있을 뿐, 시 안에 등장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는 등의 직접적인 개입이 많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일차적으로 부임자와 사적인 교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례적으로 송별시를 지어야 한다는 조건에 의해 선택된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결국 부임자와 부임지를 비롯해 부임의 상황 등 산재된 다양한 객관적인 정보들 중 소재를 취사(取捨)하는 과정을 거치며 시를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즉 사적인 가치평가와 감정 노출을 자제하는 것으로써 교유가 없던 부임자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으며, 객관적 정보의 편린들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획득한 참신함으로 차별성을 확보했다.

560) 김준연, 「唐代 送別七律 常用詩語 研究」, 『中國文學』 第41輯, 한국중국어문학회, 26면 참조.

다음으로 위로와 격려의 수사로서 부임에 대한 명분을 제시한 사례들이다. 조선은 고려에 비해 중앙 집권이 한층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것은 비록 임기가 정해져 있으며 향후 다시 중앙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권력과 문화의 중심에서 멀어진다는 불안감이 존재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지방으로 부임하는 인물들에게는 그 직위와 관계없이 여러 방식으로 위로와 격려의 표현들을 송별시 내에 삽입하였다.

두 번째 양상인 만시도 송별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대·문화적 상황으로 인해 양산되고 있었다. 상장례의 보편화로 인해 만장(挽章)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만시의 창작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만시는 애도의 대상별로 분류해 살펴보았는데, 관료와 현달하지 못한 인물, 여성이 바로 그것이다. 가장 일반적이면서 의례적인 작시가 많았던 대상으로, 대표적인 수사 방식은 칭양을 위주로 죽음이라는 사실과 거리를 두고, 망자의 생전 삶의 긍정적인 면모에 집중함으로써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만시의 기본적인 역할인 위로의 기능을 수행했다. 다음으로 현달하지 못한 인물들에 대한 만시에서는 망자 및 유족과의 인연을 서두에 배치함으로써 작시의 당위성을 확보해 의례적 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는 이후 서술되는 내용들이 상투적인 문자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망자의 생전 삶이나 죽음으로 인한 상황 중 특히 슬픔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부분을 들어 제시했다. 이는 추상적인 조의를 표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유족들의 슬픔 중 특정 부분에 공감하면서 위로하고자 한 의도였다. 마지막으로 만시에서의 여성은 개인적·주체적인 측면보다 아내, 며느리,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국한된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처럼 규범화 된 여성에 대한 인식은 부덕(婦德)으로 포괄할 수 있는 가치평가를 통해 문면에 드러났다.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서술의 주류(主流)로 망자인 여성보다 남편과 자식 등 유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돋보였다. 망자를 중심으로 한 칭양이 드러난 경우도 있었는데, 희생이 수반되어야 하는 내조와 순종적인 면모에 대한 것, 여성의 역할을 잘 수행해 그 위상을 인정하는 것 등이다. 특히 칭양의 경우는 타인의 언급이나 평가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설득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4장에서는 사적으로 지은 시를 통해 홍주원을 한 사람의 시인이자 개인의 측면에서 자의식이나 자아에 초점을 맞춰 그의 내면이 시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홍주원의 자의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고독이다. 먼저 고독을 홀로 인식하고 표현하면서 내적으로 침잠시킨 것들이다. 이러한 양상의 시들에서는 자신의 쓸쓸한 상황을 묘사한 후,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언급한다. 홍주원은 위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부재에 대한 대체재로 주로 자연물을 선택했다. 그러나 자연물은 인간사와 관계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인간과 달리 감정 없이 자연스럽게 존재만 하고 있는 사물을 대체재로 선택한 결과는 오히려 고독감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독을 해소할 수 있는 타자의 부재는 시인으로 하여금 그 대체재로 자연물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해소하고자 하던 의도와 달리 내적으로 고독을 감내한 결과는 결국 고독감의 심화로 이어졌다.

두 번째 양상으로 고독을 표출하면서 회인(懷人)하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는 고독감을 느끼는 자신의 상태를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심리가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 객체는 일반적인 회인시에서처럼 특정인을 지칭하기도 하고, 불특정한 존재로서의 인간인 경우도 있었다. 먼저 ‘인간’ 자체를 그리워한 경우에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사색을 통해 관계에 대한 사유로까지 확장되기도 하였다. 또한 객체가 특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물을 비롯한 전고에 의탁하여 감정을 형상화하고자 했다. 반면에 특정인이 그리움의 대상일 경우에는 객체가 명확한 만큼 그리움의 정서가 보다 확실하게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그 감정을 우회적·우의적인 방법을 통하기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세 번째로, 꽃과 술을 매개로 타인들과 교류하며 고독에 대처한 양상의 시들을 살펴보았다. 꽃과 술과 시는 홍주원이 근심에서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했다. 이 요소들은 향유의 대상으로 각각 애호하기도 했지만, 함께 했을 때 상승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꽃을 감상하는 술자리에서의 작시가 대표적인데, 결국 이는 타인과의 연결고리이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

을 했다. 이를 통해 잠시나마 고독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으며, 또한 향후 만남에 대한 기대감은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고독에 이어 살펴본 부정적 자의식은 자조(自嘲)와 운명론적 관점이다. 기본적으로 유자로서 발전 가능성 없이 부마라는 신분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신분의 한계에서 기인했다. 이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스스로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이 아닌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표출되었다. 그 양상으로 은거나 강호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술을 통해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지향에는 자신을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범부(凡夫)로 치부한 자기 비하적 의식도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자조적 자의식의 일환으로 운명론적 관점에 기반한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기본적으로 현실에서의 고난을 비롯한 근심 등 불만족 등이 작시의 동인이 되었다. 특히 출처나 신세, 병, 생사 등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와 같은 의식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모두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으로,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운명론적 관점이 개입된 것이다. 홍주원은 이를 통해 자기 위안이나 일시적으로 정신적인 회피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갈등 해결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무력감을 유발해 담담한 어조가 많았으며, 이는 곧 적극적인 극복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소극적이고 관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상으로 본고의 논의를 개괄하여 정리했다. 그러나 미처 다루지 못한 과제 및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면서 끝맺고자 한다. 본고는 그간 문인으로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부마에 집중했다. 특히 부마는 그 신분의 특성상 해이해지기 쉬운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학적·문화적으로 굼직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홍주원은 부마의 선발 기준이 엄격하게 바뀐 시기의 인물이라는 점이나, 개인의 문학적 능력으로나 연구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본고는 일부 인물에 집중되었던 부마 연구에 한 가지 사례를 더해 부마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향후 여러 부마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거시적인 차원에서 부마의 삶과 문학에 대한 지평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한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 문헌

- 강명관. (1995), 「16세기 말 17세기 초 擬古文派의 수용과 秦漢古文派의 성립」, 『韓國漢文學研究』 18권, 한국한문학회.
- 강창구. (2013), 「李白 送別詩의 意象考」, 『中國人文科學』 第55輯, 중국인문학회.
- 강혜선. (2006),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0권, 한국한시학회
- 곽은정. (2015), 「柳夢寅 漢詩에 보이는 ‘蓬’을 통한 자아 형상화」, 『동양학』 59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구지현. (2017), 「無何堂 洪柱元의 중국 사행시 전개 양상」, 『열상고전연구』 제60집, 열상고전연구회.
- 국사편찬위원회(1995), 『한국사』29, 탐구당문화사.
- 금산군지편찬위원회(2011), 『錦山郡誌』, 금산군지편찬위원회.
- 김기림. (2012), 「『공사견문록』의 여성유형과 여성생활사 측면에서 본 의의」, 『東洋古典研究』 48권, 동양고전학회.
- 김동건. (2013), 「조선 후기 회인시(懷人詩)의 인물형상화 방식-김석준(金奭準)의 회인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6권 제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문준. (2021), 「시남 유계의 도학적 경세사상」, 『유학연구』 56권,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 김성기. (2006), 「17세기 韓國漢詩史의 構圖」, 『韓國漢詩研究』 14권, 한국한시학회.
- 김성기. (2008), 「朴長遠의 문학관과 시 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한국한시학회.
- 김용태. (2005), 「玉樹 趙冕鎬 漢詩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 (2002), 「高麗 中期의 駙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2005), 「樂全堂 申翊聖의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 (2007), 「東陽尉 申翊聖의 駙馬로서의 삶과 문화활동」, 『열상고전연구』 26권, 열상고전연구회.
- 김은정. (2008), 「宣祖와 駙馬의 시문수창 연구」, 『열상고전연구』 28권, 열상고전연구회.
- 김은정. (2009), 「玄洲 尹新之의 생애와 시문학 연구」, 『韓國漢詩研究』 17권, 한국시학회.
- 김준연. (2004), 「唐代 送別七律 常用詩語 研究」, 『中國文學』 第41輯, 한국중국어문학회.
- 김진욱. (2016), 「栗谷 李珣 輓詩 研究」, 『문화와 융합』 제38권 5호, 한국문화융합학회.
- 김진욱. (2017), 「梅泉 輓詩의 文藝美 研究」, 『한국시가문화연구』 제40집, 한국시가문화학회.
- 김창룡. (2012), 『우리 이야기 문학의 재발견』, 태학사.
- 김창원. (2007), 「‘중앙-지방’의 권력과 17세기 어부가(漁父歌)의 갈등 구도」, 『국제어문』 40집, 국제어문학회.
- 김풍기. (2012), 「北渚 金鑾의 한시 연구」, 『한국인물사연구』 18권, (사)한국인물사연구회.
- 김희자. (1996), 「月沙 詩論 研究」, 『東方詩話論叢』, 학산조종업선생정년퇴임기념논총발간위원회, 태학사.
- 남궁달. (2004), 「元天錫의 漢詩에 나타난 孤獨의 樣相」, 『한문고전연구』 제8집, 한국한문고전학회.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9), 『漢韓大辭典』 第2卷.
- 리상호 옮김. (2004), 『열하일기』, 보리.
- 박건영·이원규 역. (1993), 『韓非子』, 청아출판사.
- 박성호. (2009), 「九堂 朴長遠의 詩世界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종훈. (2008), 「楚亭 朴齊家 詩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종훈. (2019), 「조선 후기 聯作 懷人詩의 사적 흐름과 제 양상」, 『온지논총』 제58집, 온지학회.

- 박준호. (2000), 「輓詩에 대한 一考察 -惠寔 李用休의 작품을 위주로-」, 『東方漢文學』 19집, 동방한문학회.
- 박찬수. (2012), 「兼山 俞肅基의 詩文 考察」, 『어문연구』 74권, 어문연구학회.
- 박현경. (2021), 「孝宗의 駙馬 鄭載崙(1648~1723)의 『公私見聞錄』 편찬과 그 의미」,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숙. (2000), 「조선의 梅花詩」, 『한국한문학연구』 26집, 한국한문학회.
- 배종석. (2012), 「梅泉 漢詩의 抒情的 特徵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소통 편저. (1983), 『文選』, 다운샘.
- 손여임. (2015), 「月沙 李廷龜의 漢詩文學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유진. (2014), 「愚伏 鄭經世의 輓詩를 통해 본 죽음의 形象化 方式」, 『퇴계학과 유교문화』 54권,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 손혜리. (2013), 「성해응 문학에 표출된 고독의 양상과 의미」, 『漢文學論集』 37권, 근역한문학회.
- 신범식(2010), 『백곡 김득신의 문학과 문학세계』, 박문사.
- 신상필(2016), 「정재륜(鄭載崙)의 『감이록(感異錄)』을 통해 본 조선후기 필기의 전개 양상과 새로운 지표(들)」, 『코기토(Cogito)』 80권,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신승훈(2002), 「前後七子の 受用과 朝鮮中期 文苑의 反響」, 『동양한문학연구』 17집, 동양한문학회.
- 신익철(2004), 「18세기 매화시의 세 가지 양상」, 『한국시가연구』 15집, 한국시가학회.
- 신익철. (2015), 『조선의 매화시를 읽다』, 글항아리.
- 신채용. (2009), 「영조대 탕평정국과 부마(駙馬) 간택」, 『朝鮮時代史學報』 51권, 조선시대사학회.
- 신채용. (2017), 『조선왕실의 백년손님』, 역사비평사.
- 신채용. (2019), 「효종대 정국과 駙馬 간택」, 『朝鮮時代史學報』 90권, 조선시

대사학회.

안나미. (2010), 「17세기 전후 韓中 문학교류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안대희. (1998), 「18세기 漢詩史 序說」, 『한국한시연구』 6권, 태학사.

안대희. (2000), 『韓國 漢詩의 分析과 視角』, 연세대학교 출판부.

안대희. (2016), 「漢詩史 서술의 제문제」, 『한국한문학연구』 64권, 한국한문학회.

안병학. (1988), 「三唐派 詩世界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병학. (2000), 「朝鮮中期 唐詩風과 詩論의 展開 樣相」, 『한국문학연구』 창간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유명석. (2017), 「昆侖 崔昌大의 輓詩 研究」, 『고전과해석』 31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유영봉. (2013),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의 시문(詩文)에 깃든 가족사(家族史)」, 『한문학보』 29권, 우리한문학회.

윤세순. (2014), 「18세기 사대부 지식인 유만주의 고독」, 『漢文學論集』 제38집, 근역한문학회.

윤인현. (2014), 「고려·조선 儒者의 輓詩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제56집.

윤재환(2013), 「玉洞 李湊의 輓詩를 통해 본 朝鮮朝 輓詩의 一 樣相」, 『韓民族語文學』 제65집, 한민족어문학회.

윤재환. (2017), 「17세기 초 대명 해로사행의 해상 사행시」, 『한국문학과 예술』 제22집,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윤호진 역주. (2017), 『무하당시문집』, 민속원.

윤호진. (2017), 「無何堂 洪柱元의 시세계」, 『남명학연구』 제57집, 남명학연구회.

이강옥. (2007), 「일상의 경험을 통한 일화의 형성과 그 활용: 정재륜(鄭載崙)의 공사견문록(公私見聞錄)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5권, 국문학회.

이남면. (2011), 「鄭斗卿 挽詩 研究」, 『大東漢文學』 제35집, 대동한문학회.

이명희. (2013), 「月沙 李廷龜의 漢詩 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희. (2015), 「백주 이명한 한시 연구」, 『한문학논집』 제40집, 근역한문학회.
- 이명희. (2016), 「月沙 李廷龜家系の 文學 傳承 研究」, 『어문연구』 제90집, 어문연구학회.
- 이명희. (2018), 「현주 이소한의 한시 연구」, 『어문연구』 제98집, 어문연구학회.
- 이미선. (2015), 「1749년(영조 25) 和緩翁主와 부마 鄭致達의 가례」, 『한국사학보』 58호, 고려사학회.
- 이미진. (2015), 「조선초 장두체(藏頭體) 및 옥연환체(玉連環體)의 창작방식에 대하여」, 『인문연구』 제75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상균. (2016), 「조선후기 강원감영의 후원조영(造營)과 신선세계」, 『문화재』 49집 3권, 국립문화재연구소.
- 이상우. (2013), 「무하당 홍주원의 『燕行錄』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우. (2019), 「無何堂 洪柱元의 漢詩 일고찰-晩年の 시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76집, 동양고전학회.
- 이상우. (2019), 「연행록 속 교유시의 양상과 의미-李時萬과 洪柱元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제40집, 한성어문학회.
- 이석우. (1989), 「月沙詩 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민. (2007), 「汾西 朴瀾의 <西京感述>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25권, 열상고전연구회.
- 이성민. (2008), 「汾西 朴瀾 文學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유경. (1984), 「朝鮮初期의 駙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이은봉. (2018), 「조선시대 婦權의 존재 양상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73집, 동양고전학회.
- 이은영. (2001), 「조선초기 제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주. (2010), 「黎浩 朴弼周의 시에 나타난 고독감과 극복양상」, 『한국한시작가연구』 14권, 한국한시학회.
- 이정화. (2000), 「退溪 李滉의 挽詩 研究」, 『韓國思想과 文化』 제9집, 修德

文化社.

- 이종묵. (2000), 「16-17세기 漢詩史 연구: 詩風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정시문화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희영. (2011), 「遁村 李集 한시의 일 양상-隱逸생활과 관련하여」,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16,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 임준철. (2003), 「漢詩 意象論과 朝鮮中期 漢詩 意象 研究: 林悌·車天輅·權 鐸·鄭斗卿」,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준철. (2006), 「游俠詩의 類型的 傳統과 17세기 朝鮮詩壇의 游俠詩」, 『한문교육연구』 26권, 한국한문교육학회.
- 장진엽. (2017), 「『무하당유고(無何堂遺稿)』 이본의 비교 검토」, 『열상고전연구』 60집, 열상고전연구회.
- 장현국. (2019), 「고려와 조선시대 부마 비교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송열. (2001), 『朝鮮 前期 漢詩史 研究』, 이회문화사.
- 정구복. (2007),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신라사 인식」, 『신라사학보』 제10호, 신라사학회.
- 정민. (1996), 「16·7세기 學唐風의 性格과 그 風情」, 『한국한문학연구』 19권, 한국한문학회.
- 정선용 역. (1998), 『국역 잠곡유고』, 민족문화추진회.
- 정후수. (1987), 「李尙迪의 〈懷人詩〉考」, 『한성어문학』 6권, 한성어문학회.
- 주영아. (2011), 「朴世堂 挽詩의 흐름과 표현 양상」, 『東方學』 제21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 최금옥. (1997), 「陳師道 送別詩의 敘情性和 精練美」, 『中國文學』 第28輯, 한국중국어문학회.
- 최병철. (2008), 「晚洲 洪錫箕의 시세계」, 『장서각』 20권, 한국학중앙연구원.
- 최운정. (2003), 「象村 申欽 문학에 나타난 여성 형상」, 『동양고전연구』 제18집, 동양고전학회.
- 최재남. (1997), 『韓國哀悼詩研究』, 경남대학교출판부.
- 표가령. (2018), 「玉坡 申弼永의 「冽上紀行絶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정승. (2012), 「고려후기 挽詩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목은 이색의 시를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50집, 동방한문학회.
- 하정승. (2012), 「정몽주 시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圃隱學研究』 10집, 포은학회.
- 하정승. (2013), 「이승인의 挽詩類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韓國漢詩研究』 21호, 한국한시학회.
- 하정승. (2017), 「藥泉 南九萬의 한시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동양한문학연구』 제47집, 동양한문학회.
- 한충희. (1996), 「朝鮮初期 儀賓 研究」, 『조선사연구』 5, 조선사연구회.
- 허운진. (2017), 「희망의 유산(遺産) -혜환 이용휴 만시(挽詩) 연구-」, 『韓國詩歌文化研究』 40집, 한국시가문화학회.
- 한재훈. (2012), 「北渚 金瑬의 인물과 경세관」, 『한국인물사연구』 18권, (사)한국인물사연구회.
- 황수연. (2002), 「17세기 ‘祭亡室文’과 ‘祭亡女文’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제30집, 한국한문학회.

## 2. 자료

- 姜栢年, 『雪峯遺稿』
- 權近, 『陽村集』
- 權尙夏, 『寒水齋集』
- 金瑬, 『北渚先生集』
- 金壽恒, 『文谷集』
- 金昌協, 『農巖集』
- 未詳, 『薊山紀程』
- 朴長遠, 『久堂先生集』
- 宋相琦, 『玉吾齋集』
- 宋時烈, 『宋子大全』
- 宋浚吉, 『同春堂集』
- 申景濬, 『旅庵遺稿』



申翊聖,『樂全堂集』  
柳宗元,『龍城錄』  
尹鳳九,『屏溪集』  
尹鳳朝,『圃巖集』  
尹宣舉,『混定編錄』  
尹新之,『玄洲集』  
尹拯,『明齋遺稿』  
李景奭,『白軒先生集』  
李肯翊,『燃藜室記述』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  
李端夏,『畏齋集』  
李敏敍,『西河集』  
李商殷,『李商殷詩集』  
李植,『澤堂集』  
李安訥,『東岳先生集』  
李殷相,『東里集』  
李宜顯,『陶谷集』  
李瀾,『星湖僿說』  
李廷龜,『月沙集』  
鄭斗卿,『東溟集』  
趙綱,『龍洲遺稿』  
曹文秀,『雪汀詩集』  
韓愈,『韓昌黎集』  
洪柱元,『無何堂遺稿』  
許穆,『眉叟記言』

『古文眞寶』

『論語』

『史記』

『三國遺事』

『承政院日記』

『詩經』

『莊子』

『周易』

『晉書』

『韓非子』

『後漢書』

### 3. 기타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부 록

### 〈洪柱元 年譜〉

| 연도          | 나이 | 내용  |
|-------------|----|---|
| 1606(선조 39) | 1  | 8월 23일, 출생  |
| ??          | ?? | 李廷龜 및 金瑬의 문하에서 수학(7~8세 때 시작한 것으로 추정).                         |
| 1623(인조 1)  | 18 | 9월, 宣祖의 駙馬로 간택되고 崇德大夫 永安尉가 되다.<br>12월, 貞明公主와 혼례를 하고 安國坊에서 살다. |
| 1624(인조 2)  | 19 | 李适의 난이 일어나 慈殿을 호종, 그 노고로 光德大夫가 되다.                            |
| 1625(인조 3)  | 20 | 丁亥月 丁亥日 甲辰時, 장남 홍태망 출생.                                       |
| 1627(인조 5)  | 22 | 江華에 호종하다.   |
| 1628(인조 6)  | 23 | 2월 20일, 홍주원과 이정귀가 역적의 입에 자신의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로 죄줄 것을 청하는 소를 올림.    |
| 1631(인조 9)  | 26 | 1월, 成祿大夫가 되다.   |
| 1632(인조 10) | 27 | 祔廟禮 때 終獻官의 공으로 加資되다.  |
| 1635(인조 13) | 30 | 전염병으로 딸을 잃음.  |
|             |    | 홍만희(洪萬熙, ~1670) 출생  |
| 1636(인조 14) | 31 |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호가하다.<br>虜陣에 가서 內弟 李端相을 찾아 데리고 오다.               |
| 1637(인조 15) | 32 | 환도하여 綏祿大夫가 되다.  |
|             |    | 겨울, 중국 칙사가 서울에 있을 때 남별궁의 연회에 참석.                              |
|             |    | 아들 홍태량(洪台亮) 출생. 무卒.   |
| 1638(인조 16) | 33 | 부친이 6월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사신행을 면하는 상소를 올림.                         |
| 1639(인조 17) | 34 | 옥사가 있었는데 홍주원의 집안 여복이 연루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5년간 두문불출.        |
|             |    | 아들 홍태육(洪台六) 출생. 무卒.   |
| 1641(인조 19) | 36 | 1월, 첫째 아들 홍태망 사망.   |
|             |    | 딸 홍태임(洪台妊) 출생.  |

|             |    |  |
|-------------|----|--|
| 1643(인조 21) | 38 | 7남 홍만회(洪萬恢, ~1709) 출생.   |
| 1645(인조 23) | 40 | 4월, 부친상.<br>외삼촌 이명한, 이소한 사망.   |
| 1646(인조 24) | 41 | 세 번째 누이 동생(32세) 사망   |
| 1647(인조 25) | 42 | 10월, 謝恩使로 연경에 가다.  |
| 1648(인조 26) | 43 | 2월, 復命.<br>淸나라에서 時憲曆을 가지고 와 새로운 역법의 시행을 건의.  |
|             |    | 아들 홍만형이 감시(監試)에 합격하여 고양으로 소분(掃墳)하러 갈 것을 요청하는 소를 올림.  |
| 1649(인조 27) | 44 | 5월 15일. 어머니의 병환으로 사신에서 체직시킬 것을 요청한 소를 올림.  |
|             |    | 5월, 告訃請諡請承襲正使로 副使 金鍊, 書狀官 洪璵 등과 연경에 가다.  |
| 1650(효종 1)  | 45 | 氷庫提調가 되다.  |
| 1651(효종 2)  | 46 | 2월, 인조의 祔廟都監提調와 永思殿 獻官이 되다.  |
|             |    | 다리의 병으로 인해 祔廟都監提調를 사직하기를 청하는 소를 올림.  |
|             |    | 冊禮尊崇都監提調에서 물러나는 소를 올림.   |
|             |    | 다리의 병으로 永思殿 獻官을 면하기를 구하는 소를 올림.<br>효종이 윤허하여 체직되어 교체.   |
|             |    | 아들 홍만용이 소과에 합격하여 고양으로 소분(掃墳)하러 갈 것을 요청하는 소를 올림.  |
| 1652(효종 3)  | 47 | 윤신지와 제조를 면하고자 하는 연명소를 올림   |
|             |    | 氷庫提調로서 낭료들이 파직당하자 그들을 변호하고 제조인 자신을 교체할 것을 요청하는 소를 올림.  |
| 1653(효종 4)  | 48 | 윤7월, 사은사로 부사 尹絳, 서장관 林葵 등과 연경에 가다.<br>11월, 復命.   |
| 1654(효종 5)  | 49 | 2월 18일. 樂靜齋 趙錫胤, 久堂 朴長遠이 國事를 말하다가 귀양 가자, 상소하여 변호. 임금이 부마로서 국법을 범하였다고 하여 파직시키다. 의정 정태화와 김익희가 아뢰어 서용되어 원래 봉해졌던 지위를 회복. |

|             |    |  |
|-------------|----|--|
| 1655(효종 6)  | 50 | 7월, 모친상.   |
| 1656(효종 7)  | 51 | 8월, 둘째 누이 사망   |
| 1657(효종 8)  | 52 | 선친의 묘소 이장.<br>아우 홍주후 사망  |
| 1661(현종 2)  | 56 | 2월, 陳慰兼進香正使로 연경에 가다.<br>6월, 復命.  |
| 1662(현종 3)  | 57 | 봄. 홍만형 대과 합격.<br>禁飮을 어기고 聞喜宴을 열어 파직 당하다.<br>다리병이 심해져 학슬풍에 이르렀음.<br>1662년 6월 18일 서용.<br>겨울. 홍만회. 정시에서 장원              |
| 1665(현종 6)  | 60 | 홍주원의 노비 임생이 살인을 하여 형조로 보냈는데, 이송 중 도주하였고 도주한 뒤 집(홍주원의 집)에서 편히 지낸다는 전라감사 민유중의 계문으로 인해 이를 해명하는 상소를 올림.                  |
| 1667(현종 8)  | 62 | 1월, 두 아들이 급제하여 축하연을 열고 음악을 성대하게 베풀어 推考되다.  |
|             |    | 병으로 거동문안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아울러 병세를 자세히 기록하여 직명 및 겸관하는 조지서 제조의 임무를 면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를 올림.                                    |
| 1668(현종 9)  | 63 | 高陽 高峯山 선영에 齋舍 ‘追遠堂’을 짓다.<br>8월, 왕의 溫陽 온천 행행에 隨駕하다.<br>9월, 〈溫泉隨駕還來後因病陳疏〉를 올리다. 병으로 직명 및 겸대하고 있는 제조의 직임을 면하게 해줄 것을 요청. |
| 1670(현종 11) | 65 | 둘째 아들 홍만형(洪萬衡)卒. 초상에서 발인까지 영결을 못하였고, 첫 기년에도 나아가 곡을 하지 못함.  |
| 1671(현종 12) | 66 | 병이 심하여 여러 공무에 나아갈 수 없기에 녹봉을 사양하는 소를 올리다. 아울러 직명 및 겸대하고 있는 造紙提調도 면해줄 것을 요청.   |
| 1672(현종 13) | 67 | 9월 14일, 卒. 임금이 禮葬을 명하고 棺材를 내리다.<br>11월, 坡州 梧里洞에 장사 지내다.  |
| 1681(숙종 7)  |    | 12월, ‘文懿’로 시호를 받다.   |

# ABSTRACT

## A Study on the Chinese Poems Written by Yeonganwi Hong Joo-won

Lee, Sang-Woo

Major in Korean Literature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life of Yeonganwi (永安尉) Hong Joo-won (洪柱元: 1606-1672), one of the sons-in-law of King Seonjo (宣祖)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ems he wrote in Chines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when selecting the king's sons-in-law, persons from low social status and class were selected so that they would not be bound by their status. In addition, the selection of a person as the king's son-in-law means that he is permanently severed from the possibility to realize the ideal of Confucian scholars called 'Su-gi-chi-in' (修己治人: Cultivate oneself first to govern others) in that he cannot



participate in political affairs anymore, while high status and material wealth are guaranteed. For this reason, the king's sons-in-law often led an indolent life, and naturally, there were not many of them who left cultural and literary achievements. However, in the time of King Seonjo's reign, the conventional criteria to select royal sons-in-law changed, and they must be outstanding persons with an excellent literary talent too. Hong Joo-won was also well recognized for his literary competence in his time and in the generations to come. Nevertheless, no full-scale study of his literature has been carried out up to now.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Hong Joo-won, who was the king's son-in-law and at the same time showed extraordinary talent in Chinese poetry, and continued with his creativity for the rest of his life.

Prior to the analysis of his work, this study considers his life, his relationship with his teachers, and his friendship in order to understand the literary background of the Chinese poetry he wrote. Regarding his life, this study examines in more detail by supplementing partially known facts with records that were scattered around. Regarding the relationship with his teachers, this study does not simply make conclusions based on the records of the people of the time, but tries to compare and analyze the works of Lee Jeong-gwi (李廷龜) and Kim Ryu (金瑬), who are known as Hong Joo-won's teachers, to find out the degree of influence and affinity. Next,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that had a literary influence on Hong Joo-won besides the teacher-disciple relationship, this paper discusses some of the figures with whom he interacted.

For a more specific and vivid view of Hong Joo-won's Chinese poems, this study divides his works into the public aspect of his life as the king's son-in-law and the aspect as a poet and individual. First, there are farewell poems (送別詩) and elegies (挽詩), which are genres of

Chinese poetry he had to write for formal occasions due to his status of the king's son-in-law. The farewell poems are composed of objective information and formal suggestions without revealing the personal evaluation of the person's appointment as there was no personal acquaintance with the person. Yet the poems shows efforts to secure novelty and distinction by appropriately selecting and combining these aspects to avoid becoming cliché. Elegies can be categorized by the object of mourning, and it is unique in that there are many elegies about women and people who are not generally seen as socially successful and renowned figures.

Regarding the works that depicted Hong Joo-won himself as a poet and individual, this study focuses on his self-consciousness and self-image to look into how his inner self is portrayed in his poems. His self-consciousness was generally negative. One aspect was loneliness. Sometimes he withdrew into solitude, and sometimes expressed his loneliness in the form of longing for someone. This could be an act of accepting loneliness, and sometimes he coped with loneliness by interacting with others through the medium of flowers or alcohol. Other aspects of his negative self-consciousness were self-depreciation and fatalistic outlook on life. It is an attitude that stems from the limitation that his status is bound to continue without the possibility of social or political achievement as a Confucian scholar. This attitude continued throughout his life, as he recognized that there was no possibility of overcoming the gap between his ideal and reality on his own. Hence, he revealed his intention to live in seclusion amid nature's scenery, and sometimes tried to escape reality by resorting to alcohol. Behind this tendency is a self-deprecating consciousness that regards himself as an ordinary man who has achieved nothing. As an expression of this self-abasement, he came to write works based on a fatalistic outlook on

the world. Basically, his poetry was motivated by dissatisfaction with reality such as hardships and anxieties he suffered. In particular, such thoughts were expressed when he was faced with situations that were difficult to overcome through personal strength, such as the impossibility to get appointed to a government office, the predicament he was in, illness, the problem of death. These series of events were all conflicts caused by external factors, and a fatalistic point of view intervened in the process of acknowledging and accepting them. This was part of a way to get away from the situations for a while to comfort himself or temporarily avoid the conflicts. The incidents were not easy to solve, causing him to feel helpless, which led to a calm tone in the poetry. He also took a passive and contemplative stance without showing a positive will to overcome them.

This thesis is an analysis of the life of Hong Joo-won, the son-in-law of the king and a talented man of letters who left over 2,000 Chinese poems, and the characteristics of his poems. This study confirms that in terms of being a person in the King Seonjo's reign, when the criteria to select king's sons-in-law became stricter, or in consideration of the literary prowess, Hong Joo-won was a man who was talented enough to dispel the preconceived notions and prejudices that there are no outstanding figures among king's sons-in-law.

#### 【Keywords】

Hong Joo-won (洪柱元), king's son-in-law (駙馬), Bumadowi (駙馬都尉: king's son-in-law), Yeonganwi (永安尉), Muhadang (無何堂), the 17th century, formality (儀禮性), self-consciousness